<< 영웅문 2 부 -- 신조협려 >>

*** 그릇된 연정(戀情), 피를 부르다 ***

한가닥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물안개 자욱한 호면(湖面)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노랫소리는 조그만 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배 위에는 5 명의 소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연(蓮)을 따고 있었다.

노랫가락은 다름아닌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의 한 사람인 구양수(歐陽修)가 지은 <접연화(蝶戀花)>로서 월나라 여인이 연을 따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곡조는 겨우 60 자에 지나지 않지만 계절과 시간, 장소와 배경, 그리고 월나라 여인네들의 용모와 의상, 장신구와 심정 등이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으며, 특히 후반부의 서사적 배경 묘사와 서정성으로 그 은근한 멋을 더해주고 있었다.

구양수는 강남에서 오랫동안 관리를 역임하며 오나라 월나라의 산수와 정감 등을 그의 곡조에 모두 실어 놓았다. 송나라 사람들은 고관대작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노래를 좋아하여, 그의 새로운 노랫가락에 파묻히곤 했다. 봄철의 버드나무 늘어진 강가나 가을철의 연을 채취하는 호숫가에서도.

때는 남송, 이종(理宗) 황제년간. 가흥(嘉興) 지방의 7 남호(南湖).

중추절이 가까와지자 연잎은 점차 시들고 열매는 알차게 익어갔다.

이 노랫소리는 호숫가의 한 여도사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 오랫동안 묵묵히 서 있었다. 저녁 바람이 그녀의 노란 도포자락과 목에 두른 천에 가볍게 부딪쳤다. 노랫소리는 점점 멀리서 들리고, 이어 바람소리와 함께 계집애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날려왔다.

여도사는 길게 탄식을 하며 왼손을 들어 선혈이 낭자한 손바닥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무엇이 저리도 좋을꼬! 계집애들은 무춘灌諛殷노래만 부를 줄 알지 가사에 담긴 그리움의 아픔이나 애절한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여도사의 10여장 뒤에 청포를 입은 수염이 긴 노인이 미동도 없이 줄곧 서 있었다. 이 노인 역시 노랫소리를 듣자 극히 가벼운 탄식을 하였다.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사람은 간 곳 없고

옛정은 꿈같이 공연히 애간장을 태우네

조그만 배는 벽옥 같은 호면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갔다. 배에 탄 5명의 소녀 중 한 명은 15,6세 가량 되었으며, 다른 두 명은 겨우 아홉 살정도 되어 보였다. 이들은 사촌간으로 언니의 이름은 정영(程英), 동생은 육무쌍(陸無雙)이었다.

나이가 많은 세명의 소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연잎 사이로 배를 저어 나왔다.

[애, 저 사람 좀 봐. 아직까지 그냥 서 있네.]

정영이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소곤거렸다.

사내의 머르는 봉두난발에 수염도 고슴도치마냥 어지럽게 나 있었다. 나이는 얼핏 짐작이 가지 않지만 온통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로 보아 거의 7,80의 노인네 같았다. 몸에는 남색 천을 걸치고 목에는 어린 애들이 사용하는 턱받이를 하고 있었다. 턱받이에는 이미 낡아 해진 자수 한 점이 수놓여 있었다.

[저 괴한은 어째 꼼짝달싹하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저렇게 서 있을까?]

육무쌍의 말을 받아 정영이 말했다.

[괴한이라 하지 말고 아저씨라 불러. 괴한이라고 불렀다가 화를 내면 어떡하니?]

[괴한이 뭐 어떻다고 그래 ? 저렇게 늙었는데 애들처럼 턱받이를 달고 있잖아. 화가 나서 수염을 모두 곤두세우면 정말 보기 좋겠는

걸.]

육무상이 웃으며 배에서 연실 하나를 집어들어 괴한의 머리위에다 던졌다.

괴한과의 거리는 꽤 떨어져 있었다. 육무쌍의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손의 힘이 대단해 한번 던졌다 하면 백발 백중이었다. 정영이 소리쳐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연실은 괴한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그 괴한은 얼굴을 들어 연실을 받아 물고 혀로 말아 으적으적 씹어먹기 시작했다.

5명의 소녀들은 그가 씨도 뽑아 내지 않고 시큼털털한 연실을 껍질이건 씨건 몽땅 먹어치우는 것을 보자, 멍하니 서로 쳐다보다간 이내 깔깔대며 웃더니 배를 저어 가까이 다가갔다.

정영이 가까이 다가가 7 옷깃을 잡고는 말했다.

[아저씨,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연실 하나를 꺼내 들어 10여 개의 씨를 발라 내고 파란 껍질을 벗겨 쓴 맛이 나는 속을 비운 후, 괴한의 손에 건네주었다. 괴한은 몇 입 씹어 보더니 맛이 향긋한 게 아까 먹은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듯이 정영을 향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영이 연실 몇 개를 더 건네 주자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고는 한바탕 씹어먹더니,

[나를 따라오겠느냐 ?]

하고 말하며 서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육무쌍이 정영의 손 7 을 잡아끌며 말했다.

[언니, 우리 같이 가요.]

같이 왔던 3명의 소녀들은 덜컹 겁이 나서 황망히 소리쳤다.

[빨리 집에 돌아가자. 멀리 갔다가 공연히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육무쌍은 입술을 쭉 내밀더니, 정영의 손을 뿌리치고 괴한의 뒤를 좇아갔다. 괴한은 벌써 저만큼 앞서 가고 있었다.

정영은 동생과 함께 놀러왔다가 동생 혼자 돌아가게 할 수 없어서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세 소녀들은 비록 나이는 몇 살 위지만 모두 겁이 많아 따라가지는 못하고 괴한과 정영, 육무쌍이 뽕나무 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괴한은 걸음이 무척 빨라 두 소녀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자, 몇 차례나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졌는지 갑자기 몸을 돌려 한 손에 한 명씩 겨드랑이에 끼고는 나는 듯이 달렸다.

두 소녀는 귓가에 바람소리만 휑하니 들릴 뿐 길가의 바위덩이나 나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육무쌍은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내려 줘요! 빨리 내려 줘요!]

괴한은 들은 척도 않고 더욱 빨리 달렸다.

육무쌍은 머리를 들어 그의 손가락 끝을 힘껏 깨물어싸. 그러나 딱딱한 손가락이 이에 닿자 도리어 아프기만 할 따름이어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죽어라 하고 그녀는 소리를 질러 댔다.

그러나 정영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괴한이 문득 두 사람을 땅에 풀썩 내려놓았다. 그곳은 바로 무덤가였다. 정영의 조그만 얼굴이 놀라움으로 창백해졌고 육무쌍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정영이 말했다.

[아저씨,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갈래요.]

괴한은 한 마디 말도 없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괴한의 눈빛에서 애잔하고도 처량한 표정이 흘러나오는 것을 얼핏 보았다. 정영은 자신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일어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다시 호숫가로 오세요. 연실을 따서 드릴께요.]

괴한은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아아 십 년, 십 년 동안 아무도 나와 놀아 주지 않았어.]

괴한의 눈빛이 갑자기 흉폭스럽게 변하더니 거칠게 말했다.
[하원군(何沅君)은 ? 하원군은 어디로 갔어 ?]
정영은 갑자기 그의 얼굴색이 바뀌자 두려워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 난……, 몰라요.]
괴한은 정영의 팔꿈치를 잡아 나꿔 그녀의 몸을 몇 차례 거칠게 흔들고 나서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원군은 ?]
정영은 너무 놀라 눈물이 준에 그득한 채, 울려고 해도 끝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다.
괴한은 이를 갈며 말했다.
[울어 봐 ! 물어 보란 말야. 왜 울지 못하지 ? 흥 ! 너는 십 년 전에도 이랬지. 네가 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을 막자 나와 이별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 내 은혜는 못 잊을 것이라며. 나와 이별하는 심정이 몹시 괴롭다고 말했었지. 그러나 그게 모두 속임수인 개소리였어. 네가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면 왜 울지 못하지 ?]
그가 험상궂게 정영을 노려 보았다.
정영은 그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지만 눈물만은 끝내 떨구지 않았다.
괴한은 정영의 몸을 힘껏 흔들었다. 정영은 입술을 꽉 깨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울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흥 ! 나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도 떨굴 수 없단 말이로군. 한 방울의 눈물조차도 아깝다면 내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
갑자기 정영을 내려놓더니 두 다리를 구부려 몸을 움츠리며 옆에 있던 묘비를 받아 버렸다. 퍽, 하는 소리와 동시에 괴한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육무쌍이 소리쳤다.

[언니, 빨리 도망가요.]

정영의 손을 붙잡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정영은 몇 발자국 못가 그 괴한의 머리에서 피가 콸콸 흐르는 것을 보았다.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저러다 아저씨가 죽으면 어쩌지. 잠깐 가서 보자꾸나.]

정영이 말했다.

[죽으면 귀신으로 변하는 것 아냐 ?]

육무쌍이 말했다. 정영은 한차례 혼이 난 후라 그가 귀신이 될까 두렵기도 했고, 또 그가 갑자기 깨어나 다시 자기를 잡고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자 불쌍해졌다.

[아저씬 귀신이 아냐.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는 나를 잡지 못할 거야.]

하고 나직하게 중얼거리면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아저씨 ! 아저씨 !]

괴한은 신음소리만 낼 뿐 대답이 없었다. 정영은 용기를 내어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닦아 냈다. 그러나 너무 강하게 부딪쳤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 손수건은 금방 빨갛게 피로 물들었다. 정영이 왼손으로 상처 윗부분을 힘껏 누르자, 얼마 후 피는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다.

괴한은 가볍게 눈을 떠 정영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를 구해서 어쩌자는 거냐 ! 그냥 깨끗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정영은 그가 정신이 드는 것을 보자 너무 반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아프지 않아요 ?]

괴한은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말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야.]

정영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머리를 부농餉쬡이렇게 상처가 심한데 어째서 머리는 안 아프고 마음이 아플까 ?)

그러나 더 이상 묻지 않고 허리띠를 풀어 상처를 정성스레 묶어 주었다.

괴한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말했다.

[이제 영원히 다시 못 볼 텐데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한단 말인가. 나를 위해 정녕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단 말이냐 !]

그의 상심어린 말과, 피가 묻어 끔찍스럽게 보이는 얼굴이지만 애원에 가득 찬 눈빛을 보자, 정영은 마음이 아려 오는 것을 억누를 수 없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괴한은 그녀의 눈물을 보자 환희와 비애가 뒤엉킨 얼굴빛을 짓더니 그만 어엉,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영은 그가 슬피 우는 것을 보자 자신의 뺨 위에도 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정영은 가볍게 두 손을 뻗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육무쌍은 두 사람이 기묘하게 부여잡고 우는 모습을 보자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아 내지 못하고 호호호, 하고 웃어 댔다.

괴한이 웃음소리를 듣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다.

[그래, 입으로야 영원히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쉽게 말하지. 그러나 일단 나이가 들면 전에 했던 말은 모두 잊어버리곤 새로 만난 인물만 기억할 뿐이야.]

그는 머리를 숙여 정영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맞다, 맞어 ! 너는 바로 아원이로구나. 이제 다시는 그놈에게 보내지 않을 테다.]

라고 말하면서 정영을 꼭 끌어안는 것이었다.

육무쌍은 그의 얼굴빛이 흥분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깔깔대며 웃을 수 없었다.

[아원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이젠 아버지랑 영원히 함께 사

는 거야.]
[아저씨, 우리 아빤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래. 하지만 나는 네 양아버지7란다. 아직도 모르겠니 ?]
[난 양아버지가 없어요.]
[아원아. 너는 양어버지조차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냐 ?]
괴한은 험상 둚게 그녀를 밀쳐냈다.
[아저씨, 정신차리세요. 나는 정영이란 말예요. 아원이 아니고요.]
[뭐라고 ? 아원이 아니라고 ?]
괴한은 멍하니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더니,
[음, 이십여 년 전 아원은 꼭 너만 했지. 지금은 이미 장성했겠지. 장성하자 이 애비는 필요 없게 돼 버렸던 것이야.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육전원(陸展元)이란 놈뿐이었지.]
육무쌍이 아, 하고 낮게 [illegible]
괴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육전원을 알고 있구나. 그렇지 ?]
[당연히 알지요. 우리 큰아버지인걸요.]
괴한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육무쌍의 양팔을 나꿔잡았다.
[그……, 그놈이 있는 곳이 어디냐 ? 어서 그리로 가자.]
육무쌍은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미소가 감돌았다.
[큰아버지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살아요. 정말로 찾아갈 거예요 ?]
[그야 물론이지. 내 요 삼일 내내 가흥에서 그를 찾아 헤맸지. 그놈을 찾아서 끝장을 봐야 한다. 얘야, 같이 가면 네게 해를 끼치지는 않으마.]
말투가 부드러워지면서 손을 놓아 주었다.
육무쌍은 오른손으로 왼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너무 아프게 잡아서 큰아버지가 어디에 사는지 그만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
괴한은 두 눈썹을 곤두세우고 발칵 화를 내려고 하다가, 이처럼 어

린 계집아이 하나 속이는 게 뭐 어려우랴, 하는 마음으로 추한 얼굴에 곧 억지웃음을 띄었다.

[이 할아버지가 나빴다. 내 잘못을 빌마. 오오 착하지. 대신 사탕을 주마.]

그러나 한 손을 품안에서 꺼내지 못하는 걸 보니 사탕이 없는 것 같았다.

육무쌍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사탕도 없고 사람을 속이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네요. 좋아요. 말하겠어요. 큰아버지는 바로 저쪽에 계셔요.]

육무쌍은 손가락으로 멀리 두 그루의 커다란 회화나무를 가리켰다.

괴한은 긴 팔을 뻗어 두 아이를 겨드랑이에 끼더니 회화나무를 가리켰다.

괴한은 긴 팔을 뻗어 두 아이를 겨드랑이에 끼더니 회화나무를 향해 비호같이 달려갔다. 그는 시냇물 따위는 단숨에 뛰어넘었다. 순식간에 세 사람은 회화나무 옆에 도달했다. 괴한이 두 아이를 회화나무 밑에 내려놓자 회화나무 밑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두 개의 무덤이 눈에 들어왔다. 묘비 위에는 <육공전원지묘(陸公展元之墓)>, 6 자가 씌어져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육문하부인지묘(陸門何夫人之墓)>, 7 자였다. 무덤가의 푸른 풀들이 무릎께까지 차올라 있는 걸로 보아 고인은 꽤 오래 전에 안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괴한은 멍하니 묘비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육전원 이놈이 그럼 죽었단 말이냐 ! 그렇다면 언제 죽었단 말인가.]

육무쌍이 웃으며 대답했다.

[돌아가신 지 삼 년이나 됐어요.]

[잘 죽었지. 잘 죽었어. 내 손으로 직접 그놈의 목을 거두지 못한 것이 애석하지만 말이야.]

그는 말하면서 앙천대소했다.

웃음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에는 온갖 비분과 애수가 서려 있어 전혀 즐거워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버드나무 가지의 풀잎 사이로 엷은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육무쌍이 정영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언니, 집에 가요.]
[그놈이 죽었는데 아원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데리고 가야지. 애야 가자. 가서 죽은 네 큰아버지의 마누라를 찾아야겠다.]
[아니, 아까 못 보았어요 ? 큰 엄마도 돌아가셨잖아요 ?]
육무쌍이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괴한은 펄쩍 뛰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방금 한 말 너 거짓말이지 ? 걔가, 그애가 죽다니…… !]
육무쌍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큰엄마도 따라서 돌아가셨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나는 잘 몰라요. 정말이에요 !]
괴한은 가슴을 치면서 고함을 질렀다.
[그애가 죽다니 ? 아니다. 내 얼굴도 아직 못 보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십 년 후에 너를 보러 오겠다고 말했었는데 어찌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냐 !]
그는 상처받은 범처럼 날뛰다가 갑자기 발을 들어 오른쪽에 서 있는 회화나무를 난폭하게 차 흔들었다. 정영과 육무쌍은 손을 꼭 잡고 멀찌감치 떨어져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그가 회화나무를 부여잡고 힘껏 흔들어 대자 나무는 곧 뽑혀질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 회화나무는 줄기가 굵고 가지가 무성해서 쉽사리 뽑혀지지는 않았다.
[네 입으로 말한 것을 설마 잊은 것은 아니겠지 ! 나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냐 말이다. 어째서 약속만 해 놓곤 실행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괴한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 갔다.
그가 웅크리고 앉아 두 손에 기를 모으기 시작하자 머리 위로 열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구부렸던 몸을 홱 펴면서 일갈을 토해 냈다. 그러나 나무는 뽑히지 않았다. 치이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의 중간이 부러져 두 토막이 날 뿐이었다.
[죽었구나, 죽었어 !]
그는 난 동강 난 회화나무를 끌어안고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돌연 나무를 들어올려 냅다 내던졌다. 마치 공중에 우산을 편 것 처럼 반 동가리 나무는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는 묘비 앞에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다.
[그래, 하부인이 바로 아원이지.]
눈이 희미해지더니 모비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한 명은 꽃을 쥐고 미소를 짓는 눈이 맑은 소녀이고, 또 한 명은 큰 키에 신수가 훤한 소년이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네놈이 내 귀여운 딸을 유괴해 간 놈이지 ? 내 네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오른쪽 식지를 뻗어 곧장 눈앞에 보이는 소년의 명치를 맹타했다. 돌연 식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팠다. 원래 손가락은 묘비를 때렸고, 그 소년의 모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손가락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화가 치밀었다.
[이놈, 어디로 도망갔느냐 ?]
계속 좌장을 격출시켰다. 일장에 두 발. 파바박, 하는 소리와 함께 묘비 위에 명중되었다. 휘둘러 대면 댈수록 화가 치밀어 장력은 점점 매서워졌다. 10여 장 휘둘러 대자 손바닥에는 벌써 피가 배어 났다.
정영이 보다 못해 소리쳤다.
[아저씨 ! 그만 하세요. 공연히 손만 아프세요.]
[괜찮다. 내 손은 아프지 않다. 내 육전원 이놈을 때려 잡고야 말겠

다.]
그는 낄낄거리며 웃더니 돌연 웃음을 멈추고 멍하니 있다가 소리쳤다.
[네 얼굴이라도 봐야지. 네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괴한은 두 손을 뻗어 송곳 같은 열 손가락을 하부인의 무덤가에 찔러 넣어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두 손바닥이 부삽처럼 오르락내리락 한움큼씩 파들어갔다.
정영과 육무쌍은 그만 겁에 질려서 약속이나 한 듯이 몸을 돌려 달아났다.
그는 정신없이 묘를 파느라고 소녀들이 달아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둘이 한바탕 달리면서 몇 차례 뒤돌아보았지만 괴한이 좇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다.
그들은 길을 잘 몰라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깜깜해진 후에야 겨우 육가장(陸家莊) 대문에 닿을 수 있었다.
육무쌍이 소리소리 지르며 대문을 밀쳤다.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 빨리 와 보세요. 미친 사람이 큰아버지, 큰엄마 묘지를 파헤치고 있어요.]
대청으로 뛰어들어가자 아버지 육립정(陸立鼎)은 고개를 들고 멍하니 담벼락을 바라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정영도 대청에 들어서서 육무쌍과 함께 그의 시선을 따라 살펴보니 담 위에 세 줄의 장인(掌印)이 찍혀 있었다. 위에 2 개, 가운데 2 개, 아래에 5 개, 모두 9 개였다. 장인 하나하나가 모두 핏빛으로 시뻘겋다.
육립정은 딸애의 놀란 목소리를 듣자 황망히 물었다.
[너 이제 방금 뭐라고 그랬느냐 ?]
[미친 사람이 큰아버지 큰엄마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어요 !]
육립정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
[이모부 ! 정말이에요.]

정영이 옆에서 말했다.

육립정은 자기 딸애는 하도 영악한 장난꾸러기에다 이상한 짓을 곧잘 하지만 정영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찌 된 일이냐 ?]

육무쌍은 방금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육립정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벽에서 단도를 꺼내들고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묘지를 향해 뛰쳐나갔다.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묘지가 다 파헤쳐져서 망가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목관도 이미 열려 있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묘를 파헤치고 있다는 딸애의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다지 놀라지 않았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관 속에 있어야 할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나무관 속의 석회가루와 종이, 헝겊 등만 어지럽게 흩엊져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살펴보니 관뚜껑 위에는 병기로 수없이 찍힌 자국이 뚜렷이 보였다. 비통한 마음속에서도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으나 딸애에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어느 놈이 형님과 형수님에게 큰 철천지한이 있어 그들의 시신을 훼손케 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수도 없어서 그는 방향도 없이 칼을 세워 들고 뛰기 시작했다.

그의 무공은 형 육전원이 전수해 준 것인데 성품이 담백하고 집안일에 충실해 강호에 나간 적이 없었다. 말하자면 실전의 경력이 전혀 없었으며 임기응변의 재주가 부족해서 시신을 훔쳐간 도둑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한 바퀴 빙 돌아보고는 다시 무덤 앞에 돌아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대청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정신나간 듯이 멍하니 벽 위이 9개의 혈수인(血手印)을 바라볼 따름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형님이 임종하실 때 이르셨다. 자신에게는 여도사인 적이 있다고.

이름은 이막수(李莫愁), 별명은 적련선자(赤練仙子)인데 무공이 매우 높고 난폭하며 손이 매섭다고 이르셨다. 형님이 결혼하신 후 십 년이 되는 해, 형님은 적련선자가 그들 부부를 찾아와 복수할 것을 예상했었다. 그 당시 형님이 말하기를…….

<내 병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련선자는 복수를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다. 다시 삼 년이 지난 후 적련선자가 복수를 하러 올 때는 너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네 형수가 멀리 피신하도록 일러야 한다.>

나는 당시 눈물을 머금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형수님께서 형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 자결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지.

형님이 돌아가신 후 삼 년, 바로 그 여도사가 복수하러 온다는 시기였지만 형수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복수할 대상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는데 그 여도사가 무엇하러 오겠는가 ?

형님은 그때 말씀하셨다. 그 여도사는 살인하기 전에 먼저 그 집의 벽이나 혹은 대문에 혈수인을 찍어 놓는데, 혈수인 하나당 한 명씩 죽인다는 것이다. 우리 집안에는 하인까지 합쳐 모두 일곱 명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그녀는 아홉 개의 수인을 찍어 놓았을까 ? 아아 그래.
그녀는 먼저 혈수인을 새겨 놓고는 나중에 형님 내외분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무덤을 파헤치게 시킨 것이야. 이…… , 이…… , 이 마두는 정말 지독한 악질이구나…… ,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이 아홉 개의 혈수인은 언제 새겨놓은 것일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떨었다.

그때였다. 등뒤에서 사르르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부드럽고 조그만 두 손이 그의 두 눈을 가렸다.

[아버지,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

이 말은 육무쌍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장난할 때 쓰던 말이었다.
그녀가 세 살 때 아버지의 두 눈을 가리고,

[아빠, 내가 누구지 ?]
하고 재롱을 떨어 부모들을 크게 웃긴 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아버지가 고민에 싸여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육무쌍은 으레 이 방법을 써서 그의 기분을 풀어 주곤 했었다. 아무리 육립정이 화가 나 있더라도 사랑하는 딸애가 이렇게 한 번 하면 이내 화가 풀어지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딸애와 놀고 싶은 심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육립정은 딸애의 두 손을 밀쳐 버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시간이 없다. 안에 들어가 놀아라 !]
육무쌍은 순간 멍해졌다. 어려서부터 끔찍이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일찌기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대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육무쌍은 조그만 입술을 꼭 깨물고는 계속 애교를 부리며 부친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대 하인 아근(阿根)이 총총 안으로 들어와 공손하게 아뢰었다.
[나으리,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육립정은 손을 휘저었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여라.]
[나으리 ! 나으리를 뵙자는 것이 아니라 길 가던 부인네인데 하룻밤만 묵자고 하옵니다.]
[뭐라고 ! 부인네라고 ?]
[이예 ! 훤칠하게 큰 두 아이를 데리고 있고요.]
육립정은 나그네가 두 아이와 함께라는 말을 듣자 다소 안심이 되었다.
[혹시 여도사는 아니더냐 ?]
아근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은 것을 보니 양가댁 부인 같았습니다.]
[좋다. 사랑방으로 모셔 편히 쉬도록 해 주고 음식 대접도 하여라.]
아근이 대답을 하고 물러가자 육무쌍이 뒤따라 달려갔다.

[나도 가서 봐야지.]

육립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적과 대적해야 좋을지 아내와 의논하려고 내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내 육이랑(陸二女良)이 벌써 대청에 들어와 있었다.

육립정은 혈수인을 가리키며 분묘가 훼손된 일을 말하였다.

육이랑이 이마를 찡그렸다.

[두 애들은 어디로 피신시키지요 ?]

육립정은 담 위의 혈수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아이들 둘까지 포함시켜 그놈의 마두가 혈수인을 찍어 놓았으니 쉽사리 애들을 숨길 수 있을까 걱정이오. 우리 두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헛된 무공만 쌓아 온 셈이오. 그놈이 내 집에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었으니……,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

육이랑이 흰 담벼락을 쳐다보고 있자니 그 9개의 혈수인이 점점 커지고 점점 붉어져 금방이라도 벽에서 튀어나올 듯이 보였다. 육이랑은 그만 아아,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의자 등걸이를 붙들며 비틀거린다.

[왜 아홉 개나 되지 ? 우리 집안에는 모두 일곱 명뿐인데…….]

그녀는 이 두마디를 내뱉고는 수족에 힘이 쫘악 빠져 버리며 금방 눈물이라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다 보았다. 육립정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부축한다.

[여보, 일이 목전에 다다랐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윗줄에 있는 두 개의 혈수인은 형님과 형수님을 노리는 것이고, 아래의 두 개는 자연히 우리 내외를 뜻하는 것이고, 세번째 줄의 두 개는 육무쌍과 정영, 그리고 나머지 세개는 아근과 두 아두(阿頭)를 노리는 것이 아니겠소……, 이를 두고 바로 혈천만문(血賤滿門)이라 하는구나.]

[형님 내외는요 ?]

[이놈의 마두가 형님 내외와 어떤 철천지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형님 내외의 시신이라도 끝내 욕되게 하려는가 보오.]

[그럼 그 미친 놈은 바로 그녀가 시켜서 온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

[그렇지.]

육이랑은 남편의 얼굴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것을 보고는 어조를 부드럽게 한다.

[방에 들어가셔서 세수도 하시고 옷도 좀 갈아입으세요. 아무래도 좀 쉬셔야겠어요.]

육립정은 몸을 일으켜 아내와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 육씨 가문이 설사 오늘 끝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 사람은 죽어서라도 형님의 위명을 떨어뜨리지 맙시다.]

육이랑의 마음이 슬픔과 감동으로 뒤섞인다.

[당신 말씀이 옳아요.]

육립정은 비록 강호에 이름이 없지만 큰형인 육전원과 하원군 부부의 명성은 강호를 진동시켰던 터였다. 가흥 육가장의 명성은 무림에서도 가벼이 보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후원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동쪽 담엣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육립정이 급히 앞으로 나아가 아내를 가로막고 바라보니 담 위에 남자 아이가 앉아서 꽃을 따려고 하는 중이다. 담 구석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해 ! 떨어질라.]

정영, 육무쌍, 그리고 다른 남자 아이, 셋이서 담쪽의 화원 뒤를 지키고 있었다.

(이 애들은 남의 집에서 하룻밤 묵는 주제에 어찌 이렇게 장난이 심할까 ?)

육립정이 속으로 생각했다.

담 위에 올라선 소년이 꽃 한 송이를 땄다.

육무쌍이 소리쳤다.

[나 줘 ! 나 줘 !]

그 아이는 씩 웃더니 꽃을 정영에게 던졌다. 정영은 꽃을 받자 곧 동생에게 건네 주었다. 무쌍은 골이 나서 꽃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발

로 몇 차례 밟아 버렸다.

[흥, 누가 좋아할 줄 알고 ? 이젠 필요없어.]

육씨 부부는 한 차례 대혈전이 눈앞에 다가온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정영은 육무쌍이 꽃을 밟아 버리는 것을 보고 말했다.

[얘, 너 또 골이 났구나.]

육무쌍이 조그만 입술을 쭉 내밀었다.

[그 꽃은 필요없어. 내가 직접 딸 거야 !]

하며 팔짝 뛰어올라 꽃받침대 위로 늘어진 덩굴을 잡고 또 뛰어 오르니 금방 계수나무의 가지 위에 올라선다. 담 위에서 남자 아이가 손뼉을 치며 갈채를 보낸다.

[이쪽으로 와.]

육무쌍은두 손으로 계수나무 가지를 부여잡고 공중에서 몇 차례 흔들다가 손을 놓고 담 밑으로 뛰어내렸다.

그녀가 수련했던 경공은 보잘것없어 사실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육무쌍은 소년이 자기에게 먼저 꽃을 주지 않고 언니에게 준 데 대해 화도 났는데다가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호기도 좀 부리려고 높은 것을 개의치 않고 뛰어내린 것이다.

[조심해 !]

놀란 남자 아이가 얼른 손을 뻗어 잡으려 했다. 그가 손을 뻗지 않았더라면 육무쌍은 능히 담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 아이가 잡으려 하자 육무쌍은 공중에서 몸을 돌려 그의 손을 피하려고 했다.

[비켜 !]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는 기술은 극상승의 경공술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술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조차 흉내내지 못하는 기술을 어찌 이 조그만 여자 아이가 할 수 있겠는가. 몸을 획 뺐으나 그만 벽을 잡지 못하고 앗,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내렸다.

담밑에 서 있던 남자 아이는 그녀가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고는 잽싸게 달려와 그녀를 받았다. 담 높이가 한 장이 더 되니 육무쌍의 몸이 아무리 가볍다 해도 떨어지는 힘은 상당했다. 남자 아이는 육무쌍의 허리를 끌어안고 동시에 나가떨어졌다. 쿠웅, 하는 소리와 함께 육무쌍은 왼쪽 다리가 부러졌고 소년은 화단의 돌에 머리를 부딪쳐 금방 피가 솟아나왔다.

정영과다른 남자 아이는 이 광경을 보고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남자 아이는 천천히 일어나 이마의 상처를 눌렀다. 육무쌍은 기절해 버렸다. 정영이 육무쌍을 끌어안고는 소리쳤다.

[이모, 이모부, 큰일 났어요.]

육립정 부부가 고함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보니 두 애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 서쪽 방에서도 중년 부인이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육무쌍과 남자 아이를 끌어안고는 대청 가운데로 가서 남자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먼저 육무쌍의 부러진 다리를 맞춰 주었다. 육이랑은 수건을 꺼내 남자 아이의 머리를 묶어 주고 난 뒤, 딸애의 상처를 돌보았다.

그 부인은 육무쌍의 부러진 다리 안쪽의 백해혈(白海穴)과 무릎 뒤의 위중혈(委中穴)을 찍어눌러 통증을 멈추게 한 뒤, 두 손으로 부러진 다리를 잡고 접골을 시도했다.

육립정은 그녀의 손놀림이 매우 재빠르다는 것과 또한 그녀의 점혈 수법이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부쩍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

[부인은 뉘신지요 ? 저희 집에 왕림하신 무슨 특별한 까닭이 있으신지요 ?]

그 부인은 육무쌍의 접골에만 정신을 쏟은 나머지 그가 묻는 말은 건성으로 듣고 만다.

이때였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여자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육가 집안의 아홉 목숨을 취하려 하니 상관없는 나머지 사람은 빨리 꺼져라.]
접골을 막 시작하려는데 지붕 위에서 그 소리가 울려퍼지자 부인은 놀란 나머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비틀었다. 끄윽, 소리와 함께 육무쌍은 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모두들 머리를 들어 보니 지붕 한 귀퉁이에 소녀 도사 한 명이 서 있었다. 달빛에 번뜩거리는 그녀의 얼굴로 보아 나이는 15,6 세 가량, 등에는 장검을 꽂고 붉은 검술은 바람에 부딪쳐 소리를 내며 펄럭이고 있었다.
육립정이 소리쳤다.
[내가 육립정이다. 너는 이선고(李仙姑)의 문하생이렸다 !]
소녀 도사가 가볍게 맞장구를 친다.
[알아모시니 기특하구나. 어서 처와 딸애, 하인들을 죽이고 너도 자진해서 내 수고를 덜어 주려므나 !]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여유 있는 말을 내뱉는데 상대방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투였다.
육립정은 이 소리를 듣자 울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진신을 부르르 떨었다.
[에잇……, 요망한 것 !]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랐다. 위로 뛰어올라 한바탕 붙으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상대방은 나이도 어리고 또 여자인데 그녀와 상대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주저하고 있는 순간 어깨를 스치며 어떤 물체가 갑자기 지나쳐갔다. 그것은 하룻밤 묵어 가자던 그 부인이었다. 부인은 어느새 지붕에 올라가 장검을 부여잡고 소녀 도사와 싸우고 있었다.
부인은 회색빛 적삼을 입고 있었고 소녀 도사는 노란 도포를 걸치고 있어 밝은 달빛 아래에서 회색 그림자와 황색 그림자가 빙빙 춤추듯이 보였다. 세 개의 한광(寒光)이 어우러져 이따금 병기 부딪치는 소리가

튕겨져 나왔다.
 육립정의 무공은 형님에게 직접 전수받은 것이라 비록 실전 경험은 없었으나 보는 눈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두 사람이 주고 받는 검초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소녀 도사의 수중에 있는 장검이 수비에서 갑자기 공격으로 바뀌더니 이내 수비로 바뀌는 등 검법이 실로 대답했다.
 부인은 정신을 집중하여 수초를 퍼부었다. 갑자기 쨍, 하는 소리와 함께 2 개의 검이 서로 부딪쳤다. 소녀 도사가 쥐고 있던 장검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그녀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사부님의 명을 받들어 육가 가문을 말살하러 왔다. 당신은 누구이길래 남의 일에 끼여드는 것이오 ?]
 부인은 가볍게 냉소하였다.
 [네 사부에게 일이 있다면 당연히 육전원을 찾아 해결할 일이거늘, 이미 그가 죽은 것을 알고서도 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려 하니‥‥‥,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
 소녀 도사가 오른쪽 손을 휘둘러 3 개의 은침을 발사했다. 두 개는 부인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마당에 서 있던 육립정을 향해 발사되었다. 이번 공격은 뜻밖이었으므로 부인은 급히 검을 휘둘러 막아 버렸으며, 육립정은 화를 내며 두 손가락으로 은침을 잡아 버렸다.
 소녀 도사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몸을 돌려 지붕 밑으로 뛰어내리더니 발자국 소리도 약하게 사라져 버렸다.
 부인도 마당으로 사뿐 뛰어 내려왔다. 그 순간 육립정이 아직 수중에 은침을 들고 서있는 것을 보자 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버리세요.]
 육립정은 엉겁결에 은침을 던져 버렸다.
 부인은 급히 칼로 자신의 옷자락을 자르더니 곧바로 그의 오른 손목을 단단히 묶었다.

육립정이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이러십니까 ? 침에 독이라도 묻어 있었나요 ?]
[네. 극독무비(劇毒無比)한 독이지요.]
그러면서 품속에서 환약 한 알을 꺼내 그에게 복용시켰다. 육립정의 식지와 중지에 감각이 없어지더니 이내 퉁퉁 부어올랐다.
부인은 급히 칼끝으로 두 손가락의 중심을 긋자 시커먼 피가 방울방울 맺혀 나왔다.
육립정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내 손가락에 상처도 받지 않고 단지 한순간 은침에 닿았을 뿐인데도 이토록 지독한데, 만약 은침에 맞기라도 했다면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뻔했구나.)
그는 곧바로 부인에게 고맙다는 예를 갖추었다.
[태산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껏 존함도 여쭈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 어른의 이름을 무삼통(武三通)이라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무삼낭자셨군요. 듣자하니 무선배님은 운남성 대리의 일등대사(一燈大師)의 문하라 하던데, 사실인지요 ?]
[그렇습니다. 일등대사는 우리 집안의 사부님이시지요. 제가 집안에서 배운 천박한 무예로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듯 했으니 육선생님께서는 보시고 웃으셨겠군요.]
육립정은 부인에게 거듭 감사를 드렸다.
그는 일찌기 형님에게 듣기를, 평생 보아 온 무학(武學)의 고수들 중에서 대리에 사는 일등대사의 문하가 가장 대단하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일등대사는 원래 대리국(大理國)의 왕이었는데, 후에 어초경독(漁樵耕讀)의 4 대 제자를 데리고 중이 되어 피해 다녔었다. 그 중 경(耕)인 농부의 이름이 무삼통이었다. 형님과 다소 좋지 않은 일이 있더니 끝내 원수가 되었는데 확실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삼낭자는 자기와 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적련선자의 제자를 방금 내쫓아 주었으니 이러한 연유를 이해하기가 실로 어려웠다.
모두들 대청으로 들어갔다.
육립정은 딸애를 품안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고통을 참느라 애를 쓰며 끝내 울지 않는 모습을 보니 가엾기 짝이 없었다.
무삼랑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그놈의 여마두의 제자가 갔으니 이번에는 마두가 직접 올 것이에요. 육선생 ! 당신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 부부와 나까지 합해도 그 마두의 적수는 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도망을 쳐도 별 수 없으니 우리 하늘에 운명을 맡기고 여기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립시다.]
육이랑이 물었다.
[그 마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 우리 집안과 무슨 철천지한이 있길래·······.]
무삼랑이 육립정을 힐끗 바라본다.
[육선생이 당신에게 아무 말씀도 않으시던가요 ?]
[이 일은 그분 형님 내외분과 관련된 것으로 남녀간의 애정 문제까지 얽혀 있어 자기 자신도 확실히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무삼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쉰다.
[그랬군요. 나는 바깥 사람이니 말해도 무방할 거예요. 당신 형님인 육전원이 십여 년 전에 대리국에 갔었을 때랍 " 니다. 지금 무림계에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한 마두 적련선자 이막수는 그때만 해도 미모가 뛰어난 부드러운 처녀였지요. 그것도 전생의 인연이었을까. 그녀와 당신 형님은 서로 만나는 순간 깊은 사랑에 빠졌지요. 그러나 후에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당신 형님은 당신의 형수인 하원군과 결혼하게 됐지 뭐겠어요. 당신 형수에 대해 얘기하려면 부득불 졸부(拙夫)에 대한 일을 꺼내지 않을 수 없군요. 이 일을 말하기는 여간 창피한

노릇이 아니지만 오늘 사태가 이렇듯 긴박하게 됐으니 내 하던 말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원군은 우리 수양딸이라오.]

육립정 부부는 동시에 아, 하고 소리쳤다.

무삼랑은 상처를 입은 남자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촛불을 쳐다 보았다.

[당신 형수 하원군은 어려서부터 외롭게 자랐지요. 우리 부부가 수양딸로 삼아 지극히 귀여워하기 전까지에는 말예요. 후에 걔는 당신 형님을 알게 되자 서로 무섭도록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제 남편은 첫째, 그녀가 멀리 시집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둘째 강남 사람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 믿을 사람들이 못 되니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답니다. 그러나 그애는 몰래 당신 형님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었다오. 남편과 이막수가 동시에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신혼 부부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았겠어요. 연회석 가운데 마침 대리국 천룡사(天龍寺)의 고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손을 써 두 사람을 진압한 뒤 그 면전에서 신혼부부의 향후 십 년 동안의 평화를 보장해 주었던 거랍니다. 남편과 이막수는 당시 어쩔 수 없이 십 년 안에는 이들 신혼부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대답했지요.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이후 미친 듯이 생활해 왔답니다. 물론 그의 스승의 친구와 내가 어떻게든 진정을 시키려고 충고를 했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십 년 후의 날짜만 꼽고 있었어요. 손을 꼽아 보니 오늘이 바로 십 년째 되는 날이군요. 당신 형 "님과 그애가 죽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가엾은 것 ! 십 년간의 행복조차도 다 누리지 못하고서······.]

부인은 처연한 표정으로 머리를 떨군다.

[말씀을 듣고 보니 형님과 형수님의 시신을 갖고 간 사람은 바로 부인의 남편 되는 분이로군요.]

무삼랑의 얼굴에 참담한 빛이 역력했다.

[아까 두 아가씨가 애기하는것을 들어 보니 틀림없이 제 남편이에

요.]

육립정은 화가 치밀었다.

[당신 남편의 이러한 행동은 클게 잘못된 것이오. 원래 무슨 커다란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형님과 형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설사 철천지원수간이라 해도 이미 다 끝난 일이 아니겠소? 그런데도 그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다니……, 이 어찌 영웅 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렬로 따진다면 무씨 부부는 응당 존대를 받아야 마땅하건만, 육립정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존비의 예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무삼랑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육선생이 그렇게 질책하는 것이 옳아요. 남편은 심지가 굳지 못하고, 언어나 행동거지가 종종 사리에 맞지 않았어요. 내가 원래 오늘 두 애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남편이 여기 와서 부릴 행패를 막자고 해서 온 것이랍니다. 오늘날까짇도 나 한 사람만이 그가 두려워하는 존재이니까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두 아이에게 말하였다.

[여기 계신 육씨 내외분께 절하여 네 아비의 죄를 대신 사과하도록 해라.]

두 아이가 절을 하였다.

육이랑은 급히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나서 아이들의 이름을 물었다. 이마가 깨진 아이는 무돈유(武敦儒)라 하는데 형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무수문(武修文)이었다. 두애는 연년생으로서 각각 11세, 12세였다. 무학이 쟁쟁한 집안의 아이들이라 이름에 모두 학문을 뜻하는 문자를 취하고 있었다. 무삼랑의 말에 의하면 그들 부부가 중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무림 내의 어렵고 험난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식들만은 무학을 버리고 학문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아이는 무예를좋아하여 그들의 이름과는 서

로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무삼랑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숙연하게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말을 마치는 수밖에 없겠구나. 나머지 말은 차마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원래 하원군이 17,8 세의 미끈하고 교태가 사랑스러운 소녀로 자라났을 무렵, 무삼통의 그녀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의부와 수양딸의 정만이 아니었다. 그가 지닌 무림계의 호협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어떤 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할 수는 없었지만 내심으로는 늘 우울해 있었다. 그런데 돌연 그녀가 강남의 한 소년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자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강남 사람은 교활하여 남을 잘 속인다는 말을 한 것은 하원군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뿐만은 아니었다. 예전에 황용에게 속아넘어가 곽정 대신 황소와 바위덩어리를 어깨에 받쳐 들고 있게 되어 꼼짝달싹 못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후에 곽정 황용과 화해는 했지만 강남 사람은 교활하여 남을 잘 속인다는 그 인상만은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터였다.
 무삼랑이 또 말하였다.
 [남편이 나타날 줄이야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오히려 적련선자측이 나타나 소란을 부릴 줄이야…….]
 이때였다. 지붕 위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유야, 문아 ! 이리로 오너라.]
 기왓장 위의 발걸음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무삼통이 온 것을 알고는 육씨 부부는 잔뜩 긴장을 했다.
 정영과 육무쌍은 연실을 먹던 그 괴상한 사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자가 번쩍 하더니 무삼통은 몸을 날려 한 손에 한 명씩 두 아이

를 낚아 채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다.
 무삼랑이 소리쳤다.
 [여보, 여보 ! 육씨 내외를 만나 보시고 당신이 갖고 가신 두 구의
시신을 빨리 돌려주세요 !]
 무삼통은 상대도 하지 않고 멀찌감치 가 버렸다.

 *** 불타는 육가장(陸家莊) ***
 그는 한바탕 달려 숲속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무수문을 내려 놓았
다. 무돈유만을 데리고 휑하니 사라져 버려 작은 애 혼자만 숲속에 남
게 되었다.
 [아버지, 아버지 !]
 아버지가 형만 끌어안고는 이미 수십 장 밖으로 사라져 버리자 무수
문이 소리쳤다. 멀리서 아버지의 대답이 들려왔다.
 [기다려라. 다시 와서 데려가마.]
 무수문은 아버지의 행동이 전에도 기괴망칙했었기 때문에 그리 괴이
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깜깜한 밤중에 홀로 숲속에 남게 돼 비록 두
렵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곧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
겠다고 생각하며 나무 밑에 앉았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한테 가야겠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그는 왔던 길을 더듬어
가기 시작했다.
 강남의 시골 논두렁길은 종횡으로 나 있었으며 소로도 이리 꾸불 저
리 꾸불하여, 대낮에도 길 찾기가 수월치 않은데 하물며 깜깜한 밤중
임에랴 !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거였다. 수차례 논에 빠져 소년의 두
발은 완전히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잠시 후 소년은 조그만 수풀 속으
로 더듬어 들어섰다. 발 밑이 몹시 울퉁불퉁하여 아래를 살펴보았건만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다급해져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

이었다.

[아버지, 아버지이 ! 엄마, 엄마아 !]

적막한 밤중에 어느 누가 대답을 할 것인가 ! 우웡, 우웡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듣기로는 올빼미는 사람의 눈썹을 세어 보는 것을 제일 즐긴다는데, 만약에 올빼미가 정확하게 눈썹을 세는 날에는 바로 죽게 된다고 들은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침을 는썹에 발라 올빼미가 잘 세어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올빼미는 여전히 울어댔다. 그는 나무 줄기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두 눈썹을 가리고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심장이 쿵쿠웅, 마구 뛰었지만 잠시 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다.

날이 밝을 무렵, 머리 위에서 청량하게 들리는 새소리를 어렴풋이 느끼며 눈을 떴다. 두 마리의 커다란 흰 매가 하늘에서 선회하고 있었다.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그 길이가 한 장은 족히 넘음직했다. 그는 여지껏 이토록 커다란 매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눈을 크게 뜨고 혹시 놓칠세라 바라다보았다. 괴상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 소리쳤다.

[형, 빨리 와 봐 !]

그는 스 숲속에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같이 붙어 다녔던 형은 이미 자기 곁에 없었다.

갑자기 등뒤에서 또랑또랑한 계집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2마리의 매는 두어 번 원을 그리더니 이윽고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무수문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나무 뒤에서 여자 아이 하나가 공중에 신호를 하면서 걸어나오고 있었다. 2마리의 매는 가볍게 날개를 접고 그녀의 몸 옆에 내려앉았다. 여자애는 커다란 매의 등을 다정스레 다독거려 주며 무수문을 쳐다보았다.

[오오, 귀엽고 예쁜 수리 !]

무수문은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저 커다란 매는 바로 수리였구나.)

수리들은 머리를 들어 좌우를 살피는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 여자애

보다도 키가 더 컸다.
무수문이 다가서며 물었다.
[이 수리들은 너희 집에서 기르는 것이니 ?]
여자애는 조그만 입술을 삐죽이며 소년을 경멸하는 태도로 말하였다.
[너는 누구니 ? 너하고는 안 놀아 !]
무수문은 그냥 그렇게 여기고 수리의 등을 만졌다. 그때 소녀가 휘파람을 불자 수리는 돌연 왼쪽 날개를 흔들어 댔다. 무수문은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았고, 또한 수리의 힘이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순간적으로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무수문은 뒹굴 굴러 일어나서 수리를 쳐다보았다. 몹시 부러운 생각이 일었다.
[이 수리들 정말 신통하구나. 네 말을 잘 듣는구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도 수리를 잡아 달라고 해야겠다.]
[흥 ! 너희 아버지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
무수문은 계집애와 입씨름을 하기가 귀찮았지만 불쾌한 얼굴로 계집애를 쳐다보았다. 소녀는 담록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명주목걸이를 달고 얼굴색은 상아처럼 하얗게 빛이 났으며, 두 눈은 금방 눈물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초롱초롱했으며, 가늘고 긴 수려한 눈썹을 지니고 있었다.
무수문은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그녀가 몹시 예쁘다고 느껴 자신도 모르게 소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가 지나치게 도도한 것을 보자 슬그머니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소녀는 오른손으로 수리의 등을 어루만지며 무수문의 몸을 쫙 훑어보았다.
[이름이 뭐니 ? 왜 이런 곳에 혼자 놀러왔니 ?]
[무수문이야, 내 이름은.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

런데 네 이름은 뭐지 ?]

소녀는 대답 대신 코방귀를 뀌었다.

[흥 ! 난 싸돌아다니는 아이와는 놀지 않겠어.]

몸을 돌려 그냥 가 버렸다.

무수문은 갑자기 멍해졌다.

[난 싸돌아다니는 애가 아냐. 내 말 좀 들어 봐 !]

그는 소녀의 뒤를 따라가며 소리쳤다.

소녀는 자기보다 대략 두세 살쯤 적은 것 같았고 키도 작고 다리도 짧아서 뒤쫓으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막 경공을 전개하는 것을 보자 소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져 순식간에 벌써 수장이나 떨어져 그를 멀리 떨구어 냈다.

그녀는 다시 몇 걸음 달려간 후,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흥 ! 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애 ?]

[잡고야 말겠어.]

무수문은 급히 쫓아갔다.

소녀는 돌아보고는 냅다 달리다가 갑자기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무수문이 뒤에서 허겁지겁 다가와 가까이 오자 갑자기 왼 발을 그의 발에 재빨리 걸어 버렸다.

무수문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고꾸라질 뻔했다. 그는 황급히 철수장(鐵手杖)을 사용해 몸을 고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오른쪽 발이 그의 엉덩이를 강하게 차 버렸다.

무수문은 곧바로 나가 떨어져 튀어나온 돌부리에 코가 부딪쳤다. 코피가 흘러나와 옷 위에 점점이 피가 묻어 버렸다.

소녀는 피를 보자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럽기도 해서 그냔 도망치려고 했다. 그 순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부(芙)야, 너 또 사람을 괴롭혔구나. 그렇지 ?]

소녀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누가 그래요 ? 자기 혼자서 그냥 넘어졌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너 우리 아버지에게 허튼 소리 하면 그냥 안 놔 둔다.]

무수문은 코를 눌렀다. 사실은 별로 아프지 않았지만 손에 묻은 피를 보자 조금은 당황스러워졌다. 계집애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몸을 돌려 보니, 철장을 짚은 절름발이 노인네가 서 있었다. 서릿발같이 흰 귀밑털에 비쩍 여윈 몸, 두 눈이 하얗게 뒤집힌 것이 장님이었다.

그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나는 뭐든지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지. 애야, 지금 벌써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발뺌을 하려고 그러느냐 ?]

소녀가 다가가 그의 팔꿈치를 부여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 넘어져서 코피를 흘리는데 가서 치료 좀 해 주세요.]

노인은 한 발 다가가 왼손으로는 무수문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손가락을 뻗어 코 근방에 있는 문향혈(聞香穴)을 몇 차례 흔 들었다. 무수문의 코피는 이미 멈췄는데 이렇게 몇 차례 흔들자 코피가 완전히 멈추었다.

노인의 손가락은 마치 철봉처럼 길고 단단했다. 자기의 팔을 꽉 움켜쥐자 은근히 겁도 나고 해서 가볍게 흔들어 보았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곧바로 팔을 움츠렸다가 돌려 어머니한테 전수받은 금나수법(擒拿手法)을 사용했다. 손바닥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획 뒤집었다.

노인은 이 조그만 어린애가 이처럼 기묘한 수법을 써서 한 번 만에 잡았던 손을 놓치게 되자 으음,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곧바로 그의 손목을 다시 잡았다.

무수문이 다시 시도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도무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얘야, 두려워 말아라. 네 이름이 뭐지 ?]

[무수문입니다.]

[발음을 들어 보니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서 왔지 ? 아버지와 엄마는 ?]

말하면서 그의 손목을 놓아 주었다.

무수문은 어젯밤 내내 부모를 보지 못하여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일에 생각이 미치자 하마터면 울어 버릴 뻔했다.

소녀는 얼굴을 문지르며 그를 놀려 댔다.

[워리, 워리. 바둑아. 눈이 빨개진 것을 보니 울 것 같구나. 호호호, 재미있다.]

무수문은 분연히 소리쳤다.

[흥, 내가 울 줄 알고 !]

그는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육가장에서 적을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는 형을 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자기 자신도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고 헤맸던 일 등을 모두 말하였다.

그는 마음이 들떠 뒤죽박죽 설명을 하였지만 노인은 그의 말을 거의 알아듣는 눈치였다. 또한 그들이 대리국에서 왔으며 부친의 이름이 무삼통으로서 절기의 무공으로 <일양지(一陽指)>라는 것을 물어서 알아냈다.

[네 아버지는 일등대사의 문하렸다 !]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우리의 국왕을 아세요 ? 그를 만나 보셨나요 ?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무삼통은 당시 대리국(大理國) 공극제(功極帝)인 단지흥(段智興)밑에서 어림군 총독을 맡고 있었는데, 단지흥이 출가하여 법명을 일등(一燈)이라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무삼통이 두 아들과 옛 일을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우리 국왕>이 어쩌구저쩌구 하였기 때문에 무수문도 그를 가리켜 <우리 국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나도 인연이 없어서인지 그분을 만나 보지는 못하였구나. 남제(南帝)라는 대명은 옛부터 알고 있었지. 그 이름은 흠모를 일으키는 이름이지. 이 소녀의 부모가 전에 그분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단다.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셈이야. 너희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

[어머니와 육아저씨께서 말하는것을 듣자니 무슨 적련자, 무슨 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노인이 고개를 쳐들고 혼자 중얼거렸다.

[무슨 적련자라 ?]

갑자기 노인은 철장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적련선자 이막수라 하지 않더냐 ?]

[맞아요 ! 바로 적련선자라고 했어요.]

노인은 순간 안색이 신중해졌다.

[너희들 여기서 놀고 있거라. 한 발자국도 딴 곳으로 가면 안된다. 알겠느야 ? 내 좀 보러 가야겠다.]

[할아버지, 나도 가요.]

[나도 가요.]

노인이 급히 말했다.

[안 돼 ! 안 되고 말고, 너희들은 절대로 갈 수 없어. 그 여마두는 매우 흉악해. 나도 적수가 되지 못한단다. 하지만 친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안 이상 가지 않으면 안 되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철장을 짚고 선 노인은 절뚝절뚝거리며 바삐 걸어갔다.

무수문이 감탄해 마지않았다.

[저 할아버지는 눈도 멀고 다리도 저는데도 저렇게 빨리 달려 가다니.]

[저게 뭐 그렇게 신기하냐 ? 우리 아버지, 엄마의 경공술을 보면
그럼 너는 놀라서 까무라치겠구나.]

[너희 아버지, 어머니도 장님에 절름발이냐 ?]
소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리쳤다.
[흥 ! 이제 보니 네 아버지 엄마가 장님에 절름발이로구나.]
어느덧 날이 완전히 밝아 논에서는 벌써 농부들이 민요를 부르면서 논을 갈고 있었다.
노인은 본디 그곳 본토박이였기 때문에 두 눈이 비록 멀었지만 길을 훤히 다 알고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육가장 앞에 도착했다.
멀리서 병기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듯했다.
육전원 일가는 이곳 지방의 세도가였고, 노인은 일단의 시정배였다. 비록 다같이 가흥 지방의 유명한 무림인이었지만, 서로 왕래는 없었다. 또 자신의 무공이 적련선자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일등대사의 제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일등대사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 여럿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단연코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시 다리에 힘을 주어 문 앞에 당도했다.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 보니 지붕 위에서 네 사람이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병기와 기합소리가 교차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 쪽 편에서는 세 사람이, 다른 한 편에는 한 명이 있는 듯한데, 여럿이 적을 당해 내지 못하고 세 사람은 이미 패색이 짙어가는 듯했다.
지난밤, 무삼통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사라지자 육립정 부부는 그가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줄 헤아리지 못해 매우 괴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무삼랑은 오히려 희색이 만면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남편이 평소 미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상적인 사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요 ?]
육이랑은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이유를 묻자, 무삼랑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나도 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기다려 보면 곧

알게 되겠지요.]

이때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육무쌍은 부친의 품에 엎드려 깊이 잠이 들어 버렸다. 정영도 희미하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육이랑은 두 아이를 안고 방에다 편히 재우려고 하였다.

무삼랑이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옥상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위로 던져 !]

바로 무삼통의 목소리였다. 그가 경공술로 옥상에 온 것을 육씨 부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삼랑이 정영을 받아서 대청 입구로 가 위로 던지자, 무삼통이 팔을 뻗어 받아 안았다. 육씨 부부가 깜짝 놀라 괴이하게 여기는 순간 무삼랑은 또 육무쌍을 안아 던져 올렸다.

[무슨 짓이오 ?]

육립정이 급히 지붕 위로 올랐으나 사방이 칠흘처럼 깜깜해 이미 무삼통과 두 애들은 종적을 감추고 난 뒤였다. 그가 뒤쫓으려는 순간 무삼랑이 외쳤다.

[육선생, 쫓을 필요가 없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육립정은 반신반의하며 마당으로 내려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생각이오 ?]

이때 육이랑은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다.

[무삼통은 그 마두가 두 애들을 해칠까 봐 미리 그들을안전한 곳에 숨겨 두려는 것이에요.]

육립정의 의혹은 부인이 한 말에 의해 다소 풀렸다.

[그렇기도 하겠군.]

그러나 무삼통이 자기 형님 내외의 시신을 훔쳐간 일을 떠올리자 다시 안심이 되지 않앗다.

[남편은 하원군이 당신 형님에게 시집을 간 이후로는 계집아이만 보면 화를 내곤 했답니다. 댁의 천금 같은 두 애들을 잘 돌봐주기만 한다면 나도 바랄 것이 더 없답니다. 그가 처음 돈유와 수문이를 데리고 갈 때, 두 아가씨를 바라보는 눈망울과 안색에서 연민의 정과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가 예전에 원군이를 대할 때에도 언제나 그랬답니다. 과연 그가 다시 와서 두 아가씨를 데려갔으니, 아아, 그가 이제부터라도 심성을 돌려 다시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았으면 !]

무삼랑은 두어 번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두 분은 좀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 마두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미리 겁만 먹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짓에 불과해요.]

육씨 부부는 처음에 딸애와 이질녀의 안위를 걱정하여 마음이 떨리고 당황해서 행동에도 실수가 많았으나, 이렇게 막상 피신을 시켰다고 생각하니, 공포심은 점점 줄어들고 분노심은 더욱 커졌다.

두 사람은 몸에 암기용 병기를 갖추고는 대청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편히 가졌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된 지 10여 년. 평소에 가사 일을 의논할 때에도 의견이 서로 어긋나는 적이 별로 없었다. 육전원과 무삼랑이 이야기한 그 마두는 무공이 매우 강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대부분 도망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오늘 그 마두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산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 두 손을 서로 꼭 잡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고요한 적막을 깨고 갑자기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거리는 멀었지만 노래 가사는 또렷또렷하게 들렸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 본다. 정이란 무엇이기에 생과사를 가름하는지를 ?>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상당히 가까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당히 빨리 오는지 세째 귀절의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미 문 밖에 도착했다.

세 사람이 놀라 서로 쳐다보는 순간 퍼펑, 콰앙,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과 안쪽 문의 빗장이 모두 부러져 나갔다. 대문이 양쪽으로 쫙 열리더니 미모의 한 여도사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몸에 노란 도포를 걸친 적련선자 이막수가 온 것이었다.

아근이 마침 마당을 청소하고 있다가 나아가며 물었다.

[누구요 ?]

육립정이 급히 소리쳤다.

[아근아, 어서 비켜 서라 !]

그러나 아근이 어찌 비킬 수가 있단 말인가.

이막수가 불진을 휘두르는 순간 아근의 머리가 박살이 나서 소리도 못 지르고 즉사했다.

육립정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자 이막수는 몸을 살며시 옆으로 비켜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가며 불진을 휘둘러 두 하녀를 동시에 쓸어 버려 죽게 했다.

[두 계집애는 어디 있지 ?]

육씨 부부는 그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세 사람씩이나 죽인 것을 보고는 이를 악물고 검을 빼들어 좌우에서 협공을 했다.

이막수는 불진을 들고 공격을 하려는 순간, 무삼랑이 검을 들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외부인이 기어들었으니 집안에서 살인하기가 불편하렷다 !]

그녀의 음성은 가볍고 부드러웠다. 아리따운 자태에 맑은 눈동자, 새하얀 치아, 백옥 같은 피부, 정말로 빼어난 미인이었다.

순간 그녀가 어떻게 발을 움직였는지알아챌 사이도 없이 그녀의 몸은 이미 지붕 위에 가볍게 올라서 있었다. 육씨 부부와 무삼랑도 이어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막수는 불진을 가볍게 흔들어 병기 3개를 한꺼번에 쓸어 없애 버리고는 애교있게 말했다.
[육선생, 당신 형이 아직 살아 있어서 나에게 잘못을 빌고 또 하원군 그 계집애와 이혼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집안을 용서해 준다고 해서 나쁠 일도 아니련만, 당신들은 참으로 운이 나쁘군요. 내게 원망 말고 당신 형이 일찍 죽은 것을 원망하시오.]
육립정이 소리쳤다.
[요망한 것 ! 누가 네게용서를 빈단 말이냐 ?]
그가 칼을 휘두르며 쳐들어가자 무삼랑과 육이랑도 따라서 앞으로 협공을 가했다. 이막수가 살펴보니 육립정의 무공은 평범했다. 그러나 칼 쓰는 솜씨나 몸놀림이 완연히 옛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육전원의 모양과 흡사했다. 마음이 흔들리더니 잠시라도 그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졌다.
만약 손을 써서 그를 죽인다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강남육가도법(江南陸家刀法)을 볼 수 없게 된다. 닥치는 대로 대를 흔들어 3명의 적들이 자신의 몸 주위를 돌게 했다. 마음속에 정분이 끈질기게 남아 있어 출초(出招)도 그렇게 매섭지 못했다.
돌연 이막수는 가벼운 휘파람소리와 함께 지붕을 내려가 작은 시냇가에 철장을 손에 지닌 절름발이 노인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불진을 세워 노인의 목에 달라붙게 했다.
이 일초는 그녀의 발이 아직 땅에 닿기 전에 이루어진 일초로 불진은 벌써 상대방을 노리고 공격했다. 전혀 무방비 상태인 공중에서 매섭게 공격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노인은 적이 던진 일초를 정확히 듣고 철장을 비껴 들고는 그녀의 오른손목을 찔렀다. 철장은 무겁고 거북한 병기로서 휘둘러 부수는 데 용이한 병기였다. 그러나 노인이 <자(刺)>자 구결을 외자 철장은 칼처럼 변해 출초가 가뿐하고 날쌔졌다. 이막수가 불진을 가볍게 흔들어

은사(은사)를 뒤집어 철장의 끝을 감아 버리게 하고는 소리쳤다.
[손을 놓아라.]
차력의 힘을 써 불진에 있는 천만 개의 은사가 철장의 힘을 모두 끌어들였다. 노인의 팔이 심하게 떨려 하마터면 철장을 놓칠 뻔했다. 위기 중에서도 몸을 솟구쳐 공중에서 비스듬히 숨어 버려 그녀의 이 일초를 교묘하게 흐트렸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놀랐다.
(과연 이 마두는 명불허전(名不虛傳)이로군.)
이막수의 이번 일초는 원자상구(願者上鉤)에서 취한 태공조어(太公釣魚)로서, 적과 자신의 힘으로 인명과 병기를 빼앗는데, 원래 거의 실수가 없는 게 특징이었다. 그런데 그의 철장을 빼앗지 못하리라고는 어찌 생각이나 했을까. 오히려 상당히 의외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절름발이 노인이 대체 누구인가 ? 누군데 이 정도의 공력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
몸을 옆으로 가볍게 돌리자 그의 두 눈이 반백이 된 것이 보였다. 그가 장님이라는 것을 적련선자는 알아챘다.
[당신은 바로 가진악 !]
이 장님에 절름발이 노인은 바로 강남칠괴(江南七怪)의 우두머리인 비천편복(飛天蝙蝠) 가진악(柯鎭惡)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화산논검(華山論劍)에 참가한 이후에 황약사(黃藥師)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서 도화도(桃花島)에 돌아와 같이 살았다. 황약사는 성질이 괴팍해 시끄러운 것을 싫어했다. 딸과 사위와 함께 몇 달을 지내자 자신도 모르게 싫증이 났다. 어느날 황약사는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한거하고 싶다는 편지 한 통을 남겨 놓고는 표연히 섬을 떠났다.
황용은 아버지의 성질을 알고 있어서 만류하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처음 수 개월간은 아버지가 소식을 전해 왔으나, 떠난지 한 해가 지나자 어느덧 소식이 묘연해졌다.
황용은 부친과 사부인 홍칠공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남편과 함께 찾

아 나섰다. 두 사람은 강호를 수 개월간 돌아다니다가 부득이 다시 도화도로 돌아갔다. 황용이 어느덧 임신을 하였던 것이다.

그녀의 성질은 영악하고 괴이한 짓을 좋아하는 형이라 조금도 편리한 것을 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자 사방에 불편한 것 투성이라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자주 신경질을 내 곽정이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를 가진 여자는 성질이 까다로와지기 쉬운 법이라 그녀가 곽정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 무렵 그녀는 사사건건 일을 만들어 그와 다투기가 일쑤였다. 곽정은 아내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무리하게 싸움을 걸어올때면 항상 웃어 넘겨 버렸다. 황용이 몹시 신경질을 부릴 때라도 그는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여 환하게 웃게 만들곤 했다.

어느덧 10개월이 지나 황용은 딸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곽부(郭芙)라고 지었다. 그녀가 임신중이었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오히려 이상스럽게 불쌍히 여겨지고 뭐든지 제멋대로 하게 두었다.

이 여자아이는 한 살이 채 못 되었는데도 벌써 장난이 심했다. 곽정이 때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몇 마디 하면 황용이 더욱 싸고돌아, 곽정의 간섭으로 오히려 딸애를 더욱 느슨하게 해 주는 결과를 빚곤 했다.

곽부가 다섯 살 되던 해에 황용은 그녀에게 무예를 가르쳤다. 이때부터 도화도의 모든 짐승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깃털이 모두 뽑혀 벌거숭이가 되는 것은물론 꼬리도 싹뚝 잘려 나가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조용히 은사(隱士)가 거주하던 곳이 개구장이가 온갖 짐승들을 괴롭히는 장소로 변하고 말았다.

곽정은 무엇보다도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하기도 했지만 이 개구장이 딸애를 끔찍이도 귀여워했기 때문에 매번 딸애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혼을 내주려고 하다가도 번번이 하지 못하고 만다. 혼을 내주려

고 하면 딸애는 귀신 얼굴을 하며 자기의 목에 매달려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곽정은 한숨만 길게 내쉴 뿐 들어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도 황약사와 홍칠공 모두 전혀 소식이 없자 곽황 부부는 두 사람이 모두 연로한 것이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곽정은 대사부인 가진악을 몇 차례 찾아뵙고 도화도에 오셔서 여생을 보내시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가진악은 시정배 무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즐거워하였고, 도화도에서 쓸쓸하게 세월만 보내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곽정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었다.

그러던 어느날, 곽정이 모시지도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섬을 찾아온것이다. 근래 들어 그는 영 재수가 붙지 않아서 늘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되었는데,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던 터였다. 말하자면 도화도로 빚을 피해 온 것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사부를 보자 매우 기뻐하여 그를 섬에 오랫동안 사시도록 유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를 기쁘게 해 드리고 그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황용이 서서히 진상을 알아내어 몰래 사람을 시켜 스승의 도박빚을 갚아 주었다. 가진악은 전혀 몰랐으므로 감히 가흥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하고, 하는 일 없이 한가롭게 곽부의 놀이벗이나 되어 주었다.

몇 년이 또 흘러 곽부의 나이 벌써 아홉 살이 되었다.

황용은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잠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 어느날 곽황 부부는 섬을 나가 황약사를 찾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진악이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함께 가려 했으므로 곽부도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네 사람이 섬을 떠난 후, 행선지를 이야기해야 했을 때 가진악이 말했다.

[어느 곳이든 좋지. 그러나 가흥만은 못 가 !]

황용이 웃음을 지었다.

[대사부님 !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그빚은 제가 벌써 갚았는걸요.]
가진악이 크게 기뻐하며 먼저 가흥부터 가려고 했다.
가흥에 이르러 네 사람은 주점에서 묵었다. 가진악이 옛 친구들에게 물어 보니, 며칠 전 청포를 입은 노인 혼자서 안개비 내리는 주루에서 술을 마시는 걸 보았다고 한다. 용모에 관해 들어보니 황약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였다.
곽정과 황용은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가흥성 안팎을 샅샅이 뒤졌다.
그날 아침, 가진악은 곽부를 데리고 수리 두 마리를 갖고 숲에서 놀다가 뜻밖에도 무수문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가진악은 이막수와 수초를 서로 교환한 후, 자신이 그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마두의 무공은 왕년의 매초풍(梅超風)에 뒤지지 않는 것 같구나.)
방금 던졌던 복마장법(伏魔杖法)으로 힘들게 출입문을 지켰다.
이막수도 속으로 생각했다.
(예전에 육가라는 양심도 없는 작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가흥 지방의 선배들 중에는 강남칠괴가 있는데 무공이 상당히 강하고 한 명의 제자를 거두어들였는데 바로 곽정이라는 대협객이라는 자였지. 이 노인네가 바로 강남칠괴의 우두머리라더니 과연 전해 오는 명성이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그는 장님에 절름발이이고 나이가 들어 몸도 쇠약할 텐데 나와 십여 초를 거뜬히 받아 겨루다니…….)
육씨 부부가 크게 기합소리를 내며 무삼랑과 함께 이막수의 몸 뒤에서 공격을 해 왔다.
(가진악 노인을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곽씨 부부가 그를 찾아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싸움이 어려워지니 오늘은 그를 쫓아내기만 하면 되겠구나.)
불진을 들어올려 은사를 빳빳이 곤두세워 단장처럼 가진악의 가슴을 향해 찔러들어갔다. 이 불진사는 비록 부드러운 물건으로 되어 있지만

교묘한 기술을 사용하여 각 요해대혈을 노리고 찔러 들어갔는데 그 기세가 상당히 매서웠다.
가진악은 철장으로 땅바닥을 한 번 구르더니 뒤로 물러섰다. 이막수가 한 발 다가서며 계속 공격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뒤로 획 몸을 돌려 쳐다볼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녀의 부드러운 허리를 이용하여 몸을 돌려 뒤를 보니 무삼랑과의 거리가 2척도 안 되었다.
부삼랑은 깜짝 놀라 급히 좌장을 그녀의 이마를 향해 휘둘렀다.
이막수는 허리를 가볍게 흔들며 한송이 국화가 바람에 가볍게 떨리는 것처럼 이미 피해 버렸다. 곧이어 손바닥을 한 차례 흔들더니 그 순간 육이랑의 배에 적중을 시킨다.
육이랑은 앞으로 3,4 발자국 가량 나가더니 땅에 엎드려 쓰러졌다. 육립정은 아내가 상처를 입은 것을 보자 오른쪽 손의 칼을 휘두르며 단도를 이막수의 면전을 향해 던져 놓고 이어서 두 팔을 들고 돌진해 들어갔다. 그녀를 안고 동귀어진(同歸於盡)하려는 자세였다.
이막수는 처녀의 몸으로 사랑의 상처를 입고 난 뒤, 이상스러울이만큼 괴팍해져 버려 남녀간의 애정을 혐오하였다.
이때 육립정이 몸을 날려 돌진해 오는 것을 보자 마음 깊숙이 잠자고 있던 증오심이 폭발해 불진 손잡이를 돌려 단도를 쳐 떨구고 난 뒤, 그 여세를 몰아 휘둘러 나갔다. 휙, 소리와 함께 그의 천령개를 강타했다.
이막수가 육씨 부부를 잇달아 해치운 것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가진악과 무삼랑이 달려와 비호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가 싸늘하게 웃으며 물었다.
[두 계집아이는 어디 있지 ?]
무삼랑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노란 그림자가 번쩍 빛나며 이내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막수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영과 육

무쌍이 발견될 리가없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인화물을 꺼내어 장작더미에 불을 지르고 난 뒤에야 뛰쳐나왔다.
[나는 도화도와 일등대사와는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 두 분은 상관마시오.]
가진악과 무삼랑은 그녀의 흉악무도한 행동을 보자 참을 수 없이 노기가 충천하여 철장과 검으로 함께 공격을 갔다.
이막수는 몸을 비틀어 철장을 피하고 나서 불진을 들어올려 무삼랑의 장검을 은사로 휘감았다. 불진으로부터 2개의 기운이 끌려 나왔다. 주거니받거니 하다가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두동강으로 잘라졌다. 칼 끝은 무삼랑을향해 찔러들어갔고, 손잡이 쪽은 가진악의 얼굴을 향해 격출되었다.
무삼랑은 장검을 빼앗기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불진으로 장검을 잘랐을 뿐 아니라, 부러진 검으로 곧바로 두 사람을 공격해 들어온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것이다.
칼끝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삼랑을 향해 날아왔다. 무삼랑이 급히 머리를 숙여 번개같이 피하자 칼끝이 머리 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칼끝은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한 움큼의 머리털을 잘라 버렸다.
가진악은 칼날이 일으키는 공기 가르는 소리를 듣자 철장 끝을 일으켜 세워 검의 손잡이를 막아 냈다. 머리털을 잘린 무삼랑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가진악은 지팡이로 바람을 일으키며 공격해 들어갔다.
그는 비록 왼손에 3개의 독마름쇠를 끼고 있었지만 적련선자 의 빙백은침(氷魄銀針)에 지독한 독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였으므로, 그녀로 하여금 암기를 사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도 전세가 이토록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독마름쇠를 사용하기를 저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막수는 시종 그에 대해서 약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다.

(만약 확실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저 장님 늙은이가 내가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영 모르고 있을까 걱정되는군.)
하는 생각을 하며 이막수는 허리를 흔들어 불진의 은사로 철장 끝을 말아 버렸다.
 가진악은 거대한 힘이 그의 철장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느끼자 급히 공력을 쓰면서 맞섰다. 공력이 막 철장 끝에 스며드는 순간, 갑자기 상대방의 그 거대한 힘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 바로 그 순간, 온 사지의 힘이 쭉 빠져 버려 몸 속이 텅 비어 버린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때 이미 이막수는 왼손으로 철장을 나꿔챈 뒤, 손바닥으로 가진악의 가슴을 가볍게 누르고 있었다.
 [가영감님 ! 적련신장(赤練神掌)으로 가슴을 쳐 버릴까요 ?]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가진악은 이때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려 노기를 띠고 소리쳤다.
 [이 도둑년아 ! 어서 손을 쓰지 않고 뭐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
 무삼랑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구하려 들었다.
 이막수는 이내 몸을 날려 철장 위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갑자기 손바닥을 길게 뻗어 무삼랑의 얼굴을 부드럽게 매만졌다.
 [네가 감히 나를 쫓아온다면 내 너의 담력만은 어여삐 여겨 줄 수도 있지.]
 깔깔대며 교태로운 웃음을 남기고 순식간에 멀리 사라져 버렸다.
 무삼랑은 이막수의 손바닥이 부드럽고 연하다고 느껴 자신의 얼굴이 매만져졌을 때 말할 수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그림자가 버드나무 숲속에서 한 차례 보이더니 이내 영영 사라져 버렸다.
 자기와 그녀와의 대전은 비록 수합에 불과했으나 매초마다 모두 생

명을 건 일전이었으므로 이미 자신의 공력을 다 사용해 버렸다. 그래서 이때는 녹초가 되어 땅에서 꼼짝달싹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 있었다.
가진악은 가슴이 큰 바윗덩이에 짓눌렸던 것처럼 답답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몇 번 길게 숨을 내뱉고 나서야 천천히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었다.
잠시 후, 무삼랑이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러나 육가장은 이미 화염 속에 싸여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불길은 잡아먹을 듯 사나왔다. 서둘러 가진악과 함께 육씨 부부를 부축해 살펴보니 두 사람 다 곧 숨이 끊어질 듯 말 듯했다. 몇 시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았다.
(두 사람을 움직여 놓으면 더 빨리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야. 그렇다고 여기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이때 갑자기 멀리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어때? 당신 괜찮소?]
바로 무삼통의 목소리였다.

*** 수리와 소녀 ***
무삼랑은 뜻밖에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반갑고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놈의 미치광이가 무슨 난리가 일어난 줄도 모르고 이제서야 나타났는가, 하는 괘씸한 생각도 일었다. 그는 갈갈이 찢긴 누더기 옷에 목에는 하원군이 어릴 때 사용하던 위연(圍涎)을 그대로 건 채 급히 뛰어와 소리쳤다.
[여보 별 일 없소?]
그녀는 10여 년 동안 남편이 자기에게 이토록 따뜻한 관심을 보였던 적이 없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응답했다.
[저 여기 있어요.]
무삼통은 잠시 아내를 어루만진 뒤, 육씨 부부를 한 손으로 안아 일

으키며 말했다.
[빨리 나와 함께 가시죠.]
가진악과 무삼랑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다.
무삼통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리저리 몇 리를 돌더니, 두 사람을 어떤 부서진 가마터로 안내했다. 그곳은 술그릇을 굽는 가마터였는데 꽤 큰 편이었다.
무삼랑은 굴 속으로 들어가 돈유와 수문, 두 아이들이 안전한 것을 보고는 마음을 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씨 형제는 정영, 육무쌍과 함께 땅에 앉아서 마침 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정영과 육무쌍은 육씨 부부의 상처입은 몰골을 보고 두 사람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가진악은 육무쌍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막수가 한 말이 생각나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다.
[아아,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 우리가 그 여마두를 같이 데리고 온 꼴이 되었구나.]
무삼랑은 잠시 전의 한 차례의 싸움에 너무 지친 나머지 황망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
가진악이 말했다.
[그 마두가 육씨의 두 아이를 해치려고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니·······.]
무삼랑이 그제서야 가진악의 말을 알아챈 듯 놀라 말했다.
[맞아요. 그녀는 일부러 우리를 해치지 않고 몰래 따라왔어요.]
무삼통이 크게 화를 내며 소리친다.
[이 적련사녀(赤練蛇女)의 귀음혼(鬼陰魂)이 흩어지지 않았으니 내가 가서 싸우리다.]
말을 마치자 동굴 앞에 섰다.
육립정은 두개골이 부서졌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고통스럽

게 숨을 내뿜으며 정영에게 말했다.

[영아, 내……, 내……, 가슴……, 가슴에서 소, 손수건을……….]

정영은 눈물을 훔치고 손을 뻗어 그의 가슴에서 손수건을 하나 꺼냈다. 흰 비단 네 귀퉁이에 붉은 꽃을 수놓은 손수건이었다. 꽃에서는 금방 붉은 물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했다. 꽃 옆에는 연한 녹색의 이파리가 수놓여 있었는데, 흰 비단은 이미 누렇게 색이 바랬지만 꽃과 이파리는 그 빛깔이나 모양이 마치 진짜 꽃과 잎을 보는 듯했다.

[영아 ! 이 손수건을 목에 묶고 절대로 풀면 안 된다. 알았느냐 ?]

육립정이 말했다. 정영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이모부의 분부라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육이랑은 정신이 혼미하다가 남편의 말을 듣고 눈을 떠 말했다.

[왜 쌍아(雙兒)에겐 주지 않는거예요 ? 쌍아에게도 주세요.]

육립정이 말했다.

[아, 아니오…… 내 어찌 그 아이 부모의 부탁을 저버릴 수 있단 말이오 !]

[다, 당신은……, 어쩌면 자기 딸도……, 새,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오 ?]

말하면서 두 눈이 뒤집히기 시작한다. 말도 더듬거렸다. 육무쌍은 부모가 무엇 때문에 저렇듯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도 다투는지를 몰라 울면서 소리만 질렀다.

[어머니, 아버지 ! 죽지 마 !]

육립정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부인, 쌍아가 염려되면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

원래 이 홍화녹엽(紅花綠葉)의 비단 손수건은 이막수가 육전원에게 정표로 준 것이었다. 붉은 꽃은 대리국(大理國)의 가장 유명한 만다라화(曼다羅花)로서 이막수는 종종 이를 자신에 비유했다. 녹(綠)과 육(陸)은 음이 서로 비슷하므로, 녹엽(綠葉)을 그녀가 마음속으로 사랑

하는 육랑에 비유하여, 홍화와 녹엽이 서로 의지한다[紅花綠葉 相畏相倚]는 뜻의 시를 수놓은 것이다.
 육전원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10년의 기약을 생각하며, 이막수 무삼통 두 사람에게 만약의 경우에 부탁할 계책이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병을 얻게 됨이 한스러웠다. 형제의 무예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나 만약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이 비단 손수건을 형제에게 주어 부탁을 할 생각이었다. 만약 무삼통이 먼저 찾아오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일이로되, 만약 피하지 못하면 몰론 화가 미치어 목숨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막수가 요즈음 강호에 성질이 매우 사납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터이니, 그와 마주치면 반드시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 뻔했다. 위급한 때를 당하여 이 비단 손수건을 목에 묶도록 한다면 여마두도, 악독한 여마두도 옛정을 생각하여 한 번쯤 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육립정은 오기가 있어 몰래 손수건을 꺼내 여마두에게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정영은 육립정의 처형(妻兄)의 딸이다.
 그녀의 부모가 생전에 딸아이를 그에게 키워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는 중요한 부탁을 받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어쩌면 목숨을 구제할 수도 있을 손수건을 그녀에게 주었다. 육이랑은 자식을 끔찍이도 아끼어 남편이 의리 때문에 친딸을 돌보지 않음을 보자, 그 충격으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어져 혼수상태에 빠지고 만다.
 정영은 이모가 손수건의 일로 괴로와하는 것을 보고 손수건을 사촌 동생에게 주며 말했다.
 [이모께서 너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네가 가져 !]
 육립정이 꾸짖었다.
 [쌍아, 그건 언니 것이다. 받으면 안 된다.]
 무삼랑은 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을 보고 있다가 말했다.
 [내가 손수건을 반으로 나눌 테니 한 애가 반씩 가지는 것이 어떻겠

소 ?]
육립정은 다시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기력이 다 빠져 소리는 내지 못하고 다만 고개만 끄덕였다. 무삼랑은 손수건을 둘로 나누어 정영과 육무쌍 두 아이에게 주었다.
무삼통은 굴 입구에 서 있다가 뒤에서 울며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오던 중 돌연 아내의 왼쪽 뺨이 칠흑처럼 검게 굳어지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오른쪽 뺨에는 이상이 없었다.
[아니, 도대체……, 왜, 왜 이렇게 된 거요 ?]
무삼랑은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만지며 물었다.
[뭐가요 ?]
왼쪽 뺨이 뻣뻣한 나무토막처럼 감각이 없다. 아뿔사 ! 이막수가 떠날 때 내 얼굴을 한 번 쓰다듬었었지. 그 부드럽고 향기로운 손바닥이 가볍게 한 번 스쳤을 뿐인데 독수(毒手)에 맞았단 말인가. 과연 무서운 계집이로구나, 하고 무삼랑이 생각했다.
무삼통이 다시 말을 하려는 찰나, 굴 밖에서 갑자기 낭랑한 웃음과 함께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계집아이들이 여기 있으렸다 ! 죽었든 살았든 모두 밖으로 끌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몽땅 태워서 술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목소리는 은구슬이 굴러가는 듯 또렷또렷하고 부드러웠다.
무삼통이 황급히 굴을 나와 보니 과연 이막수였다. 무삼통은 이막수를 보는 순간 괴이한 생각부터 먼저 일었다.
(어찌하여 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여자는 이토록 젊고 아름다울까 ?)
그때 육전원의 연석에서 서로 만났을 때 이막수는 스무 살 남짓이었으니, 지금은 서른이 넘었을 텐데, 눈앞의 이막수는 옷차림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아직도 뽀얗고 부드러운 살결이 예전 그대로였다. 손으

로 가볍게 허공을 젓는 여유 있는 자태, 아름다운 눈에 흐르는 빛, 복숭아 같은 양볼은 무엇으로 보나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악독한 마두라기에는 곱게 행실을 닦은 부잣집 규수 같았다. 무삼통은 그녀가 먼지털이를 휘두르는 일거 일동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칼을 황급한 나머지 굴 안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났다. 다시 굴로 들어간다면 이 틈을 타서 따라 들어올 것이 뻔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 그때, 굴 옆에 둥글고 가느다란 밤나무가 서 있는 것을 무삼통은 보았다. 그는 장풍으로 밤나무를 밀어뜨려 일갈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를 꺾었다.

이막수는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대단한 힘이로군.]

무삼통은 나뭇가지를 비껴 들고 말했다.

[이낭자 ! 십 년 동안 보지 못했구료. 그동안 잘 지냈겠지 ?]

예전에 그는 그녀를 <이낭자>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출가를 했지만 그 말투 그대로 옛날의 호칭을 썼다. 10 년 동안을 이막수는 자신을 <이낭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녀 시절의 갖가지 정경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치며 가슴에 아프게 스며들었다. 자기는 본래 한번 마음에 두었던 사람과 수절하기로 마음먹었거늘, 하원군이라는 계집이 나타나 결국은 자신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평생을 외롭고 처량하게 만들 줄을 어찌 알았으랴 !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속에 일순간 일었던 부드럽고 조금은 달콤하기도 했던 감정들이 다시 끝없는 원한과 독기로 변했다.

무삼통도 비록 이막수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여도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였다. 그러나 그날 육전원의 술자리에서 나와 자신의 눈으로 그녀가 하로권사(何老拳師) 일가 20 여 명의 남녀노소를 무참히 살륙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끼치는 일이었다. 하로권사와 그녀는 평소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원한이나 원수 관계는 더구나 아니었으며, 하원군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단지 모두가 <하씨> 성을 가지고 있

어 그녀가 상심한 나머지 하씨 집안의 일가귀속을 모두 쑥밭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씨 집안의 노소(老少)들은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이 왜,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무삼통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야 이막수가 순전히 분풀이로 자신의 실의와 원망을 폭발시켰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를 한스러워하고 그 악랄함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때,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온유한 기색이 나타나는 듯하다가 다시 싸늘한 냉소로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자, 정영과 육무쌍 두 아이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막수가 말했다.

[내 이미 육씨 집 담장에 아홉 개의 수인(手印)을 새겼으니, 이 두 여자 아이를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삼야(武三爺)께서는 제발 길을 비켜 주십시오.]

무삼통이 말했다.

[이낭자도 알다시피 육전원 부부는 이미 죽었고 그의 형제, 제수들도 모두 당신의 독수에 맞았으니 어린 여자아이들은 이제 봐 주시는 게 어떻겠소 ?]

이막수는 미소를 흘리고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삼야, 길을 양보하십시오.]

무삼통은 밤나무를 더욱 단단히 움켜 쥐고 외쳤다.

[이낭자, 당신은 너무나 잔인해졌소. 아원(阿沅)…….]

<아원>이라는 한마디 말이 무삼통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이막수는 안색이 파랗게 변하며 말했다.

[내 이미 굳게 맹세한 바가 있소. 누구든지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이름을 들먹이는 자가 있다면 그자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리라고 말이오. 내가 일찌기 원강(沅江) 나루터에서 예순 세 척의 배를 박살낸 적이 있소. 단지 초패(招牌)에 그 더러운 글자가 씌어 있었기 때문이오.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요 ? 무삼야,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

지는 마시오.]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먼지털이를 휘둘러 무삼통의 정수리로 날렸다.

워낙 날래서 휘두르는 동작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먼지털이가 무삼통의 정수리로 펄펄 날아가는 것만이 보일 따름이었다. 그녀는 무삼통이 일등대사 문하의 제자로서 비록 둔하기는 하나 무공이 비범한 경지에 이르러 단번에 살수(殺手)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삼통은 왼손을 쳐들어 나무를 맹렬하게 뻗쳐 휘둘렀다. 이막수는 위험을 알아채고 몸을 바람처럼 가볍게 위로 솟구쳐 나무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의 면문(面門)으로 날아가 공격했다. 무삼통은 그녀가 내권(內圈)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오른손을 재빨리 들어 그녀의 이마에 있는 점을 겨냥했다. 이 일양지점혈(一陽指點穴)은 그다지 빠르지는 않지만 변화가 무쌍하여 대적하기가 어렵다. 이막수의 몸이 별안간 위쪽으로 솟구쳤다.

무삼통은 그녀가 문득 다가왔다가는 다시 물러서며 순식간에 몇 차례를 계속하는 것을 보고는 은근히 놀라며 힘을 다하여 나무를 휘둘러 그녀를 저만치 몰아붙이려 했다. 하지만 조금만 틈이 있으면 이막수는 번개처럼 다가와서 그의 일양지로 타격을 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적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나무가 자꾸만 무거워지면서 기력이 다함을 무삼통이 느끼는데, 이막수는 더욱 가까이 접근해 왔다. 돌연 노란 그림자가 움직이며 그녀가 무삼통이 쥐고 있는 나무 끝으로 뛰어올라 먼지털이를 흔들며 허공에서 공격했다. 무삼통은 크게 놀라 나무끝을 돌려 땅바닥으로 내리쳤다. 이막수는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나무를 밟으며 곧장 앞으로 다가왔다. 무삼통은 몸을 옆으로 하여 팔을 늘어뜨리면서 일지점을 내보냈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가 가볍게 떨리다가 다시 나무끝으로 돌아갔다. 수십 초를 싸우면서 무삼통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도 그녀는 줄곧 밤나무에 달라붙은 듯 나무를 따라 움직이며 틈을 노려 공격했다.

무삼통은 더욱 힘이 달림을 느꼈다. 그녀의 몸이 무겁지는 않았지만 나무 위에 서 있으니 수십 근의 무게를 더해 주었고, 게다가 그녀는 얼마든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다. 무삼통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자기는 죽게 되고 굴 속의 늙은이, 어린것들 모두 그녀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온 힘을 다하여 나무를 더욱 급히 춤추듯 휘둘러 그녀를 떨어뜨리려 했다.

다시 잠깐 싸우는데 등뒤에서 가진악이 소리를 질렀다.

[부아(芙兒)야. 너도 왔느냐 ? 어서 조아(凋鳥兒)에게 이 못된 여자를 물어뜯게 하여라.]

이어서 한 여자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리고 공중에서 흰 그림자가 비호처럼 내려왔다. 바로 두 마리의 큰 수리가 좌우로 나누어 이막수의 양옆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곽부가 쌍조(雙凋鳥)를 데리고 온 것이다.]

이막수는 쌍조가 사납게 공격하는 것을 보자 몸을 나무 아래로 기울게 하고 왼발을 나무에 걸쳤다. 쌍조는 공격에 실패하자 날개를 털고 다시 높이 날아올랐다. 여자아이의 소리가 다시 몇 번 울렸다. 쌍조가 두번째 내려와 네 개의 쇠갈고리 발톱으로 나무를 움켜 잡았다. 이막수는 예전에 도화도의 곽정·황용 부부가 한 쌍의 큰 수리를 기르는데 그게 매우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났다. 지금 쌍조가 서로 나누어 자신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쌍조가 만약 곽정부부의 것이라면 그들이 이 근처에 있단 말이 아닌가. 그녀는 재빨리 몇 차례 피하다가 먼지털이를 쳐서 암수리의 왼쪽 날개를 공격했다. 수리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몇 개의 흰 깃털을 공중에서 떨구었다.

곽부는 수리가 기가 죽은 것을 보고 소리 질렀다.

[수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못된 여자를 어서 쪼아라.]

이막수는 그 어린 계집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피부가 백옥같이 희고 눈과 눈썹은 마치 그린 듯이 선명하였다.

(곽부인은 당세의 뛰어난 미인이라던데 나보다 나을까 ? 이 어린아이가 혹시 그녀의 딸이 아닐까 ?)

그녀의 마음이 약간 동요하면서 손이 조금 풀렸다. 무삼통은 비록 쌍조가 자신을 돕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이겨 내지 못하는 자신에 스스로 초조해져 사납게 두 어깨를 휘둘러 나무를 그녀와 함께 공중에 던져 버렸다. 이막수는 그가 이토록 괴력을 발휘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이막수의 몸이 몇장 높이로 공중에 던져졌다. 쌍조는 그녀가 날아오르는 것을 본 순간 날개를 쳐서 올라가 쪼았다.

이막수가 평지에 발을 디디고 있었더라면 쌍조 따위가 그녀를 어찌할 수 있었을까만, 지금 그녀는 공중에 떠 있어 힘을 낼 수가 없으니 날짐승의 대적이 될 수 없었다. 급한 나머지 먼지털이를 휘둘러 일단 머리를 보호하고 소매에서 빙백은침 세 개를 꺼내어 황급히 쏘았다. 두 개는 쌍조에게 쏜 것이고 한 개는 그 와중에서도 무삼통의 가슴을 노린 것이었다. 쌍조는 급히 날개를 쳐 날아오르며 은침을 피했으나 은침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치익, 소리와 함께 은침은 수컷 수리의 발톱을 스치더니 발톱을 찢고 말았다.

무삼통은 마침 고개를 들어 올려보다가 은빛 물체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피했으나 은침은 그의 왼쪽 발꿈치에 맞고 난 뒤였다. 무삼통이 몸을 일으키며 오른쪽 다리로 버티려 했으나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내공의 힘으로 몸을 지탱하려 했으나 이미 다리가 마비되어 다시 고꾸라졌다. 고꾸라지면서 두 손으로 몇 차례 장풍을 날리다가 끝내는 쓰러져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곽부가 소리쳤다.

[조아, 조아, 빨리 와 !]

그러나 쌍조는 멀리 도망가 버려 다시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이막수는 웃으며 말했다.

[애야, 너는 곽씨 성을 가지지 않았니 ?]

곽부는 그녀의 빼어난 용모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친근감을 느끼며,

그녀가 악녀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나는 곽씨예요. 당신은 성이 뭐예요 ?]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놀아 주마 !]

천천히 다가가 곽부의 손을 끌려고 했다.

가진악이 쇠지팡이를 내치며 급히 굴 속에서 뛰쳐나와 곽부의 앞을 가로막은 채 말했다.

[부야, 빨리 물러서라.]

이막수는 다시 웃었다.

내가 그애를 잡아먹기라도 한단 말이냐 ?]

바로 이때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소년이 왼손에 수탉을 한 마리 들고 노래를 부르며 깡총깡총 뛰어오다가 동굴 앞에 사람들이 여럿 서 있는 것을 보자 놀라 말했다.

[아니, 당신들은 남의 집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

이막수와 곽부의 앞으로 걸어온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다.

[헤헤, 큰 미인은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고, 작은 미인도 여간 아름답지 않구나. 두 아가씨는 나를 찾아왔나요 ? 이 양씨는 지금껏 이토록 아름다운 친구가 없었는데…….]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말하는 것이 마치 기름을 친 듯 거침이 없는 목소리였다.

곽부는 입술을 약간 찌푸리며 화가 나서 말했다.

[이 거지야 ! 찾아오긴 누가 널 찾아오니 ?]

소년은 웃으며 말했다.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면 왜 우리집에 왔지 ?]

말하고 나서 굴을 가리키며 이 부서진 굴이 바로 자기 집이라고 말했다. 곽부가 말했다.

[흥, 이런 지저분한 곳에 미쳤다고 찾아오니 !]

무삼랑은 남편이 땅에 고꾸리진 것을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가 없어서 속이 달았다. 굴에서 나와 조심스레 몸을 굽혀 외쳤다.
[여보, 괜찮아요 ?]
무삼통은 으음, 한 마디를 토해 내며 등을 한 번 흔들었지만 더 이 상 몸을 펴지 못했다. 곽부는 멀리 찾아 보아도 쌍조가 보이지 않자, 크게 소리 질렀다.
[수리야, 수리야 ! 빨리 돌아와.]
이막수는 생각했다.
(밤이 길면 꿈도 많은 법. 곽정 부부가 오면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 할 것이다.)
싸늘한 웃음을 날리며 이막수는 곧장 동굴로 뛰어들었다. 무삼랑이 급히 돌아와 막아서고 칼을 휘두르며 외쳤다.
[들어오지 마라 !]
이막수는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저자의 부인인 모양인데 상관없는 일에 네가 왜 또 나서려고 하느냐 ?]
이막수는 들은 척도 않고 왼손으로 칼날을 겨누어 곧장 쳐들어 갔다. 칼날이 닿으려고 하는 순간, 손바닥을 옆으로 하여 중지로 가볍게 칼을 밀어젖히자 칼끝이 반대로 무삼랑의 이마를 향하더니 그녀의 이마를 베었다. 이막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죄값이다 !]
먼지털이를 옷깃에 꽂고 두 손으로 정영과 육무쌍을 끌어안고 몸도 돌리지 않고 왼발의 경신술로 동굴을 뛰쳐나오는데, 가진악의 철장이 막 돌아나오는 이막수의 발을 향하여 날아갔다.
그때, 남루한 옷을 걸친 소년이 그렇지 않아도 그녀가 무삼랑을 다치게 하고 두 여자 아이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고서는 못마땅한 참이었는데, 두 여자 아이가 놀라 소리치는 것을 듣자, 뛰어 잘려가 이막수의 몸을 안으며 소리쳤다.

[아름다운 큰 아가씨 ! 우리집에 와서 사람을 해치고 사로잡아 가면서 주인과 한 마디 말도 없으니 너무 무례하지 않소 ? 빨리 내려놓으시오.]

이막수는 두 손에 여자 아이를 하나씩 잡고 있어서 이 소년이 두 팔로 껴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겨드랑이에 갑자기 손이 쓰윽 들어오는가 싶더니 가슴이 섬뜩해지며 무슨 일인지 온 몸에 힘이 바지는 것 같았다. 장풍을 날려 두 여자 아이를 가볍게 몇 척 앞으로 던져버리고 이어서 자기를 잡고 있는 소년의 심장에도 장풍을 날렸다. 그녀는 열 살 이후로 남자와 살갗이 닿은 적이 없어서 서른이 넘었지만 아직 처녀의 몸이었다. 그때 육전원과의 쓰라린 사랑의 상처 이후 이제껏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강호에 적지 않은 사내들이 그녀의 미모를 보고 군침을 흘렸지만, 그 응큼한 마음이 탄로나면 그녀의 적련신장풍에 모두 쓰러졌다. 오늘 이 소년이 자신을 껴안자 본디 장풍에 힘을 퍼부어 그의 심장과 허파를 부수어 버릴 수도 있었지만 마침 그가 자기의 미로를 칭찬하는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터였다. 그 말이 다 장성한 남자의 입에서 나왔더라면 오히려 그녀의 증오심만 부채질했을 일이었지만 13,4 세의 소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은 아주 순수하게 느껴져 일순 마음이 약해져 심한 장풍을 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갑자기 공중에서 수리가 황급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쌍조가 먼 곳에서 날아와 다시 공격을 하려는 것이다. 이막수는 왼쪽 소매를 휘둘러 2 개의 빙백은침을 급히 쏘아올렸다. 영리한 쌍조는 이미 이 대단히 무서운 암기에 한 번 쓴 맛을 보았기 때문에 허둥지둥 날개를 쳐 날아올랐다. 그러나 은침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 쌍조가 재빨리 은침의 방향에서 벗어나려고 날개를 퍼덕거렸지만 날아오는 은침이 더 빨라서 쌍조는 기괴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놀랐다. 이막수는 이 못된 놈의 수리들, 다시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기뻐하는데, 돌연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2 개의 빠르고 이상한 물체가 공중을 가르

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두 물체는 순식간에 2 개의 은침을 아래로 떨구었다.

이 암기를 사람에게 쓴다면 누구라도 당해 내지 못할 듯했다. 이막수는 너무나 놀라서 소년을 팽개치고 가서 보니 겨우 조그만 돌멩이였다. 한 손에 돌을 쥐며 이막수는 생각했다.

(이 돌을 던진 사람의 무공은 예측할 수가 없다. 도저히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선 그를 피하고 볼 일이다.)

몸을 돌려서 장풍을 날려 정영의 심장을 쳤다. 그녀는 우선 두 여자이이를 해치고 난 뒤,뒷일을 도모하고자 생각한 것이다.

장풍이 마악 정영의 심장을 치려는데 얼핏 그녀의 목에 둘러진 비단 손수건이 보이는 게 아닌가. 흰 비단 바탕의 네 귀퉁이에 홍화녹엽을 수놓은 이 손수건은 바로 예전에 자신이 정성을 다하여 수를 놓아 육전원에게 주었던 것이다.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충격으로 황급히 장력을 거두어들이니 지난날의 그 부드럽고 은밀했던 연정의 순간들이 피어올랐다.

(그가 비록 그 더러운 하씨년과 부부연을 맺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나를 잊지 못해서 저 손수건을 끝내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가 내게 그의 자식을 봐 줄 것을 바라는데 아아, 어쩌면 좋단 말인가 !)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먼저 육무쌍을 해치우고 난 뒤 다시 생각하기로 이막수는 생각했다. 먼지털이를 흔들자 은사가 육무쌍의 심장을 향하여 날았다. 눈앞에 빛이 번쩍, 하는데 육무쌍의 목에도 비단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럴수가. 어째서 손수건이 둘이란 말인가. 분명 하나는 가짜임에 틀림이 없으렷다 !)

먼지털이로 다시 육무쌍의 목을 감아서 그녀를 휘감았다.

바로 이때, 다시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나면서 조그만 돌이 그녀의 등뒤로 곧장 날아왔다. 이막수는 먼지털이를 돌린 뒤, 자루로 돌을 맞추려고 했다. 그 순간 갑자기 심한 통증과 함께 손바닥에 열이 나며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이 조그만 돌멩이가 이토록 무서운 힘을 내고 있으니 이 돌을 던진 사람의 무공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육무쌍을 데리고 경공제종술(輕功提縱術)의 솜씨로 질풍처럼 땅을 차며 순식간에 종적을 감추었다.

정영은 육무쌍이 잡혀 가는 것을 보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따라갔다.

[무쌍, 무쌍 !]

하지만 무슨 재주로 정영이 이막수를 뒤쫓을 수 있을 것인가. 강남은 물이 많은 고장으로 가는 곳마다 강이 놓여 있다. 정영은 한참을 뛰었지만 앞에 작은 강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갈 방법이 없었다. 정영은 흐르는 물길을 따라 뛰며 육무쌍의 이름을 애절하게 불렀다. 갑자기 왼쪽 조그만 다리 위로 노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더니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 맞은편에서 달려왔다. 정영이 흠칫 놀라는 순간, 이막수는 이미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육무쌍은 보이지 않았다.

정영은그녀가 이막수인 것을 알고 매우 두려웠으나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제 동생은요 ?]

이막수는 그녀의 피부가 백설 같고 용모도 매우 빼어남을 보고서 차갑게 말했다.

[네가 이토록 아름다우니 장차 장성하면 필경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네 자신의 마음이 상할 것이다. 차라리 일찌감치 죽어서 이 세상에서 만날 번뇌를 없애는 것이 옳겠다.]

먼지털이를 들어 흔들어 대면서 어린 그녀의 머리와 가슴을 부수어 버리려고 하였다.

이막수가 먼지털이를 등뒤로 흔들었다가 앞으로 세게 내치려 하는데 갑자기 손이 굳어지더니 먼지털이끝이 무엇엔가에 꽉 잡혀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크게 놀라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순간, 돌연 몸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엄청난 힘에 당기어져 위로 높이 튀어올랐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뜻밖에 엄청난 일격을 당한 것이다. 이막수는 왼손으로 가슴을 보호하면서 먼지털이에 내공을 보내어 곧바로 찔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텅 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평생 크고 작은 수백 차례의 싸움을 겪었지만 이토록 괴이한 일은 만난 적이 없었던 터라 번개처럼 스치는생각이 있었다.
(귀신일까 ? 도깨비일까 ?)
이막수는 혼원식(混元式)을 써서 먼지털이로 둥글게 춤을 추면서 몸의 사방 다섯 자(尺)를 보호했다. 그제서야 다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
정영의 옆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청포(靑袍)의 괴인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핏기가 전혀 없어 산 사람 같기도 하고 죽은 사람 같기도 했다. 이를 보자 이막수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 저도 모르게 두 걸음이나 물러섰다. 무림에 이런 모습을 한 인물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막수는 적잖이 놀랐다. 한 마디 말을 건네 보려고 하는데 마치 그것을 알아챈 듯 괴한이 먼저 정영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애야, 이 여자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란다. 네가 그녀를 공격해 보아라.]
정영은 괴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설사 괴인의 말뜻을 알았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 같은 어린 소녀가 이막수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정영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 도저히 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 어쨌든 한 번 쳐 보아라.]
정영은 여전히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괴인은 망설이는 정영의 등을 잡아서 이막수에게 던졌다.
이막수는 이 해괴한 정경을 당하여 감히 보통때처럼 대적할 수가 없었다. 먼지털이를 휘둘러 공격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막수는 왼손을 뻗어서 정영의 허리를 치려고 했다. 그 순간

홀연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시려 오더니 팔을 쓸 수가 없게 돼 버렸다. 정영은 이막수의 가슴에 부딪치어 손을 휘둘러서는 찰싹, 하고 이막수의 뺨을 때렸다.

이막수는 평생 이와 같은 치욕은 처음이었다. 미친 듯이 화가 난 이막수가 다시 먼지털이를 돌려사납게 휘두르려 하는데 다시 온몸이 떨리더니 먼지털이의 자루가 어느새 손에서 빠져나와 미끄러지는 것이 아닌가. 괴인이 다시 돌을 던져서 그녀의 먼지털이 손잡이를 때린 것이었다. 정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땅에 서 있었다.

이막수는 오늘 자칫하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몸을 빼내지 못하면 필경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벼이 웃음을 날리며 몸을 돌려 달아나며 두 소매를 휘둘러 10여개의 빙백은침을 청포괴인에게 나란히 던졌다. 그녀는 몸도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이 암기를 쏘았다. 그녀의 암기 수련이 이토록 무서운 경지에 달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다가 몸을 날려 급히 뒤로 솟구쳤다. 은침도 빨랐지만 괴인의 동작은 더욱 빨라서 쨍,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암기가 모두 그의 발 아래에 우수수 떨어졌다. 이막수는 그에게 던진 암기가 맞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 10여 개의 은침은 다만 그를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뒤로 몸을 날리는 바람소리를 듣자 다시 소매를 휘둘러 하나의 은침을 곧바로 정영에게 쏘았다. 그녀는 이번에 발사한 은침은 틀림없이 정영에게 명중될 것을 알고 있었다. 청포괴인이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이막수는 급히 발에 힘을 주어 다리를 지나 뽕나무숲으로 들어갔다.

청포괴인은 아아, 탄식을 하며 정영을 안아 올렸지만 긴 은침이 그녀의 어깨에 꽂힌 것을 보자 안색이 변하며 신음을 토했다. 괴인은 급히 정영을 안고 서둘러 서쪽으로 향했다.

가진악 일행은 이막수가 끝내 육무쌍을 잡아간 것을 뒤늦게 알고는 매우 놀랐다.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이 말했다.

[내가 가서 보고 오지요.]

곽부가 말했다.

[뭘 보고 온단 말이야 ? 흉악한 여자가 단번에 너를 죽일 것인데.]

소년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요 ? 다시는 못 볼 텐데…….]

말을 마치자 소년은 급히 이막수가 간 길을 따라갔다.

[이 바보야 ! 내가 널 죽인다고 그랬니 ? 그 여자가 널 죽인다고 했지.]

그녀는 소년이 왜 은근히 자신을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소년은 한참을 가다가 먼 곳에서 정영이 큰소리로 육무쌍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무쌍 ! 무싸앙 !]

소리를 따라서 소년은 쫓아갔다. 수십 장을 달려간 뒤 소리가 난 곳을 곰곰이 따져보니 분명히 정영이 부르던 곳인데, 사방에 두 여자 아이의 그림자라곤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돌리자 땅에 번쩍번쩍 빛나는 은침이 열 개 가량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은침에는 매우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하나하나 주워 모아 왼손에 쥐는데 커다란 지네가 배를 뒤집고 죽어 있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에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살펴보니 수많은 개미들이 죽어 있었고, 몇 걸음 저쪽에는 무수한 개미떼가 기어가고 있었다. 은침 하나를 장난삼아 던지자 몇 마리가 먹이를 굴리며 가다가 배를 뒤집고 죽었다. 다른 조그만 벌레들한테 시험을 해 봐도 마찬가지였다.

소년은 매우 기뻐하며 이 은침을 가지고 가서 동굴에 우글거리는 파리나 모기를 잡으려고 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갑자기 왼손이 뻣뻣해지는 게 이상했다.

[아하, 침에 독이 있구나. 손에 쥐고 있었으니 큰일날 뻔 했구나.]

화들짝 놀라 손을 펴서 엉겁결에 은침을 버렸지만 두 손은 이미 검

게 변했고 왼손은 더우기 칠흑처럼 검었다. 겁이 난 나머지 손을 허벅지에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비벼 댔지만 독은 왼팔을 마비시키더니 순식간에 어깨까지 퍼졌다. 그는 어렸을 때 독사에게 물려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물린 곳 근처가 차츰 마비되어 오는 것이 무섭기 짝이 없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홀연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애야, 이제 무서운 걸 알겠느냐 ?]

그 소리는 귀를 찌를 듯 쩌렁쩌렁해서 마치 땅 속을 뚫고 나오는 소리 같았다. 급히 몸을 돌리자 어떤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고 두 발은 하늘을 향한 채였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섰다.

[다, 당 , 당신은 누구죠 ?]

그자는 두 손으로 땅을 쳤다. 몸이 훌쩍 세 자 가량 날아오르더니 그의 앞에 사뿐 떨어졌다.

소년은 더욱 놀라 미친 듯 달아나기 시작했다. 뒤에서 똑, 똑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뒤를 돌아보고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자는 손을 발삼아 두 손에는 돌을 하나씩 들고 물구나무를 선 채 쫓아왔다. 그래도 어찌나 빠른지 정신없이 뛰어온 자기 뒤에 불과 몇 척의 거리에 있었다.

걸음을 빨리 하여 죽어라 하고 도망치는데, 한 번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그자가 몸을 날려 그의 앞에 우뚝 내려 섰다.

[엄마야 !]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쪽으로 달아나도 괴한은 한 마디 기합소리와 함께 뛰어올라 그의 앞으로 떨어지곤 했다. 그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손으로 걷는 사람 하나 당해 내지 못했다. 그가 어느 방향으로 몸을 돌려도 괴한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장풍을 날려 그를 밀어 버리려 했지만 팔은 이미 마비되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땀만 비오듯 흐르며 어쩔 줄을 모르다가 소년은 갑자기 두 다리가 풀리며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괴한이 말했다.
[네가 날뛰면 날뛸수록 몸 속의 독은 더 빨리 퍼진다.]
소년은 두 무릎으로 기면서 애원했다.
[아저씨, 제발 목숨만 살려 주세요.]
괴한은 고개를 흔들었다.
[어렵지, 어려워.]
[아저씬 이토록 능력이 뛰어나시니 저 하나쯤이야 구할 수 있잖겠어요 ?]
소년의 부추기는 말 한 마디에 괴한은 매우 신이 나서 웃었다.
[아니 넌, 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어떻게 알았지 ?]
소년은 그의 말투가 누그러진 것을 느끼자 혹시나 해서 급하게 말했다.
[몸을 거꾸로 하고도 이토록 빠르시니 천하에 당할 자가 없을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추긴 <천하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괴한의 심중을 그대로 파고들었다.
[하하하하, 몸을 거꾸로 해 보아라. 내가 한번 살펴봐 주지.]
소년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기는 똑바로 서고 그자는 물구나무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살필 수가 없는데 그자는 똑바로 보기를 원하니, 어쩔 수 없이 물구나무를 설 수밖에 없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오른손에는 아직 감각이 있었는지라 간신히 버티며 물구나무를 섰다. 괴
거꾸로 서자 소년은 괴한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있었다. 높은 코에 깊은 눈, 얼굴을 가득 뒤덮고 있는 눈송이 같은 짧은 수염은 무쇠처럼 단단해 보였다. 게다가 혼자서 알아 들을 수 없는 괴이한 말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다. 소년은 괴한이 도와 주지 않을까 봐 계속 애원을 했다.
[제발, 제발······, 절 좀 살려 주세요.]

괴한은 그의 미목(眉目)이 수려함을 보고 아주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 내 너를 구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먼저 한 가지 대답해야 할 것이 있다.]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어서요······, 아저씨, 대답해야 할 것이 뭐죠 ?]
괴한은 입술을 깨물며 웃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소년은 은근히 의문이 갔다.
(뭐든지 들으라고 ? 나보고 설마 개똥을 먹으라고 해도 들으란 얘기는 아니겠지.)
괴한은 그가 주저하는 것을 눈치채더니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래, 너는 독이 올라 혼자 죽어 버려라.]
하고 말한 후, 두 손을 오므렸다. 뻗어 몸을 날려 멀찌감치 옮겨갔다. 소년은 그자가 멀리 사라질까 봐 얼른 쫓아가 애걸하려고 했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빨리 갈 수 없어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몇 걸음 쫓아가 불렀다.
[아저씨, 말했잖아요 ! 뭐든지 말하면 다 들을께요.]
괴한이 몸을 돌렸다.
[좋다. 단단히 맹세해라.]
이때 소년은 팔의 마비가 이미 어깨까지 완전히 퍼져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굳게 맹세했다.
[제 생명만 구해 주신다면, 이놈의 독만 없애 주신다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듣지 않으면 다시 독이 온몸에 퍼지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소년은 생각했다.
(이후로 내 다시는 은침을 건드리지 않을 텐데 독이 어떻게 다시 내 온몸에 퍼진담 !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술수라는 것을 저 괴

인이 알아챌까 ?)

살며시 엿보니 그자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여 매우 만족스럽다. 소년은 은근히 기뻤다.

(이 늙은이가 나를 믿는구나.)

괴한은 그개를 끄덕이고 훌쩍 몸을 일으켜 소년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좋아, 좋아 ! 너는 참 착한 아이로구나.]

그자가 손을 한번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팔의 마비가 약간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 다시 한 번 팔을 잡아 주세요.]

괴한은 눈살을 찌푸렸다.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저씨 !]

괴한이 꾸짖었다.

[나의 첫번째 말도 듣지 않겠다니 너 같은 녀석을 어디에 쓴단 말이냐 !]

소년은 생각했다.

(이자가 나를 아들로 삼으려고 했구나.)

그는 지금껏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 아버진 이미 죽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자라는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했지만, 이 괴한의 행동거지가 하도 괴이해서 의부로 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일지 않았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면 좋다. 몸의 독을 제거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지 ?]

소년은 어떻게 하면 이자가 자기를 치료해 줄까를 곰곰이 생각했다. 괴한은 괴이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는 듯하더니 발길을 돌렸다. 소년은 다급하여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

괴한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자, 이리 와라. 몸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소년은 가까이 갔다.

[네가 맞은 독은 이막수, 그 못된 여자의 빙백은침의 독이라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단다.]

그러면서 괴한은, 독을 빼자면 주문과 행공(行功)의 방법으로 기를 움직여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혈이 거꾸로 흐르게 해 독이 들어온 곳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수련을 시작하여 매일 조금씩 제거해야 하는데 한 달 이상을 꾸준히 계속해야 독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소년은 아주 총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즉시 그대로 시행하니 과연 마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가 기를 움직이자 두 손의 손가락 끝으로 검은 액체가 몇 방울 떨어졌다. 괴한은 기뻐했다.

[좋다. 오늘은 더 이상 수련을 할 필요가 없다. 내일 다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마. 자, 이제 가자.]

소년은 놀랐다.

[어디로 가요 ?]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아들은 마땅히 따라와야 할 것 아니겠냐 ?]

바로 이때 하늘에서 갑자기 수리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마리 큰 수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 괴한은 쌍조를 쳐다보고 손으로 이마를 치며 곰곰이 생각을 하는 눈치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 안색이 변하며 외쳤다.

[그들을 만나면 안 돼 ! 그들은 만나면 안 돼 !]

하고 말하면서 한 걸음 나갔다. 걸음이 몹시 컸다. 두번째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누군가가 저쪽에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뽕나무숲으로 홀연 숨어 버렸다.

[아버지, 아버지 !]
소년은 총총걸음으로 괴한을 따라갔다. 커다란 버드나무를 돌아가는 순간 뒤에서 휘익, 바람이 이는가 싶더니 한 쌍의 큰 수리가 뒤에서 날아와 앞으로 사라졌다. 버드나무 숲 뒤에서 어떤 남녀가 나타나자 쌍조는 그들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남자는 짙은 눈썹에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가슴은 떡 벌어지고 허리가 곧은데 나이는 30 여 세 정도 되어 보였고 윗입술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여인은 26 세 가량으로 뛰어난 용모에 눈동자가 더 할 나위 없이 고왔다. 소년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여인이 남자에게 물었다.
[이 애가 누구 같아요 ?]
남자는 소년을 뚫어지게 보다가,
[이 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곽정 황용 부부였다. 이날 둘은 주점에서 황약사의 소식을 듣다가 갑자기 먼 곳에서 불길이 하늘을 치솟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어떤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알렸다.
[육가장에 불이 났다 !]
황용은 마음이 섬뜩했다. 가흥 육가장의 주인 육전원은 무림의 유명한 인물로서 아직 대면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 명성을 흠모하고 있었다. 강호에서는 <강남의 두 육가장>이라고 일컬었다. 강남에 육가장이 어찌 한둘이랴마는 무사들이 두 육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호(太湖)의 육가장과 가흥의 육가장을 뜻하는 것이다. 육전원이 육승풍(陸乘風)과 나란히 일컬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평범한 인물이 아닐 것이었다. 불이 난 곳은 바로 육전원의 집이었다.
두 사람이 서둘러 달려갔지만 불길은 이미 점차 사그라지고 별장은 다 타 버렸다. 불탄 마당에는 숯처럼 시커멓게 그을은 시체만이 남아 있어서 얼굴을 이미 알아 볼 수가 없었다.

황용이 말했다.
[뭔가 괴이한 점이 있네요.]
[무엇이 괴이하다는 말이오 ?]
[육전원은 무림에서도 명성이 자자하고 그의 부인 하원군도 당대의 고수예요. 보통 불이라면 이 집안에서 왜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했겠어요 ! 분명히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의 소행임에 틀림없어요.]
곽정도 황용의 말에 수긍이 갔다.
[그렇소. 누가 불을 놓았는지, 왜 이런 독수를 뻗쳤는지 우리 한번 알아나 봅시다.]
두 사람이 별장을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황용이 갑자기 타다 남은 담장을 가리켰다.
[보세요 ! 저것이 뭐죠 ?]
곽정이 고개를 들자, 담장에 몇 개의 M수인이 찍혀 있었다. 연기에 검게 그을리어 더욱 무섭게 보였다. 담장이 불에 넘어가는 바람에 두 개의 혈수인은 반이 잘려 나갔다. 곽정은 놀라며 신음처럼 내뱉았다.
[적련선자다 !]
[맞아요 ! 그녀예요. 일찌기 적련선자 이막수의 무공이 막강하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음독은 당할 자가 없고 서독(西毒)에 못지않다더군요. 그녀가 강남에 왔다니 아무래도 우리가 싸워야겠군요.]
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림의 벗들이 모두 이 여마두를 잡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하니 우리가 악부(岳父)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소.]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담이 없어지는군요.]
[당신의 그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소. 무술을 연마할수록 나는 안된다는 것을 알겠소.]
[당신은 늘 너무 겸손해서 탈이에요. 나도 무술을 연마할수록 끝이

없다는 것을 느낀답니다.]

둘이 이야기를 하며 사방을 둘러보다가 연못가에서 두 개의 빙백은 침을 발견했다. 은침 하나가 잘리어 물에 가라앉았는데 연못의 물고기가 모두 배를 뒤집고 죽어 있었다. 은침의 독은 참으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황용은 부러진 나뭇가지 2 개로은침을 집어 손수건에 겹겹이 감싼 뒤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이 다시 멀리 수색을 하다가 쌍조와 소년을 만난 것이었다.

곽정은 소년을 어디선가 본 듯한데 어디서 본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몇 번을 맡으니 머리가 아팠다. 황용도 곽정이 맡은 냄새를 맡고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냄새의 진원을 찾다가 수컷 수리의 왼쪽 발톱의 상처를 보았다. 냄새는 바로 거기에서 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껍질을 벗겨 보니 다리만이 아니라 이미 살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곽정은 생각했다.

(무슨 상처길래 이토록 심할까 ?)

그러다가 소년의 왼손이 온통 시커먼 것을 보고 놀랐다.

(너도 이 독에 맞았구나 !)

황용이 그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급히 소매를 걷어올리고 조그만 칼을 꺼내어 팔을 째서 독혈을 뽑아 냈다. 소년의 손에서 흐르는 피가 선홍색임을 보고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그의 손이 온통 검게 변했는데 어째서 피에는 독이 없을까 ? 그녀는 소년이 어떤 괴한의 도움으로 이미 독혈을 뽑아 내어 다시는 독이 올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화옥로환(九花玉露丸)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을 잘게 씹어서 삼켜라.]

소년이 약을 받자 손에서는 맑은 향기가 퍼져 나왔다. 입에 넣어 씹으니 입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청량한 기운이 단전에 파고드는 것을 이내 느낄 수가 있었다. 황용은 다시 2 개의 약을 꺼내어 쌍조에게 하나씩 먹였다.

곽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휘파람을 불었다. 소년은 갑작스러운 휘파람소리를 듣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휘파람소리는 멀리 날아가고 놀란 참새들이 사방에서 어지럽게 날아올랐으며 곁에 서 있던 버드나무 가지들은 바람에 쉬임없이 흔들렸다. 그는 계속하여 휘파람을 날렸다. 소리에 소리가 겹쳐져 음이 떨리니 마치 천군만마(千軍萬馬)가 멀리서 달리는 것 같았다.

황용은 남편이 소리를 내어 이막수에게 도전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세번째 휘파람을 불자 자기도 단전에 기를 모아 함께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곽정의 휘파람은 웅장하고 황용의 휘파람은 청량한 고음이다. 두 사람의 휘파람이 함께 어울리자 한 마리 대붕(大鵬)과 한 마리의 작은 새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날수록 높이 올라가는 듯, 작은 새는 언제까지나 대붕의 뒤에 처지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도화도에서 수련을 하여 내력이 이미 조화의 경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둘이 함께 휘파람을 날리자 마치 구천(九天)을 날아오르듯 소리가 몇 리 밖까지 울려퍼졌다.

물구나무 도사는 휘파람소리를 듣고 걸음을 재촉하여 피했다.

정영을 안고 있던 청포괴인은 휘파람소리를 듣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들도 왔으니 이 몸은 멀리 가서 소란을 피해야겠구나.]

이막수는 육무쌍을 겨드랑이에 끼고 서둘러 가다가 돌연 휘파람소리를 듣고는 멈추었다. 그녀는 홀로 먼지털이를 한 번 거칠게 휘두르며 차갑게 웃었다.

[곽대협의 명성이 온 무림에 진동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정인지 한번 봐야겠다 !]

문득 한 차례, 청량한 휘파람소리가 함께 일어나서 두 소리가 서로 화응하여 강하고 부드러운 기세가 어울려 위엄을 더해 주었다. 이막수는 마음이 서늘해지며 그들이 대단히 어려운 적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게다가 그들은 부부로서 함께 강호를 누비고 자기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만감이 교차했다. 길게 한 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육무쌍의 등허리를 감아 쥐었다.

이때 무삼랑은 이미 남편을 부축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가진악과 헤어진 뒤였다. 가진악은 한 차례 격전을 치른 뒤라 이막수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곽부를 해칠까 두려웠다. 그녀를 데리고 숨을 곳을 찾아서 막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곽정과 황용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니 너무도 반갑고 기뻤다.

[할아버지, 엄마예요 !]

곽부는 소리치며 뛰었다.

노인과 어린아이가 휘파람소리를 따라 곽정 부부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이내 그들은 만날 수 있었다. 곽부는 황용의 품으로 달려들며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가 방금 아주 못된 여자를 쫓아냈어요. 참 굉장했어요.]

황용은 곽부의 잘 까부는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웃기만 했다. 곽정이 꾸짖었다.

[애야, 말을 할 때에는 생각을 깊이 한 뒤에 사실대로 말해야 한단다.]

곽부는 혀를 내밀며 웃었다.

[할아버지가 그럼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 그럼 어떻게 사부가 되었어요 ?]

아버지가 다시 꾸짖을까봐 멀리 도망치면서 소년에게 손을 흔들었다.

[애야, 꽃 꺾으러 가자꾸나. 내게 꽃모자를 만들어 주지 않을래 ?]

소년은 그녀와 함께 숲으로 가려고 했다. 곽부는 그의 손이 칠흑처럼 검은 것을 보고 말했다.

[넌 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 같이 못 놀겠다, 얘 ! 네가 꺾은 꽃은 너나 냄새를 맡아라.]

[누가 너하고 논댔니 ?]

소년도 화가 나서 차갑게 말하고 돌아선다.

곽정이 불렀다.

[얘야, 그렇게 서둘지 마라. 네몸의 독이 가시지 않은 것 같으니 재발하면 큰일난다.]

소년은 남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곽부의 말때문에 소년은 매우 화가 나 있었으므로 머리를 꼿꼿이 세워 들고 곽정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곽정은 그의 앞을 가로질렀다.

[넌 어떻게 해서 독에 맞았니 ? 우리가 치료를 해 줄 테니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관예요 ? 독이 퍼지든 말든 …….]

더욱 빨리 걸어서 곽정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다. 곽정은 그에게 누군가 동행이 있을 듯해서 물었다.

[얘야, 넌 성이 뭐니 ?]

소년은 눈을 흘기며 곽정의 한쪽 옆으로 빠져 지나가려고 했다. 곽정은 손을 벌려 그의 팔을 잡았다. 소년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소년은 주먹으로 곽정의 배를 힘껏 쳤다.

곽정은 슬그머니 웃었다. 소년이 팔을 빼서 다시 때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 주먹이 곽정의 뱃속에 묻혀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팔만 아플 뿐 배의 흡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내게 선이 무엇인지 말하면 놓아 주겠다.]

[나는 성이 예(倪)예요, 이름은 뢰자(牢子)구요. 자, 이제 빨리 놓아 주세요.]

곽정은 매우 실망하고 배에서 소년의 주먹을 풀어 주었다. 그는 소년이 실제 자기 이름을 사실대로 대지 않고 멋대로 댄 것을 알 리가 없었다. 소년은 주먹을 꺼내고 난 뒤, 곽정을 보며 생각했다.

(참으로 대단한 실력이구나 !)

황용은 그의 얼굴에 잔꾀가 서리어 있는 것을 알아채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다시 물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얘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할까 ?]

왼손을 휘둘러 그의 뒷덜미를 잡았다. 소년은 자신의 뒷덜미를 잡은 힘이 대단히 센 것을 느끼고 힘을 다해 버텼다. 황용의 손에서 힘이 풀리는가 싶자 소년의 몸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졌다. 곽부는 손뼉을 치며 깔깔댔다. 소년은 몹시 화가 나서 몸을 일으켜 몇 걸음 물러나서 욕을 하려고 하는데, 황용이 이미 그의 앞으로 가서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그의 두 눈을 응시하고 있다. 황용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너는 성이 양(楊)이고, 이름은 과(過)이다. 어머니는 진씨이고, 그렇지 ?]

소년의 이름은 바로 양과였다. 갑자기 황용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맞히자 너무나 놀라서 가슴의 피가 용솟음치며 올라와 손의 독기가 다시 퍼져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그만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황용은 깜짝 놀라 재빨리 소년의 몸을 부축했다. 곽정이 몇 번 흔들었지만 그의 두 눈은 떠지지 않았다. 소년은 혀를 깨물어 입술에 피가 가득 고인 채 깨어날 줄을 몰랐다. 곽정은 놀랍고도 기뻤다.

[그렇다 ! 이……, 이 애는 양강의 아들이구나.]

황용은 양과가 독에 깊이 중독된 것을 보고 낮게 말했다.

[우선 여관에 묵었다가 성안에 가서 약을 구해야겠어요.]

곽정은 양과를 안고 가진악 황용 곽부와 쌍조를 데리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황용이 약방문을 쓰자 점원이 약을 구하러 달려나갔다. 그녀가 쓰는 약은 모두가 임시 방편으로서, 가흥이 비록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일시에 구할 수는 없었다. 곽정은 양과가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않자 매우 걱정이 되었다. 황용은 남편이 양강이 죽은 뒤로 항상 가슴아파 하다가 오늘 우연히 그의 아들을 만났으니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양강의 아들은 지금 독에 중독되어 생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직접 가서 약을 찾아 봐야겠어요.]

곽정은 그녀가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보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곽부에게 멋대로 까불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한 뒤, 부부가 함께 약을 찾으러 나섰다.

양과는 깊이 잠이 들어 한밤중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았다. 가진악이 들어와 몇 번을 살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가 사용하는 독은 빙백은 침과는 전혀 달라서 두 가지 약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없었고, 또한 곽부가 어디 밖으로 나갈까 봐 달래서 재워야만 했다.

*** 잃어버린 과거 ***

양과는 아주 오래도록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누군가 가슴을 흔드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무엇인가 급히 창으로 빠져나간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마침 옆에 있던 책상을 의지하여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처마끝에 두 발을 걸치고 어떤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바로 얼마전에 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 괴한이었다. 그는 몸을 좌우로 흔들며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 같은 자세였다.

양과는 놀라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함께 일었다.

[아, 아저씨군요.]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느냐 ?]

[아버지 !]

하고 부르면서 양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당신의 아들이란 말인가 ! 하지만 아무려면 어떠랴 !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속 편하겠지 !)

괴한은 아주 좋아했다.

[올라와라 !]

양과는 창문을 빠져나가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는 독에 맞은 뒤 급작스럽게 몸이 허약해져 있었으므로 처마를 기어올라가는 일마저 힘에 겨워서 자신도 모르게 아아, 하고 낮게 신음소리를 냈다.

괴한은 손을 뻗어 그의 등을 붙잡아 가볍게 지붕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몸을 바로 하고 막 말을 하려고 할 때, 서쪽 방에서 누군가 외치며 촛불을 불어 끄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아챈 괴한은 서둘러 양과를 끌어안고 자리를 떴다. 가진악이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이미 괴한과 양과가 사라진 이후였다.

괴한은 양과를 안고 마을 밖의 공터로 가서 그를 내려놓은 뒤 말했다.

[아까 내가 일러 준 방법으로 다시 독기를 뽑아 내라.]

양과가 그의 말대로 하자 잠깐 사이에 손가락으로 검은 피가 몇 방울 떨어지며 이내 가슴이 편안해졌다.

[너는 참으로 영리하구나.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니……, 예전의 내 친자식보다 더 영리하구나. 아아…….]

갑자기 괴한은 예전에 잃었다는 자기 자식을 생각하고 그러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양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 쉬었다.

양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도 그가 열 한 살때 병으로 죽었다. 진남금이 죽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가흥 철창묘(鐵槍廟)에서 죽었으니 자기도 죽으면 화장을 해서 가흥 철창묘에 묻어 달라고 했었다. 양과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른 뒤, 가흥 지방을 유랑하며 부서진 가마터의 굴에서 닭과 개를 훔치며 날을 보내고 있었다. 진남금이 비록 그에게 약간의 무공의 입문기술을 가르쳤지만 그녀 자신의 무공이 그다지 높지 못했는데다가 양과도 너무 어려서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 요 근래 몇 년 동안 양과는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속기 일쑤였는데, 그 괴한은 평소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자신을 이토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자 감동하여 양과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목을 얼싸안고 불렀다.

[아버지 !]

그는 두세 살이 되면서부터 그를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는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때로는 꿈속에서 자애로운 아버지를 만나는 일도 있었지만 깨고 나면 어디론가 간 곳이 없어 어엉, 어엉 운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던 아버지를 얻게 되었으므로 잠시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세마디에는 가슴벅차도록 진실한 감정이 배어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양과는 진정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괴한은 그보다도 더한 기쁨을 맛보았다. 처음 둘이 만나서 괴한이 양과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강요할 때에는 그렇게 부를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다. 이제 둘이 마음으로 통하여 친부자지간처럼 되니 상대방을 위하여 죽는 것도 달게 받아들일 것 같았다. 괴한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착하기도 하지, 아암 착하고 말고. 자, 괴아자(乖兒子)야 ! 어디 다시 한 번 아버지라고 불러 보렴 !]

양과는 그가 시키는 대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괴아자야, 자 이제부터 내가 평생토록 연마하여 터득한 무공을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

말을 마친 괴한은 몸을 낮추로 입으로 구구구, 세 마디를 외치더니 두 손을 밀어냈다. 갑자기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눈앞의 담장이 무너져 내리며 가루로 변하고 먼지만 휘날렸다. 양과는 눈이 휘둥그래지고 입을 딱 벌린 채 혀를 내둘렀다.

[무슨 무공이죠 ?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이것은 합마공(蛤膜功)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통을 견딜 각오만 한다면 저절로 배우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배우면 다시는 나를 깔보는 사람이 없겠죠 ? 아버지 !]

괴한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깔본단 말이냐! 내 그런 놈이 있다면 그놈의 뼈를 부러뜨리고 껍질을 홀랑 벗겨 놓고야 말겠다.]

이 괴한은 바로 서독(西毒) 구양봉(歐陽鋒)이었다.

그는 화산(華山)에서 황용에게 당한 이후 정신착란을 일으켜 지난 10여 년 동안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생각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경치가 아주 눈에 익은 곳에 다다르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자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요즘 몇 달 동안 그가 줄곧 가흥에 머무른 것은 순전히 이 때문이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줄곧 구음진경을 연마하여 내력도 대단히 증가하고 정신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풍증은 여전하여 수많은 옛일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야 했고, 도대체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제 구양봉은 그가 터득한 합마공의 심법을 양과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합마공은 천하의 무예 중에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서 변화가 정묘하고 오묘무궁하여 내공을 수련하는 것만해도 끝이 없으며 제대로 수련하지 못하면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수련 도중 피를 토하고 죽기까지 한다. 옛날 그가 친히 낳았던 구양극(歐陽克)에게도 전수하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 그는감정이 격하여 정신이 혼미해져, 경중을 가리지 않고 거리낌없이 이것을 방금 얻은 양자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양과는 무공에 기초가 없으니 입문의 주문을 외기는 했지만 어찌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랴! 더구나 그는 잔꾀를 부려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멋대로 해석을 했다. 구양봉이 반나절을 가르쳤지만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라, 화가 나서 그의 뺨을 후려치려고 손을 들었다가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빼어난 얼굴을 보니 너무나 사랑스러워 옛날 구양극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차마 때리지를 못하고 손을 내리며 탄식하기를,

[아무래도 네가 피곤한 것 같구나. 돌아가서 쉬고 내일 다시 하자.]
 양과는 곽부가 그의 손을 보고 약을 올린 것 때문에 그 식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같이 가겠어요 !]
 구양봉은 자신에 대한 일조차도 제대로 확신이 없는 터였으니 다른 일에 대해서는 더구나 알지를 못했다.
[내 머리가 지금 온전하지를 못하여 너를 제대로 데리고 다닐지 의문이다. 우선 돌아갔다가 내가 한 가지 일을 더 생각해 낸 다음에 우리 둘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어떻겠느냐 ?]
 양과는 어머니를 잃은 이후, 이토록 그에게 친절한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양과는 울먹였다.
[그러시면 빨리 저를 데리러 오세요.]
 구양봉은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알 수가 있지. 누가 널 깔보면 내 그자의 뼈를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구양봉은 양과를 끌어안고는 여관으로 돌려보냈다.
 가진악은 양과를 찾다가 침상에서도 침상 밑에서도 양과의 모습이 안 보이자 초조해졌다. 여관 밖에까지 나가서 양과를 찾다가 돌아오니 이미 양과는 돌아와 있었다. 그가 어디에 갔다가 이제 왔는가를 물으려고 하는데 홀연 지붕 위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급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소리로 보아 2명의 뛰어난 무공을 지닌 자들이 집 앞으로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서둘러 곽부를 안아서 침상의 양과 옆에 눕혀 놓고 철장을 감아 쥐었다. 만약 방금 사라진 둘이 적이라면 필경 다시 올 것이다. 과연 멀리서 바람소리가 가까와지며 순식간에 지붕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말했다.
[누구인 것 같아요 ?]
 다른 한 사람이 말을 받는다.
[이상하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야 ! 정말 그자란 말인가 !]

이들은 곽정 황용 부부였다.

가진악은 비로소 안심을 하고 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이했다.

황용이 말했다.

[대사부님 ! 여기는 무슨 일이 없었나요 ?]

[없었다.]

황용은 곽정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잘못 보았을까요 ?]

곽정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냐. 분명히 그자였어 !]

가진악이 물었다.

[너희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 ?]

황용은 곽정의 옷깃을 잡으며 말하지 말라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곽정은 은사에게 속일 수가 없었다.

[구양봉입니다 !]

가진악은 평생토록 구양봉을 한스러워했다. 그 이름을 듣자 당장 안색이 변하며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구양봉 ? 그자가 아직도 죽지 않았단 말이냐 ?]

[저희가 약을 캐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신법이 빠르고도 괴이하여 급히 쫓아갔지만 이미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분명히 구양봉인 것 같았습니다.]

가진악은 곽정이 언제나 진실하여 무슨 일이든 가벼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양봉이라고 말하면 아마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곽정은 양과가 걱정이 되어 촛불을 들고 침상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그의 안색이 발그스레하고 고르게 숨을 쉬며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 아이는 무사하오.]

양과는 사실 거짓으로 잠이 든 척했었다. 눈을 감고 세 사람이 말하

는 것을 엿들었다. 그의 의부의 이름이 구양봉이라는 것을 듣고, 게다가 세사람이 매우 꺼려하는 것을 알고 은근히 기뻤다.

황용은 잠자는 양과를 살펴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까 분명히 그의 팔에 독이 퍼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토록 긴 시간이 지났다면 더욱 시커먼 종기가 생겼을 텐데 도리어 독이 가셨으니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녀와 곽정은 반나절을 찾았지만 약초를 구할 수 없었다. 우선 가지고 있던 약을 달여서 그 즙을 그에게 먹였다.

곽정 부부는 가진악과 둘을 데리고 가흥에서 조금 떨어진 동남쪽으로 갔다가 도화도로 들어가서 양과의 상처를 치료하기로 했다. 이날 늦게 여관에 투숙하여 가진악과 양과가 한방에 묵고, 곽정 부부와 딸이 한방에 묵었다.

곽정 부부가 한참 깊은 잠에 떨어질 무렵, 문득 지붕에서 휙,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어서 벽을사이에 둔 방에서 가진악이 크게 소리치며 창을 부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곽정과 황용은 급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가진악은 지붕에서 맨손으로 고전하고 있었다. 상대는 키가 크고 손이 긴 것이 틀림없는 구양봉이었다. 곽정은 크게 놀랐다. 구양봉의 일격이 자칫 사부의 목숨을 앗아갈까 봐 급히 뛰어올라 구하려고 하는 순간, 가진악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지붕에서 떨어졌다. 곽정은 몸을 날려 가진악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기 직전에 가볍게 그를 안고 올라가 가만히 내려 주었다.

[대사부님 ! 어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

[죽지는 않을 것이다. 어서 구양봉을 해치워라.]

[예.]

곽정은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때 지붕에서는 이미 장풍을 날리며 10여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원수와 황용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요즈음 무공이 크게 진보하여 내력도 강해지고 장풍도 변화가 오묘하여 구양봉이 감히 제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곽정이 말했다.
[구양선생 ! 그 동안 별일 없었소 ?]
[무슨 말이냐 ? 너 방금 날 보고 뭐라고 했느냐 ?]
얼굴에 망연한 기색을 띠면서 황용의 공격을 방어만 한 채, 방금 곽정에게서 들은 <구양>이라는 말과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눈치였다. 곽정이 다시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황용은 구양봉의 풍병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음을 눈치채고 급히 외쳤다.
[너는 조전손리(趙錢孫李) 주오진왕(周吳陳王)이다 !]
[내가 조전손리 주오전왕이라고 ?]
[아니다. 너의 이름은 풍정저위(馮鄭楮衛) 장심한양(蔣沈韓楊)이다 !]
그녀가 섬겨 댄 것은 <<백가성(百家姓)>>이라는 책에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뽑은 것이었다. 구양봉은 그렇지 않아도 원래 마음이 어지러운데 그녀가 갑자기 10 여 개가 넘는 성을 마구 주워 섬기자 머리가 더욱 혼란해져서 물었다.
[너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란 말이냐 ?]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쳤다.
[너는 바로 내 다섯 형제를 죽인 놈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장이 날아왔다. 바로 가진악이었다. 그는 구양봉의 장풍을 맞았지만 상처는 크게 입지 않아 방에서 철장을 갖고와 다시 싸우려는 것이었다. 곽정이 외쳤다.
[사부님 ! 조심하십시오.]
가진악이 철장을 날린 곳은 구양봉과 한 자 거리도 되지 않았다. 다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철장이 되돌아 공격을 해 온다. 가진악은 철장을 잡지 못하고 철장이 손을 떠나면서 몸도 지붕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곽정은 사부가 비록 떨어져도 별 탈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양봉이 이 틈을 타서 재차 공격을 가한다면 매우 위험한 노

릇이었다.
[자, 받아라 !]
곽정은 왼발을 조금 굽히고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며 장풍을 날렸다. 바로 강룡십팔장(降龍十八掌) 중의 항룡유회(亢龍有悔)였다. 이는 그가 밤낮으로 수련에 수련을 거듭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10여 년 간의 괴롭고도 긴연마를 거쳐 이제는 고도의 경지에 이른 것이었다. 처음의 공격은 가벼운 듯하지만 일단 저항을 받으면 순식간에 13배가 강해져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더하게 되면 격파당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는 그가 구음진경에서 터득한 묘경으로서 홍칠공 당시에는 일초만을 보아도 이보다 더 정묘한 경지는 없었다.
구양봉은 가진악을 지붕 아래로 떨어뜨리고 난 뒤,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에 와 닿더니 바람은 비록 강하지 않지만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급히 아래로 몸을 튕기면서 두 손으로 장풍을 날렸다. 이것은 그가평생에 걸쳐 터득한 합마공이었다. 세 번을 서로 나누자 두 사람의 몸이 모두 흔들렸다. 곽정은 장력을 급히 한 단계 높여 파도가 솟구치듯 맹공을 퍼부었다. 구양봉은 끄윽끄윽, 소리를 내지르며 몸이 휘청거리는 게 금방이라도 나가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곽정이 장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의 반격하는 힘도 증가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무예를 겨루지 않은 지 이미 10여 년. 이제 강남에서 다시 만났으니 상대방의 무공이 어느 정도로 진보했는지 보고 싶었다. 지난번 화산에서 무술을 논할 때에는 감히 곽정이 구양봉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로 곽정은 맹렬하게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여 그의 무공은 거의 원숙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곽정은 그와 나란히 겨루게 된 것이다. 황용은 남편이 혼자의 힘으로 이기도록 한쪽 옆으로 물러서서 전혀 협공을 하지 않았다.
남방의 지붕과 북방의 지붕은 전혀 달랐다. 북방의 집은 겨울내내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서 지붕이 매우 견고했다. 그러나 회수(淮水) 이남으로는 지붕에 기와만을 덮어서 가볍고 편리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되어 있었다. 곽정과 구양봉이 서로 장력으로 맞서자 다리에까지 힘이 들어가 우지끈,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서까래가 절단이 나서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둘은 아래로 떨어졌다.

황용은 놀라 급히 뛰어내렸다. 두 사람은 여전히 쌍장으로 서로 버티며 서까래를 밟고 있었다. 이 서까래는 여관에 머무른 손님의 몸을 누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달콤하게 잠을 자다가 느닷없이 화를 당하여 두 다리가 골절되자, 매우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내질렀다. 곽정은 차마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서 발에 힘을 주지 않았지만 구양봉은 옆의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공세는 막상막하였지만 곽정은 발에 허가 생겨 장풍의 위력이 약해지니 점차 밀린다. 그는 단장으로 적의 쌍장을 공격했다. 전신의 힘이 오른손에 모여 있어 왼손은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었다. 황용은 남편의 몸이 약간 밀리며 패색이 엿보이자 외쳤다.

[자, 장삼이사(張三李四), 이 바보 같은 얼간이 왕팔아, 받아라 !]

바람에 나부끼듯 가벼운 장풍을 구양봉의 어깨에 날렸다.

이초의 장풍은 비록 가볍다고는 해도 낙영신검장법(落英神劍掌法)의 상승 무공으로서 적의 몸을 무너뜨리며 강력한 힘으로 내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양봉은 당대의 무인, 상처를 주지는 못했다. 구양봉은 그녀가 또 괴이한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자 어리둥절해 하다가 그녀의 쌍장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곽정의 장풍을 얼른 옆으로 밀어내며 전광석화와 같은 솜씨로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고 갈고리 같은 다섯 손가락으로 살점을 뜯어 냈다.

황용은 구양봉의 공격을 받자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지붕에서 떨어지기 전에 몸을 날렸다. 구양봉과 곽정이 반 장의 거리를 두고 꼼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이미 내상(內傷)을 입은 것이었다.

황용은 적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의 곁에서 가만히 지켜 보았다. 둘은 눈을 감고 기를 움직이더니 우윽, 두 마디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선혈을 뿜어 냈다.

[강룡십팔장, 허, 과연 무시무시하구나 !]

구양봉은 한 차례 조소를 터뜨리고는 달아나 순식간에 종적을 감추었다.

이때 여관은 이미 수라장이 되었다. 황용은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알고 가진악의 손에서 딸을 건네안고 말했다.

[사부님, 이이를 부탁합니다. 어서 가시지요 !]

가진악은 곽정을 어깨에 둘러메고 북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가 황용은 갑자기 양과가 생각났으나 그 아이가 어디로 달아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중상이 더 걱정이 되어 다른 일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

곽정은 정신이 말짱했지만 구양봉의 장력에 기를 눌리어 말을 할 수가 없었따. 그는 가진악의 어깨에서 호흡을 조절하며 기를 움직여 맥을 통하게 했다. 거의 7,8 리를 가자 맥이 모두 통하게 됐다.

[대사부님 ! 이제 괜찮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가진악은 그를 내려 놓고 물었다.

[좀 어떤가 ?]

곽정은 고개를 흔들었다.

[합마공은 역시 무시무시하더군요 !]

말을 끝내며 딸만 어머니의 어깨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것을 보고 물었다.

[양과는 ?]

가진악은 양과가 누군지 잠시 잊고 있다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황용이 말했다.

[마음 놓으세요. 먼저 쉴 곳부터 찾은 뒤에 제가 돌아가서 찾아보지요.]

이때 날이 밝아 오면서 길가의나무와 집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

다. 곽정이 말했다.

[내 상처는 대단하지 않소 ! 우리 함께 가서 찾아봅시다.]

황용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 아이는 지나칠 만큼 영특해요. 너무 신경쓰실 것 없어요 !]

바로 이때 갑자기 길 옆의 흰 담장에서 조그만 머리가 움직이더니 쏙 숨어들었다. 황용이 몸을 날려 잡아 보니 바로 양과였다. 그는 킬킬거리며 말했다.

[아주머니, 이제서야 오셨군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황용은 뭔가 의심을 감추지 못했지만 선뜻 대답을 했다.

[그래, 우리와 같이 가자!]

양과는 웃으며 뒤를 따랐다. 곽부가 눈을 뜨며 물었다.

[어디에 갔었니 ?]

[귀뚜라미를 잡으러 갔었더. 참 재미있었어.]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니 ?]

[흥 ! 얼마나 재미있었는데……, 큰 귀뚜라미가 늙은 귀뚜라미하고 싸우는데 늙은 귀뚜라미가 졌어. 그런데 또 두 마리 조그만 놈이 와서 도와, 세 마리가 함께 공격을 했지. 큰 귀뚜라미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기서 다리를 물어뜯고 저기서 물어뜯고, 헤헤, 참 무섭던데…….]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곽부는 멍하게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

[재미도 없다면서 왜 궁금해 하니 ?]

곽부는 양과가 탁 쏘아붙이자 화가 나서 몸을 돌리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황용은 그가 말하는 것이 분명히 구양봉을 칭찬하고 자기 부부를 ..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했다. 곽정은 밥을 세 그릇이나 먹

고 걸상에 앉아 눈을 감고 수련을 했다. 황용은 남편이 이제 거의 안

정이 되어 더 이상 위험이 없음을 알고 그의 곁에 쪼그려 앉았다. 양과를 만난 이래 지금까지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자 이 아이의 나이는 어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구색이 많음을 느꼈다. 자세히 물어도 사실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구석도 많고 하여 아무래도 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은 별 말을 하지 않고 저녁을 먹은 뒤 각자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양과는 가진악과 조

용히 몸을 일으켜 가진악이 코를 골며 깊이 잠에 곯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양과는 뉩見 준비했

針뼈를 품속에서 꺼내 던져 주었다. 두 마리의 개

는 뼈다귀를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었다.

양과는 잠시 방향을 가늠하더니 섯注恬 눼裏 양

과는 기뻐서 탁자를 더듬어 촛대를 찾아 불을 밝힌다. 구양봉은 신상 앞의 짚더미에 몸을 눕히고 정신이 아득한 채 가느

지 않았다.

지난 밤, 구양봉은 양과와 가진악이 여관의 같은 방에 묵고 있을 때 다시 양과를 찾아갔었다. 가진악이 이를 알아채고 구양 다 상처를 입고, 구양봉은

멀리 달아난 것이다. 양과는 혼란중에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몰래 구양봉을 따라갔었다.돝

나중에는 걸음을 옮기기도 힘겨웠다. 양과는 급히 쫓아가 그를 부축하여 길가에 쉬게 했다. 양과는 자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황용이녕람은 깊은 관계가 있었다.

양과는 품에서 7,8 개의 만두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아버지, 드세요.]

구양봉은 밖에 나갔다가 읏 있느냐 ?]

양과는 사실대로 일일이 말해 주었다.

[그 곽가놈도 내 장풍을 한 대 맞았으니 일주일 정도는 쩔쩔맬 것임
에 틀림없다. 립뼈舅멎반드시 찾아올 아난 것이다. 양과는 혼란중에 자기에
農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몰래 구양봉을 따라갔었다.돌
나중에는 걸음을 옮기기도 힘겨웠다. 양과는 급히 쫓아가 그를 부축하
여 길가에 쉬게 했다. 양과는 자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황용이녕람은 깊은 관
계가 있었다.
양과는 품에서 7,8 개의 만두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아버지, 드세요.]
구양봉은 밖에 나갔다가 웃 있느냐 ?]
양과는 사실대로 일일이 말해 주었다.
[그 곽가놈도 내 장풍을 한 대 맞았으니 일주일 정도는 쩔쩔맬 것임
에 틀림없다. 립뼈舅멎반드시 찾아올 텐데······, 내 힘이 다한 것이 안타깝
립
아, 형제만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네 놈, 다섯 놈······.]
말끝을 흐리며 구양봉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해 댔다.
양과는 땅에 앉아 두 손으로 턱을 괴었다. 조그만 머릿속에 수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렇다 ! 좋은 수가 있다. 내가 땅에 날카로운 무기를 깔아 놓으
면 그 늙은이가 들어오다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는 탁자 위에 있던 네 개의 촛대를 들고 먼지가 수북 쌓인 다른
촛대를 끄집어 내어 입구에 놓아 둔 뒤, 묘문을 살짝 닫고서 쇠향로를
옮기어 묘문 위에 올려다 놓았다. 그는 사방을 살펴 다시 위험한 함정
을 만들 궁리를 하다가 마침 바로 옆에서 제사용의 큰 쇠종을 발견했
다. 종은 세 사람이 들어도 들지 못할 만큼 무거워 천 근은 가히 넘을
듯싶었다. 종의 꼭대기에는 아주 정교한 쇠갈고리가 있어서 커다란 나
무로 만든 종틀에 매어져 있었다. 이 철창묘는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아서 거의 부서져 버렸지만 큰 종과 나무틀만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였다.

(그 늙은이가 오면 저 종틀 위로 올라가 쉽사리 찾지 못하도록 해야
겠다.)

그는 촛불을 들고 뒤뜰로 가서 몸을 방어할 무기를 찾으려고 했다.
문득 큰 길에서 똑, 똑, 똑 하는 쇳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진악의
철장 소리였다. 양과는 급히 촛불을 끄며 생각했다.

(참, 이놈은 장님이니 내가 촛불을 끌 필요가 없지.)

똑, 똑 하는 소리가 점차 가까와지자 구양봉은 벌떡 일어나 앉아 온
몸에 남은 힘을 다하여 오른쪽 손에 힘을 모아서 선제 공격으로 장풍
을 날렸다. 양과는 수중에 있던 촛대의 쇠바늘을 가지고 구양봉의 곁
을 지키며 <내 비록 무예가 많이 모자라지만 의부를 위해 이놈의 늙은
이와 감히 대적하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가진악은 구양봉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으리라
고 생각했다. 철창묘 부근은 바로 구양봉이 옛날에 노닐던 곳, 그가
감히 민가에 거처하지는 않을 것이로되, 틀림없이 묘 안에 있으렷다 !
다섯 형제가 처참하게 이놈의 독수를 맞은 것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
다. 지금이야말로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다. 어찌 이를 놓치랴 !
한참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 양과를 불렀다.

[과야 ! 과야 !]

대답이 없자 가진악은 양과가 깊이 잠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찾아도 보이지
않자 담 밖으로 나가 보았다. 담 밖에는 두 마리의 개가 뼈다귀를 물
고 낑낑대느라 그가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철창묘 앞으로 오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과연 묘
안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 이 가진악이 너를 찾아왔다. 썩 나서지 못하겠느냐 ?]

가진악은 철장으로 땅을 쿵, 하고 내리쳤다. 구양봉은 단전의 기가駑막 !
齋嚮 통증이 오면서 또 하나의 쇠바늘이 살

속을 파고 이 없자 지팡이를 들어 묘문을 쳐서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휘익, 다시 구양봉의 숨소리가 들리자 발바닥을
片瘀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세 자 정도의 거리에 이르러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외쳤다.
[요망한 놈 ! 죽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렷다 !]
구양봉은 있는 힘을 다해 모든 기를 오른쪽 어깨에 모아서 가진악의
지진악은 이 원수가 중상
을 입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의 첫 초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은 그가 씬멋숨소리를 듣는 순간 뇌리에
零堀한보구 남회인
등 캅殷들었다. 왼손으로 홋대의 쇠바늘을 뽑아 내자 선혈이 뿜어
나왔다. 이때 다시 구양봉의 숨소리가 들리자 발바닥을 끌며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세 자 정도의 거리에 이르러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외쳤다.
[요망한 놈 ! 죽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렷다 !]
구양봉은 있는 힘을 다해 모든 기를 오른쪽 어깨에 모아서 가진악의
지진악은 이 원수가 중상
을 입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의 첫 초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은 그가 씬멋숨소리를 듣는 순간 뇌리에
零堀한보구 남회인
등 결의 형제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들은 형님, 어서 내려치지
않고 무엇을 망설이느냐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
었다. 대갈 일성과 함께 진왕편석(秦王鞭石)의 일초를 날려 철장을 구
양봉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구양봉이 얼른 몸을 피하며 장풍을
내려고 했으나 팔을 반 자도 뻗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팔을 내리 떨
구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지팡이 끝이 땅
위의 벽돌을 쳐 부셔 버렸다.

가진악은 일격에 맞추지 못하자 다음 초를 내어 지팡이를 비껴 들고 가운데로 내려쳤다. 보통때라면 구양봉은 가벼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를 빼앗아 몸을 날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온몸이 풀어져 조금도 힘을 내지 못하고 땅에 붙어 이리저리 피하기만 할 따름이었다. 가진악은 강마장법을 사용하여 일초 일초, 쉴새없이 공격을 했다. 구양봉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둔해져서 결국 그의 저복약의(杵伏藥義)에 왼쪽 어깨를 맞고 말았다.

양과는 의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놀라서, 의부를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바라다 볼 수밖에 없었다.

가진악은 계속하여 세 차례를 날려 구양봉의 몸을 쳤다. 구양봉은 오늘 이 위험을 당할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다. 그의 내공이 깊음을 알고 비록 손을 쓰지는 못했지만 온몸이 부서지는 것은 용케 피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일격을 한 곳으로 유도하여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지언정 근골과 내장은 손상당하지 않도록 애썼다. 가진악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이 독물의 무공이 과연 만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지팡이를 내려칠 때마다 정확하게 가격되고 있었지만 그의 몸을 미끄러져갈 뿐이었다. 하지만 놈의 머리는 장력을 미끄러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진악은 생각했다. 이번의 공격은 그의 정수리였다.

구양봉은 여러 번 번개같이 머리를 피했지만 그의 몸은 갈갈이 찢겨져 나갔다. 그의 지팡이에 머리를 맞는다면 끝장일 것이었다. 어쩔 수가 없이 된 구양봉은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지팡이는 이미 외문에 있어서 적을 칠 수가 없어 손을 뻗어 반격했다. 둘은 함께 나가떨어졌다.

구양봉은 손은 늦추지 않고 상대방의 가슴을 옥죄며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는데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었는데 장아생이 사용하던 병인도우도(兵刃屠牛刀)로서, 이름은 그랬지만 소를 잡는 데 쓰는 칼은 아니었다. 병인도우도는 쇠를 가르고 옥을

자를 정도로 날카로운 칼이었다. 장아생이 몽고의 사막에서 진현풍의 손에 죽자 가진악은 의제를 잊지 못하여 잠시도 몸에서 그 칼을 떼어 놓은 적이 없었다.

구양봉은 급히 칼을 뽑아서 왼손을 구부려 적의 허리를 찌르려고 했다. 바로 이때 가진악은 지팡이를 던지고 우권을 휘둘러 퍽, 소리와 함께 구양봉의 머리를 내려쳤다. 구양봉은 앞에 마치 별이 날아오는 듯하여 혼미한 가운데 손을 휘둘러 칼을 던졌다. 가진악은 칼이 일으키는 공기 가르는 소리를 듣자 급히 몸을 낮추었다. 쨍그렁, 하는 소리를 시작으로 종소리가끊이지 않았다. 칼이 쇠종에 맞은 것이다. 구양봉이 던지는 힘은 보잘것 없었으나 칼날이 너무나 예리하여 쇠종에 꽂힌 채 쉬임없이 떨었다.

양과는 종 옆에 앉아 있다가 칼이 정면으로 날아오자 깜짝 놀라 허둥지둥 종틀 위로 기어올라갔다.

구양봉은 기운을 차려 종 뒤로 돌아갔다. 이때 종소리가 멈추지 않아 가진악은 잠시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머리를 기울여 가만히 소리를 살폈다. 대전(大殿)에는 달빛이 비스듬히 비쳐 그가 어지러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지팡이를 세우고 귀를 곤두세우고 있응 모습이 무시무시하게 드러났다. 양과는 가진악이 소리를 찾는 것을 알아채고는 도우도를 뽑아서 칼자루로 계속 종을 치기 시작했다. 땅따앙, 땅따앙, 하는 종소리가 그들 모두의 숨소리를 묻어 버렸다.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가진악은 앞으로 주먹을 내질렀지만 구양봉은 이미 종 뒤로 몸을 감추고 난 뒤였다. 가진악이 다시 지팡이를 옆으로 하여 치는데, 구양봉은 이를 잽싸게 다시 피했다. 그때 지팡이가 쇠종을 치면서 굉장한 소리를 냈다.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했다. 양과는 귀가 아팠다. 가진악은 분한 기운에 계속 지팡으로 종을 쳐 댔다. 소리는 울음처럼 굉장한 소리를 내며 계속 울렸다.

그가 계속해서 종을 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가 이렇게 계속 종을 쳐 대면 곽정이 아무리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황용이 즉시

달려올 것을 예상한 것이다.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틈을 타서 구양봉은 살금살금 후전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가진악의 귀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단 말인가. 땅따앙 땅따앙, 종소리가 커다랗게 울리는 중에도 밖으로 나가는 구양봉의 미세한 숨소리를 가진악은 알아챘다. 그러나 그는 모른 체하며 계속 지팡이로 춤추듯 종을 치다가 그가 몇 걸음 나가기를 기다려 종에서 완전히 멀어지자 돌연 몸을 날려 지팡이를 휘둘러 그의 머리를 공격했다.

구양봉은 기력을 다 잃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또한 평생토록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던가 ! 이와 같은 접전 중의 허와 실을 모를리가 없었다. 가진악의 오른쪽 어깨가 약간 들리는 것을 보고 그의 의도를 알아챈 구양봉은 지팡이가 날아오기 전에 다시 몸을 종 뒤에 숨겼다. 그는 중상을 입은 뒤로는 걸음을 옮기기도 매우 힘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사가 달린 순간, 수십 년을 거친 깊은 내공에서 자신도 모르는 힘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가진악은 매우 화가 났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종을 뱅뱅 돌면서 추격했다.

양과는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종을 맴돌면서 의부의 간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음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냈다. 종틀에 올라가 두 손으로 춤을 추며 손짓을 해 댔다. 구양봉은 적의 우격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지 못하다가 다시 두 바퀴째 돌 때에야 양과의 그림자가 땅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가 그에게 어서 달아나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보고 얼른 달아나라고 하는 데에는 무슨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구양봉은 위험을 뚫고 밖으로 달아났다.

가진악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적이 간 방향을 살피고 있는 중이었다. 양과가 신발 두 개를 벗어서 후원으로 던지자 신발 떨어지는 소리가 툭, 툭 들렸다. 가진악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구양봉이 대문 쪽

으로 나가는 소리가 분명 들렸는데 후전에서 또 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그가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그때 양과는 도우도를 들어 쇠종의 나무틀을 가로지른 대들보를 잘랐다. 하지만 대들보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양과의 힘도 약했다. 보도가 비록 예리하기는 했으나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쇠종자체의 무게가 또한 엄청났기 때문에 대들보가 칼에 조금 흠이 생기자 천 근이 넘는 종의 무게를 이겨 내지 못했다.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대들보가 부러져 커다란 쇠종이 질풍을 일으키며 가진악의 정수리로 떨어졌다.

가진악은 머리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것을 듣는 순간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다급한 김에 철장을 곧게 세웠다. 때앵, 하는 날카로운 충돌음을 내며 커다란 종이 철장의 한쪽을 눌렀다. 이렇게 하여 그는 그 틈을 타 종에서 빠져 나왔다. 와지끈, 쿵, 퍼엉, 하는 소리가 연달아 나더니 철장은 둘로 부러지고 종이 엎어지면서 가진악의 어깨를 강타했다. 그는 옆으로 나가 떨어지면서 근육이 뒤집어지고 코에서는 피를 줄줄 흘리고 이마도 크게 깨졌다. 가진악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인지라 이 변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 안에 어떤 괴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긴 가진악은 몸을 일으켜 비틀비틀 자리를 떠났다.

구양봉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저으기 놀라며 말했다.

[안 됐구나, 안 됐어 !]

다시 양과에게 말했다.

[그놈 참 영리하구나 !]

양과는 종틀에서 내려와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다시는 그 늙은이, 오지 않을 거예요.]

구양봉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자는 내게 깊고도 깊은 원한이 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면 필경 다시 올 것이다.]

[그럼, 우리 빨리 달아나요 !]

구양봉은 다시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멀리 달아나지도 못한다.]

그는 위험이 잠시 지나가자 온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에 실로 한 발자국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

구양봉은 깊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대들보를 잘라서 나를 종밑에 가두어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

[내가 종속에서 칠일 동안만 내공을 닦으면 본래의 내 공력이 회복될 것이니 종을 밀치고 나올 수가 있다. 칠일 동안만 그놈이 오지 않는다면, 설사 온다고 해도 이 종을 들 수는 없을 것이다. 황용 그 여자만 오지 않는다면 이 종을 부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왔다 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양과는 달리 아무리 생각해 봐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종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거듭 묻고 다시 물었다.

[칠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

[항아리를 하나 찾아서 그 속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서 내 옆에 놓아 두어라. 그리고 만두도 몇개. 그걸 천천히 먹으면 칠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양과는 후전에 가서 항아리를 하나 찾아다가 맑은 물을 채우고 여전히 놓이 매달려 있는 종 아래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구양봉을 종 아래에 단정히 앉혔다. 구양봉이 말했다.

[얘야, 네가 곽가놈을 따라 어디를 가든 내가 얼마 후에 꼭 찾아가겠다. 알겠느냐 ?]

양과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대에 올라가서 대들보를 베었다. 큰 쇠종이 떨어져 구양봉을 덮쳤다.

[아버지 !]

양과가 불렀지만 구양봉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종 안에서는 밖의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양과는 떠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후전에 가서 항아리를 하나 더 찾는다. 그리고 역시 아까처럼 맑은 물을 가득 담았다. 그리고는 몸을 거꾸로 하여 왼손을 항아리 속에 넣고 구양봉이 알려준 역행경맥법(逆行經脈法)을 써서 손의 독혈을 조금 뽑아 냈다.이 수련은 몹시 힘이 들어서 다시 피로를 느꼈다. 10 여 방울의 검은 피를 뽑아냈을 뿐인데도 얼굴에는 온통 땀이 얼룩졌다. 힘이 다하자 신상 앞에 있는 수건을 몇 개 가져다가 바늘을 싸서 항아리의 핏물에 담갔다가 종의 여기저기에 펴 놓았다. 가진악이 다시 와서 종을 들려고 하다가 종에 손이 닿으면 중독이 되라고 한 술책이었다.

그리고 나서 양과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칼로 종 옆의 벽돌을 긁어 내기 시작한다. 이윽고 주먹만한 구멍이 뚫렸다. 그것은 의부가 종 속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통풍 구멍이었다. 쇠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의 힘든 작업이었지만 도우도는 워낙 예리한 칼이었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 없이 구멍이 뚫렸다. 그는 그 칼이 매우 진귀하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물건이 아니어서 아까운 마음도 없었으므로 한쪽 바닥에 버리고 땅에 엎드려 종 아래의 구명을 향해서 외쳤다.

[아버지, 나는 가요. 빨리 데리러 오셔야 해요. 그리고 종 곁에는 제가 독을 발라 놓았으니 나오실 때 조심하세요.]

머리를 숙여 귀를 구멍에 대니 구양봉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얘야, 나는 독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독이 오히려 나를 무서워하지. 너도 조심하거라. 내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가마 !]

양과는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발길을 돌려 여관으로 돌아왔다. 담을 넘을 때는 가진악이 깨어 있을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겁이 났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 보니 가진악은 아

직 돌아오지 않았다. 뜻밖의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홀연 누군가 휭휭, 곤봉을 휘두르며 방문을 두드렸다. 양과가 급히 침상에서 뛰어내려 방문을 열자 가진악이 곤봉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게 문으로 들이닥치더니 그냥 쓰러진다. 양과는 그의 두 손이 시커멓게 변한 것을 보았다. 구양봉을 다시 찾아갔다가 자기가 펴 놓은 독에 중독이 된 것이 틀림없었다. 은근히 기뻤지만 놀란 것처럼 소리를 높여 외쳤다.

[아니, 아저씨 ! 어떻게 된 일이에요 ?]

곽정과 황용이 양과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가 가진악이 땅에 쓰러진 것을 보고 깜작 놀랐다. 이때 곽정은 걸을 수는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황용이 즉시 가진악을 침상에 눕혔다.

[대사부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가진악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하지 않았다. 황용은 그의 손이 검게 물든 것을 보고 치를 떨었다.

[또 그 이가년이로구나. 여보, 내 가서 요절을 내고야 말겠어요.]

허리띠를 묶고는 밖으로 성큼성큼 나갔다.

가진악이 낮게 말했다.

[그 여자가 아니야.]

황용은 발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

가진악은 닭도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된 자신을 한탄했다. 그는 고집이 너무 세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 부상당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곽정과 황용은 그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다. 말하고 싶다면 스스로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으면 물을수록 화만 낼 것이 뻔했다. 그가 맞은 독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서 일시 기절했다가 구화옥로환을 복용하니 별 탈이 없었다.

황용은 생각했다.

(당장 남편과 사부님은 부상을 입었고, 이막수의 독은 무섭기 짝이

없다. 먼저 두 부상자와 두 아이를 데리고 도화도로 가자. 그곳에 가서 시간을 벌며 만전을 기하자.)

이날 오전 여관에서 반나절을 쉬고 일행은 배를 빌려 동쪽으로 갔다.

양과는 황용이 구양봉을 찾으러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여간 기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곽백모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미인이 설마 가진악보다 더 사납단 말인가 ? 알 수 없는 일이군.)

그들은 배를 저어 반나절을 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배를 물가에 대고 사공의 집에서 쌀을 씻어 밥을 했다. 곽부는 양과가 자기를 상대하지 않자 화도 나고 심심하기도 해서 배의 창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다가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두 아이가 어엉어엉 우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돈유, 무수문 형제였다. 곽부는 큰 소리로 불렀다.

[얘들아 ! 너희들 거기서 뭘 하고 있니 ?]

무수문이 고개를 돌려 곽부를 알아 보고 울면서 말했다.

[울고 있잖아 ? 보면 모르니 ?]

[왜 우는 거냐 이 말이야 ! 엄마가 때렸니 ?]

[엄마는 죽었어.]

무수문이 울면서 말했다.

황용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 물가로 뛰어올랐다. 두 아이는 어머니의 시신을 어루만지며 슬피 울고 있었다. 황용이 다시 무삼통의 소식을 묻자 무돈유가 울면서 대답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무수문이 말했다.

[엄마는 아버지의 상처에서 독을 빨아 독혈을 많이 뽑아 냈어요. 아버지는 괜찮아졌지만 엄마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죽은 것을 보고는 마음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셨는지 우리가 불렀지만 들은 척도 않고 어디론가 가 버렸어요.]

말을 끝내자 또 다시 울기 시작했다. 황용은 생각했다.
(무삼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남편을 구했구나. 참으로 열녀야 !)
[너희들 배고프지 ?]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용은 한숨을 내쉬고 사공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도록 했다. 그 길로 곧바로 마을에 가서 목관을 사서 무삼랑을 넣었다. 늦게까지 안장을 하지 못하여 다음날 아침에 땅을 사서 관을 묻었다. 무씨 형제는 무덤 앞에 엎드려 대성 통곡했다.
곽정이 말했다.
[여보 ! 이 두 아이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 우리가 도화도로 데리고 갑시다. 앞으로 당신이 잘 보살펴 줘야겠소.]
황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황용은 무씨 형제의 손을 잡고 배에 올랐다. 바닷가 쪽으로 나간 그들은 다시 큰 배를 빌린 뒤 동쪽 도화도를 향해 출발했다.

*** 도화도의 반항아 ***
곽정은 배 안에서 꾸준히 심호흡을 하며 몸을 다스려 수일 만에 상처는 거의 완쾌가 되었다. 곽정 황용 부부는지난 10 여 년간 보지 못한 구양봉을 이야기하며 단지 보지 못하여 잊었을 뿐 무공은 예전보다 훨씬 출중하니 만약 곽정의 가슴에 명중되었다면, 그처럼 10 여 일 만에 회복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또 홍칠공을 이야기하며 아직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매우 걱정이었다. 황용은 비록 도화도에 은거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어 개방의 일은 지금 노유각(魯有脚)이 황용의 이름으로 대신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번에 강남에 온 것은 원래 개방의 장로(長老)를 찾아가 개방의 일을 상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홍칠공의 근황을 알아 보려 했던 것이나 곽정이 상처를 입는 바람에 도화도로 향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자연 양과에 관한 것에도 미쳤다. 황용은 그를 선실로 불

러들여 그간의 사정을 알아보았다. 양과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과 자기가 가흥에까지 유랑해 온 과정을 말했다. 곽정 부부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부모의 정이솟아나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곽정은 양과의 어깨에 다정스레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는 예전부터 너를 만나기를 소원했었다. 이제 천만다행으로 너를 찾았으니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옛날 곽정의 아버지 곽소천과 양과의 할아버지 양철심이 서로 의형제를 맺자 두 집안의 여자들이 각기 임신을 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약속하기를, 이후 태어나는 아이가 만약 모두 사내라면 의형제를 맺고, 만약 계집애라면 자매가 되며,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남자라면 그들은 부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후일 양가에 태어난 아이가 모두 사내였으므로 곽정과, 양과의 아버지 양강은 서로 의형제를 맺었다. 그러나 양강은 나쁜 무리와 친하고 불의를 많이 범하여 마침내 가흥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곽정은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꺼림칙해 했다.이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자 황용이 일찌감치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고개를 흔들며,

[당신이 하려는 마레 나는 응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말했다. 곽정은 당황해서 물었다.

[어째서요 ?]

황용은 말했다.

[부아(芙兒)가 어찌 저런 소인(小人)의 배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

곽정은 말했다.

[그의 부친이 비록 좋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본래 곽씨와 양씨 두 집안은 대대로 사이가 좋았다오. 내가 그를 보건대 용모가 수려하고 총명하여 이후 우리와 함께 지내면 뛰어난 사내로 장성할 것이오.]

[나는 그의 총명이 지나친 것을 걱정하고 있답니다.]

곽정이 황용의 말을 듣고 말했다.

[당신도 매우 총명하지 않소 ? 총명하다는 게 왜 흠이 된단 말이오
?]

황용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오히려 당신과 같은 멍청한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곽정도 웃으면서 말했다.

[하긴 나 같은 멍청이는 천하에 다시 찾아보기 힘들 것이오.]

두 사람은 몇 마디 농담을 더 나누었다. 그러나 곽정은 이내 화제를
바꾸었다.

[나의 아버님은 이러한 유명(遺命)을 남기셨고, 양철심 숙부도 임종
때에 내게 큰 책임을 맡기셨소. 그러나 양강 형제에게나 목세(穆世그 아이
들이 장차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할 따름이에요.]

곽정은 모은 손을 밑으로 내 어찌 아버님과 양숙부를 대할쁘게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양강 형제는 어려서부터 금국왕부(金國王府)에서 공부를 했소. 과
아가 우리의 섬에서 자란다고 해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겠소. 더우기
그의 이름은 그때 우리가 붙여 준 것이 아니오 ! 그의 이름은 양과이
며 자(字)는 개지(改之)로서 과실鰊티 능히 바로 잡으라는 뜻이
오. 당신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오.]

황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름으로 어찌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겠씬멎 웃으면서
말머리를 돌린 뒤, 다시는 이 일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배는 조용히 [illegible] 내리면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양강 형제는 어려서부터 금국왕부(金國王府)에서 공부를 했소. 과
아가 우리의 섬에서 자란다고 해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겠소. 더우기
그의 이름은 그때 우리가 붙여 준 것이 아니오 ! 그의 이름은 양과이
며 자(字)는 개지(改之)로서 과실鰊티 능히 바로 잡으라는 뜻이

오. 당신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오.]
황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름으로 어찌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겠씬멎 웃으면서
말머리를 돌린 뒤, 다시는 이 일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배는 조용히 흘러 어느덧 도화도에 도착했다. 곽부는 같은 또래의 세 친구들을 만나자 매우 즐거워했다. 양과는 황용의 해독수를 먹고 몸 속에 있던 독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와 곽부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해 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모두들 친해졌다. 이 며칠간 그들은 귀뚜라미를 잡아서 서로 싸움을 시키면서 보냈다.
어느날 양과는 집을 나와서 다시 귀뚜라미를 잡기 위해 청소정(淸嘯亭)을 돌고 있을 때였다. 산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기에 재빨리 그곳에 가니 곽부와 무씨형제가 돌을 들고 풀을 헤치며 귀뚜라미를 잡고 있었다. 무돈유는 조그만 죽통(竹筒)을 들고, 곽부는 그릇을 들고 있었다.
무수문이 돌 하나를 쳐들자 찌르르, 소리와 함께 한 마리 커다란 귀뚜라미가튀어 나왔다. 무수문은 몸을 숙여 엎드려 양손으로 귀뚜라미를 잡고 환성을 질렀다. 곽부가 소리 질렀다.
[내게 줘, 응 ? 내게 달란 말야.]
무수문은 귀뚜라미를 잡고 말했다.
[좋아. 네게 주겠다.]
그릇의 뚜껑을 열고 귀뚜라미를 안에다 밀어넣자 유난히 큰 귀뚜라미의 머리와 튼튼한 뒷다리가 가히 웅준(雄駿)이었다.
무수문이 말했다.
[이 귀뚜라미는 무적의 대장군이야 ! 양과의 귀뚜라미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야.]
양과는 마음속으로 몇 개의 죽통에 있는 귀뚜라미 가운데 제일 용맹한 놈을 뽑아서 싸움을 시키려 했다. 싸움이 몇 번 진행되고 그 귀뚜라미가 입을 크게 벌려 양과의 귀뚜라미를 물자 양과의 그 것은 허리

를 물려 그릇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곽부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야아, 신난다 ! 내 것이 이겼다.]

양과는 말했다.

[기뻐하기는 아직 일러. 내것이 아직 몇 마리 더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세 마리의 귀뚜라미가 모두 패하고 세번째 귀뚜라미는 심지어 그 큰 귀뚜라미에 물려서 몸이 두 동강이 나기도 했다.

양과는 한풀 꺾인 모습으로 말했다.

[아이, 재미 없다 !]

그 말을 남기고 양과는 몸을 돌려서 가 버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뒷편 숲속에서 찌이, 찌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틀림없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였다. 소리가 매우 이상하였다. 무돈유가 말했다.

[또 한 마리가 있다.]

풀숲을 뒤지다가 갑자기 뒤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온다.

[앗 ! 뱀이다, 뱀 !]

양과는 얼른 몸을 돌려서 달려와 보니 과연 한 마리 꽃무늬 독사였다. 뱀은 머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숲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양과는 돌멩이를 집어서 뱀에게 던졌다. 돌은 뱀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뱀은 몸을 몇 번 비틀더니 이내 죽어 버렸다.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던 바로 옆에 새까맣고 조그만 귀뚜라미 한 마리가 보였다. 모양이 괴상하게 생긴 놈이었는데 여전히 날개를 비벼 찌륵찌륵 소리를 내고 있었다.

곽부는 웃으면서 말했다.

[양과, 네가 저 조그만 놈을 잡는 게 어때 ?]

양과는 그녀의 말에 얼마간의 조롱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매우 화가 났다.

[좋다, 내가 잡지.]

양과는 조그마하고 새까만 귀뚜라미를 잡았다. 곽부가 말했다.

[저 조그마하고 새까만 놈은 도대체 어디에 쓰지 ? 나의 무적 대장군과 싸움이 될까 !]

양과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한번 붙여 보자. 이놈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기 바쁘게 그놈을 곽부의 그릇에 넣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곽부의 커다란 귀뚜라미가 이 조그마하고 검은 귀뚜라미를 보자 비실비실하다니 꼼짝을 못 하는 거였다. 곽부와 무씨 형제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큰 귀뚜라미를 응원했다. 조그마하고 검은 귀뚜라미가 고개를 쳐들고 앞으로 나가자 그 큰 귀뚜라미는 감히 접전하지도 못하고 그릇 밖으로 튀어나가려고만 했다. 조그마하고 검은 놈이 한 번 높이 튀더니 큰 놈의 꼬리를 물어 두 마리가 함께 허공에서 떨어졌다. 큰 놈은 몇 번 몸을 떨더니 배를 공중으로 뒤집고 이내 죽어 버렸다.

본래 귀뚜라미 중에는 독충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는 종류가 있는데 지네(蜈蚣)와 함께 사는 것은 <지네귀뚜라미>라 하고 독사와 함께 사는 것을 <뱀귀뚜라미>라 했다. 그것들은 몸 속에 독충의 독기가 배어 있는 까닭에 보통 귀뚜라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양과가 붙잡은 그놈이 바로 뱀귀뚜라미(蛇솔)였던 것이다.

곽부는 자기의 무적 대장군이 한 번에 죽어자빠지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지만 생각을 바꾸어 말했다.

[그거 내게 안 줄래 ?]

양과가 말했다.

[그래, 네게 주마. 원래 별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너는 왜 이놈을 조그마하고 검다고 비웃었지 ?]

곽부는 조그만 입을 삐죽이며 화를 내면서 말했다.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될 것 아냐 ! 주기 아깝니 ?]

하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그릇을 한 번 흔들자 조그마하고 검은 그 귀뚜라미가 마침 땅에 떨어졌다. 곽부는 오른발로 귀뚜라미를 밟아 버렸다. 귀뚜라미는 배가 터져 죽어 버렸다. 양과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울화가 치밀어 그녀의 따귀를 여러 대 때렸다.

곽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맞으면서도 울어야은 몸을 아닌지 갈피를 못 잡았다. 무수문이 양과를 욕했다.

[이 자식이, 사람을 때리다니 !]

하고 말하면서 양과의 가슴에 일격을 가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공을 전수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무수문 또한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약간의 무공이 있었던 터였다. 이러한 깟 진남금에게 아주 조악雌像밦했으니 그 위력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양과도 또한 참을 수가 없어서 반격의 주먹을 날렸지만 무수문은 가볍게 몸을 피했다. 양과가 재차 추격하자 옆에 서 있던 무돈유가 다리를 걸어서 양과는 땅에 나뒹굴었다. 무수문은 몸을 돌려 裏 곽부는 옆에서 무씨 형제가 자신을 위해서 분풀이를 해 주는 것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다.

무씨 형제는 만약 그의 얼굴을 때려서 상처가 생긴다寧纛肝네
주먹에 당할 수가 없었는데다가 무씨 형제는 어려서부터 정식으로 무술을 연마했던 터였고, 양과는 단지 진남금에게 窄떠@멎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의 후끈거리는 뺨을 어루만지면서 양과가 혼이 나는 것이 아무래도 통쾌했다. 곽부는 소리 질렀다.

[힘을 내서 쳐라. 아주 혼을 내 줘라.]

무씨 형제는 곽부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를 때리는 손이 더욱 부지런해졌다.

양과는 땅에 엎드려 얻어맞으며 곽부의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양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악독한 계집애구나 ! 좋다, 내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 테다.)

그러나 허리와 등, 그리고 엉덩이가 말할 수 없이 아팠기 때문에 점

점 참기 힘들었다. 어려서부터 무술을 연마향 힘든 것이었으나 양과 또한 일
찌기 내공을 연마했기
에 그나마 견뎌 내지,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벌써 기절했을 것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양손을 계속해서 더듬다가 왼손에 하나의 미
끈한 물체를 잡았다. 그것은 조금 전에 때려 죽인 독사였다. 그는 그
것을 마구 홍늬의 독사를 보자 그것이 아무리 죽은 것이지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양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뻗어서 호되
게 일격을 가하니 무돈유의 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틈에 얼
른 일어나서 도망을 쳤다. 무씨 형제는 매우 화가 나서 그를 뒤쫓았
다. 곽부는 계속해. 만약 저들 형제들에게 잡힌다면 저 꼬락서니보다 더 심
하게
당할 것이 뻔했다. 양과는 쉬지 않고 시검봉(試劍峯) 골짜기로 도망쳐
서 이내 산봉우리로 기어올라갔다.
 무돈유는 비록 코에 한 대 맞아 코피를 흘렸지만 그리 크게 아팠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피를 보자 두렵궜다. 양과가 높이 올라갈수록 무씨 형제
도 조금도 늦
추지 않았다. 곽부는 산허리에서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무씨 형
제들이 기를 쓰고 달려오고 있었다. 양과가 계속 달아나자 문득 길이
끊기며 앞에 절벽이 가로놓였다.
서 그를 뒤쫓았
다. 곽부는 계속해. 만약 저들 형제들에게 잡힌다면 저 꼬락서니보다 더 심
하게
당할 것이 뻔했다. 양과는 쉬지 않고 시검봉(試劍峯) 골짜기로 도망쳐
서 이내 산봉우리로 기어올라갔다.
 무돈유는 비록 코에 한 대 맞아 코피를 흘렸지만 그리 크게 아팠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피를 보자 두렵궜다. 양과가 높이 올라갈수록 무씨 형제
도 조금도 늦
추지 않았다. 곽부는 산허리에서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무씨 형

제들이 기를 쓰고 달려오고 있었다. 양과가 계속 달아나자 문득 길이 끊기며 앞에 절벽이 가로놓였다.

옛날에 황약사는 새로운 묘기를 창안하여 절벽을 뛰어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산중에서 연마를 하곤 했는데 양과는 어떻게 이 절벽을 뛰어넘을 것인가 !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설사 절벽을 뛰어내리다가 죽을지라도 저놈 형제들에게 붙잡혀 다시 얻어터지지는 않으리라.)

양과는 몸을 돌려서 소리쳤다.

[너희들이 만약 한 발자국 더 올라오면 나는 밑으로 뛰어내리겠다.]

무돈유는 양과의 말에 머뭇거렸으나 무수문은 맞장구를 쳤다.

[뛰어내리고 싶으면 뛰어내리려무나 ! 아무도 너의 허풍에 속지 않는다. 이 배짱도 없는 녀석아 !]

그리고 다시 몇 걸음 더 올라갔다.

양과는 약이 올라 정말 뛰어내리려고 했다.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별안간 바로 자기 옆에 큰 돌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돌은 몇 개의 작은 돌에 받쳐 있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불안전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는 매우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손을 뻗쳐서 큰 돌 아래에 있는 몇 개의 작은 돌들을 끄집어 내었다. 그러자 커다란 돌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흔들리는 돌의 뒤에 가서 엎드려, 있는 힘을 다해서 밀었다. 돌은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산허리를 향해 밑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무씨 형제는 그가 돌을 미는 것을 보자 둘 다 놀라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몸을 움츠리며 재빨리 돌을 피하였다. 돌은 수많은 흙덩이와 함께 무씨 형제의 옆을 커다란 소리를 내며 지나치면서 굴러, 산허리에 있던 많은 꽃나무들을 휩쓸며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돌을 비켜 서 있던 무돈유가 미끄러져 굴러 내려왔다. 무수문이 급히 그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산기슭에 언제까지나 서 있을수도 없는 형국이었다. 결국 한 무더기의 흙과 함께 데굴데굴 굴러내려오다가 그

들은 큰나무 줄기에 걸렸다.
 황용은 집에 있다가 멀리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황급히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왔다. 시검봉 밑에 이르니 진흙과 모래가 어지러이 날리고 있었다. 곽부는 숲에 숨어서 울지도 웃 " 지도 못하고 질려 있었으며 무씨형제는 머리와 얼굴이 온통 먼지와 피투성이였다. 황용은 곽부를 껴안고 소리쳐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
 곽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마침내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곽부는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다가 양과가 자기를 때린 일과 무씨 형제가 자기를 도운 일과 양과가 돌을 밀어뜨려 무씨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은 모두 양과에게 전가해서, 자기가 귀뚜라미를 밟아 죽인 일과 무씨 형제가 양과를 심하게 때린 일 등은 모두 속였다. 황용은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곽부의 볼이 불그스레하게 부은 것을 보고 양과에게 맞은 일이 사실인 모양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가엾은 생각이 들어 딸을 위로했다.
 이때 곽정도 황망히 달려와서 무씨형제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사건의 경과를 물었다. 그러나 곧 양과가 걱정이 되어서 산꼭대기에 올랐으나 산봉우리 어느 곳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다.
 [과아(過兒)야 ! 과아야 !]
 곽정의 높은 목소리는 아주 멀리에까지 퍼져 갔지만 여전히 양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떤 반응도 표하지 않았다. 곽정은 잠시 기다렸으나 점점 걱정이 되어 산을 내려가 배를 저어서 섬을 돌며 양과를 찾았으나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양과는 큰 돌을 밀고 나서 무씨 형제가 산기슭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한 멀리서 황용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다. 이번 일로 아무래도 크게 야단을 맞을 것을 걱정한 양과는 몸을 움츠려 부근의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얼마 후 곽정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점차 배가 고파졌으므로 숨어 있던 돌 틈에서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땅거미가 지더니 바다에서부터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으며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 반짝이기 시작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는 한기를 느꼈다. 오랜시간이 흐른 뒤 바위 틈을 빠져 나와 산아래를 내려다보니 정사(精舍)의 창문으로 불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다. 저 집안에서는 지금쯤 곽정 부부 가진악 곽부, 그리고 무씨 형제들이 정답게 둘러앉아 갖가지 요리가 차려진 저녁을 먹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자기를 질책할 것을 생각하니 다시금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캄캄한 밤에 산꼭대기 절벽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하며 양과는 일생 내내 모욕과 세상의 냉대를 받을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떠올리면서 고독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러나 사실 곽정은 양과를 찾지 못하고 어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 황용은 남편이 고민하는 것을 고고서 식사를 권해도 먹지 않을 성미임을 잘 아는지라 자신도 그와 함께 묵묵히 앉아 있었다.

다음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두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를 찾기 시작했다.

양과는 반나절과 하루 저녁을 굶었기 때문에, 허기를 참을 수 없어서 다음날 아침 일찌기 조금씩 산봉우리에서 내려왔다. 그는 시냇가에서 몇 마리의 청개구리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마른 낙엽을 찾아서 구워 먹으려 했다. 그는 홀로 유랑하면서 전에 이런 방법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었다. 그때마다 그는 곽정 황용에게 연기가 발견될 것을 두려워해서 산에 있는 동굴에 숨어서 불을 피우고 개구리의 다리가 어느 정도 구워졌다 싶으면 즉시 불을 끄곤 했다. 개구리를 다 먹을 즈음, <과아야 과아야>하는 곽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흥, 나를 찾아서 때리려고 ? 어림없다. 나는 결코 나가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그는 산에 있는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구양봉이 동굴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구양봉이 말했다.

[양과야 ! 나는 너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어 네가 무씨 형제들에게 얻어맞는 것을 면하도록 해 주겠다.]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그와 함께 동굴을 나왔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려 쿠쿠쿠,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을 미는 것을 보았다. 양과는 그와 함께 단련을 시작했으나 단지 손바닥을 펴고 발을 찰 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았다. 갑자기 구양봉이 손을 휘둘러 공격하자 그는 엉겁결에그만 피하지 못하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얻어맞아 그 바람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꿈이었다. 그는 머리를 더듬어 보니 실제 한 개의 혹이 솟아 있었다. 그는 다시 머리가 아파 오는 것을 느끼고 홀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 시각쯤이면 이미 상처가 다 치유되어 종 밑에서 나오셨을 것이다. 그가 언제쯤 나를 찾아와 내게 진짜 무술을 가르쳐 준단 말인가. 내가 여기에서 당한 수모와 모욕을 언제쯤 씻을 수 있단 말인가 !)

동굴을 나와 하늘을 쳐다보니 몇 개의 별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구양봉이 꿈 속에서 자기에게 가르쳐 준 무술을 생각하려 했으나 도무지 하나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그는 몸을 쪼그리고 쿠쿠쿠, 하는 소리를 질러서 수양봉이 그때 가흥에서 전해 준 합마공의 무술을 팔다리에 사용하려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았다. 그는 어렵게 어렵게 두 손을 밀었지만 꿈속에서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홀로 절벽에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자 적막감이 더욱 엄습해 왔다. 갑자기 바다에서부터 휘파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과아야, 과아야 !]
곽정이 자기를 찾는 소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산봉우리 밑으로 달려 내려가면서 외쳤다.
[나 여기 있어요. 여기예요 !]
그가 달려서 모래사장에 이르자 곽정이 저 멀리에서 그를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에 급히 노를 저어서 해안에 도달해 모래사장에 뛰어오른다.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다. 이윽고 곽정은 양과를 품안에 으스러지게 껴안고 말한다.
[빨리 돌아가서 밥부터 먹자.]
양과는 곽정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흐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황용은 급히 식사를 준비했다. 곽정도 양과와 함께 싯사를 했다. 가족들은 지난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곽정은 양과와 무씨 형제, 그리고 곽부를 대청에 부른 뒤, 가진악을 모셔 왔다. 그리고 네 명의 아이들에게 강남육괴(江南六怪)의 위패에 인사를 드리게 한 후 가진악을 향해서 말했다.
[대사부님 ! 제자들이 사부님의 허락을 요청합니다. 부디 네명의 제자를 거두어 주십시오.]
곽정은 양과와 무씨 형제들에게 우선 가진악에게 인사를 드릴 것을 명한 뒤, 다시 황용과 함께 배사지례(拜師之禮)를 거행했다. 곽부는 웃으면서 물었다.
[어머니 ! 저도 인사를 올려야 합니까 ?]
[그럼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 ?]
곽부는 히히, 웃으며 겸연쩍게 세 분 사부들을 향해서 인사를 올렸다.
곽정은 엄숙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희들 네 명은 사형제(師兄第)이다.]

곽부가 아버지의 말에 이어서 말했다.
[아니에요, 사형매(師兄妹)입니다.]
곽정은 자기 딸을 힐끗 쳐다본 뒤 말했다.
[아버지는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
[·······.]
[오늘 이후 너희들 네 명은 반드시 친가족같이 서로 사랑해야 함은 물론 복은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해야 한다. 만약 다시 싸움을 한다면 나는 가볍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친 곽정은 양과를 한번 쳐다보았다. 양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말은 저렇게 해도 자연히 자기 자식을 더 편애하겠지. 이제부터는 그녀를 괴롭히지 말아야겠구나.)
가진악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후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해 주었다.
<강한 자를 시기하지 말 것이며 죄없는 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강남칠괴문파와 이들 네 제자들은 서로 다르니 가진악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리고 가진악은 이미 연로하여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다.
곽정이 말했다.
[내가 배운 무술은 매우 복잡하다. 강남칠협(江南七俠)으로부터 전수받은 것 이외에도 전진파의 내공, 도화도와 개방 동북양대종(東北兩大宗)의 무예를 조금씩 익혔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나는 우선 너희들에게 가대사조(柯大師祖)의 지도를 받게 하려고 한다.]
그가 막 주문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황용은 양과의 모습을 보았다. 양과는 고개를 가만히 숙이고 곽정의 다음 말에 몰두하는 것이, 얼굴에 다른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이상한 생기와 강렬한 호기심의 빛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그의 아버지 양강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황용은 그의 얼굴에서 양강의 얼굴을 떠올리자 두려움이 일었다.

(그의 부친이 비록 직접 내 손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내 손에 의해서 죽었다고도 말할 수 있으니 호랑이 새끼를 기르는 거나 진배없다고 볼 수도 있다. 아아, 짱래에 큰 화나 생기지 않을 것인가 !)

마음에 동요를 느끼면서 황용은 말했다.

[여보, 당신 혼자서 이 아이들 넷을 다 지도한다는 것은 힘들것이니 과아는 제가 지도하겠어요. 어떨는지요 ?]

곽정은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가진악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

[거 참 좋은 생각이다. 자네들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 가르쳐 후일 누구의 제자가 더 잘 배웠는지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

곽정은 가진악 사부가 그렇게 말하자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자기의 처가 자기보다 백 배는 더 총명하여 지도의 방볍도 자기보다 훨씬 좋을 것을 알고 있었다.

곽부는 아버지가 엄격한 것을 두려워하여 기회는 이때라고 여겨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지도를 받고 싶어요.]

황용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늘 나의 보호 속에서 자라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도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볼 수 없단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지도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더 나을 것야.]

곽부가 아버지를 슬쩍 훔쳐 보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노려보는 것이 엄하기 짝이 없어 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감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황용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서로 규칙을 정해서 당신은 과아를 지도하지 못하고, 나는 그들 세 명을 지도하지 않는 게 어떨는지요 ? 이 네 명의 아이들 사이에도 서로 전수(傳授)가 어려울 테니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에도 큰 혼란이 없을까 합니다.]

곽정이 말했다.

[과연 당신 말이 맞구료 !]
황용이 말했다.
[과아야, 나를 따라오너라.]
양과는 곽부와 무씨 형제를 매우 싫어하여 황용이 자기를 가르친다고 하자, 그들과 함께 무예를 배우지 않는 것을 내심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따라 내당으로 들어갔다.
황용은 그를 데리고 서방(書房)으로 가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너의 사부는 일곱 분인데 사람들은 그들을 강남칠괴라고 불렀다. 대사부가 바로 가공공(柯公公)이며, 두번째 사부가 묘수서생(妙手書生) 주총(朱聰)으로, 지금 나는 우선 너에게 주사부의 기술을 지도해 주겠다.]
이어서 낭랑하게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 친구가 멀리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
본래 그것은 논어(論語)의 일절이었다. 양과는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일었으나 감히 묻지 못하고 단지 그녀를 따라서 글을 읽고 배웠다.
며칠을 계속해서 황용은 단지 그에게 공부만 시킬 뿐 무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어느날 책 읽기를 끝낸 양과는 홀로 산에 가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구양봉 생각이 나서 그의 모양을 흉내내서 몸을 한 번 회전시켰다. 한바탕 빙그르르 돌고 난 후, 구양봉이 전수해 준 주문에 의해서 경맥(經脈)이 역행하여 순리에 따라 돌기도 하고 몸을 뒤집어 뛰기도 하고 쿠쿠, 하는 고함과 함께 양손을 치니, 온몸이 편안하고 비할 데 없이 쾌미하여 즉시 온몸이 땀에 젖었다. 그는 이 연습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내력은 이미 진전되고 있었다. 구양봉의 무술은 일가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는 매우 무서운 고급 무술이었다. 양과의 깨달음이 뛰어나서 비록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같은 연습으로 내력은 점차 더해 갔다.

그후, 그는 매일 황용과 경서(經書)를 읽고 아침 저녁의 빈틈을 이용해 조용하고 외진 산 속에서 홀로 무예를 닦았다. 그는 자신이 닦고 있는 그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무예라는 것도 모른채, 단지 매번 단련할 때마다 온몸이 말할 수 없이 청량해지고 편안해져 나중에는 하루라도 단련하지 않으면 몸이 불쾌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가 몰래 산 속에서 무예를 닦는다는 것을 곽정과 황용은 알길이 없었다. 황용이 그에게 글을 가르쳐 채 3 개월도 되기 전에 논어를 끝냈다. 양과의 기억력은 매우 좋고 빨랐는데 간혹 의문이 생겨도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사실 화용은 그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에 이미 싫증이 났으나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양과의 총명과 지혜가 나를 능가하니 만약 그의 사람됨이 그 아버지와 같아 잘못 무술을 배우면 장차 그 화(禍)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글과 성현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그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참을성을 가지고 글을 지도해 논어가 끝나자 맹자(孟子)를 시작했다.

몇 개월이 지나도 황용은 무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양과 또한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곽부, 무씨 형제와 다툰 이후 양과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비록 곽정이 그를 제자로 삼았지만 황용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무술을 전수해 주지 않을 것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이제 자기는 본래 무씨 형제들의 상대가 될 수 없는데다가 그들은 매일 곽정으로부터 무술을 배우고 있으니 금후 다시 결투가 있으면 반드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마음속으로 깊이 주의하여 지내다가, 기회만 오면 즉시 섬을 떠날 생각을 했다.

어느날 오후, 양과는 황용과 맹자의 몇 구절을 읽고 난 후 방을 나와서 한가로이 해변을 거닐며 대해(大海) 가운데 흰 파도가 출렁이는

것을 보고는 언제쯤 이 곤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물 위로 날고 있는 갈매기들을 보며 그는 갈매기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숲속으로부터 쉬익 쉬익, 하는 바람소리가 들렸다. 그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천천히 돌아서 나무 뒷쪽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곽정이 마침 숲속 공터에서 무씨 형제에게 무술을 지도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그것은 탁양환주(托木梁換柱)였다. 곽정은 입으로는 소리를 지르며 손발로는 손짓하며 상대해, 무씨 형제에게 따라 배울 것을 명령했다. 양과는 단지 한 번 보았을 뿐인데 재빨리 이 권법의 요체(要體)를 깨달았으나, 무씨 형제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곽정은 원래 성격이 누둔하여 조금도 싫증을 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었다.

양과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면서 생각했다.

(백부가 만약 나를 가르친다면 내 어찌 저들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을까 !)

답답하고 우울하여 방으로 돌아와서 그는 잠을 잤다. 저녁밥을 먹고 잠시 책을 읽었으나 머리가 어지러워 다시 해변에 나가 곽정이 무씨 형제에게 가르쳐 주던 권법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줄곧 한 가지 권법만을 반복하니 곧 싫증이 났다. 그러나 그는 곧 고쳐 생각했다.

(내가 만약 몰래 권법을 배운다면 무씨 형제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해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싫증을 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땀을 흘리다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백부께서 이미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데 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그리고 내 어찌 그의 권법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단 말이냐 ! 흥, 그가 가르쳐 주지 않겠다면 나도 배우지 않겠어 ! 기껏 해야 사람을 때리는 일에 불과한데 말이야.)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교만해지면서, 동시에 처량함을 느껴 바위에 조용히 기대어 앉아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양과는 아침도 먹지 않고 책도 읽으러 가지 않았다. 바다에서 몇 개의 큰 굴을 따서 구워 먹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곽가(郭家)의 밥은 먹지 않겠다 ! 배고픔도 나를 죽일 수는 없다.)

해안에는 큰 배와 나룻배가 보였다.

(이 큰 배는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나룻배는 멀리 갈 수 없으니 아아, 어떻게 도망친단 말인가.)

한나절을 고민하다가 어찌할 방법이 없자 다시 커다란 바위 뒤로 가서 구양봉이 전수해 준 내공을 연마했다.

피의 흐름이 빨라지고 온몸에 막 힘이 없을 때, 갑자기 몸 뒤에서 누군가 큰소리를 내질러 양과는 놀란 기운에 나뒹굴었다. 다시 일어나려니까 수족이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는다. 곽부와 무씨 형제, 세 사람이 바로 이때 온 것이었다. 양과가 있던 이 큰 바위 뒤쪽은 원래 후미진 곳이어서 인적이 없었으나 도화도의 도로(道路)와 수목(樹木)의 배치는 오행(五行)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곽부와 무씨 형제는 감히 이곳저곳을 마구 돌아다니지 못하고 단지 잘 알고 있는 곳만을 가고오곤 했는데 그 길 바위 뒷켠 또한 그들이 다니는 길이었다. 다행히도 양과는 이때 아직 공력이 일천(一淺)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함께 소리를 지른 세 사람은 경맥이 뒤섞여서 반드시 마비 상태가 되었을 일이었다.

곽부는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너, 여기서 무슨 못된 짓을 했니 ?]

양과는 바위에 몸을 버티면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무시하고 몸을 돌려서 가 버렸다. 무수문이 소리쳤다.

[야 ! 너에게 묻고 있는데 어찌 이처럼 무례하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야 ?]
 양과는 차갑게 말했다.
 [네놈이 무슨 상관이냐 ?]
 무돈유는 벌컥 화를 내면서 내뱉았다.
 [우리는 여기 놀러왔다. 이 말썽꾸러기, 미친 개야 !]
 양과가 말했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미친 개는 사람을 보면 물어뜯지. 더구나 세 마리의 미친 개가 와서 시끄럽게 짖어 대면 더욱 그렇지.]
 무돈유는 매우 화가 나서 말했다.
 [어, 방금 뭐라고 했지 ? 세 마리의 미친 개라고 ? 너 누구보고 한 소리냐 ?]
 양과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단지 개를 욕했을 뿐 사람을 욕한 적은 없다 !]
 무돈유는 머리끝까지 약이 올라서 그에게 덤벼들어 주먹을 내 뻗었다. 그러나 양과는 번개같이 그의 주먹을 피했다. 무수문은 일찌기 사부가 한 말이 생각났다. 이 일이 시끄러워지면 사부로부터 엄한 꾸중을 들을 것이 뻔했다. 그는 얼른 형의 주먹을 잡으며 양과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양과 너는 사랑(師랑)에게 배우고 우리는 사부에게 배웠는데, 요 몇 개월 동안에 누가 더 진보가 빠른지 알 수가 없구나. 우리 서로의 권법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어떨까 ? 어때 ? 할 거야, 안 할 거야 ?]
 양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운이 없어서 사랑은 내게 권법을 지도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무수문의 마지막 말에 경멸의 뜻이 가득한 것을 알고는 흥, 하는 코웃음과 함께 쌀쌀하게 그를 째려보았다. 무수문은,
 [우리들 사형제의 권법 시합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불문하고 사부나 사랑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머리가 깨어져도 단지 어디

서 넘어진 것으로 말해야 한다. 권법에 지고 사부에게 고자질하는 짓은 정말 개자식이나 할 짓이다. 어때 ? 할 거야, 안 할 거야 ?]

그가 두번째로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왼쪽 눈에 양과의 주먹이 벌써 들어왔다. 무수문은 비틀거리다 나뒹굴었다. 무돈유는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다.

[시작도 없이 느닷없이 공격을 하다니 ! 비겁한 놈 같으니라구.]

그는 곽정에게서 배운 권법을 사용해 양과의 허리를 가격했다. 양과는 재빨리 피하지 못하고 일격을 당했다. 다시 발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머릿속에서 반짝, 어제 곽정이 무씨 형제에게 가르치던 동작이 생각나 즉시 오른쪽 다리를 살짝 쭈그리며 왼손으로 무돈유의 차오르는 오른다리를 손으로 밀어올렸다. 이것이 바로 탁양환주로서, 비록 심오한 기술은 아니지만 적을 만났을 때는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어제 곽정은 반복해서 이것을 무씨 형제에게 가르쳤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몰래 훔쳐서 배운 양과에 훨씬 못 미쳤다. 무돈유는 그에게 밀려 멀리 나가떨어졌다.

무수문은 눈을 얻어맞아 매우 화가 났지만 형이 나가떨어진 것을 보고서는 즉시 달려들어 왼손으로 허공을 치자 양과는 왼쪽으로 피했는데, 이것이 권술의 기본 동작인 선허후실(先虛後實)임을 알지 못해 무수문이 재차 오른손으로 일격을 가하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양과의 오른쪽 광대뼈에 명중하였다. 무돈유가 기어 일어나 앞에서 협공했다. 그들 두 형제의 무술은 원래 기본이 되어 있어서 양과는 전에도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는데 다시 몇 개월간 곽정의 지도를 받은 두 형제는 양과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양과의 온몸을 공격했다. 양과는외쳤다.

[너희들에게 맞아죽어도, 결코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무수문은 그가 이를 악물고 대항하는 것을 보고는 얼마간 겁이 나기도 해서 이미 승세를 잡았지만 싸움을 그만 멈추고 싶었다.

[너는 이미 졌다. 우리는 너를 용서해 주마 !]

양과가 외쳤다.

[무슨 수작이냐 ? 누가 너희에게 용서를 빈단 말이냐 !]

하고 외치면서 사정없이 공격해 들어갔다. 무수문은 왼쪽 어깨로 막고 오른손으로 양과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고, 무돈유는 두 주먹으로 양과의 뒷허리를 두들겼다. 양과는 결국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무돈유는 그의 머리를 두 손으로 누르고 말했다.

[이래도 항복 안 할 테냐 ?]

양과는 화를 내면서,

[누가 너 같은 미친 개에게 항복하느냐 ?]

무돈유는 미친 개라는 소리에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모래 바닥에 누르면서 물었다.

[너 항복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양과의 눈, 코, 입은 온통 모래투성이가 되어 숨도 못쉬고 잠시 후면 온몸이 폭발할 것 같았다. 무돈유는 양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무수문은 목에 올라타서, 양과는 정말 꼼짝할 수가 없었다. 거의 질식하려고 할 때 근래에 남몰래 단련한 구양봉으로부터 전수받은 내력이 갑자기 용솟음쳐 단전(丹田)중에 열기가 끓어오르는 듯했을 뿐인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넘쳐서, 그는 눈을 감은 채 양손을 밀며 뛰쳐올랐다.

이것이 무수문의 배에 명중이 되어 무수문은 아악,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땅에 나가떨어져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장력은 구양봉의 절기(絶技)인 합마공이었는데 위력은 구양봉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위급지간(危急之間)에 튀어나온 힘이라 무수문이 당하고 만 것이다.

무돈유가 쓰러진 동생에게 황급히 다가가 보니 미동도 없는지라 그는 두 눈이 휘둥그래지며 양과가 동생을 죽인 것으로 알고 깜짝 놀라서 외쳤다.

[사부님 ! 사부님 ! 제 아우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

고함 지르며 황망히 곽정에게 알리러 달려갔다. 곽부도 두려워 자리를 떴다.

양과는 입 속의 모래를 토해 내고 눈에 들어간 모래를 비비면서 아무리 몸을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수문이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과 무돈유가 놀라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흘렀을까. 곽정과 황용이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황용이 양과의 옆에 이르자 물었다.

[구양봉이냐 ? 그자가 어디에 있느냐 ?]

양과는 아무 말도 없었다. 황용은 또 물었다.

[이 합마공은 언제 배웠느냐 ?]

양과는 혼미한 정신으로 멍청히 허공만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황용은 답답한 마음에 그의 팔을 잡고는 소리 질렀다.

[빨리 말해라 ! 구양봉은 어디 있느냐 ?]

양과는 시종 일관 대꾸가 없었다.

잠시 후, 무수문은 곽정의 내력으로 깨어나고 이어서 가진악과 곽부가 왔다. 곽부에게서 양과가 쓰러진 상황과 그가 어떻게 무수문을 기절시켰는지를 들은 가진악은 양과가 본디 구양봉의 후계자라 생각하고 치를 떨었다. 또 황용이 계속 구양봉의 소재를 묻는 데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을 듣고서 앞으로 나아가 지팡이를 쳐들고 소리 질렀다.

[구양봉 그놈이 어디에 있느냐 ?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한 번에 너를 없애 버리겠다.]

이때 양과는 이미 목숨을 내걸고 소리쳤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네요.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악은 매우 화가 나서 철장으로 내려치려고 하자 곽정이 매우 놀라서,

[대사부님, 그만…….]

그러나 그때 이미 지팡이는 양과의 몸을 스쳐서 모래사장에 꽂혔다. 곽정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빗나간 것이다.

가진악은 분을 참지 못해서,

[너, 정말로 말하지 않겠느냐 ?]

양과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어서 죽이시오. 당신의 늙은 눈이 걱정될 뿐이오.]

곽정이 다가가 그의 따귀를 때리면서 말하기를,

[감히 사조(師祖)에게 무례하게 굴다니, 고얀놈 !]

양과는 울지도 않고,

[나는 죽어 버릴 거예요.]

하고 말하며 몸을 돌려서 바다로 달려갔다.

[과아야, 돌아오너라 !]

하고 소리치며 그를 잡으려 했으나 황용이 나지막히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곽정은 황용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단지 양과가 파도에 뛰어드는 것만을 노려보았다. 곽정은 놀라 소리쳤다.

[그는 물을 알지 못한다. 헤엄을 못 쳐 ! 여보, 우리 빨리 그를 구해 내야 해요.]

황용은 침착하게 말한다.

[여보, 죽지 않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잠시 후 양과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황용은 그의 용기에 감복하여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헤엄을 매우 잘 쳐서 물 밑으로들어가 양과를 들어 낸 뒤, 바위 위에 놓고 물을 토하게 했다. 물을 다 토하자 양과가 서서히 깨어났다.

곽정은 사부를 쳐다보고 다시 부인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어찌하면 좋겠소 ?]

[애가 쓴 이 무술은 도화도로 오기 전에 배운 것 같소. 구양봉이 만약 섬에 온다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이오.]

이때 가진악이 말했다.

[나는 내일 가흥으로 가겠다.]

꽉정과 황용은 서로 쳐다보면서 그가 구양봉의 후계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황용이 말한다.

[사부님, 이곳은 사부님의 집인데, 어찌 이 어린 놈에게 양보하신단 말입니까 ?]

그날 저녁 곽정은 양과를 방으로 불러서 말했다.

[과아야, 과거의 일은 모두 언급하지 말자. 너는 사조에게 감히 무례하게 굴었으니 나의 문하에 있을 수 없어. 이후는 나를 다만 곽아저씨라 불러라. 며칠 있다가 나는 너를 종남산(終南山) 중양궁(重陽宮)에 보내어 전진교(全眞敎) 장춘자(長春子) 구진인(丘眞人)에게 너를 받아들여 주도록 청하겠다. 전진교의 무술은 무학(武學)의 정통이야. 네가 중양궁에서 수양을 열심히 하면 장차 정인군자(正人君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과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곽아저씨 !]

곽정은 이날 일찍 일어나자마자 짐을 챙기고 대사부와 아내, 그리고 딸과 무씨 형제와 인사를 하고는 양과를 데리고 배를 타서 절강(浙江) 해안에 도착했다. 곽정은 두 필의 말을 사서 새벽에 출발하고 밤 늦게 자곤 하면서 북으로 북으로 향했다. 양과는 말을 타 본 적이 없었으나 내공의 기본이 있어서 며칠 연습하더니 이내 말고삐를 자유자재로 하였다.

길을 떠난 지 하루가 채 안 되어서 두 사람은 황하(黃河)를 건너 섬서(陝西)에 도착했다. 이때 대금국(大金國)은 이미 몽고에게 망한 뒤라 황하 이북은 온통 몽고인 천지였다. 곽정은 어린 시절 몽고군의 대장을 지낸지라 몽고구부(蒙古舊部)를 만나 귀찮은 일에 빠질 것을 우려해 좋은 말을 말라빠진 노새로 바꾸고 옷도 낡은 저고리를 입고 머

리에는 푸른 수건을 두르고 말라빠진 노새에 걸터 앉았다.
마침내 종남산이 있는 번천(樊川)에 이르렀다. 양과는 도화도를 떠난 이후, 한 번도 섬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이때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곽아저씨 ! 이 지방은 우리의 도화도와 비슷하네요.]
하고말했다. 곽정은 그가 표현한 <우리의 도화도>라는 말을 듣고 반가운 마음이 일었다.
[과아야, 이곳에서 종남산은 그리 멀지 않다. 너는 전진교에서 열심히 무예를 닦아라. 수년 후에 다시 너를 섬으로 데리고 가마.]
그러나 양과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나는 영원히 도화도에 가지 않을 겁니다.]

달밤의 북두진법(北斗陳法)
두 사람은 정오께에 어느 절에 도착했다. 곽정은 보광사(普光寺)라는 현판을 보고 노새를 절 밖 소나무에 묶은 뒤 절에 가서 먹을 것을 부탁하였다. 절에 있던 중들은 곽정의 행색을 잠시 살핀 뒤, 2 인분의 소면(素麵)과 몇 개의 만두를 주었다.
곽정과 양과는 소나무 아래에서 음식을 먹다가 마침 앞에 있던 비석에서 장춘(長春)이라는 두 글자를 보았다. 곽정은 다가가서 풀을 헤쳤다. 비석에 새겨진 것은 장춘자 구처기의 시였다.
구처기의 시를 본 곽정은 10 여 년 전 몽고 사막에서있었던 여러 일들이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루만지며 구처기와 다시 만날 것을 꿈꾸었다.
잠시 후 양과가 말했다.
[곽아저씨,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
곽정은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가흥 철창묘(鐵槍廟)의 일을 떠올

리고 몸을 떤다.

양과가 다시 묻는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해쳤나요 ?]

곽정은 여전히 말이 없다.

양과는 자기 어머니가 부친의 사인(死因)을 묻는 자기의 질문에 항상 당황해 하고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을 회피하던 생각이 났다. 곽정은 비록 자기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지만 황용이 웬지 자신을 꺼려하는 것을 느끼고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했었다. 양과가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과 백모(伯母)가 죽였지요 ? 그렇지요 ?]

곽정은 화를 내면서 날카롭게 외쳤다.

[누가 너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지껄이더냐 !]

곽정은 호통을 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비석을 내리쳤다. 이 모양을 본 양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면서 사죄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사오니 그만 진정하십시오.]

곽정은 늘 그를 매우 가엾게 여겼던 터라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곧 화를 풀었다. 그리고 양과를 위로하려는 순간, 등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2 명의 중년 도사가 절간 입구에 서서 곽정이 때마침 비석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곽정은 그들의 발걸음이 민첩한 것을 보고는 이곳이 종남산으로부터 멀지 않으니 이들은 아마도 중양궁의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마흔 남짓한 이들은 아마도 전진칠자(全眞七子)의 제자같이 보였다.

그는도화도에 은거한 이후 마옥(馬鈺) 등과는 소식이 없어 전진문하의 제자들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진교가 왕성해져서 마옥, 구처기 , 왕처일(王處一) 등이 뛰어난 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여, 무림에서 좋은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전진교는 평소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강호에서는 무예를 하

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전진교의 이름만 듣고도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구진인(丘眞人)을 찾아뵈려고 왔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즉시 문에 뛰어들었으나 그들은 10 여 장 밖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린다.

곽정이 소리 질렀다.

[두 도사는 잠시 멈추시오.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더욱 걸음을 재촉했다. 곽정은 생각했다.

(설마 저들이 귀머거리는 아니겠지 !)

발걸음에 힘을 주어 몇 걸음 내달리니 어느새 곽정은 두 사람의 앞에 서 있다.

[두 도사님들께 할 말이 있소.]

하면서 공손히 예를 올렸다.

그들은 그의 신법(身法)이 이처럼 민첩함을 보고 당황해 그에게 필시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재빨리 좌우로 비켜서며 물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이오 ?]

[두 분께서는 종남산 중양궁의 도형(道兄)들이 아니신지요 ?]

몸이 약간 마른 도사가 말했다.

[왜 그러시오 ?]

[나는 장춘진인 구도장(丘道長)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를 만나고 싶은데 나를 그에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

다른 키가 작은 도사가 비웃으며,

[배짱이 있으면 가시오. 길은 열어 드리지요.]

하고 말하며 민첩하게 손을 휘둘렀다. 곽정은 오른쪽으로 가볍게 피했다. 뜻밖에도 두 도사의 무술은 매우 정밀해서 나누었다가는 함께 공격하고, 한 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곽정을 가로막았다. 그 두가

지 동작은 대관문식(大關門式)으로 전진교파의 최고 기술인데 곽정이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들이 이유도 묻지 않고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손을 놀리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무엇을 오해한 것도 모르고 곽정은 그것을 풀려고도 않고 피하지도 않아서 두 사람의 양손이 모두 곽정의 옆구리를 찔렀다.

곽정은 일격을 당한 후에 그들의 무술을 느끼고 그들이 전진칠자의 제자로서 자기와 동년배임을 알았다. 그들 두 사람이 공격해 왔을 때 곽정은 이미 내력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 같은 것은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두 도사는 10여 년 간 온갖 절묘한 기술을 연마했지만 상대방의 몸을 공격하여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자 매우 당황했다. 두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동시에 뛰어올라서 맹렬하게 곽정의 가슴을 차들어갔다. 곽정은 매우 괴이하게 생각되었다.

(전진칠자는 모두 사리를 분별하고 사람에게 친절한데 이 제자들은 어찌 이렇듯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마구 무술을 사용한단 말인가!)

두 사람이 원앙연환퇴(鴛鴦連環腿)의 각법(脚法)을 쓰는 것을 보고도 곽정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자 파파파,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에 여러 개의 발자국이 생겼다. 그러나 그가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자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놀랐다.

(이놈은 도대체 어찌된 놈인가! 우리의 사부님에게도 이런 기술은 없는데.)

양과는 두 도사가 곽정을 치고 차도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자 화가 났다.

[이 비열한 놈들아! 어째서 우리 아저씨를 치느냐?]

곽정이 급히양과의 말을 가로막았다.

[과아야, 입 다물어라. 이 두 어른께 어서 인사나 드려라.]

[곽아저씨는 아무 이유 없이 어째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요?]

두 도사는 서로 쳐다보더니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았다. 키가 작은 도사는 탐해도용(探海屠龍)을 써서 곽정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하나는 강풍소엽(강風掃葉)을 써서 양과에게 달려들었다. 곽정은 자기에게 향하는 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단지 양과에게 달려드는 마른 도사의 술법이 음흉한 것을 알고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솟았다.
[그 아이와 네놈들은 아무런원한이 없는데 어찌 해치려 하느냐 !]
몸을 약간 기울여 왼손으로 키작은 도사의 칼자루를 쥐고는 가볍게 왼쪽으로 밀어넘겼다. 키 작은 도사는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기며 째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도사의 장검과 맞부딪쳤다.
두 도사는 손이 마비되고 아파서 비스듬히 뛰어 몸을 돌리면서 곽정을 노려보았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탄복하기도 했다.
곽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이 처음으로 천강북두진(天강北斗陣)의 기본을 연마한 모양인데, 그것이 비록 뛰어난 검법이긴 하지만 너희들은 단지 두명이고 검술도 그리 썩 훌륭하지 않으니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양과가 그들의 칼에 다칠 것을 걱정한 곽정은 몸을 비스듬히 해 두 칼을 피한 뒤, 오른손을 뻗어 양과를 안으며 소리쳤다.
[나는 구진인의 옛 친구이니 그대들은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오 !]
마른 도사가 말했다.
[네놈이 마진인(馬眞人) 어른의 옛친구를 사칭하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
키 작은 도사도 빠질세라 한마디 한다.
[이놈 쓸데없는 소리 마라. 단지 우리 중양조사(重陽祖師)가 너같은 놈에게 무술을 지도해 준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곽정은 이들이 확실히 전진 문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어찌 자기를 적과 같이 대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와 전진칠자와의 우정이 매우 깊었지만, 양과를 중양궁에서 무예를 배우게 하려면 궁중

도사에게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일이어서 곽정은 다만 재빨리 피할 뿐 결코 반격을 하지 않았다.
 두 도사는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벌써부터 곽정이 자기들보다 한 수 위인 것을 알고는 갑자기 검법을 바꾸어서 무섭게 칼을 휘두르며 양과의 등을 찌르려고 했다. 곽정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날카로운 검법이 양과에게로 향하자 정말 화가 났다. 키 작은 도사의 검법이 재빠르기는 했지만 곽정은 오른손을 급히 내밀어 손가락 두개를 벌려서 칼날을 끼워 손목을 안쪽으로 돌리면서 팔꿈치로 상대방의 코를 가격했다. 키 작은 도사는 힘을 서서 칼을 뽑으려 했지만 긴 칼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팔꿈치로 코를 얻어맞은 뒤, 자칫하면 크게 다칠 것을 우려해 그만 칼을 놓고 말았다.
 이때 곽정은 이미 어떤 동작이든 자유 자재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오른손을 천천히 풀며 칼을 바로 세워 칼자루를 잡았다.
마른 도사가 막 칼로 양과의 머리를 티려 하는 순간 칼끝이 서로 부딪쳐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팔꿈치에 열이 나고 온몸이 떨려 결국 칼을 놓치고 물러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함께 지껄였다.
 [무서운 놈이다. 도망가자 !]
하는 말과 함께 그들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곽정도 재빨리 양과를 안고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물었다.
 [너희들은 어째서 처음 보는 나를 욕하고 그러느냐 ?]
 키 작은 도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만약 용(龍)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망상하지 않았다면 종남산에는 무엇하러 왔겠소 ?]
 그는 말하면서도 곽정의 공격이 두려워 뒷걸음질쳤다.
 곽정은 잠시 멍청해지며 어이가 없었다.
 (내가 용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망상을 하다니 ? 그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인가 ! 용씨 여자는 대체 누굴까 ? 내 일찌기

용아가 있는데 어찌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단 말인가 !)

잠시 동안 곽정은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있었다. 두 도사는 그가 멍해 있는 것을 보고 이때다, 하고는 급히 그의 곁을 지나쳐 산으로 달아났다.

양과는 곽정이 넋을 잃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곽정의 팔을 흔들며 말했다.

[곽아저씨, 그 두 놈이 도망갔습니다.]

곽정은 막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이 말한 용씨라는 여자를 혹시 알고 있느냐 ?]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두 사람은 분별이 없는 놈 같습니다. 사람을 잘못 봐도 유분수지.]

곽정이 갑자기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 내 어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고 ! 자, 우리도 산으로 가자.]

양과는 그들이 남기고 간 장검 2 개를 손에 쥐었다. 곽정이 칼자루를 살펴보니 중양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언덕을 올라 금연각(金蓮閣)을 지나, 다시 험준한 벼랑길을 타 넘었다. 낭떠러지를 만나면 몸을 굽혀 통과했다.

얼마 후 일월암(日月岩)을 지나면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포자암(抱子岩)에 이르자 밝은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다.

그 포자암은 이상하게 생겨서 마치 부인이 아이를 껴안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쯤 더 올라가자 맞은편으로 큰 돌이 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늙은 노파가 허리를 구부리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양과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였따. 갑자기 바위 뒤에서 휘파람소리가 나더니 칼을 든 네명의 도사가 튀어나와 길을 막아선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정은 예를 행하고 말했다.

[저는 도화도의 곽정이라는 사람으로, 산에 계시는 구진인을 뵙고자 하오.]

키가 큰 도사가 한 발을 내디디며 비웃는 어조로 말한다.

[그대의 이름은 이미 잘 알고 있소. 도화도 황노(黃老) 선배님의 사위라는 것도. 그런데 어찌 이처럼 부끄러움을 모르오 ? 빨리 냉큼 하산하길 바라오.]

곽정은 생각했다.

(나는 아무런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구나.)

침착한 어조로 곽정이 다시 말한다.

[내 이름은 확실히 곽정이오. 여러분은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소. 나에게 어서 구진인을 만나게 해 주시오.]

[그대는 그대의 재주를 믿고 종남산에 멋대로 왔으니 참을 수 없소. 그대들에게 해를 가할 생각은 없지만 그대가 중양궁을 욕되게 했으니 어쩔 수가 없소.]

말을 채 마치기 전에 장검을 번쩍이며 분화불류(分花拂柳)로 곽정의 허리를 찌르려 했다. 곽정은 생각했다.

(내가 강호(江湖)에 없던 지난 십 년 동안 세상의 규율이 어찌하여 이토록 변했단 말인가 !)

몸을 비키면서 말을 건네려고 하자 다른 세 명의 도사들도 각자 칼을 뽑더니 그와 양과를 포위하였다.

[당신들은 어찌해야 내가 바로 곽정임을 믿어 주겠소 ?]

키 큰 도사가 말했다.

[네가 곽정이라면 우리의 손에 있는 칼을 빼앗아 봐라.]

곽정은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다.

[그대들의 칼을 뺏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하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집게 손가락을 뻗쳐서 엄지손가락 아래로 돌려 칼끝을 티자 위잉, 하는 소리를 내며 긴 칼이 공중에 떠올랐다. 곽정은 칼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재차 지잉지잉지잉, 세

번 치자 위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나머지 칼 세 자루도 모두 날아올라서 달빛 아래 번쩍였다. 양과가 그때 소리 질렀다.

[어때 ? 이제는 믿겠소 ?]

곽정은 평소 무술을 겨룰 때 늘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곤 했으나, 이때는 키 큰 도사의 무례함에 화가 나서 잘 쓰지 않던 묘기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황약사의 절학(絕學)이었다. 곽정은 도화도에 몇 년 간 살면서 이미 그것을 전수받아 그의 내력은 대단한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네 명의 도사는 손에서 칼이 빠져나가자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놈이 사악한 무술을 쓴다. 가자 !]

그들은 바위를 뛰어넘더니 황망히 사라졌다.

곽정이 말을 했다.

[과아야, 칼들을 모두 주워 바위 위에 올려 놓아라.]

[예에.]

양과는 칼을 집어서 푸른 바위 위에 두 줄로 늘어놓았다. 양과는 곽정의 무술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복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곽아저씨 ! 나는 저런 놈들에게 무예를 닦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에게 배우고 싶어요.)

그러나 도화도의 일을 생각하고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고개를 두 개나 더 넘어 약간넓은 공지로 나서자 징징, 하는 이상한 소리를 신호로 소나무 숲에서 7명의 도사가 튀어나왔다. 그들 역시 모두 장검을 지니고 있었다.

곽정은 그들이 덤벼드는 진세(陣勢)를 보니 좌측에 4명, 우측에 3명으로 천강북두진(天강北斗陣)이므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진법과 만나다니 약간 힘이 들겠군.)

곽정은 낮은 소리로 양과에게 말했다.

[저 뒷쪽 큰 바위 옆으로 해서 일단 멀리 도망을 가 있거라.]
양과는 고개를 그덕이며, 많은 도사들 앞에서 그래도 약점을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바지를 내리며 큰소리로 말했다.
[곽아저씨, 소변 보고 올께요.]
하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바위에 뛰어가서 실제 소변을 보았다. 곽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은 영리해. 정말 영리하단 말이야. 나는 네가 바른 길을 걸어서 크게 성공하길 바란다.)
고개를 돌려서 7명의 도사를 보니, 달빛을 등지고 있어서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앞쪽의 6명은 턱에까지 머리를 기른 것이 그리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았으며, 몸이 가늘고 작은 일곱번째 사람은 비교적 젊어 보였다.
곽정은 이미 좌측에서 북극성위(北極星位)에 뛰어들었다.
일곱번째 천권(天權) 도사는 가볍게 소리 질러서 6명을 데리고 좌측으로 옮겨서 곽정을 포위하려고 했다. 그들이 막 움직이려는 것을 알아챈 곽정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두 걸음쯤 내디뎌 여전히 북극성위를 점하고 있었다. 천권도사는 원래 두병(斗柄)에서부터 3명으로 측면을 공격하려 했으나, 곽정이 이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장검으로도 그를 공격할 수 없음을 알아챘다. 오히려 그들 모두가 곽정에게 노출되어 있어 서로 연합할 수도 없게 되자 진세를 대동하고 후전(後轉)했다. 곽정도 이에 몇 걸음 옮겨 여전히 북극성위를 고수하자 일곱 도사들은 난공난수(難攻難守)의 형세에 처하게 되었다.
천강북두진은 전진교에서 최고의 무술로 자랑하는 것으로 7명의 고수(高手)가 힘을 합하면 가히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곽정은 이미 이 진법의 오묘함을 알고 북극성위를 먼저 차지하여 북두진을 제압하니 진법의 전개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7명은 이 진법에 썩 익숙하지 못했는데 만약 마옥이나 구처기가 진법을 주관했다면, 결코 상대방이 쉽사리 북극성위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

다.

이때 일곱 도사는 계속해서 몇 번 방향만 헛되이 바꾸었을 뿐 곽정이 계속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는 천추도인(天樞道人)이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말했다.

[진법을 바꾸어라 !]

일곱 도사들은 갑자기 흩어져서 좌충우돌(左衝右突), 동분서주(東奔西走)하더니 도난진법(倒亂陣法)을 펼쳐서 상대방의 눈을 현혹시키려 했다. 잠시 만에 진세가 다시 이루어졌다. 두병(斗柄), 두괴(斗魁)의 위치가 바뀌었고 진세도 정서(正西)에서 동남(東南)으로 전환되었다. 진세가 갖추어지자 천선(天璇), 옥형(玉衡) 두 도사는 칼을 뽑아서 달려들려고 했으나 곽정은 두병이 북쪽에 있는 것을 알고는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천추도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공격할 수 없다. 빨리 물러나라 !]

천권도사는 놀라고 화가 나서 휘파람을 불며 점점 진법을 변화 시켰다.

양과는 7 명의 도사가 미친 듯이 곽정을 에워싸며 움직이고, 곽정은 단지 사방으로 몇 걸음씩 움직이며 그들이 곽정에게 어떠한 동작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무슨 까닭인지는 몰랐으나 보면 볼수록 흥미가 생겼다.

이때는 북두진이 완전히 곽정의 제압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좌측으로 치달리면 그들도 좌측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후심(後心)이 노출되어서 방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무학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었지만 좌측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그들 일곱 도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정이 빨리 뛰면 그들도 빨리 뛰고 곽정이 천천히 걸으면 그들도 천천히 걸었다.

나이가 젊은 도사는 내력이 제일 약해서 곽정을 따라 황급하게 10 여차례 맴을 돌고 나자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호흡이 거칠고 눈알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북두진은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전부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입술을 깨물며 견디고 있었다.

곽정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지만 황용과 도화도에 은거한 후 바깥사람들과의 교제가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곽정은 이러한 일곱 도사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외쳤다.

[과아야, 나의 요법(妖法)을 보아라 !]

하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곽정은 높은 바위 위로 뛰어 올랐다. 일곱 도사는 이때 곽정의 제압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위에 뛰어오른 이상 자신들도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이 망설이고 있자 천권 도사가 다급하게 명령하여 전진(全陣)을 모두 데리고 바위에 올랐다.

7 명이 다 자리도 잡기 전에 곽정은 다시 소나무 뒤로 숨었다. 그와 그들 도사들과는 비록 떨어져서 멀건 가깝건 간에 그가 여전히 북극성 위를 점하고 있는데다가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기에 그들을 공격하기에는 여전히 편리한 상태였다.

일곱 도사들은 탄식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 오늘 우리 전진교는 크게 망신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잠시도 이곳에 머무를 수 없어 나무 위에 설 자리를 찾아 뛰어올랐다. 곽정이 웃으면서,

[내려 가시지 !]

하면서 개양(開陽) 도사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나무 밑으로 내려 왔다.

북두진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좌우가 호응하여 서로 돕는 것인데, 곽정이 개양을 공격하자 요광(搖光)과 옥형도 어쩔 수 없이 나무 아래로 내려와 그를 도왔다. 이들이 내려오자 천추, 천권 두 도사도 따라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순식간에 진세가 변했다.

양과는 한편으로 넋을 잃고 쳐다보면서 매우 기뻐하며 속으로 생각

했다.
(만약 곽아저씨의 저러한 무예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이내 고쳐 생각했다.
(내가 어디에서 저런 무예를 배울 것인가 ? 곽부와 무씨 형제는 나에 비하면 얼마나 복받은 애들인가. 곽아저씨는 전진파의 무예가 자기만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그들에게 보내려 하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울화통이 터져서 그는 거의 울 것 같았다. 그는 곽정이 일곱 도사들을 희롱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고 관전을 했다.
곽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만하면 내가 곽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됐겠지.)
일곱 도사들이 급하게 자리를 찾으려는 것을 바라보며 곽정은 두 손을 마주잡고는 말했다.
[일곱 분 도인 어른 !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천권 도사는 본래 성질이 난폭하여 상대방의 무예가 깊고, 북두진법에 정통한 것을 보고는 그가 전진교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나쁜 놈아 ! 열심히도 북두진법을 연구했구나. 너희들이 종남산에 와서 이와 같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우리 전진교를 원수처럼 대하니 우리 또한 결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곽정이 놀라서 묻는다.
[무엇이 무례하다는 것입니까 ?]
[네놈의 무예를 보아하니 보통이 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하산해라.]

천추 도사의 말투 속에는 곽정의 무예에 대한 흠모의 감정이 스며 있었다.

[나는 남방천리 밖에서 북으로 북으로 왔는데어찌 구진인을 뵙지도 못하고 하산할 수 있단 말이오 ?]

천권 도사가 물었다.

[구진인을 만나려고 하는 까닭이 뭐냐 ?]

[나는 어려서 부터 마진인, 구진인의 은혜를 입어서, 지난 십 여 년 동안 그 일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다시 긴히 부탁드릴 일이 생겨서 이렇게 온 것이오.]

천권 도사는 곽정의 말을 듣고 의심이 어하여 얼굴을 찡그렸다.

원래 강호는 은구(恩仇), 두 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깊은 원한을 품고도 보은(報恩)을 가장하여 마침내 원수를 갚는 일이 많았다. 이즈음 전진교는 큰 적이 생겼으므로 천권 도사는 이러한 편견을 갖고 곽정이 말한 것을 그 반대로 생각하여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들의 사부인 옥양진인(玉陽眞人)을 두려워 한 나머지, 구진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구나.]

곽정은 이 말을 듣자 어린 시절 조왕부(趙王府)에서의 일이 생각났다.

[도사들은 옥양진인의 문하이군요. 왕진인은 나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소. 그가 만약 산중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일곱 도사들은 모두 왕처일(王處一)의 제자였다. 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장검을 뽑아 들자 일곱 자루의 푸른 칼빛이 곽정의 몸에까지 이르렀다. 곽정은 얼굴을 찡그리며 자기가 공손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점점 난폭해지는 이유를 몰라 답답했다. 만약 황용과 함께 왔다면 그녀가 순식간에 그 이유를 헤아렸을 생각을 하니 매우 안타까왔다. 몸을 피하여 북극성위를 차지하면서 곽정은 말했다.

[나는 강남의 곽정으로 보산(寶山)에 악의없이 왔는데, 아아 어찌해

야 그대들이 나를 믿어 준단 말인가 !]
 천권 도사가 말했다.
 [너는 이미 전진 제자의 칼을 여섯 자루나 훔쳤는데 어찌 다시 우리의 일곱 자루 칼을 뺏지 않겠는가 !]
 그때까지 조용하던 천선 도사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곽정에게 용씨란 여자를 욕하라고 요구했다. 곽정은 점점 이상했지만 중양궁에 가서 마옥, 구처기, 왕처일을 만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연하게 말했다.
 [나는 산을 올라갈 것이오. 여러분이 만약 방해한다면 그것을 어찌 무례한 짓이라고 아니 할 수 있겠소 ?]
 일곱 도사들은 장검을 들고 동시에 두 걸음씩 내디뎠다. 천선 도사가 말했다.
 [너는 요법을 사용하지 말고 단지 무술에 의해서 결판을 내자.]
 곽정은 웃었다.
 [나는 꼭 요법을 사용해야겠소. 그대들은 이제 보게 될 것이오. 내 두 손이 그대들의 칼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대들의 일곱자루 칼을 모두 빼앗는 것을.]
 일곱 도사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네놈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어찌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들의 칼을 빼앗는단 말인가 ?)
 곽정이 다시 말한다.
 [나는 발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오. 말하자면 그대들의 칼과 손발을 나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오. 만약 건드리면 내가 패한 것으로 하고 즉시 머리를 돌려 하산하겠소.]
 일곱 도사들은 곽정이 큰소리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천권 도사가 장검을 한번 휘두르며 진법으로 에워쌌다. 곽정은 몸을 기울여 재빨리 움직여서 북극성위를 유지한 뒤, 빠른 걸음으로 북두진의 좌측으로 향

했다. 천권 도사는 두려움을 느끼고 황망히 우측으로 진을 돌렸다. 무릇 두 사람이 대결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정면을 보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뒤에서 육박한다면 반드시 몸을 돌려서 적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곽정이 급하게 몸을 움직여 간 곳은 바로 북두진의 뒤쪽이었다. 일곱 도사들은 어쩔 수 없이 진법을 이끌어 그와 정면으로 마주본다. 그러나 곽정이 계속해서 좌측으로 가서 몸을 돌리지 않고 빠르게, 혹은 느리게, 똑바로, 비스듬히 계속해서 좌측으로 돈다. 그가 계속 확실한 북극성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곱 도사들은 어쩔 수 없이 좌측으로 돌았다.

곽정이 점점더 빨라지더니 이윽고 달리는 말과 같이 되었다. 일곱 도사들의 무예도 보통이 넘어서 비록 곤란이 있어도 진법은 조금도 흐트리지 않으며 천추, 천선, 천기, 천권, 옥형, 개양, 요광 등, 각자의 위치를 안정되고 정확하게 지켰다. 그러나 몸은 어쩔 수 없이 곽정을 따라 질주하고 있었다. 곽정도 조심스럽게 중얼거린다.

(진문의 제자들은 과연 보통이 넘는구나.)

일곱 도사들도 처음에는 힘을 다해 곽정과 함께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차 각자의 무예가 드러나 천권, 천추, 옥형 등은 무예가 비교적 뛰어나 빨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나가 마침내 북두진 가운데에 틈이 생겼다. 그들은 속으로 매우 놀랐다.

(만약 곽정이 이때에 우리 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방어한단 말인가.)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다른 것은 신경쓸 여유도 없이 단지 평소의 내력을 다하여 곽정을 에워싸고 빙빙 도는 수밖에 없었다. 점점 빨리 돌자 손에 있던 장검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게 되었다. 회전이 점점 빨라지자 장검을 더이상 붙갑고 있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어떤 거대한 힘이 밖으로 잡아당겨서 손에 있는 칼을 빼앗으려는 것 같았다. 그때 곽정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손을 놓아라 !]

그것이 마치 무슨 공격인 줄 안 일곱 도사들이 왼쪽으로 몸을 날려서 피하며 급하게 뛰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일곱자루의 장검이 일제히 손에서 빠져 나오더니 마치 일곱 마리의 은빛 뱀처럼 80여 장 밖의 소나무 숲으로 날아갔다. 곽정이 갑자기 문득 멈추며 뒤를 돌아보았다.

일곱 도사들은 거의 사색이 되어서 멍청하게 서 있었으나 각자는 여전히 자기의 위치를 지켜 진세는 여전하였다. 곽정은 그들이 이와같이 맹렬한 돌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진법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평소 연습한 무예가 실로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천권 도사의 숨이 차고 거의 기운이 없는 휘파람을 신호로 그들은 바위 뒤로 잠적했다.

잠시 후 곽정이 양과를 불렀다.

[과아야 ! 이제 올라가자.]

두 번씩이니 불렀으나 양과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어디에서도 양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 후 곽정은 소나무 뒤에 양과의 조그만 신발 한 짝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곽정은 덜컥 겁이 났다.

(원래 이 일곱 도인 이외에도 다른 자들이 옆에서 훔쳐보다가 과아를 사로잡아 간 것은 아닐까 ?)

그러나 곽정은 이내 그들이 사람을 잘못 알고 오해했으므로, 본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전진교는 결코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쳐 생각했다.

곽정은 숨을 한 번 크게 쉬고는 산정을 향해서 바쁘게 달려갔다.

그는 도화도에 10여 년 간 은거하며 매일 무예를 닦았지만 어떤 때는 적막감을 느끼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도사들과 한바탕 무예를 겨루고, 그때마다 권법의 모든 동작이 마음먹은 대로 풀려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

산세는 갈수록 험해졌다. 때로는 낭떠리지를 어렵게 통과해야 하기

도 했다. 채 반 시간도 가기 전에 시커먼 구름이 달을 가리더니 순식간에 온 산이 어두워졌다.

(나는 이곳의 산세를 잘 모른다. 그들이 흉계를 꾸밀지 모르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오자 온산이 밝아져 곽정의 마음도 후련해졌다. 갑자기 산 뒤에서 은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호흡 소리였다. 비록 소리는 매우 미약했지만 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허리를 졸라매고 언덕을 넘었다.

눈앞에는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분지가 나타나고 산기슭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수면에 달이 비쳐서 번뜩였다.연못 앞에 드문드문 1백여 명의 도인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 황관(黃冠)을 쓰고 회포(灰袍)를 입고, 손에는 각기 장검을 들고 있었다. 칼빛은 번쩍번쩍 눈이 부실 정도였다.

곽정이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일곱 사람이 한 조(組)가 되어서 14개의 천강북두진을 만들고 있었다. 7개의 북두진은 다시 하나의 대북두진(大北斗陣)을 형성하고 있었다. 2개의 대북두진은 하나는 정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하여 서로를 도와 주고 보완하고 있었다.

(이 북두진법은 구진인도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필시 이 몇 년 동안 새로 연구해 낸 것임에 틀림없다. 중양조사(重陽祖師)가 전수해 준 것과 비교해도 한층 더 심오하구나.)

곽정은 천천히 걸어서 앞으로 나갔다.

진중(陣中)의 한 사람이 휘파람을 불자 98명의 도사들이 갑자기 흩어져서 혹은 앞으로, 혹은 뒤로 진법을 바꾸어서 곽정을 포위하였다. 그들은 장검을 들고 서서 곽정을 노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정은 손을 모아 한 바퀴 돌며 인사를 했다.

[저는 마진인·구진인·왕진인 등을 뵈오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

러분 도사들께서는 저를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중의 머리가 긴 도사가 말했다.

[그대의 무예는 썩 뛰어난데 어찌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요인(妖人)과 어울리는가 ? 우리 전진교와 그대는 원래 알지도 못하고 별 일이 있을 건더기가 없는데 어찌 요인들과 함께 산에 올라와 난동을 피우는가 ? 즉시 하산하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은 비록 낮은 목소리였으나 한 마디 한 마디가 분명하고 똑똑하여 그의 내력이 매우 높은 경지임을 보여 주었다. 말투도 매우 간절하여 진심으로 권고하고 있었다.

곽정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 우습기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만약 용아가 나의 곁에 있었다면 이처럼 애꿎은 오해를 받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요인은 무슨 요인이란말이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하오. 내가 마진인 구진인을 뵙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머리가 긴 도사가 다시 말했다.

[마진인, 구진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북두대전을 부셔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

[하찮은 저는 무예도 변변하지 못한데 어찌 감히 전진교의 절기와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여러분 도사들께서는 제가 데리고 온 아이를 풀어 주어 장교진인(掌教眞人)과 구진인을 어서 뵙게 해 주십시오.]

[네놈이 끝까지 허세를 부리고 우리를 희롱하니 종남산 중양궁 앞에서 어찌 네놈의 버릇 없음을 용서할 수 있을까 !]

장검을 한 번 공중에서 휘두르니 바람이 일어나고 위잉, 하는 소리가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나머지 도사들도 각자 일제히 장검을 휘두르니 98 자루의 칼이 어지럽게 사방을 움직여 일진광풍(一陣狂風)이 일어났다.

(이 두 개의 북두대진이 만약 서로 도우면 내가 혼자서 어찌 북극성

위를 차지하겠는가. 이 일은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구나.)
그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2개의 북두대진, 98명 도사들은 이미 좌우를 포위하여 한 마리 파리새끼조차 뚫고 나갈 수 없었다.
장발의 도사가 외쳤다.
[빨리 칼을 잡아라. 우리 전진교는 적수공권(赤手空拳)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 북두대진은 깨뜨리기 어려우니 반드시 내가 다칠 것이다. 진인(陣人)의 수도 엄청나고 위력도 강하나 도사들 각각의 무술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결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진법을 어디 한 번 더 살펴보자.)
곽정은 갑자기 몸을 돌려서 서북쪽으로 치달리며 강룡십팔장(降龍十八掌)중의 하나인 잠룡물용(潛龍勿用)을 사용하며 손바닥을 늘였다 오무렸다 하면서 맹렬하게 밀고 갔다. 7명의 젊은 도사들은 칼을 왼손으로 바꾸어 들고는 서로 연합하여 오른손바닥으로 곽정의 이 동작을 막아냈다.
곽정이 방금 쓴 장법은 이미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서 앞으로 미는 힘도 강했으나,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뒤에 있는 끄는 힘이었다. 일곱 도사들은 힘을 모아서 곽정이 미는 강력한 힘을 막았으나 뜻밖에도 다른 큰 힘이 앞으로 그들을 끌자 중심을 잃고는 모두들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즉시 일어나긴 했지만 얼굴이 온통 먼지로 가득하여 여간 부끄럽지 않았다.
장발의 도사는 그의 동작이 굉장하여 순식간에 7명의 도사가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그는 휘파람을 길게 불어서 14개의 북두진으로 곽정을 겹겹이 에워쌌다. 곽정의 장력이 비록 10배 정도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98명의 도사들을 손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하리라고 장발의 도사는 생각했다.
곽정은 전에 치렀던 군산대전(君山大戰)이 생각났다. 적의 무예가 비록 모두 강하지 않지만 연합하면 적을 당해 내기 어려워 감히 그들

과 맹렬하게 부딪치느니 경신공부(輕身工夫)를 펼쳐서 진풍을 뚫고 피해 다니며 적의 약점을 찾는 것이 옳았다.
그는 동분서주하며 진법의 변화를 유도했지만 짧은 시간에 혼자 힘으로 이 진을 파괴한다는 것이 도무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첫째로 그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으며, 둘째 진법이 비할 데 없이 엄준하여 도무지 약점이 없었으며, 세째로 그가 민첩하지 못하고 진법은 빨리 변하여 비록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순식간에 볼 수가 없었다. 고요한 달빛 아래에서 칼빛은 물과 같이 흘렀고, 사람의 그림자는 조수(潮水)와 같이 밀려왔다 밀려가곤 했다.
점차로 진세는 조여들어 빈 틈 사이로 재빨리 피해 다니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내가 진을 뛰쳐나가서 중양궁으로 달려가 마도장과 구도장을 뵙는 것이 옳겠구나.)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펴보니 서쪽 산허리에 스무 채 가량의 집이 보였다. 그 중의 몇 채는 매우 커서 아마 중양궁이 그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동쪽으로 치달아 얼마간 뛰다가 급히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많은 도사들은 곽정의 신법(身法)이 갑자기 빨라져서 시커먼 그림자가 진중에서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있는 장소는 알 수가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눈이 현란해져 잠시 공격이 지체되었다.
[모두들 조심해라. 그놈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다.]
장발의 도사가 외치는 소리였다.
(이 진법은 그가 주재(主宰)하고 있으므로 먼저 저 장발의 도사부터 쓰러뜨려야겠다. 그래야만 진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곽정은 막바로 장발의 도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 진법의 오묘함은 적을 주재자로 끌어들이고 각각의 소진이 바로 그 기회를 봐서 사방에서 공격하는 데 있었다. 곽정은 단지 7,8 보 정도 달렸지만,

곧 자신의 불리함을 알게 되었다. 그때 몸 뒤에서 압력이 급증하더니 양측에서 우르르 공격해 들어온다. 그가 우측으로 회전하는 것을 기다려 정면의 2 개 소진, 14 개의 장검이 동시에 그를 향해 닥쳐왔다. 이 14 개의 장검의 방향은 곽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곽정은 피할 수가 없었다.

몸은 비록 위험에 처했으나 마음속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화가 나서 곽정은 생각했다.

(너희들이 설사 나를 요인음적(妖人淫賊)으로 착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가(出家)한 사람들이 가슴속에 자비(慈悲)를 품고 있어야지 어찌 이같이 쉽게 사람을 죽이려 덤벼든단 말인가. 전진교는 적수공권을 해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면서 오른발로 뛰어올라 왼손을 뻗어 어린 도사를 쓰러뜨린 후, 그의 장검을 빼앗았다. 오른쪽 허리로 그때 7 개의 칼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는 왼손을 휘두르니, 8 개의 칼이 부딪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7 개의 칼이 모두 두 동강이 났다. 그러나 곽정이 들고 있는 칼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가 빼앗은 칼이 결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보검도 아니었지만 곽정은 단지 내력으로 칼끝을 휘둘러서 상대방의 7 개 칼을 부순 것이다.

이 최초의 일곱 도사들은 놀라서 얼굴이 거의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잠시 멍청하게 서 있는 사이에 2 개의 북두진이 즉시 다가왔다. 곽정은 이들 14 명의 도사들이 왼손으로 옆에 있는 도사의 오른쪽 어깨를 받쳐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14 명의 기력이 이미 연합해 하나로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면 다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볼 좋은 기회이다 !)

장검을 휘두르자 14 번째 도사의 칼이 달라붙었다. 그 도사가 안으로 끌려들어 움직이지 못하자 나머지 13 명이 각각 내력을 사용해 상대방에 붙은 칼을 당기는 힘이 급증하는 것을 손으로 느끼고는 소리 질렀

다.

[모두 조심해라 !]

오른쪽 팔을 흔들자 카카카, 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12 자루의 장검이 잘라지고 최후의 2 자루는 공중에 떠올랐다. 14 명의 도사들은 매우 놀라서 황망히 흩어졌다.

(아아 나의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구나. 두 자루가 절단되지 않다니…….)

이리 되자 도사들은 더한층 겁을 먹고는 조심스러워했다. 21 명의 칼이 없는 도사들은 즉시 장풍을 사용했는데 그 위력도 만만하지 않았다.곽정은 방금 전에 2 자루의 칼을 놓친 것이 마음에 걸렸고 수비가 점차 안정되는 것을 보고는 생각했다.

(마도장 구도장이 최근에 북두진에 새로운 기술을 첨가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만약 그들이 갑자기 처음 보는 기술로 변하면, 내가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 포로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내가 먼저 기선을 잡아야겠다.)

[여러분께서 길을 비켜 주지 않는 것은 의리에도 벗어나는 일이오. 어서 길을 비키시오.]

장발의 도사는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이고 곽정의 기술이 다한 줄로 알고는 마음속으로, 비록 제가 98 명의 칼을 모두 망가뜨렸으나 전진교의 북두대진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함을 생각하고는 그의 고함소리를 묵살한 채 웃으면서 점차 진법을 바싹 조이도록 했다.

곽정이 갑자기 몸을 낮추어 동북쪽으로 피하자 서남쪽의 2 개 소진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 돈다. 곽정의 손끝이 떨리는 순간 14 번의 동작이 이루어졌다. 그 매번마다 각각 도사들의 오른쪽 팔목 바깥쪽의 양곡혈(陽谷穴)을 찔렀다. 그것은 검법의 최고 기술로, 칼을 번개처럼 사용하고 찌르는 곳은 조금의 오차도 없었다.

그의 기술은 매우 가벼웠지만 도사들은 팔목이 마비되고 손가락에 힘이 빠지며 14 자루의 칼을 모두 땅에 떨어뜨렸다. 그들은 놀라서 급

히 몇 걸음 뒤로 후퇴해서 팔의 상처를 보니 단지 양곡혈에 빨간 흔적 만 있을 뿐, 한 방울의 피도 나오지 않자 비로소 상대방이 칼끝으로 타혈(打穴) 공력을 사용하여 혈도를 뚫고 피부에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이리하여 벌써 35개의 장검이 손에서 빠져나갔다. 장발의 도사는 크게 놀라며 곽정의 뛰어난 무예에 감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자가 궁에 뛰어든다면 그 후환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즉시 명령을 내려 진세를 강화했다. 그는 98명의 도사들로 하여금 곽정을 네 겹으로 둘러싸 그를 눌러 죽이려고 했다.

(이들 도사들은 도무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어쩔 수 없다. 그들을 좌절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곽정은 왼손을 비스듬히 끌어당기며 오른손으로 좌측을 향해서 밀었다. 또 다른 북두진의 무리가 다가왔다. 곽정은 황급하게 북극성위로 달려갔다. 다시 또 다른 북두진이 공격해 왔다. 이때 14개의 북두진에 14개의 북극성위가 있었는데, 곽정은 분신술(分身術)을 하지 못해 동시에 14개의 북극성위를 다 차지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경신을 전개하여 일진의 북극성위를 차지한 뒤, 다시 다른 북극성위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처럼 몇 번을 돌자 진법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장발의 도사는 정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는 급히 명령을 내려 여러 도사들이 멀리 흩어져서 진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도사들이 만약 곽정을 따라 계속 어지럽게 움직인다면 그가 신속하게 진세의 혼란을 이용할 것이고, 만약 자리를 지켜서 움직이지 않으면 14개의 북극성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곽정이 아무리 몸을 빨리 움직여도 동시에 뛰어들어 북극성위를 차지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했다.

곽정은 생각했다.

(장발 도인은 과연 진법의 요결(要訣)에 정통하구나. 그들이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기회에 나는 중양궁으로 몸을 빼겠다.)

그러나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 ! 아마도 마도장 구도장은 궁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약 궁에 있다면 내가 이들 도사들과 이토록 오랜 시간을 싸우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 !)

머리를 들어서 중양궁을 바라보니 도관(道觀) 옆에서 흰 빛이 번쩍인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칼을 들고 어지러이 싸우는 것 같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확실한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칼이 부딪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누가 이처럼 대담하단 말인가 ! 감히 중양궁에 들어와서 소동을 피우다니……, 오늘 저녁은 참으로 이상한 날이구나.)

급히 가서 확실히 보려고 했으나 14 개의 북두진이 점차 가까와지면서 그를 육박해 왔다. 그는 다급해졌다. 왼손으로는 견룡재전(見龍在田)을, 오른손으로는 항룡유회로 좌우로 나누어 공격했다. 좌측의 북두대진 49 명이 그의 왼쪽을 막고, 우측의 49 명은 오른쪽을 막았다. 곽정은 그의 동작이 충분히 전달되기 전에 중도에서 견룡재전을 항룡유회로, 항룡유회를 견룡재전으로 바꾸었다.

좌우의 쌍수가 순간적으로 다른 동작을 취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더구나 중도에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도사들은 일찌기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신묘한 기술이었다. 좌측의 북두대진은 곽정의 견룡재전을 막고 있었고, 우측은 항룡유회를 막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동작이 서로 상반되어 양측의 도사들은 결국 서로 대립되는 형세가 되고 말았다.

곽정이 갑자기 동작을 바꾸어 그의 그림자가 번쩍 하면서 양진의 틈새로 빠져나가자 좌측의 49 명 도사와 우측의 49 명 도사들은 앞으로 밀려가서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양진은 서로 부딪쳐 칼이 부러지고 코가 깨지거나 눈이 멍들고……, 30 여 명 가량은 땅에 나뒹굴었다.

진법을 이끌던 장발 도사는 비록 재빠르게 피하여 다치지는 않았지만 굴욕과 분노로 잇달아 소리질러서 황급하게 진세를 정돈하였다. 곽

정이 산기슭의 큰 연못인 옥청지(玉淸池)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14 명의 소진을 데리고 그를 추격했다.

전진파의 무예는 원래 청정무위(淸靜無爲)를 강구하여 부드러움으로 억센 것을 제압하는 것이었으나, 진법의 주재자인 장발 도사는 매우 화가 난 나머지 전진파의 금기를 깨고 적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임기응변(臨機應變)하고 있는 것이었다.

곽정이 옥청지 옆에 이르렀을 때 한 줄기 빛살이 비치는 것을 보고는, 오른손으로 장검을 휘둘러서 연못 옆의 버드나무 가지를 베었다. 그리고는 장검을 버리고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아서 연못 속으로 집어 던졌다. 발에 힘을 주어 공중으로 날아올라 오른쪽 발끝을 나뭇가지에 대자 나뭇가지는 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나뭇가지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때를 같이 해 그는 발을 박차 건너편 언덕으로 올랐다.

도사들은 너무 급하게 달려왔는지라 급히 멈추지 못하고 풍덩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45 명 가량이 물에 뛰어들었다. 최후의 몇 명은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서야 겨우 건너편 언덕에 올라 걸음을 멈출 수가 있었다.

어떤 도사는 헤엄을 칠 줄 몰라서 연못 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며 비명을 질렀다. 헤엄을 칠 줄 아는 도사가급히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허위적대는 사람들을 구해 주었다. 옥청지 주변의 수많은 도사들은 진흙과 물에 젖어서 끝없이 소리 지르며 아우성쳤다.

바위에 쓴 시(詩)

곽정은 시끌벅적한 무리를 벗어나 숨을 죽이고 중양궁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중양궁으로부터 종소리가 울려퍼졌다. 종소리가 상당히 급한 것으로 보아 경보를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곽정이 고개를 들어 보니 도관(道觀) 후원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곽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늘 과연 전진교에 적들이 대거 습격을 해 온 모양이구나. 빨리 가서 그들을 구해야겠군.)

등뒤에서 요란한 고함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오고 있다. 그는 그제서야 사태를 짐작했다.

(이들 도사들은 나를 자기들의 적과 한 통속으로 여기고 있구나. 사태가 위험해지니 그래서 내게 죽어라, 하고 달려드는구나.)

그러나 곽정은 뒤를 쫓아오는 무리들에 개의치 않고 급히 산정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신법을 전개했으므로 이미 수십 장 밖으로 벗어나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채 못 되어 중양궁 앞에 다다랐다.

불길은 화염을 토해 내며 쉽사리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었다. 연기가 온통 밤하늘을 뒤덮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중양궁의 도사들이 아무도 불을 끄지 않는 점이었다.

곽정이 놀라 살펴보니 10 여 채의 도관들이 산 속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데, 후원의 불길이 비록 거세었지만 안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안채에서는 고함소리, 욕하는 소리와 함께 병기들이 서로 부딪치는 금속성의 쇳소리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날려 높은 담 위로 뛰어올랐다. 안채의 광장 안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꽉 들어차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49 명의 황포 도사들이 7 개의 북두진을 형성해 1 백여 명의 적과 맞서고 있다.

적들은 크고 작고, 몸짓도 각양각색으로, 한눈에봐도 그들의 문파와 의상들이 제각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병기를 이용하거나 장법으로 사방팔방에서 7 개의 북두진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들의 무공 또한 결코 약하지 않았으며 수도 많아 전진교 측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적들은 각자 공격하고 있었으나 7 개의 북두진은 서로 호응하면서 수비를 철저히 하니 적들이 비록 수효는 많았으나 함부로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곽정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전각 안에서 휘익, 하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장풍 소리로 미루어 볼 때, 전각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무공이 밖의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았다.

그는 담장 위에서 뛰어내려 몸을 비스듬히 숙여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교란시키며 세번째 북두진의 틈을 뚫고 들어갔다. 순간 그들은 크게 질겁을 하며 검을 휘둘러 댔지만 적들의 공격이 하도 맹렬해 그를 쫓아갈 수가 없었다.

대전(大殿) 위에는 원래 10여 개의 커다란 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었는데, 이때에는 이미 후원의 불빛이 비쳐 들어와 촛불은 그 빛에 묻혀 있었다.

곽정은 적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7명을 보니, 7명 중 셋은 다소 늙었으나 넷은 젊은이들이었다. 늙은이들은 바로 마옥 구처기 왕처일이었으며, 네 명의 젊은이들 중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윤지평(尹志平)뿐이었다.

7명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북두진을 형성한 후 꼼짝않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 7명의 앞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백발이 성성한 도사 한 명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곽정은 마옥이나 구처기 등, 사람들의 처지가 위급한 것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피가 솟구쳐 올라 상대가 누구든 개의치 않고 벼락같이 소리쳤다.

"웬 간덩이가 부은 놈들이 감히 중양궁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두 손을 뻗어 앞의 두 녀석의 웃옷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상대의 공력도 대단해, 마치 두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양 꼼짝달싹을 않는다.

(어디서 온 놈들인지 대단한 놈들이구나. 오늘 전진교가 큰 낭패를 당하고 있구나!)

곽정은 이런 생각을 하며 돌연 손을 놓고는 다리로 걷어찼다.

그 두 사람은 천근추(千斤墜)의 공력으로 그의 손 힘과 대적하려 하다가 뜻밖에 돌연한 그의 변초를 당하자 순간 몸이 붕, 떠올라 문을 박차고 나가 떨어졌다.

적들은상대편에 고수가 나타나자 모두들 잠시 놀라는 것 같았으나, 이미 승산은 자기들 쪽에 있다고 여겨 크게 개의치 않고 두 놈이 달려들었다.

"웬 녀석이냐 ?"

곽정은 대답 대신 휘익, 하고 쌍장을 격출시켰다.

둘은 가까이 다가서기도 전에 그의 장력으로 인해 제대로 서있을 수가 없었다. 쿵, 하고 벽에 부딪치며 금방 입에서 피를 토해 낸다. 나머지 적들이 그가 일순간에 네 명을 잇달아 해치우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어 감히 나와 맞서려는 자가 없었다.

마옥 구처기 왕처일 등은 그가 곽정인 것을 알고는희색이 만면해졌다.

(아아, 이제 그가 왔으니 우리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

곽정은 등뒤의 적들은 안중에도 없이 마옥 등 사부들 앞에 꿇어앉아 절을 했다.

"제자 곽정, 절 올립니다."

마옥 구처기 왕처일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들어 답례를 했다.

윤지평이 돌연 소리를 지른다.

"곽형 ! 조심해 !"

곽정은 머리 뒤쪽으로부터 날아오는 바람소리를 듣고 적이 갑자기 암습을 가해 온다는 것을 알았으나 일어나기는 커녕 팔꿈치를 바닥에 지탱한 채 몸을 공중으로 날려, 내려오면서 두 무릎으로 적을 찍어 버렸다. 몰래 기습을 하던 2명의 등쪽 혼문혈(魂門穴)에 곽정의 무릎이 적중되자 그들은 땅바닥에 개구리처럼 쭉 뻗어 버렸다. 곽정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 밑에는 두 녀석이 방석처럼 깔려 있

는 형국이었다.

마옥이 미소를 지었다.

"곽정아, 일어나거라. 십여 년 못 본 사이에 무공이 크게 진보했구나 !"

곽정이 일어나면서 물었다.

"분부만 내려 주시면 이놈들을 모두 쫓아내겠습니다."

마옥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등뒤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터뜨리는 괴이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즉각 몸을 돌려 보니,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명은 홍포를 두르고 머리에는 금관을 쓴 삐쩍 마른 중년의 서장승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담황색 면포를 입었으며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어 귀공자티를 냈으며, 약 30여 세 가량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약간 오만스러운 빛이 흐른다.

곽정이 보아하니 두 사람의 태도가 범상치 않아 가볍게 행동을 취하지 않고 두 손을 마주잡고 물었다.

"두 분은 뉘신지요 ? 여기에 무슨 용무로 오셨는지요 ?"

"그렇게 묻는 너는 누구냐 ? 너는 여기에 무엇하러 왔느냐 ?"

발음이 정확치 않은 것이 중원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제자입니다."

귀공자가 냉소를 띄며 말한다.

"별 볼 일 없는 전진파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군."

그의 나이는 곽정보다 몇 살 아래인 것 같았으나 말하는 품이 노련한 것이 꽤나 건방졌다.

곽정은 원래 자신은 전진파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려 했으나, 그의 경박스럽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자 슬그머니 화가 났다. 그는 본래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아 간단히 물었다.

"두 분은 전진교와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무리를 지어 와서 방화를 자행하는 것입니까 ?"

"너 같은 전진교의 제자들의 말장난을 꼭 받아 줘야 한단 말이냐 !"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꽤나 난폭하게 굴었겠구나."

중년의 서장승과 귀공자는 각기 한마디씩 했다.

이때 화염은 더욱 기승을 부려 얼마 안 있어 중양궁 본전에 붙으려 하였다.

귀공자는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한 발 다가섰다.

"여기 친구들은 모두 내가 데리고 온 것이다. 네가 나의 삼십 초를 받아 넘기기만 한다면, 이 늙은이들도 용서하기로 하겠다. 어떻느냐?"

곽정은 정세가 위급함을 알고 아무 대꾸도 없이 오른쪽 손을 뻗어 그의 부채를 붙잡아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가 부채를 잡았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대로 곽정에게 끌려갈 판이었다.

귀공자는 몇 차례 몸을 흔들어 대며 끝내 부채를 놓지 않았다.

(이 사람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용케도 버티는구나. 그의 내공운용법이 서장승 영지상인(靈智上人)의 그것과 서로 비슷한데, 영지상인보다 훨씬 민첩하구나. 아마도 서장의 한 파이겠지. 부채의 뼈대가 철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 원래 병기로 쓰는 것이겠군.)

즉각 손에 힘을 가하며 곽정이 소리친다.

"손을 떼라 !"

한순간 그 귀공자의 얼굴에 자색 기운이 돌다가 스러졌다. 곽정은 그가 급히 내공을 운용해 대항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가 만약 이때 계속 힘을 가해서 그의 얼굴에 세 차례 정도 자색 기운이 나타나게 했다면 그는 내장에 중상을 입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곽정은 그가 이만한 공력을 수련했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중상을 입히고 싶지는 않았다. 곽정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손바닥을 폈다.

곽정의 장력이 부채로부터 상대방의 손에 전해졌다. 그의 전심전력이와해되는 순간이었다. 귀공자는 젖 먹던 힘을 다했으나 시종 자신의 힘이 부챗대에 미칠 수 없음을 알고 계속 부채를 들고 있을 수 없

었다.
 귀공자는 속으로 상대방의 무공이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고수라는 것을 알고는 체면이라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부채를 감히 빼앗지는 못했지만 손밖떼고 물러났다.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당신의 존성대명(尊姓大名)을 알려주십시오."
 말투가 상당히 고분고분해졌다.
 "내 이름은 미천할 따름으로 알 것 없고, 여기 계신 마진인, 구진인, 왕진인 등이모두 나의 스승들이지요."
 귀공자는 곽정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생각했다.
 (아까 전진교의 도인들과 반나절을 대적했을 때, 그들의 힘을 모은 천강북두진 하나만이 위력적일 뿐, 만약 각각 단독으로 겨뤘다면 내 적수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그들의 제자는 오히려 이렇게 대단한지 알 수 없구나.)
 다시금 곽정의 아래위를 훑어보니, 용모가 진실해 보였으며 투박한 옷에 평범한 행색이 일반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장력의 공력은 실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귀하의 무공은 실로 대단해 소생 탄복해마지 않았습니다. 십 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소생 아직 여기 일이 다 끝나지 않았으나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요."
말하면서 두 손을 마주 잡으며 인사를 했다.
 곽정도 포권을 취하며 답례했다.
 "십 년 후 여기서 만나면 되겠지요 ?"
 귀공자는 몸을 돌려 전각을 나가더니 입구에 서서 말했다.
 "나와 전진교간의 알력에서 오늘 내가 패배했음을 자인합니다. 바라건대, 전진교의 사람들은 나의 사사로운 일을 방해하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강호의 규칙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만약 패배를 자인하고 다시 재

결투할 날짜를 약정했다면 그 날짜에 이르지 않고는 좁은 길에서 서로 만나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곽정은 그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는 대답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오."

귀공자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서역말로 서장승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넨 뒤 막 가려고 하는데 구처기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다.

"십 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 구처기가 너를 상대하마 !"

고함소리에 기왓장이 울릴 정도였다. 그의 내공 또한 심후(深厚)함을 나타냈다.

귀공자는 귀가 멍해지며 마음속으로부터 떨려 왔다.

(이 늙은이의 내공 또한 결코 약한 게 아니었구나. 아까는 전력을 다해서 싸운 게 아니었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귀공자는 문을 빠져나와 급히 가 버렸다. 그 홍포의 서장승도 곽정을 징그럽게 한번 쳐다보고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총총 문을 나섰다.

곽정은 이들 무리중에 용모가 특이한 자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했다. 높은 코, 구레나룻, 곱슬머리에 파란 눈 등은 그들이 중원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곽정의 마음속에는 큰 의혹이 생겼다.

전각 밖의 광장에서는 병기가 부딪치는 소리, 서로 욕하는 소리가 점점 사그라들더니 적들이 퇴각하고 있는 듯했다.

마옥을 위시한 7명은 몸을 일으켰으나 바닥에 엎드려 있던 늙은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곽정이 살펴보니 광녕자(廣寧子) 학대통(학大通)이 아닌가 ! 마옥 등이 비록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시종 꼼짝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동문의 사제(師弟)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얼굴은 백짓장 같았고 호흡이 미세하며 두 눈을 꼭 감은 것이 중상을 입었음에 틀림없었다. 곽정이 그의 도포를 벗겨 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가슴에 찍혀 있는 수인(手印)은, 다섯 손가락 모두 팽팽한 것이 짙은 자색을 띠며 근육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것은 대수인이다. 적들은 바로 서장파였구나. 비록 독은 없지만 예전의 영지상인보다 훨씬 공력이 깊고 두텁구나.)

다시금 학대통의 맥박을 만져 보니 다행히도 아직 힘이 있었다. 그가 현문정종(玄門正宗)으로 다년간 수련을 해 내공이 얕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듯했다.

이때 후원의 불길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구처기는 학대통을 껴안았다.

"나갑시다, 이제 !"

곽정이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온 아이는요 ? 그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습니까 ? 화상을 입으면 큰일인데 ."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강적을 막아 내느라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가 그렇게 묻자 모두 되물었다.

"누구의 아이를 ? 어디에 말이냐 ?"

곽정이 대답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불빛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흔들거리더니 대들보 위에서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뛰어내려왔다.

"곽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바로 양과였다.

곽정이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어째서 대들보 위에 숨어 있었느냐 ?"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일곱 명의 늙은이와 ."

곽정이 크게 호통을 친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 어서 빨리 조사(祖師)님들께 인사를 올리지 못할까 !"

양과는 혀를 날름거리더니 바로 마옥 구처기 왕처일 세 사람에게 넙죽 절을 하고 나서 윤지평에게 절하려는 순간 그의 나이가 젊은 것을 보자, 고개를 돌려 곽정에게 물었다.

"이분도 조사님입니까 ? 이분에게는 절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윤사백(尹師伯)이시다. 어서 잔말 말고 절을 올려라."

양과는 썩 내키지 않았으나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더니 나머지 세 사람의 중년 도사들에게는 더이상 절을 올리지 않았다.

"양과야, 너 어찌 이리 무례하냐 ?"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절을 다 하고 나면 너무 늦어요. 괴이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 무엇이 너무 늦단 말이냐 ?"

"한 도사가 저쪽 방에 꽁꽁 묶여 있어요. 빨리 가서 구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 빨리 말해라 !"

양과는 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켰다.

"저쪽이에요. 누가 그를 묶었는지는 몰라요."

양과는 말하면서 히죽거리며 웃었다.

윤지평은 그를 한 번 흘겨보고는 급히 동쪽 방으로 내달아 방문을 걷어차고 봤으나 사람은 없었다. 다시 동편에 있는 제 3 대 제자가 내공을 수련하는 정실(靜室)로 달려가 문을 여니, 방안에 연기가 자욱한데 한 도사가 침상 곁에 묶여 신음하고 있었다. 윤지평은 곧 검을 뽑아 끈을 절단한 뒤, 그를 들쳐업고 나왔다.

이때 마옥 구처기 왕처일 곽정 양과 등은 이미 대전을 나와 산기슭에 서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후원 도처에서 불길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공중을 붉게 물들였다.

산 위의 수원(水源)은 매우 작아서 샘물 하나뿐으로 평상시 식수용으로도 근근히 사용됐을 뿐이다. 불을 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엄숙하고 거대한 후원이 점점 무너져내려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전점교의 제자들이 힘을 다해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불길을 차단한 결과 전당과 가옥들은 무사했다.

마옥은 본래 달관한 사람이라 별로 마음이 꺼림칙하지 않았으나 구처기는 성질이 급하고 난폭하여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자 이를 갈며 욕설을 퍼부었다.

곽정이 적들은 누구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패를 부렸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순간, 윤지평이 오른손에 뚱뚱한 도사 하나를 꿰차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 도사는 연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침을 해 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양괄를 보는 순간 화를 버럭 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양과는 히죽 웃더니 곽정의 등뒤로 숨었다. 그 도사는 곽정이 누군지도 모르고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밀치고 나서 양과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마치 담장을 미는 것처럼 딱딱한 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사는 멍하니 있다가 양과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요 새앙쥐 같은 놈 ! 나를 불에 타 죽을 뻔하게 만들다니 !"

왕처일이 물었다.

"정광(淨光), 왜 그러나 ?"

그 도사는 녹청독(鹿淸篤)으로 왕처일의 도손(徒孫)이 되는데, 방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흥분된 상태에서 양과를 보자 달려들어 결단을 내려 들었던 것이다. 그는 곁에 사조들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다가 왕처일의 일갈을 듣고서야 자신의 무례함을 깨달았다. 순간 온몸에 식은 땀이 났다.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축 늘어뜨리고 말했다.

"제자, 죽어 마땅합니다."

왕처일이 다시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

녹청독이 대답했다.

"모두 제자가 무능하여 그렇습니다. 어서 벌을 내려 주십시오."

왕처일이 미간을 가볍게 찌푸리며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누가 네게 유 무능을 물었더냐 ? 무슨 일이냐를 물은 것이지."

"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자는 조지경(趙志敬) 사숙의 명을 받들어 후원을 수비하고 있었습지요. 그런데 조사숙께서 요 조그만, 요 조그만."

그는 마음속으로 생쥐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사조들 앞이라 감히 무례하게 굴 수가 없었다.

"조그만 어린애를 제자에게 데려다 주시면서 조사숙이 잡아온 놈이니 도망치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를 동편의 정실 안으로 데리고 갔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요 조그만······, 요 조그만 녀석이 꾀를 부려 대변이 마렵다고 손에 묶인 끈을 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 제자는 어린 아이가 설마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끈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요 녀석은 변기통에 앉아 대변을 보는 양 능청을 떨더니 돌연 변기통을 들어올려 냄새나는 똥오줌을 제 몸에다 쏟아 부었지요."

녹청독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양과가 쿡, 하고 웃었다. 녹청독은 화를 벌컥 냈다.

"요놈의 자식······, 뭐가 우습다고 웃느냐 ?"

양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 혼자 웃는데 무슨 상관이십니까 ?"

녹청독이 그와 다투려 하자 왕처일이 나섰다.

"어린애와 노닥거리지 말고 계속얘기해라."

"네, 네. 사조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요 녀석이 얼마나 교활한 놈이라는 것을. 제가 변기통을 피해 몸을 피하자 저애가 <아이고, 영감님 ! 옷에서 냄새가 나네요 !>하며 깔깔거리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목소리를 높여 높고 날카롭게 하여, 양과의 말투를 흉내냈으나 전혀 양과와 닮지 않음을 듣고는 모두들 속으로 웃었다.

왕처일은 눈썹을 찌푸리며 도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 녹청독이 계속 말했다.

"제자는 자연 화가 치밀어 달려들어 때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저애가 변기통을 들어 또 내게 집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급류용퇴(急流勇退)의 일초를 사용해 피했지만 한 발이 그만 오줌똥에 미끄러져, 두 번 미끄러졌지만 끝까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애가 그렇게 경황이 없는 틈에 허리에 찬 검을 빼들어 제 심장에 갖다 대고는 만약 움직이면 그대로 찔러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도 어이가 없어 꼼짝 못하고 있었더니 왼손에 칼을 쥔 채 오른손으로 저를 도리어 끈으로 묶더니 소매를 잘라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 나중에 불이 나게 되자 저는 도망도 못 치고 죽을 지경이 되었지요. 만약 윤사숙께서 구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놈 때문에 불에 타 죽을 뻔했습니다."

하고 말을 마친 뒤 두 눈에 노기를 가득 띈 채 양과를 노려보았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양과와 그를 번갈아 보았다. 한쪽은 작고 몸집도 왜소했고, 다른 한쪽은 뚱뚱하고 건장한 체격인지라 자신들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녹청독은 사람들이 웃어 대자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맸다.

마옥이 웃으며 말했다.

"곽정아, 이애가너의 아이더냐 ? 이토록 영악스럽고 민첩한 것이 엄마를 꼭 닮은 것 같구나."

"아닙니다. 이애는 제 의동생 양강(楊康)의 유복자입니다."

구처기는 양강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저며 왔다. 자세히 양과의 두 눈을 살펴보니 과연 눈매에서 양강의 모습을 다소나마 찾을 수 있었다.

양강은 그의 유일한 속가 제자로 비록 그 제자가 똑똑치 못해 부귀를 탐내고 악인들과 어울렸지만 구처기는 매번 그를 생각할 때마다 잘 이끌어 주지 못해 끝내는 그가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여겨 항상 언짢았는데, 지금 양강의 후손이 있다고 하니 비감하기도 하고 한편 기쁘기도 해 급히 이것저것을 자세히 물었다.

곽정은 간략하게 양과의 신상에 대해 말하고는 또 그를 전진교 문하에 입문시키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구처기가 말했다.
"곽정아, 너의 무공이 이미 우리 선배들보다 더 월등한데 어째서 직접 무예를 전수시키지 않고 데리고 왔느냐 ?"
"그 일은 천천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자가 오늘 산에 오르면서 여러 도형(道兄)들에게 죄를 지어 심히 불안하여 각 도형들에게 삼가 사과를 드리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적으로 오인해서 빚어진 충돌을 얘기했다.
마옥이 말했다.
"만약 네가 때마침 오지 않았다면 전진교는 패문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모두가 같은 편인데 무슨 사과의 말을 꺼낸단 말이냐 !"
구처기는 벌써 눈썹을 곧추세우고서 사형의 입이 다물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말했다.
"지경(志敬)이는 외부를 담당하면서 적과 벗을 분별하지 못하다니 정말 한심하구나. 밖에 이처럼 막강한 진세를 안배해 놓았는데도 눈 깜짝할 새에 적들이 쳐들어왔길래 우리들이 손을 쓸 여유조차 없게 되어 이상스레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알고보니 지경이가 북두대진으로 네가 오는 것을 막고 있었구나."
말하면서 눈썹을 치켜세우고는 극도로 화가 나 곧바로 2명의 제자를 불러들여, 어째서 곽정을 적으로 오해하게 되었는가를 심문했다.
두 제자의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 나이가 비교적 많은 제자가 말했다.
"산 밑을 지키는 풍(馮) 사제와 위(衛)사제가 전달하기를, 이 곽대협이 보광사 안에서 석비를 쳤길래, 적과 한패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곽정은 그제서야 깨달은 듯, 이 모든 오해가 거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보광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비석에 장풍을 격출한 바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구처기가 말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니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구나. 오늘 중양궁을 쳐들어온 사마의 무리들이 바로 그 비석을 부수는 것으로 신호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야."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 감히 그토록 대담하다니 ?"

구처기가 한숨을 내쉰다.

"그 일을 이야기하자면 한참길지. 곽정아, 네게 보여 줄 것이 있으니 가자."

하더니 마옥 왕처일에게 고개를 한 번 끄덕거린 뒤, 구처기는 몸을 돌려 산 위로 올라간다.

곽정은 양과에게 당부한다.

"과아야, 어디 가지 말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

구처기는 계속 관후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사뿐사뿐한 게 젊은이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두 사람은 곧 산정에 올랐다.

구처기는 커다란 바윗덩어리 뒤로 가서 말했다.

"여기 글자를 새겨놓은 것이 보이지 ?"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져 바윗덩어리 뒤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곽정이 손을 뻗어 바위 뒤를 만져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계속 훑어 보니 한 편의 시 같았다.

그는 한편으로 더듬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겨진 글자를 따라서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필체는 손가락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다. 마치 손가락으로 바위 위에다 써내려간 것 같았다.

"이건 손가락으로 쓴 것입니까 ?"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 않을 뿐더러 놀라겠지만 손가락으로 쓴 것이 틀림없단다."

"아니, 설마 ! 세상에 정말로 신선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

"이 시는 두 사람이 쓴 것으로 두 사람 다 무림에서 대단한 인물들이었지. 전면의 글을 새긴 사람은 문무를 겸비한 초절의 고수로서, 생긴 모양도 특이해서 그가 비록 신선은 아니었지만 백년에 한 번 보기 힘든 그런 인물이었네."

곽정은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일었다.

"이 선배님은 누구십니까 ? 가능하다면 제가 한 번 만나뵐 수는 없겠는지요 ?"

"나도 ㈐厠 이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오늘 일어난 일의 사연을 다 이야기해 주마. 자, 앉거라."

곽정은 구처기의 말을 좇아 바위 위에 앉았다. 산허리에 걸려 있던 불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번에 황용과 함께 오지 못한 것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함께 와 여기 나란히 앉아 고사를 듣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의 의미를 너는 알겠느냐 ?"

이때 곽정의 나이는 이미 중년. 그러나 구처기가 그를 대하여 쓰는 말투는 10여 년 전, 그가 소년이었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곽정도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앞 부분은 장량(張良)의 고사로, 제자 전에 황용에게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하여 다리 밑에 숨어 있는데 어떤 노인이 신발을 떨어뜨리더니 장량에게 집어오라고 했었지요. 장량이 그것을 집어다가 바치자 후에 한 권의 병서(兵書)를 주었지요. 나중에 장량은 한고조(漢高祖)를 보좌하여 한나라를 열어 한흥삼걸(漢興三傑)의 한 명이 되었지만, 끝내는 물러나와 은거하면서 황로(黃老)

를 좋아하고 적송들과 어울려 지냈지요. 후반부의 몇 구절은 중양조사(重陽組師)의 행적을 말한 것인데 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처기가 물었다.

"너는 중양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

곽정이 떨면서 대답했다.

"중양조사는 전진칠자의 사부(師父)로서 전진교의 개산조사(開山祖師)이며 화산논검(華山論劍) 당시 무공이 천하의 제일이었습니다. 어찌 제가 천하 무술의 정종(正宗)인 전진교의 교주를 모르겠습니까 !"

"됐다. 그러면 그분의 어린 시절은 ?"

곽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교교영웅자, 승시혹할거(矯矯英雄姿, 乘時或割據)>. 빼어난 영웅의 기질도 때를 만나야 할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 은사도 태어날 때부터 도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년 시절에 학문을 익히고 나서 무공을 연마해 강호를 주름잡는 영웅 대장부가 되었던 것이다. 금나라가 쳐들어와 전답을 망치고 우리 백성들을 학살함에 분연히 일어나 금나라와 대항해 성지를 되찾는 등 중원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금나라의 세력이 더욱 강해져 선사(先師)께서는 연전연패를 당해 수많은 장병들을 잃게 되자 비분에 젖어 출가를 하게 된 것이야. 그때 그는 자칭 활사인(活死人)이라 칭하며 수년간을 본산의 한 고분에서 지내며 두문불출하셨었지. 뜻인즉, 비록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으며 금나라 도적들과 청천 하늘 아래 함께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어. 소위 불공대천(不共戴天)이란 바로 이런 의미이지."

"그렇게 된 것이로군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선사의 친구, 동료, 부하들이 잇달아 찾아와 분묘에서 나와 다시 한 번 일을 해 보자고 권유하였지. 선사는 낙심하여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강호의 옛 동료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느껴 시종 나가지 않았지. 팔 년이 지난 후, 선사의 일생 중 가장 강적이 묘문 앞에서 칠일 낮 칠일 밤을 계속해서 욕을 해 대자 선사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고분에서 나와 그와 격돌했지. 그는 하하, 웃으며 말했지. <기왕 나왔으니 이제 되돌아갈 필요는 없으렷다 !> 선사는 그때 적이 악의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셨지. 즉, 그와 같은 대장부가 분묘 속에 매장되어 지내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다른 호걸이 계략을 써서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었어. 두 사람은 한바탕의 변고를 겪은 후, 적이 벗으로 변하여 손을 맞잡고 강호를 두루 다녔지."

곽정은 그 선배의 당당한 풍채를 생각하자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 선배님은 누구십니까 ? 동사(東邪) 서독(西毒) 남제(南帝) 북개(北개)의 사대종사 중 한 명이십니까 ?"

구처기가 말했다.

"아니다. 무공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사대종사보다 위이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평소 밖에 얼굴을 내밀지 않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명성 또한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

"아하, 원래 여자였군요."

"그 선배는 사실 선사님에 대해 애정을 품고 있어 선사님과 결합해 부부가 되기를 원하였지. 당시 두 사람이 계속 격투를 벌인 것은 그분이 고의로 선사님과 친해 보려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분은 자존심이 강해 시종 마음속에 품은 정을 털어놓지 않았었어. 나중에 선사님께서 자연히 알게 되었지만그의 가슴속에는 나라의 원수가 항시 차지하고 있어 늘 말하기를, <흉노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내 어찌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 하셨다. 그리곤 그 선배의 두터운 정에 대해서는 멍청하니 짐짓 모른 척하셨던 게야. 그 선배는 선사님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자 서서히 울분이 쌓이기 시작했지. 두 사람은 본래 적에서 친구가 됐지만, 정 때문에 후에는 다시 원수가 되어 이 종남산 위에서 무공으로 승부를 내기로 약속하기에 이르셨지."

"꼭 그럴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

"그러게 말이다. 선사님께서는 그녀가 본시 자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과 계속 연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 그 선배의 성질은 괴벽스러워 자신에게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그것은 곧 자신을 더욱 얕보는 것이라고 여겼지. 선사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손을 쓸 수밖에 없었지······."

구처기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 그때 두 분 선배들이 이곳에서 수천여 초를 다투었지만 선사께서 힘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시종 결판이 나지 않았다. 그 선배는 화가 치밀어 말했다.

<당신은 나와 격투할 마음이 없군요. 나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

선사께서 말했다.

<무공으로는 승부를 내기 어려우니 학문으로 겨루는 것이 어떻겠소 ?>

<그것 좋아요 ! 만약 내가 지면 평생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만약 당신이 이기면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 ?>

그 선배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잠시 대답을 못 하더니 마침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당신이 사는 분묘에 내가 살게 해 주세요.>

그 선배의 말 속에는 만약 자신이 이기면 선사님과 함께 그 고분에서 살겠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선사께서는 심히 난감해졌다. 헤아려부면 무공은 그녀보다 한 수 위였으므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훗날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녀에게 이기는 수 밖에 없었다. 그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물었다.

<오늘은 서로 피곤하니 내일 저녁 다시 승부를 가립시다.>

다음날 황혼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여기에서 만났다.

그 선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가 시합하기 전에 먼저 규칙을 정해야만 해요.>

<또 무슨 규칙을 ?>

<당신이 이기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해 버려 이후로 당신을 보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 이기게 되면 당신은 고분을 내게 넘겨주고 평생 내 분부를 듣고 어떠한 일이라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가를 해서 중이 되어도 좋고 도사가 되어도 좋아요. 물론 중이건 도사건간에 이 산 위에다 사관을 짓고 십 년을 같이 있어야 돼요.>

선사는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평생 그대의 분부를 듣는다는 것은 그대를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이나 도사노릇을 해야만 하는데, 이는 다른 여자를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어찌 그대에게 이겨 그대를 자살하게 한단 말인가 ! 그러나 산 위에서 십 년간을 지내는 일도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사실 그 여류선배의 지모나 무공 모두 최상급이고 그녀의 일편단심에 선사께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선사께서는 그녀가 한 말은 그대로 실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그녀를 어떠한 경우라도 자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말하자면 살신성인의 심정으로 무엇이건간에 그녀에게 져 주기로 마음먹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 선배가 다시 말했다.

<우리의 학문 대결 방법은 상당히 쉬운 것이예요. 손가락으로 여기 바위 위에다 글자를 새겨놓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예요.>

<손가락으로 어떻게 글자를 새길 수가 있지 ?>

<이는 바로 손가락의 공력을 비교해 보는 것이지요.>

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신선도 아닌데 어떻게 글자를 새길 수가 있지 ?>

<이는 바로 손가락의 공력을 비교해 보는 것이지요.>

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신선도 아닌데 어떻게 손가락으로 바위에다 글을 새긴단 말이오 ?>

<만약 내가 해 낸다면 패배를 인정하시는 거죠 ?>

선사께서는 진퇴양난의 경지에 빠졌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여기서 그냥 물러나게 된다면 이긴 자도 진 자도 없게 되어 이 일은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었다.

<만약 당신이 해낸다면 자연히 패배를 인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도 못 해 낸다면 우리 둘은 실력을 가릴 수 없으니 더 이상 비교해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오.>

그 선배는 처연히 웃음을 지었다.

<좋아요. 당신은 도사 노릇할 각오나 하세요.>

그 여선배는 왼손으로 바위를 한동안 만지며 한참 동안 신음하더니 말했다.

<어떤 글을 새겨야 좋을까 ! 음, 자고로 출가한 자로 제일 영웅은 장자방(長子房)이다. 그는 진나라에 반대하고 명리를 탐내지 않은 당신의 선배이지요.>

오른손 식지를 뻗어 그 선배는 바위 위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선사는 그녀의 식지가 가는 곳에 돌가루가 떨어져 나가며 한 자 한 자, 정말로 글자가 새겨지는 것을 보자, 그만 놀라 자빠질 뻔 했다. 그녀가 돌 위에다 썼던 글이 바로 이 시의 전반부였다·······.

선사께서는 그만 탄복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날 저녁 고분을 그녀에게 내주었지. 다음날 출가하여 도사가 되어 고분 근처에 조그마한 도관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양궁의 전신이 되었다네."

곽정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손가락을 뻗어 자세히 만져 보니 과연 파거나 쪼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손가락으로 그어 쓴 것이었다.

"이 선배님의 손가락 무공은 정말 놀랄 만하군요."

구처기가 갑자기 앙천대소를 하며 말했다.

"하하하, 이 바위가 선사를 속였고, 나를 속이더니 오늘 마침내 너까지도 속이는구나. 그러나 그때 네 처가 옆에 있었다면 그녀의 눈은 결코 속이지 못했을 것이야."

곽정이 두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여기에 무슨 사술(邪術)이 ?"

"말할 여지가 있겠느냐 ? 지금 당장 누가 가장 지력(指力)이 강한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야 일등대사의 일양지이지요."

"그렇지 ! 일등대사의 신의 경지에 들어선 손가락 공력으로도 목재 위에다 글을 새기지 못했거늘 하물며 바위 위에다야 ? 게다가 다른 사람이 ? 선사께서는 출가하신 후, 이 일에 대해 아주 오래 깊이 생각하였으나 풀 수가 없었다. 후에 황약사 선배께서 종남산을 방문하였을 때 선사께서는 그가 지략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은밀히 이 일을 설명해 주고 도움을 청했지. 황약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껄껄 웃으며 말하는 거야. <하하, 이것은 나도 할 수 있지요. 단지 지금은 아직 연성이 끝나지 않았으니 한 달 후에 다시 방문하여 보여 드리지요> 하는 것이었어. 한 달 후 황도주(黃島主)가 다시 찾아와 선사와 함께 이 바위를 보러 왔지. 황약사는 왼손으로 바위 위를 한참 매만지더니 돌연 오른손을 뻗어 글을 써 내려갔어. 선사께서는 암석에 손이 닿자 움푹 파인 것이 지난번과 다름이 없는 것을 보니 더욱 놀랍고 신기해서 속으로 생각하셨지.

(황약사의 무공은 확실히 나보다는 한 수 아래인데 어떻게 저토록 무시무시한 지력을 갖고 있을까 ?)

순간 의심이 일어 손가락을 뻗어 암석을 찔러 버리자 암석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 그것이 바로 이것이지."

말하면서 곽정의 손을 바위의 한쪽으로 잡아끌었다.

곽정이 조그만 구멍을 만져 보곤 식지를 집어넣자 꼭 들어맞았다.

(이 바위는 특별히 부드러운 것이라 다른 종류와는 다른 것인 모양

이구나.)
 손가락에 힘을 주어 힘껏 그어 내렸으나 손가락 끝에 통증만 올 뿐
바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구처기가 껄껄 웃었다.
 "네가 여기에 숨은 내력을 알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 그 여선배가
오른손으로 글을 써 내려가기 전에 왼손으로 먼저 바위면을 한참 동안
만지고 있었던 것은 원래 왼손바닥에 화석단(化石丹)을 숨겨 갖고 있
었던 것이었어."
 "화석단이라뇨 ?"
 "화석단은 바위면을 부드럽게 하는데, 일주향(一柱香)이 다 타들어
가는 시간 동안은 석면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황도주는 그것을 간파하
고선 하산해 화석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와 그대로 하였던 것이지."
 곽정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다.
 (장인어른의 지모는 정말 그 여선배에 못지않았구나. 그러나 저러나
이 노인네는 어디로 간 것일까 ?)
 마음속에 황약사에 대한 걱정이 일었다.
 구처기는 그의 심사는 알지도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선사께서 당초에 도사가 됐을 때에는 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후에
도가(道家)의 서적을 많이 읽게 되어 끝내는 크게 깨달으셨다. 일체의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청정허무(淸靜虛無)의 경지에
빠져들어 오랜 수련을 하신 후,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근본을 따져 올
라간다면 그 여선배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세상에 전진교는 없었을 것
이야. 전진교가 없었다면 나 구처기도 오늘이 없었을 것이고, 너 곽정
도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 아니겠느냐 !"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 여선배의 명호가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아직 생존해 계시는가요
?"
 구처기가 한숨을 내쉰다.

"그 여선배가 당시 강호를 유람할 때 행적이 은밀하고 괴이하여 그녀의 진면목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선사님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야. 선사님도 남들에게 끝내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 여선배는 화산논검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난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이러한 무공과 성질로 보아 참석하지 않았을 리 없었을 텐데……."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혹시 그분은 후진을 남기지는 않았는지요 ?"

구처기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화근은 거기서부터 생겨났지. 그 여선배는 평생 제자를 거두지 않았지. 오직 곁에 몸종 한 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고분에서 십여 년 간을 두문불출하며 살 때, 그 여선배의 무공을 모두 여자 몸종에게 전수해 주었어. 그 여자 몸종은 평소 강호에 나서지 않았으니 무림에서도 자연 아는 이가 없었지. 그녀는 두 제자를 두었는데 큰 제자가 바로 강호에서 무슨 적련선자 이막수라고 불리는 자이지."

곽정이 순간 아, 하고 낮게 소리쳤다.

"이막수는 상당히 음흉한데 이제 보니 원래 근본이 여기였군요."

"그녀를 본 적이 있느냐 ?"

"수개월 전에 강남에서 만났었지요. 무공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녀와 다투었느냐 ?"

"아녜요. 사실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손을 써 몇 명을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악랄함이 전의 매초풍(梅超風)에 버금갔어요."

"그녀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귀찮게 된다. 그녀의 사매(師妹)의 성이 용(龍)……."

곽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이 용인 여자 ?"

구처기의 얼굴빛이 가볍게 변했다.

"뭐라고 했느냐 ? 네가 그녀를 만났었느냐 ? 무슨 일이 있었구

나."

"아닙니다. 제자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산에 오를 때 여러 사람들이 누차 나를 보고 욕하기를 요사스럽고 음흉한 놈이라고 하더니, 또 성씨가 용인 여자 때문에 제가 온 것이라고 말하는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구처기가 껄껄 웃더니 곧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것도 중양궁이 재난을 당하게 된 이유였군. 그런 오해가 없었더라면 북두대진으로 능히 그놈의 무리들을 막아 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산에 오게 됐더라도 학사제(학師弟)가 중상을 입지 않았을 것 아니냐 !"

그는 곽정의 얼굴에 의혹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말했다.

"오늘이 바로 용씨 성을 가진 여자의 열 여덟번째 되는 생일이지 !"

"열 여덟번째 생일 ?"

그러나 한 여자의 열 여덟번째 생일이 왜 이토록 커다란 화를 불러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구처기가 말했다.

"용씨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며 그 사마의 무리들도 모두 그녀를 소용녀(小龍女)라 불러 우리도 그녀를 그렇게 부를 따름이지······."

구처기의 이야기가 18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 년 전 어느날 밤, 중양궁 밖에서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궁 안의 제자들이 뛰어나가 살펴보니 보자기에 한 어린아이가 싸여 땅에 놓여 있었다.

중양궁에서 어린아이를 기른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출가인은 자비를 그 근본으로 삼는지라 그대로 못 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때 마침 나와 사형들 모두 산에 없었기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에 한 중년 부인이 산 뒤에서 홀연 나타났다.

<이 불쌍한 아긴 내가 거두어 가겠어요.>

제자들은 갓난아이를 그녀에게 건네 주었다.

후에 마사형과 내가 궁에 돌아오자 제자들이 그 일과 중년 부인의 용모와 차림새를 보고 하였다. 우리는 그제서야 그 중년 부인이 고분에서 살고 있는 여자 몸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우리 전진칠자는 전에 몇 차례 만나 보았지만 그때까지 서로 대화는 없었다.

두 집은 상당히 가까이 있었지만 윗 세대의 분규로 인하여 정말로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통 왕래가 없었다.

후에 그녀의 제자인 적련선자 이막수는 산을 나왔는데 마음이 악랄하고 무예는 고수라, 강호에 나가 자주 말썽을 일으키곤 했다. 전진교에서 수차에 걸쳐 그녀를 혼내 주려고 상의했지만 끝내는 고분에 사는 도우(道友)의 얼굴을 생각해 손을 쓰지는 않았다. 우리는 상당히 예절을 갖춘 편지를 써서 묘로 보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낸 후, 시종 답장도 없었으며 이막수에 대해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어느날, 묘 밖에 흰 기가 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묘 밖에서 제사를 지내고 일어서려는 순간, 열서너 살 먹은 여자아이가 가시나무 덩굴에서 나와 우리에게 제례에 대한 감사의 답례를 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사부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사부님께서 그 악행을 일삼는 그녀를 제압할 비법이 있으니 여러 어른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말을 마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들은 상세히 듣고 싶었으나 그녀는 이미 묘문 안으로 들어간 이후였다. 선사께서는 전진교 문하의 어느 누구도 묘문 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말라는 유훈을 남기셨다. 그녀가 이미 들어갔으니 하는 수 없긴 했지만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도우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제자를 다스리는 비법이 있겠는가 ! 단지 어린 여자 아이가 쓸쓸하고 불쌍해 보여 식량과 용품을 보냈더니 매번 뜯어 보지도 않고 하녀를 시켜 되돌려 보내 왔다. 이 사람도 성질이 괴팍해서 그녀의 조사와 사부와 똑같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보살펴 주는 하녀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

나중에 우리들은 모두 일이 있어서 궁 안에 있는 날이 적어졌다. 따라서 그 처녀에 관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이각수가 갑자기 강호에서 이름이 뚝 끊기더니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는 것였다. 우리는 모두 그 도우가 정말 묘책을 남겨 놓았다고 감복해 했다.

작년 봄, 나와 왕사제는 일이 생겨서 서북쪽의 감주 지방의 대협객의 집에 머물렀는데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됐지. 즉, 일년 후에 사방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마의 무리들이 종남산에 집결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 종남산은 전진교의 본산지로, 그들이 온다는 것은 나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막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나와 왕사제는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어 사람을 각지에 보내 확인해 본 결과 과연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종남산에 오는 것은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고분에 사는 소용녀와 관련된 어떤 일 때문이었다."

곽정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어린 여자애에 불과하며 또 밖에 나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사마의 무리들과 원한을 맺을 수 있었지요 ?"

"그 속사정은 이렇단다. 우리와는 기왕에 상관이 없으니 본래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 그러나 일단 사마의 무리들이 종남산으로 몰려든다면 우리도 결국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 아니겠느냐 ? 그래서 내막을 알아 봤더니 이 사건은 바로 소용녀의 사자(師姉)가 야기시킨 것이지 뭐겠냐 ?"

"이막수가 ?"

"그렇다. 원래 그녀들의 사부는 이막수에게 수년간 무공을 전수해

주었는데 그녀의 본성이 착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곤 그녀에게 이제 무공을 다 배웠으니 하산하라고 명하였지.

이막수는 사부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비록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다소나마 떨떠름했었는데 이제 사부가 죽자, 제사를 핑계삼아 활사인묘(活死人墓) 안으로 들어가 사매를 축출하려고 上佚 그녀는 사조와 사부의 절기 중 다 배우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고는 묘에 들어가 무공비급 등 유물을 찾아내려고 했지. 그러나 묘 안에는 허다한 교묘한 기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녀는 온 지략을 다 짜내어 겨우 두 개의 묘문에 들어섰지. 세번째 문 옆에서 그녀는 사부의 유서 한 통을 발견했다. 사부는 일찌기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는 유서를 남겨 놓아 그녀가 보게끔 했던 것이다. 유서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은 거였어.

<모년 모월 모일, 소용녀가 열 여덟번째 생일을 맞게되는데, 그때부터 소용녀는 우리 고묘파의 장문(掌門)이 되느니라.>

유서에는 또 이막수에게 개과천선하도록 당부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있었지. 만약에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필경 끝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녀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면 사매가 장문인의 신분으로 문호를 정리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었지.

이막수는 매우 화가 나서 제 3 문에 들어갔다가 그녀의 사부가 설치해 놓은 독침에 맞았다. 만약에 소용녀가 상처를 치료하여 독을 제거시키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는 도저히 당해 낼 수가 없음을 알고 물러나는 수 밖에 없었지. 그러나 그처럼 손을 떼는 것이 어디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 그런 것이었겠느냐 ?

후에도 몇 차례 들어갔다가 그때마다 크게 당하곤 했지. 최후에 한번은 결국 사매와 초를 주고받기에 이르렀지. 당시 소용녀는 15,6 세에 불과했지만 무공은 사자보다 훨씬 뛰어나 마음만 먹는다면 그녀의 목숨을 취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곽정이 중간에 말을 가로막았다.

"이 일은 강호에 떠도는 말일 뿐 서로 맞지 않는데요."

"뭐라고 ?"

"제 은사이신 가대협(柯大俠)께서 전에 이막수와 두 차례 겨룬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무공이 실제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등대사의 제자인 무삼통도 그녀에게 패했다지요. 그런데 소용녀의 나이가 이제 아직 스무 살도 채 안 되었는데 무공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막수를 이기기란 정말 어려웠을 텐데요."

"그것은 왕사제가 개방의 한 친구로부터 얻어들은 것으로, 소용녀가 정말로 사자 이막수를 이긴 것인지는 그 당시에 제삼자가 있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다만 강호에선 그렇게 얘기하고들 있단다. 그렇게 되자 이막수는 더욱 울분을 참을 수 없었지. 사부가 그녀를 편애하여 최상승의 무공을 사매에게만 전수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녀는 모년 모월 모일에 활사인묘의 소용녀가 비무초친(比武招親)하려 한다고 떠들고 다닌 것이야……."

곽정이 <비무초친>, 네 자를 듣는 순간 양강과 목염자의 북경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그만 아아, 하고 가볍게 소리쳤다.

구처기는 그의 심중을 깨닫고 탄식을 하며 말했다.

"이막수는 말을 퍼뜨리길, 만약 소용녀를 이기게 되면 소용녀를 부인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묘 안의 무림기보와 무공비급도 모두 상속받는다는 것이었다. 원래 사마의 무리들은 소용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턱이 없었지. 그러나 이막수가 사방에 퍼뜨리길 자기 사매의 용모는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지. 그녀의 말에 의하면 미모와 자태가 뛰어나 무림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대가댁 규수 중에서도 비교될 수 있는 자가 적다는 것이었어.

곽정이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것 참 이상하군 ! 황용이 그녀보다는 나을 텐데…….)

구처기가 계속 말했다.

"강호의 요사스러운 사람들 중에는 이막수에게 반해 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 그녀는 누구에게도 호의 베풀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녀에게 미모가 훨씬 뛰어난 사매가 있어 공공연히 비무초친한다고 하니 누구라도 한번쯤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곽정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다.

이제 보니 그들은 모두 구혼하러 온 것이군요. 어쩐지 중양궁 사람들이 절 보고 음흉스러운 놈이라고 욕을 하더라니……."

구처기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알아 본 결과 이들 요사스러운 무리들이 전진교에 대해 여간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어. 그들은 대거 사람을 모아 종남산으로 보내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간섭한다면 이 기회를 틈타 전진교를 쳐부셔 눈의 가시를 제거해 버릴 심산이었지. 나와 왕사제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 무리와의 일전을 불사하리라 결의를 했지. 즉각 통첩을 보내 본교의 각 대표들을 소집시켜 열흘 안에 중양궁에 모이도록 했다. 유사형(劉師兄)과 손사매(孫師妹)만은 산서성에 있어 돌아오지 못했지. 우리는 한편으로는 북두진법을 조련하면서, 한편으로는 편지를 묘로 보내 소용녀에게 방비하도록 알렸다. 그런데 소식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아무 답신이 없는 거였어. 소용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

"아마 그녀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

"아니다. 산꼭대기에서 보면 매일 취사하는 연기가 묘 한가운데에서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봐라, 저쪽이다."

곽정이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지만 숲이 10 여 리 정도 울창하여 활사인묘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열 여덟 살 소녀가 1 년 내내 묘실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아마 황용이 그렇게 산다면 그녀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구처기가 계속 말했다.

"우리 사형제들은 연일 적에 대비를 했지. 닷새 전에 각처에 보냈던 첨병들이 돌아와 그 무리들 중 가장 강한 자는 두 명의 대마두라는 것을 알았지. 그들은 산 밑에 있는 보광사에 모여 비석을 손으로 쳐부수는 것을 신호로 삼기로 했던 것이야. 네가 무의식중에 비석을 쳐 버렸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도사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 두마두의 명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인데, 그들은 막 중원에 도착하여 무림계를 진동시켰지. 네가 도화도에 묻혀 있어서 세상과는 단절되어 잘 모를 것이야. 이 귀공자는 바로 몽고의 왕자로, 듣자하니 징기스칸 혈통의 자손이라는 것이야. 모두들 그를 곽도왕자(곽都王子)라 부른다. 너는 대막에서 오래 살았으니 몽고 왕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이 사람의 내력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없느냐 ?"

곽정이 몇 번 곽도왕자라고 중얼거리며 그의 용모와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았지만 누구의 자손인지 잘 생각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용모가 준수하고 오만한 가운데 교활한 기운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느꼈었다.

징기스칸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출적은 뛰어난 무사였고, 차남 찰합태는 성질은 포악했지만 똑똑했으며, 세째 와활태는 지금의 몽고황제로 성격이 넓고 관대했으며, 네째 타뢰는 혈기가 왕성하여 이 곽도왕자와는 사뭇 용모가 달랐다.

구처기가 말했다.

"아마 그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의 무공은 서장의 일파로 금년 초에 중원에 들어와 하남삼웅(河南三雄)을 격파하였고, 후에 감주에서 혼자 난주칠패(蘭州七霸)를 사살하였으니, 그 명성이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하지. 우리는 그가 그 가문을 끌어들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구나. 다른 서장승의 이름은 달이파(達爾巴)인데, 힘이 장사이고 곽도의 무공과 완전히 같은 것이 아마 곽도의 사형이나 사숙일 것 같아 보인다. 그는 중이기 때문에 여자를 취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마 곽도를 도우러 온 것일 게다.

나머지 음흉스러운 무리들은 이 두 사람의 출현을 보고는 모두 소용녀에 대한 구혼의 생각을 버렸다. 그러나 이막수가 떠벌리기를, 고분 안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으며, 또한 적지 않은 무공비본, 즉 무슨 강료십팔장이니 일양지의 지법 등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간사한 무리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함께 산에 올라가 고분을 열어젖혀 얼마의 부스러기라도 얻었으면 하고 종남산에 오른 것이지. 그 무리가 가히 1 백여 명은 되었다.

본래 우리의 북두진법은 능히 이런 이류의 무리들을 산 밑에 잡아 둘 수 있었으며, 설사 생포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이 중양궁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이제 재난을 당해 버렸으니 중간에 생긴 오해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

곽정이 난처해 하며 무엇인가 사죄의 말을 하려고 하자, 구처기가 손을 휘저으며 막았다.

"<출문일소무구애 운재서호월재천(出門一笑無拘애 雲在西湖月在天)> 이라, 궁궐 전각 樗멎모두 몸 밖의 물건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거늘 그것들을 새삼 생각해 무엇하겠느냐 ? 너는 십여 년 간 내공수련을 하였음에도 설마 이런 점을 깨치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 ?"

곽정도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중양궁 후원이 불길에 휩싸여 재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길길이 날뛰었었지. 지금에서야 안정이 되는 것을 보니 마사형이 당시 심정이 덤덤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나의 수양 갖고는 아직 그를 만분의 일도 못 따른다는 것을 알겠네."

"이들 무리들이 이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문파를 욕되게 하였으니 화를 내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

"북두대진이 너와 겨루고 있는 사이 두 마두는 사람들을 이끌고 중양궁 앞에까지 쳐들어왔지. 그들은 오자마자 불을 질렀는데 학사제가 그 곽도왕자와 결투를 벌였다네. 그는 적을 가볍게 본데다가 곽도의

무공이 뛰어나고 기이했지. 학사제는 서둘러 공격을 하다가 그만 가슴에 일장을 맞은 거야. 우리들은 서둘러 진을 형성해 대항했지. 학사제 한 명이 빠져나가 보충한 제자의 무공의 격차가 심해 진의 위력에 손실이 좀 있었지. 네가 만약 조금만 늦게 왔다면 전진교는 오늘로서 패문을 당할 뻔 했지. 지금 생각해 보니 산 밑을 지키던 제자들이 적을 잘못 알지 않았으면 이런 하급의 무리들이 산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며, 달이파와 곽도 두 사람도 막아 냈을 것이다. 그들 두 명이 북두진과 겨루었다 해도 우리가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너처럼 깨끗하게 이기진 못해도 말이다……."

이때 갑자기 서쪽에서 후우웅, 하고 호각 부는 소리가 들렸다.

**** 벌 떼 ****

호각소리는 맑고 깨끗한 음향으로 멀리까지 번져 나갔다.

곽정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산을 넘고 달려 대막에 이른다. 몽고의 황사가 휘날리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평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시 귀를 기울이니 호각소리에 은근히 살기가 서려 있어 누군가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다.

구처기가 노기를 띠며 욕을 해 댔다.

"비겁한 놈의 새끼 !"

구처기는 서쪽수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곽정아 ! 저놈이 이제 보니 아까 너와 십 년의 약속을 한 것이, 네가 간섭하기 불편하게 한 뒤 제멋대로 하려는 짓이었구나. 천하에 이토록 제멋대로 행동하는 놈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 자, 가자 !"

"그렇다면 저 호각소리는 곽도 왕자가 ?"

"아암 ! 당연히 그놈이지. 소용녀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하고 말하면서 구처기는 속도를 냈다. 곽정도 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얼마쯤 달려가자 호각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호각소리 틈으로 병

기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섞여 들린다. 바로 달이파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구처기는 화를 내며 말했다.
"두 무학명가 놈들이 소녀 한 명을 협공하다니, 정말 염치없는 놈들이군."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산허리를 돌아 이끼가 끼어 있는 어느 석벽에 도달했다.
곽정이 보니 눈앞에 시커먼 수림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다. 수림 밖에는 키가 크고 작은 1백여 명이 서 있는데, 바로 아까 중양궁을 공격했던 그 무리들이었다.
두 사람은 석벽 뒤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폈다.
곽도 왕자와 달이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곽도는 호각을 불고 달이파는 왼손에 금빛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오른쪽 손목에 찬 금팔찌를 계속해서 방망이에 부딪치고 있었다. 짱짱짱, 하는 소리가 호각소리오 함께 어울려 소용녀를 끌어내려고 하는 짓이었다.
그들이 한바탕 법석을 떨었지만 숲속은 조용히 고요를 지키고 있었다.
곽도가 호각을 내려놓으며 낭랑하게 외쳤다.
"몽고의 곽도 왕자가 소용녀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소."
곽도의 말이 끝나자 수풀 속에서 마치 소용녀가 대답하는 것처럼 당악을 뜯는 소리가 세차게 덩덩덩, 울려나왔다.
곽도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듣건대 용소저께서 오늘 비무초친을 한다 하니 내 비록 재주는 없지만 특별히 가르침을 얻고자 왔으니 용소저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초를 시전하시기 바라오."
갑자기 당악소리가 격렬해지는 것이 화가 난 것 같았다. 무리들은 비록 음률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당악을 뜯는 사람의 심사가 고르지 못해, 소리로써 손님을 반기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곽도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왕가의 자제로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니 당세의 협녀인 소저께서는 너무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오."
 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당악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높아져 완연하게 질책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
 곽도가달이파를 한 번 힐끗 보자, 그 서장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곽도가 다시 말한다.
 "소저가 몸을 드러내지 않겠다면 이 몸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호각을 들고는 오른손을 휘두르며 큰 걸음으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무리들은 우르르, 앞으로 나서며 공격했다.
 <명성이 자자한 전진교도 우리를 감히 막지 못했는데, 일개 어린 여자에 불과한 소용녀 혼자의 몸으로 제가 어찌 우리를 막을손가 !>
 그들은 다른 사람이 먼저 묘에 들어가 갖가지 보물을 차지할까봐 앞을 다투어 수림 속으로 들어갔다.
 구처기가 마침내 크게 고함을 질렀다.
 "여기는 전진교 조사이신 중양진인(重陽眞人)이 거주했던 곳이다. 어서 냉큼 물러나라 !"
 사람들은 그의 고함소리를 듣고 조금은 떨렸으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구처기는 화가 났다.
 "곽정아 ! 저들을 혼내 줘라 !"
 두 사람이 석벽에서 뛰어나와 숲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소리와 함께 숲에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구처기와 곽정은 멍하니 서서 수십 명이 일시에 죽어 자빠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어서 곽도와 달이파도 황급히 뛰쳐나오는 꼴이 조금 전에 중양궁에서 곽정에 의해 물러날 때보다도 훨씬 낭패를 당한 것 같았다.

곽정과 구처기도 이상하게 여겼다.
(소용녀가 도대체 어떤 묘수를 써서 이들 무리들을 쫓아냈을까 ?)
이러한 생각은 순간적으로 마음속에만 잠시 있었을 뿐, 갑자기 위잉, 하는 소리가 멀리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달빛 아래 새하얗고 희끄무레한 어쩐 살아 있는 것들이 숲속에서 날아와 무리들의 머리를 향해 돌진했다.
곽정이 물었다.
"저게 뭐지요 ?"
구처기는 고개를 저을 뿐 대답이 없다. 발걸음이 느린 무리들은 그것들에게 머리를 닿는 순간 땅에 넘어져 죽을 듯이 비명을 내질러 댔다.
곽정이 놀라 소리쳤다.
"벌떼입니다, 저것은 ! 그런데 어째서 흰색일까 ?"
말하는 순간에도 벌떼들은 또 5,6 명의 무리들을 쓰러뜨렸다. 수림 앞에 순식간에 10 여 명이 이리 데굴 저리 데굴 구르며 비명을 질러 대는 모습이 참혹했다.
곽정이 생각했다.
(벌에게 쏘이면 아프긴 하지만 이토록 죽을 듯이 고함을 지르지는 않을 텐데 이상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이 벌떼에 이상한 독성이 있단 말인가 ?)
희끄무레한 덩어리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그 벌떼들이 연기처럼 그와 구처기 앞으로 달려들었다.
벌떼의 세력이 너무 거세어 곽정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구처기는 단전에 힘을 주어 벌떼를 향해 힘껏 불기 시작했다. 벌떼는 갑작스러운 강풍에 그만 세력이 꺾였다.
구처기가 다시 두번째 입김을 내뿜었다. 곽정도 구처기를 따라서 즉시 입김을 내뿜자 구처기가 불었던 것과 합쳐졌다. 두 사람이 사용한 것은 모두 현문정종(玄門正宗)의 상승 무공으로서, 수백 마리의 벌떼

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두 사람의 곁을 스쳐지나가 오히려 곽도와 달이파 무리들을 향해 날아갔다.
 이즈음, 땅 위에서 떼굴떼굴 뒹굴던 10 여 명의 고함소리는 더욱 처절해져 <엄마, 여보 !>를 부르는 것이 거의 생지옥이었다.
 어떤 사람은 마침내 빌기 시작했다.
 "소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소용녀 도사님, 제발 살려 주세요 !"
 곽정은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 사람들은 모두 강호를 떠도는 무인으로서 설사 그들의 팔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용서해 달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어째서 조그만 벌떼들에게 쏘인 것이 저토록 지독하단 말인가 !)
 숲속에서 돌연 당악소리가 울려퍼지더니 이어서 나뭇가지 끝에서부터 향기로운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구처기와 곽정은 매우 달콤한 꽃향기를 맡았다.
 얼마 지나지 않자 부웅,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벌떼들이 일제히 숲으로 되돌아갔다. 그것은 소용녀가 향을 피워 벌떼들을 불러들인 것이었다.
 구처기는 소용녀와 18 년간을 이웃에서 함께 살았지만 그녀에게 이처럼 신묘한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탄복을 하며 한편으로는 흥미도 있어 큰소리로 말했다.
 "일찌기 우리가 이웃에 이렇듯 고절한 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전진교 사람들이 그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을......"
 그는 이말을 곽정에게 한 말이었지만 내공을 실어 보냈기에 사실은 소용녀가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과연 숲속에서 당악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화해, 높은 뜻에 감사하는 뜻을 나타냈다.
 구처기는 껄껄 웃으며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저께서는 너무 답례할 필요가 없소이다. 빈도 구처기는 제자 곽정과 함께 소저의 생일을 축하하오."

당악소리가 두 번, 마치 화답이라도 하는 듯 울리더니 조용해졌다.

곽정의 귀에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들이 계속 맴돌았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 주지요 ?"

"용소저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우린 이제 그만 가자 !"

두 사람은 동쪽으로 몸을 돌렸다. 오는 길에서 곽정은 구처기에게 다시 양과를 입문시켜 달라고 청했다.

구처기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너의 양철심 숙부는 호걸지사였는데 어찌 후손이 없을 수 있겠느냐 ! 양강이 그처럼 끝나게 된 것은 내 잘못도 적지 않느니라...... 내가 전력을 다해 그 아이를 키워 내겠다."

곽정은 크게 기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산길에 엎드려 배례를 올렸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중양궁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날이 밝았다.

제자들은 어지러운 후원을 정리하며 기왓장 등을 나르고 있었다.

구처기는 제자들을 소집시켜 곽정을 소개하고는 북두대진을 지휘했던 장발을 도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은 왕사제의 제자로 이름은 조지경이라 한다. 제 삼대 제자 중 무공이 가장 뛰어나 그에게 양과를 맡겨 지도하게 하려고 한다."

곽정은 그와 악수를 하고 나서 그의 무공이 확실히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양과에게 명하기를, 조지경을 스승의 예로 잘 모시라고 하고는, 자신도 조지경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는 종남산에 며칠을 더 머무르며 양과에게 차근차근 훈계와 당부를 한 뒤 여러 사람과 헤어져 도화도로 돌아갔다.

구처기는 양강에게 무공을 전수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그를 왕부에 맡겨 길렀기 때문에 끝내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가 !

(자고로, 엄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나오고 회초리 끝에서 효자

가 나온다고 했다. 이번에는 양과를 엄히 다스려 그 아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겠다.)

곧바로 양과를 불러들여 엄숙하게 한바탕 훈계를 했다. 금후, 각고 인내할 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사부의 교훈을 듣고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었다.

양과가 종남산에 남게 된 것은 본래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다가 영문도 모른 채 한 차례 훈계를 들었다. 분한 마음에 말도 못한 채 눈물을 참으며 대답을 했다. 그러다가 구처기가 밖으로 나가 버리자 대성 통곡을 터뜨렸다. 그 순간, 등뒤에서 누군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울긴 왜 울어 ? 조사님이 네게 뭘 잘못 얘기했느냐 ?"

양과가 깜짝 놀라 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등뒤에 사부인 조지경이 서 있었다. 황급히 손을 떨구고 양과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럼 왜 울었느냐 ?"

"제자 곽 백부를 생각하다가 그만 참지 못하였습니다."

조지경은 구처기가 엄하게 훈계하는 것을 똑똑히 듣고 있었으므로 양과가 임기응변으로 오히려 곽정을 생각하다가 울었다고 핑계를 대자 심히 불쾌해졌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이 아이는 벌써 이처럼 교활하니 엄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장성한 후에는 고치기 힘들겠구나.)

"너 이놈 ! 감히 사부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

양과는 전진교 제자들 모두 곽정에게 낙화유수처럼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구처기 등이 곽도의 무리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꼼짝못할 때 곽정이 구해 준 것을 보았기에 마음속으로 이들 도사들의 무공이 보통 정도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구처기에 대해서도 조금도 감복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조지경에 대해서랴 !

곽정도 전진교의 무학과 무공에 대해서 특히 왕중양의 무공은 천하 제일이어서 당시 각파의 고수들 중 능히 대적할 만한 자가 없었다는 것을 그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떠났다. 그가 도사들을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그들이 아직 절정으로 연마하지 못해서이지 전진교의 무공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양과는 곽정 부부가 자기를 제자로 삼길 원하지 않았다고 여겼는데 게다가 도사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는 상황을 보게 되자, 곽정이 재삼 얘기를 해도 절대로 믿으려 들지 않았었다.

이때 사부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양과는 생각했다.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실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야. 당신과 함께 무공을 연마해 봤자 무슨 쓸모가 있겠어 ? 당신은 커다란 밥통이 아니고 뭐겠어 ? 그렇게 인상을 써서 뭘 어쩌자는 거야 !)

바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안 했다.

조지경은 화가 몹시 나 목청을 더욱 높였다.

"내가 묻는 말에 감히 대답을 하지 않으려는 거냐 ?"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알려주면 대답을 하지요."

양과의 당돌한 말을 들은 조지경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휘두르자 짝, 소리와 함께 양과의 볼이 벌겋게 되었다. 양과는 울면서 뛰쳐나갔다. 조지경이 쫓아가 움켜잡고는 물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

"이 손 놔요. 당신에게 무공을 배우지 않을래요 !"

조지경은 더욱 화가 났다.

"발칙한 놈의 자식 ! 뭐라고 ?"

양과도 이때에는 이미 삐딱해져서 감히 욕을 해 댔다.

"구린내 도사, 개 같은 도사 ! 나를 때려잡으려 하는구나."

무림계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자지간과 같은 것으로, 그 즈음은 스승과 제자의 분수를 가장 중히 여기는 때였다. 설령 스승이 제

자를 죽인다고 해도 제자 되는 자는 감히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양과가 감히 스승에게 욕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대역무도(大逆無道)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지경은 화가 하도 치밀어 얼굴이 그만누렇게 변했다. 손바닥을 들어 또 얼굴을 후려쳤다. 양과는 돌연 뛰어올라 그의 팔꿈치를 잡고는 입을 벌려 그의 오른손 식지를 꽉 깨물었다.

양과는 구양봉이 알려준 내공 비결을 스스로 터득해 조금씩조금씩 익혀, 이미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었다. 조지경이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조금도 방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물려버리자 그만 빼내지도 못했다. 십지연심(十指連心)이라, 손가락의 통증은 가장 참기 힘든 것이다. 조지경은 왼손으로 그의 어깻죽지를 내려쳤다.

"이놈 ! 죽고 싶으냐 ? 빨리 놓아라 !"

양과도 이때는 이미 악에 받쳐 설사 창칼이 들어온다 해도 절대로 놓지 않을 태세였다. 그런데 어깻죽지가 아파 오자 이빨에 더욱 힘을 주었다. 뚝, 소리와 함께 뼈까지 물어 버렸다.

조지경은 아얏, 하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그의 천령개를 힘껏 내리쳤다. 순간 양과가 기절해 버리자 그제서야 입천장을 들어올려 오른손 식지를 뽑아냈다. 손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고, 지골은 이미 부러져 비록 접골이 된다고 해도 이후론 손가락의 힘이 예전보다 못하게 되어 무공에 손실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화가 난 김에 양과의 몸을 몇 차례 더 차 버렸다.

그는 양과의 소매를 잘라 손가락의 상처를 싸맨 뒤 사방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만약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 강호로 퍼져 간다면, 전진교의 조지경이 어린아이에게 손가락을 물려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수군대게 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었다. 곧바로 냉수 한 대야를 떠다가 양과에게 퍼부었다.

양과가 깨어나자 정신없이 달려들어 또 한 차례 두들겨 팼다. 조지

경은 그의 가슴을 움켜쥐고는 소리쳤다.

"이놈 !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냐 ?"

양과도 따라서 욕을 해 댄다.

"도둑놈 ! 구린내 도사 !"

조지경은 오른손을 들어 또 한 번 그를 후려친다. 이때에는 그도 방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과가 되받아치려고 했으나 어림없었다.

순식간에 양과는 걷어차여 나뒹굴었다. 조지경이 만약 그를 해치우려고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으나, 어쨌든 그는 자기의 제자인데만약 심하게 다루었다가 사부와 사백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 그러나 양과는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해 고통이 심했을 텐데도 조금도 위축되는 기색이 없었다.

조지경은 양과를 두들겨 팬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일었다. 비록 전신에 상처를 입었지만 더욱 악을 쓰는 양과를 어쩌지 못한 조지경은 왼손을 뻗어 겨드랑이에 있는 혈도를 눌러 버렸다. 양과는 바닥에 자빠져 꼼짝달싹못하게 되었다.

"이놈 ! 항복할래, 안 할래 ?"

양과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조금도 굴복하는 기색이 없다.

조지경은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푸우,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만약 무림의 고수와 한 차례 겨루었다고 해도 이처럼 숨가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손발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다.

스승과 제자가 노한 눈길로 서로 쏘아보고 있었다. 조지경이 이 악질 장난꾸러기를 처리할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진교의 제자들을 소집하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조지경은 양과에게 말했다.

"다시 거역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풀어주마."

조지경은 손을 뻗어 양과의 혈도를풀어 주었다.

양과는 몸을 일으켜 다시 달려들었다. 조지경은 뒤로 두 발자국 물

러나며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너를 때리지 않는데 왜 까부는 거냐 ?"

"이후에 또 때릴 거예요, 안 때릴 거예요 ?"

조지경은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종소리가 매우 급한 것을 알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네가 얌전하게 군다면 내가 왜 너를 때리겠느냐 ?"

"좋아요. 사부 ! 나를 때리지 않으면 사부라 부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또 때리면 그때는 어림도 없어요 !"

조지경은 고소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저 종소리는 제자들을 부르는 소리다. 빨리 가 보자."

그는 양과의 옷이 엉망이 된 것과 얼굴이 부어오른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까 봐 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서 궁 앞으로 내달았다.

조지경과 양과가 도달했을 때에는 모두들 이미 늘어서 있었다.

마옥,구처기,왕처일 세 사람은 밖을 향해 앉아 있었다. 마옥이 세 번 손뼉을 치고 나서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생진인(長生眞人)과 청정산인(淸淨散人)이 산서에서 전해 온 소식에 의하면 그곳 사정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한다. 그래서 본좌와 두 사제가 결정하길 장춘진인(長春眞人)과 옥양진인(玉陽眞人)이 열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도와 주기로 했다."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며 괴이하게 생각하기도 하며, 또 분격하는 이도 있었다. 구처기는 곧바로 10 명의 제자의 이름을 불렀다.

"너희들은 바로 짐을 정리해 내일 아침 나와 옥양진인과 함께 먼저 산서로 간다. 나머지는 모두 해산해라."

그 말과 함께 모두들 해산했지만 의견들이 분분했다.

"그 이막수는 여자에 불과한데 그토록 대단한가 ? 장생자 유사숙도 그녀를 이기지 못했다며 ?"

"청정산인 손사숙도 여자가 아니겠어 ! 여자 중에도 고수는 얼마든

지 있는 거야. 그러니 가볍게 봐서는 큰일나지."

"구사백과 왕사숙이 가시면 이막수도 어쩔 수 없이 잡히게 될 걸."

구처기가 그때 조지경 앞으로 와서 말했다.

"본래 너를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러나 양과의 수련이 걱정되니 이번에는 그렇게 알아라."

순간 양과의 얼굴이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았다.

"아니, 얼굴이 이게 뭐야 ? 무슨 일이냐 ? 누구와 다투었느냐 ?"

조지경은 다급해졌다. 구사백이 사정을 알게 된다면 필경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틀림없었다. 얼른 양과를 쳐다보았다. 양과는 조지경의 우물쭈물하는 표정을 보자 모른 척하고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처기가 꾸짖듯이 소리쳤다.

"누구와 다투어 이 꼴이 됐느냐 ?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 빨리 대답하라."

조지경은 구사백의 말투가 엄격해지자 더욱 두려워졌다.

"싸운 것이 아니고 제자가 그만 미끄러져 구멍에 빠졌어요."

"거짓말 말아라. 넘어져서 구멍에 빠졌다고 ? 네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다."

"방금 사조님께서 제자에게 얌전히 수련을 익히라고 훈계를......."

"그랬었지. 그래, 그게 어째서 ?"

"사조님이 가시고 난 뒤, 제자는 사조님의 교훈이 맞다고 생각하고 선 앞으로는 열심히 정진하여 사조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요."

구처기는 양과의 꾸민 말을 듣고 얼굴빛이 이내 수그러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개가 한 마리 뛰어들어와 무작정 달려들어 물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 그 개를 걷어차 쫓으려 했지만 점점 사나와져 그만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실수를 해서 구멍에 빠졌어요. 다행히 사부님이 달려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구처기는 반신반의하면서 조지경을 쳐다보았다. 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묻는 표정이었다. 조지경은 화가 났다.

(요 조그만 새끼가 감히 나보고 미친 개라고 욕을 했겠다 !)

그러나 사태가 사태인지라 부득불 거짓말을 도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가 그를 구했습니다."

구처기는 그제서야 믿었다.

"내가 가고 난 후, 너는 그에게 본문의 현공을 잘 가르쳐라. 매 십일마다 장교사백(掌教師伯)에게 보여 지도를 받도록 하여라."

조지경은 그다지 원치 않았으나 사백의 말에 감히 거역할 수 없어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양과는 이때 사부를 미친 개로 놀린 것을 생각하고 통쾌해 할 뿐 구사조의 말은 안중에도 없었다.

구처기가 10여 보를 갔을 때, 조지경은 치밀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양과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려 했다.

양과가 소리쳤다.

"사조님 !"

"뭐냐 ?"

구처기가 갑자기 고개를 돌린다. 조지경은 손을 하늘로 뻗어 올린 뒤 감히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세가 매우 불리한 조지경은 억지로 팔을 돌려 귀밑의 목덜미를 긁는 척한다.

양과는 구처기에게 쪼르르 달려가며 말했다.

"사조님이 가시고 난 후, 아무도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아 많은 사백과 사숙들이 모두 나를 때리려 할 거예요."

"무슨 소리를 ? 그럴 리가 없다 !"

그는 겉으로는 엄격했지만 내심으로는 상당히 자상하여 이 고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경아 ! 이 아이를 잘 돌봐 주어라. 만약 잘못이 있게 되면 내 돌아와 너를 문책할 것이다."

조지경은 허리를 굽혀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을 먹은 후, 양과는 느긋하게 사부가 머무르는 정실에 와서는 소리쳤다.

"사부 !"

이 시각은 무공을 닦는 시각으로서 조지경은 무릎을 꿇고 방석위에 앉아 있은 지가 벌써 한나절이나 되었다.

(이 아이는 장난이 너무 심하다. 지금도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장차 무공이 강해지면 누가 그를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런데 구사백과 사부님께서는 저애에게 무공을 전수하라 명하셨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노릇이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럴 듯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때 그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웃는 것도 웃지 않으려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화를 내려는 순간 갑자기 묘책이 떠올랐다.

(그래, 이애는 본문의 무공에 대해선 전혀 모르니 나는 단지 그에게 현공 구결만 전해 줄 뿐 수련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럼 수백의 구결을 외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 사부나 사백들이 물어 오면 그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둘러 대면 될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먹은 뒤 양과를 불렀다.

"양과야, 이리 오너라."

"때리지 않을 거죠 ?"

"무공을 전하는데 때리긴 왜 때리느냐 ?"

양과는 갑자기 부드러워진 사부의 태도를 보고는 의외라는 듯,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 채 천천히 다가왔다. 조지경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슬쩍 보고도 못 본 체했다.

"전진교의 무공은 본래 안에서부터 수련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다른 일파의 무공처럼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과는 다르다. 이제 내가 전하는 본문의 심법을 잘 기억해 두어라."

전진파의 입문 내공 구결을 한 차례 말해 주었다.

양과는 한 번 듣고는 이미 마음에 새겨 두었다.
(이 장발의 도사는 나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정말로 내게 무공을 전수해 주는 것일까. 그는 아마도 내게 아무 쓸모도 없는 가짜 구결을 알려주는 것일 거야.)
얼마가 지난 후, 짐짓 잊어버린 양 다시 조지경에게 물어 보았다. 조지경은 마찬가지의 대답을 해 주었다.
다음날, 양과가 또 물어보았지만 어제와 같은 대답이다. 그제서야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 만약 그가 엉터리로 꾸몄다면 세 번이나 얘기하면서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열흘이 지났지만 조지경은 단지 구결만을 전수해 줄 뿐 어떻게 수련해야 되는지 실제 법문은 한 자도 말하지 않았다.
열흘째가 되자 조지경은 그를 데리고 마옥에게 갔다. 이미 본문의 심법을 전수했으니 장교사조께서 들으시게끔 외 보라고 명령했다.
양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마옥은 매우 기뻐하며 양과의 총명을 칭찬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낙엽이 떨어지자 곧 겨울이 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 개월이 흘렀다.
양과는 가슴 깊이 구결들을 지만 실제 무공은 전혀 전수받지 못했다. 만약 무예의 무공 빬坪막涇말한다면 그가 처음 산에 왔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양과는 자신이 구결을 외기 시작했을 때, 며칠 지나지 않아 사부가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거역할 수도 없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 장교사조는 자애로워 만약 그에게 고해 바친다면 그는 다만 조지경에게 몇 마디 질책을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지경은 다른 악랄한 방법으로 자신을 못살게 굴 것이 뻔했다. 양과는 구사조가 돌아오길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났건만 구처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전진교의 무공에 대해서는 양과가 이미 우습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배우나 안 배우나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조지경이 이처럼 자신을 속이자 마음속에 자꾸만 슬픈 생각만 더해 갔다. 그러나 당장 어찌할 수가 없어 오히려 공손한 빛을 띨 수밖에 없었다.

조지경은 아주 흡족해 했다.

(사부에게 거역하면 결국 누가 골탕을 먹는지 이젠 알았겠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음력 12 월이 되었다.

전진파에는 왕중양으로부터 내려오는 행사가 있었는데, 매년 섣달 그믐, 사나흘 전에 문중의 제자들이 무공을 겨루어 1 년 동안의 각자의 진보를 심사해 보는 것이 그것이었다.

모든 제자들은 시합일이 점점 다가오자 밤낮으로 수련에 수련을 거듭했다.

섣달 보름날, 전진칠자의 제자들은 서로 끼리끼리 무예를 겨루는데, 이를 일컬어 소교(小較)라 한다.

제자들은 각기 7 개 조로 나뉘어 마옥의 제자와 도손이 한 조, 구처기 왕처일의 제자와 도손이 각각 한 조를 이룬다.

담처단(譚處端)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의 제자와 도손들은 강성했다. 마옥 구처기 등이 그의 요절을 애석하게 여겨 그의 제자들에 대해 더 지도를 해 주어 매년 대교(大較)에서 담씨 문파의 무인들도 다른 육자의 제자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이 해에는 중양궁이 재난을 당해 자칫 전진교가 전복될 뻔한 화가 있었으며, 모두들 비록 전진교가 호칭이 천하무학정종(天下武學正宗)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무림의 각 문파에서도 각기 고수들을 배출하고 있어, 이 명호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모두들 고된 수련을 마다않고 노력해 지난해보다 더욱 사기가 높았다.

전진교는 왕중양이 창건해 조사가 된 이래, 마옥 등 칠자는 그가 친히 기른 제자들로 제 2 대이다. 조지경 윤지평 정요가 등 칠자의 제자들이 제 3 대에 속한다. 그러니까 양과 등의 항렬은 제 4 대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옥양자 문하의 조지경, 최지방(崔志方) 등은 제자들을 동남쪽 광장에 모아 놓고 무공 시합을 벌였다. 왕처일이 산에 없었으므로 대제자인 조지경이 소교를 주관했다.

제 4 대 제자들은 주먹이나 다리를 사용하든가 창칼을 이용하든가, 혹은 암기를 발사하고, 혹은 내공을 보이든가 하여 조지경등으로부터 한 차례 강평을 들은 후 갑을이 정해졌다.

양과는 입문이 가장 늦었으므로 말석에 위치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소도사(小道)나 속가제자들의 무예가 상당해 각기 특기가 있어 보였다. 부러워하는 마음은 없었으나 회한이 일어났다. 조지경은 그의 얼굴빛이 불만스러워지는 것을 보자 그를 골탕먹이기 위해 두 노도사의 무기 다루는 시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불렀다.

"양과, 앞으로 나와라 !"

양과는 순간 멍하니 생각했다.

(내게는 무술을 조금도 전수해 주지 않고 왜 부르는 것일까 ?)

조지경이 다시 소리쳤다.

"양과 ! 소리가 안 들리느냐 ? 빨리 나오거라 !"

양과는 앞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었다. 절을 하고선 말했다.

"제자 양과, 사부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진파 무인들은 대부분이 도인들이었는데, 양과와 같은 속가 제자가 다소 있어 속가의 예를 행하는 것이었다.

조지경은 방금 비무(比武)에서 이긴 소도사를 가리켰다.

"너는 그와 나이가 비슷하니 그와 어디 한 번 시합을 해 봐라."

양과가 말했다.

"제자는 조금도 무예를 할 줄 모르는데 어찌 사형과 시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조지경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 너에게 반여 년 간이나 무공을 전수했거늘, 네 어찌 조금도 무예를 할 줄 모른다고 말하느냐 ? 그렇다면 반 년 동안에 너는 무엇을 했단 말이냐 ?"

양과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했다.

"너는 게을러 놀기만 좋아하고노력을 하지 않으니 자연 손발이 굳게 되는 것이다."

말을 마친 조지경이 구결 한 귀절을 외더니 양과에게 묻는다.

"다음 귀절이 무엇이냐 ?"

양과는 바로 대답했다. 조지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너는 방금 왼 법문을 이용해 사형과 시합을 해 보아라."

양과는 두려운 듯이 말했다.

조지경은 득의만만해졌으나 얼굴에는 짐짓 노기를 띠고 말했다.

"너는 무공 구결을 배우고도 연공을 게을리하더니 이제 와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느냐 ? 어서 앞으로 나서라."

이 구결은 내공을 수련하는 데 있어 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을 긴장시켜 잡념을 없애 주며 정기를 연성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 귀절은 모두 몇 초의 권각과 서로 배합되어 합쳐져야 명확한 전진파 입문의 권법이 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양과가 구결을 외는 것을 친히 들었으므로 조금도 의혹을 품지 않았다. 다만 그가 시합에 임해 비겁하게 피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전진교 제자들은 대부분 천성이 선량한 사람들인데 지난번 곽정이 종남산에 오를 때의 일대 접전에서 많은 도사들을 쳐 무찔러 버려 득죄한 자들이 적지않았다. 그래서 약간의 사람들은 그 화풀이를 양과에게 돌려 이번 시합에서 그가 지기를 은연중에 바라기도 했다. 비록 악의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의 불결한 찌꺼기를 털어내 버리려는 것은 인지상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양과는, 사람들이 재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냉소적인 어조로 자극을 하니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했다.

(좋다 ! 내 오늘 죽어라 하고 싸우면 될 것 아니냐 ?)

곧바로 연무장에 뛰어들어 두 팔을 아래위로 흔들며 앞에 있는 소도사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갔다.

그 소도사는 그가 연무장에 들어서서 예를 행하지도 않고, 문규(門規)에 따라 가르침을 청하지도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난타하려 하자 기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양과는 일찌기 생사를 건 터라 주저할 것 없이 맹렬하게 쳐들어갔다. 그 소도사는 몇 걸음 물러서더니 그의 하반신에서 빈틈을 발견하고선, 발을 내밀어 풍소낙엽(風掃落葉) 일초를 그의 다리에 가했다. 양과는 피하는 법을 몰라 서 있지 못하고 땅에 고꾸라져 코피를 흘렸다.

사람들은 그가 넘어져 낭패를 당한 꼴을 보고 웃기 시작했다.

양과는 몸을 뒤집어 기어 일어나 코피는 닦을 생각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소도사에게 계속 달려들었다. 소도사는 그가 맹렬히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슬쩍 몸을 틀어 피했다.

양과의 출초는 법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상대방의 왼쪽 다리를 꼭 껴안았다. 소도사는 오른쪽 손을 비스듬히 날려 그의 어깻죽지를 강타했다. 그것은 개마진구(개磨塵垢)로서 원래 자기의 하반신이 피습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도화도에 있을 때에도 무예를 배우지 않았으며 또 중양궁에서도 실제적인 무공을 전수받지 못하여서 상대방의 초식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깻죽지가 시큰시큰 아파 오는 것이 이미 강하게 일장을 맞은 것이다.

그는 당하면당할수록 난폭해져 머리로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받아 버려 소도사는 견디지 못하고 땅에 깔려 버렸다. 양과는 주먹을 들

어 그의 머리를 쳤다. 그러나 소도사는 침착하게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가 어이쿠,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 손바닥을 뒤집어 척 밀치니 양과가 쓰러진다. 바로 무흠무여(無欠無餘)의 일초였다.

그는 예절을 갖추어 말했다.

"양사제, 패배를 인정하지 그래 !"

동문간의 무예겨룸에 있어 승패가 분명해지면 손을 거두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양과는 다시 미친 호랑이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다. 2,3 초 사이에 양과는 또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싸울수록 더욱 용감해졌고, 권각도 갈수록 빨라졌다.

조지경이 소리쳤다.

"양과, 너는 이미 졌다. 뭘 더 원하는 것이냐 ?"

그러나 양과는 들은 척도 않고 버티고 서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전진문중에 저런 엉터리 무공도 있었더란 말이냐 !"

그러나 그가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고 화를 부를까 두려워 분분히 소리쳤다.

"자 이제 됐다, 됐어 ! 사형제간의 무예 수련인데 그렇게진짜처럼 신중히 할 것까지 없다."

다시 한 차례 싸우자 그 소도사는 겁이 나기 시작해 단지 몸을 피할 뿐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목숨을 걸면 만 명의 장부도 당해 낼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양과가 종남산에서 반년간 쌓인 수모가 이때 걷잡을 수 없이 발산되어 버린 것이다. 소도사의 무공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였지만 양과의 투기에 그만 주눅이 든 것이다. 오직 연무장을 빙빙 돌며 도망만 칠 따름이었다. 양과가 뒤를 쫓으며 욕을 해댔다.

"구린내 나는 도사놈아 ! 나를 때려 놓곤 어디로 도망을 치는 거냐 ?"

이때 방관하고 있던 10명 중 8,9명이 도사였는데, 그가 이렇게 구린내 나는 도사놈이라고 마구 욕을 해 대자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 우습기도 해서 모두들 말했다.

"저 아이는 잘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소도사는 황급한 나머지 소리쳤다.

"사부님, 사부님 !"

조지경을 쳐다보며 시합을 중지해 주길 청했다.

조지경이 소리를 질렀지만 양과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바로 그때 사람들 중에서 노한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뚱뚱한 도사 한 명이 뛰어들어 단숨에 양과의 뒷덜미를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파바박, 하고 세 차례 따귀를 올려붙였다. 순간 양과의 뺨이 부어 올랐다. 양과는 하마터면 기절해 버릴 뻔했으나 정신을 차려 보니 자기에게 앙심이 있는 녹청독이었다.

양과가 처음 산에 왔을 때 녹청독은 그에게 속아넘어가서 불에 타 죽을 뻔했었다. 이후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는 어린 아이 만도 못하다는 놀림을 받아 왔다. 녹청독은 교활하게 웃더니 다시 한 번 세차게 양과의 뺨을 후려갈겼다.

"너처럼 사부의 말을 안 듣는 자는 본문의 반도로서 누구라도 때릴 수 있는 것이다."

말을 마친 그는 손을 들어올려 또 때리려고 했다.

조지경의 사제인 최지방은 양과가 전혀 분문의 무공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조지경이 평소 마음이 좁은 인물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녹청독의 행동이 점차 거칠어지는 것을 보자 사람을 다칠 것 같아 소리쳤다.

"청독, 이제 그만 손을 멈춰라 !"

녹청독은 사숙의 말을 듣고 비록 분은 덜 풀렸지만 양과를 내려놓는 수 밖에 없었다.

"사숙님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말입니

다. 오직 엄하게 가르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지방은 그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급히 양과의 앞으로 달려가 보니 양과의 양쪽 뺨이 크게 부어 올라 있다. 얼굴은 온통 푸르딩딩했고 코 밑 언저리에는 선혈이 가득한 것이 매우 불쌍하게 보였다.

"양과야, 사부가 무공을 가르쳤을 텐데 어째 열심히 연습하지 않고 오히려 네 사형들과 요란하게 싸우느냐 ?"

양과는 그의 목소리가 매우 부드럽자 한스럽게 말했다.

"무슨 사부님요 ? 그는 내게 조금도 무공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구결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는것을 똑바로 들었다.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냐 ?"

양과는 도화도에서 황용이 자기에게 사서오경을 외게 한 일이 생각나자, 조지경이 가르쳐 준 것도 무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서라고 여겼었다.

"나는 과거에 장원급제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 이런 것들만 잔뜩 외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

최지방은 짐짓 화가 난 척하며 그가 정말 본문의 무공을 조금도 할 줄 모르는가를 시험해 보려 했다.

"그렇다고 선배에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

손을 뻗어 그의 어깻죽지를 밀어 버렸다.

최지방은 전진 문하의 제 3 대 제자 중의 하나로서 무공은 비록 조지경,윤지평 등에 못 미치지만 내외공을 모두 단련해서 공력이 꽤 깊었다.

그가 꼭 알맞게 밀어 버려 손에 와 닿는 순간 양과의 어깨가 가볍게 움직이더니 내력이 자생하여 그가 미는 힘을 얼마간 버티더니 비틀비틀 물러났지만 끝내 쓰러지지는 않았다.

최지방은 깜짝 놀라며 마음속에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본문에 입문한 지 반년에 불과한데 어디서 이런 공력을 얻었을까 ? 그에게 이 정도의 내력이 있었다면

방금 시합에서 그토록 엉터리로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설마 어떤 사술이 있는 것은 아닐까 !)
양과는 구양봉이 전해 준 내공을 연습해 자기도 모르게 내공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백타산(白駝山) 일파의 내공은 처음에는 매우 쉽고 진보가 빨라, 전진교의 내공처럼 기초를 다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 10 년을 연공하는 동안에는 백타산 제자의 공력이 매우 높아진다. 전진파 제자들은 10 년이 지나고 나야 수준에 이른다. 양과의 내공은 상당히 다른 것인데, 최지방은 한 번 밀어 보고는 그 차이를 분별하기 힘들었다.
그가 양과를 떠밀어 버리자 양과는 숨을 쉬지 못하고 헉헉거렸다. 부드럽게 말하던 그까지도 나를 때리는구나, 하고 생각되자 아무것도 무섭지 않게 되어 버렸다. 설사 구처기가 온다 해도 최지방인지 최지원인지 이자까지 야단을 칠 것인가.
곧바로 고개를 숙여 그의 배를 향해 달려들었다. 최지방이 어찌 어린아이와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싱긋 미소를 짓더니 번개같이 양과를 피하고 나서 그의 진짜 무공을 보고 싶어 청독에게 말했다.
"네가 양사제를 상대하거라. 분수를 지켜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녹청독이 바라던 말이었다. 곧 몸을 날려 양과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을 휘둘렀다. 양과가 오른쪽으로 피하자 녹청독은 오른손을 격출했다. 이 일장은 호문수(虎門手)로 근력이 대단했다. 퍽, 하고 양과의 가슴에 호문수가 적중되었다. 만약 양과가 백타산 내공을 익히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래도 가슴에 고통이 심해 양과의 얼굴은 백짓장처럼 되었다.
녹청독은 일장을 맞고도 그가 쓰러지지 않자 이상하다고 여기며 또 다시 오른손을 뻗었다. 그는 권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어조차 할 줄 몰랐다.
녹청독이 오른손을 비스듬히 끌어당기며 왼손을 다시 뻗는다. 퍽,

하고 그의 배에 또 적중되었다. 양과는 고통에 겨워 결국 허리를 구부렸다. 녹청독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오른손으로 강하게 목 뒤를 내리쳤다. 그는 급소를 노렸다. 그리하여 옛날의 굴욕을 갚으려 했다.

그러나 양과는 몇 번 비틀거리더니 악착같이 버티며 쓰러지지 않았다. 머리가 어찔어찔하며 이미 반격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최지방은 양과가 무공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실히 깨달았다.

"청독 ! 멈춰라 !"

녹청독은 양과에게 추궁했다.

"이 꼬마야 ! 항복하겠느냐 ?"

"돼지 같은 놈 ! 언젠가는 너를 죽여 버릴 테다 !"

녹청독은 양과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양 주먹을 잇달아 양과의 콧등에 퍼부었다.

양과는 얻어맞아 하늘이 노래지며 곧 넘어질 듯이 비틀거렸다. 그러나 갑자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한 덩어리의 열기가 단전에서 솟구쳐 올라왔다. 그때 녹청독의 세번째 주먹이 날아왔다. 급한 김에 두 다리를 구부리고 이얏,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손바닥을 격출시켰다.

순간, 그의 뚱뚱한 체구가 갑자기 붕 떠올라 쿵, 하고 먼지를 일음키며 나가 떨어졌다. 땅바닥에 떨어진 녹청독은 쭉 뻗어 움직이지 않았다.

구경하고 있던 제자들은 녹청독이 넘무 심하게 양과를 다루자 모두 불평을 하고 있었고, 선배들 중에도 조지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만 멈추라고 소리쳤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녹청독이 양과의 장력에 맞아 나가 떨어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괴이쩍게 여겨 한꺼번에 모여들어 녹청독을 살펴보았다.

양과가 사용한 장력은 합마공이었다. 그는 합마공이 무엇인지도 몰

랐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격발한 것인데, 맨 처음 도화도에서는 무수문을 기절시키고 난 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내공도 어느 정도 증진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녹청독에 대한 증오심은 무씨 형제에게 품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이어서 그렇게 큰 힘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울려 떠들었다.

"아니, 죽었잖아 !"

"숨이 끊겼어 ! 내장이 박살났을 거야."

"빨리 장교조사에게 보고해야지."

양과는 큰일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사람들은 모두 녹청독의 생사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려 양과가 도망치는 것도 몰랐다. 조지경이 녹청독의 눈을 뒤집어 보았으나 생사가 분명치 않았다.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그는 소리쳤다.

"양과 ! 양과 ! 네 이놈 무슨 사술을 썼느냐 ?"

조지경의 무공이 비록 강하긴 했지만 평소에 오랫동안 중양궁에 머물러 있어 견문이 그리 넓지 못하였다. 그는 합마공의 수법을 알지 못했다. 그가 몇 차례 양과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다. 사람들도 그제서야 몸을 돌려 보았지만 그의 종적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난뒤였다. 조지경은 즉시 조를 나누어 추격하라고 명령했다.

조그만 어린 아이가 도망치면 얼마나 도망가랴, 하고 조지경은 생각했다.

양과는 당황한 나머지 길도 안 보고 발길 닿는 대로 마구 달렸다. 오직 수풀이 우거진 곳을 택해 멀리 내뻴 작정이었다. 뒤에서 고함소리가 들리더니 온 사방에서 고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양과, 양과 ! 빨리 나와라."

그는 더욱 당황해 이리저리 날뛰었다. 갑자기 앞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도사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선 달려들었다. 양과가 급히 몸을 돌리자 서쪽에서 또 한 명이 소리쳤다.

"여기다 ! 여기 있다 !"

양과는 몸을 낮추어 관목들 사이로 뚫고 들어갔다. 그 도사는 마침 몸이 비대해 양과를 따라 들어오지 못하고 숲을 돌아서 잡으려 했다. 양과는 어디로 딱히 도망친다는 방향도 없이 도망쳤다.

양과는 관목 숲 속에서 무작정 내달렸다. 사람들의 소리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나중에는 전신에 맥이 쭉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위 위에 앉아 헐떡거리며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서며 생각했다.

(잡히면 큰일이다. 빨리 달아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 두 다리가 천근 같다. 말을 듣지 않았다.

순간, 등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라 급히 고개를 돌려 보니,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긴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바로 조지경이었다.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노려보았다. 돌연 양과가 소리를 으악, 지르며 몸을 돌려 달아났다. 조지경이 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목덜미를 잡으려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잡히지 않았다. 양과는 마침 눈에 뛰는 돌멩이를 주워들어 조지경에게 던졌다. 조지경이 옆으로 피하면서 더욱 바짝 쫓아왔다.

양과가 10 보 정도 내달렸을 때, 갑자기 앞쪽에 깊은 낭떠리지 같은 것이 보였다. 길은 막히고, 뒤에는 조지경이 쫓아온다. 아래쪽이 계곡인지 강인지 몰랐지만 양과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던졌다.

조지경은 벼랑 끝에 이르러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양과가 비스듬한 산비탈을 따라 떼굴떼굴 굴러 수풀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서 있는 곳과 아래와의 거리는 줄잡아 7,8 장은 되어 보인다. 그는 감히 뛰어내리지 못하고 빙 돌아서 산비탈에 이르렀다. 양과가 급히 내려간 흔적을 따라 수풀 속으로 들어갔으나 양과의 자취는 간 데 없고 가면 갈수록 빽빽한 수림으로 나중에는 햇빛조차 가려져 보이지 않았

다.
그는 10 여 장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이곳은 바로 중양조사가 옛날에 머물던 활사인묘가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전진교 문하의 어느 누구라도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양과가 이곳으로 도망치다니, 조지경의 마음이 갑자기 더욱 심란해졌다.
"양과야, 빨리 나오거라. 모두 용서해 주마."
몇 차례 소리쳐 불렀지만 숲속은 정적만 감돌 뿐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몇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갔다.
순간, 땅 위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고개를 숙여 보니 비석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외인지보(外人止步)>
조지경은 잠시 주저하다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양과, 네 이놈 ! 좋은 말 할때 나오지 않는다면 잡아다가 때려 죽일 테다."
하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숲속에서 부웅,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흰색 벌떼들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날아와 달려들기 시작했다.
조지경은 깜짝 놀라 소매를 휘둘러 벌떼를 쫓으려 했다. 그의 내공은 심후해 소매의 위력도 만만하지 않았다. 몇 차례 휘둘러대자 벌떼들은 두 파로 갈라져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공격해 왔다. 조지경은 더욱 놀랐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양 소매를 춤추듯이 휘둘러 전신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었다. 벌떼들은 흩어져서 상하좌우, 사방팔방에서 달려들었다.
조지경은 더 이상 막아 낼 수가 없어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돌려 급히 숲속에서 빠져 나왔다. 그 벌떼들은 부웅, 부웅, 하고 쫓아왔는데 비록 빨리 날지는 못했으나 죽어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조지경이 동쪽으로 달아나면 벌떼들도 동쪽으로, 조지경이 서쪽으로

달아나면 벌떼들도 서쪽으로 좇아왔다.

그의 소매가 춤추는 것이 조금 완만해지자 두 마리의 벌이 쏜살같이 파고들어와 그의 오른쪽 뺨을 쏘았다. 잠깐 사이에 조지경은 가려움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마치 오장육부가 다 가려운 것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아아, 오늘 내 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중에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풀 위에 쓰러져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함을 질러댔다.

벌떼들은 그의 몸위에서 빙빙 돌며 춤을 추다가 숲속으로 되돌아갔다.

***** 활 사 인 묘 (活 死 人 墓) *****

양과는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풀숲에 묻혀서 기절해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돌연 온몸이 쑤셔 왔다. 눈을 떴다. 무수한 흰 벌떼가 이리저리 맴돈다. 귀에는 온통 부웅붕, 위이잉, 벌떼의 날개짓 소리로 가득찼다. 온몸의 상처가 뼈를 파고들듯 아팠다. 눈앞의 어지러운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양과는 다시 혼절했다.

다시 한참이 지났다. 갑자기 시원하고 향기로운 액체가 입안에 가득 고였다. 그 액체가 목 안으로 넘어갔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그 액체를 뱃속으로 삼킨 것이다. 잠시 후 살며시 눈을 뜨자, 두 자 정도의 거리에 닭 껍질 같은 피부에 온통 부스럼이 난 추한 몰골의 얼굴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양과는 깜짝놀라 다시 기절할 뻔했다. 그 추한 얼굴을 한 사람이 왼손을 뻗어 그의 아래턱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잔을 들고서 달콤한 액체를 그의 입에 부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양과는 몸의 통증도 어느 정도 가시고 자기가 어떤 알 수 없는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알고, 그 추한 얼굴을 한 사람이 자기를 구출해 주

었다는 것도 알았다. 살며시 미소를 짓는 것으로 양과는 고마움을 표했다. 닭껍질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도 웃으며 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양과는 그녀가 웃으니 얼굴이 더욱 추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추함 속에서도 어딘가 다뜻하고 고운 마음씨가 있다고 생각되자 따스한 기분을 느꼈다.

"할머니, 부탁이 있습니다. 사부가 저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추한 얼굴의 노파가 물었다.

"얘야, 너의 사부가 누구란 말이냐 ?"

양과는 오랫동안 이토록 따스하고 친절한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여 저도 모르게 어엉어엉, 울기 시작했다. 노파는 왼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사랑이 가득 찬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른손으로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다. 노파는 그가 실컷 울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이제 좀 괜찮니 ?"

양과는 노파의 자상한 목소리를 듣자 또 울음이 터져 나왔다. 노파는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 주며 위로했다.

"착하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게다."

그녀가 위로를 하면 할수록 양과는 더욱 서러웠다.

갑자기 장막 밖에서 어여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에요 ?"

양과가 고개를 들자 백옥같이 흰 손이 장막을 여는 것이 보이더니 한 소녀가 들어왔다. 소녀는 가벼운 깁으로 만든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마치 몸이 안개에 파묻힌 듯했다. 16,7 세 정고 되었을까. 검은 머리카락을 제외하면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용모도 절세가인이었다. 하지만 피부에는 혈색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창백하다.

양과는 얼굴을 붉히며 울음을 그쳤다. 고개를 숙이며 양과는 부끄러

워했다. 살짝 그녀를 훔쳐보다가 그녀도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는 얼른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니만 아가씨가 오니 울음을 딱 그치는구나."
소녀는 침상 곁으로 오더니 그의 머리가 벌에 쏘인 것을 보고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열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마에 닿은 그녀의 손이 너무나 차가와서 얼음이 와 닿은 것 같았다. 소녀가 말했다.
"괜찮아. 이미 옥봉장(玉蜂漿)을 마셨으니 반나절이면 나을 거야. 그런데 왜숲으로 떨어졌지 ?"
양과가 고개를 들자 그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소녀는 청려하고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어서 눈이 부실 정도였으나 표정은 오히려 냉담하고 삭막했다. 빙설(氷雪)처럼 깨끗하기도 하고 빙설처럼 차갑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만으로는 기뻐하는지 화를 내는지 근심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어 두려운 마음까지 일었다.
(이 아가씨는 수정으로 만들었나, 아니면 눈으로 만들었나 ? 도대체 사람인가, 아니면 선녀인가 ?)
그녀의 목소리는 어여쁘고 부드러웠지만 따뜻함이라곤 조금도 스며있지 않아 양과는 잠시 멍하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분, 용(龍)아가씨는 이곳의 주인이시다. 뭘 묻든지 모두 대답하는 것이 좋아."
손노파의 말이다.
이 아름다운 백의(白衣)의 소녀는 바로 활사인묘(活死人墓)의 주인인 소용녀(小龍女)였다. 그녀의 나이는 당년 18세. 그러나 오랫동안 묘 안에서 살면서 햇빛을 보지 않았고, 익힌 내공도 극기의 방법을 다한 것이어서 같은 나이의 소녀보다 몇 살이 더 어려 보였다. 손노파는 그녀의 사부를 모시던 몸종이었는데 사부가 세상을 떠난 뒤,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날 옥봉(玉蜂)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 묘 밖의 수풀에 들어온 것을 알고 노파가 나가 살펴보다가 양과가 중독되어 기절한 것을 발견하고 구출한 것이다.

본래 그들 문중의 법도에 의하면 외부의 어느 누구도 묘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더구나 남자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양과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게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고 손노파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규율을 깨고 구출한 것이었다.

양과는 돌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앉더니 땅으로 뛰어내려 손노파와 소용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제자 양과가 할머니와 용아가씨께 인사올립니다."

손노파는 웃음꽃이 만발한 얼굴로 황급히 그를 부축해 일으킨다.

"아, 네 이름이 양과로구나. 그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릴 것 없다."

그녀는 묘 안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바깥 사람과의 교류가 없다가 지금 양과의 용모가 준수하고 행동거지에 예의가 있는 것을 보고 다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소용녀는 고개만 끄덕이며 침상 곁의 돌의자에 앉아 있다. 손노파가 말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지 ? 어찌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까 ? 어떤 못된 놈이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지 ?"

그녀는 말하면서 그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과자와 떡을 가져다가 그가 먹도록 했다.

양과는 과자를 몇 개 먹고 나서 자기의 신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 주었다. 그는 본래 말재주가 있었다.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가 방금 전에 당한 굴욕까지 말하는 대목에서 다시금 울컥 서러움이 북받쳤다.

손노파는 계속 한숨을 내쉬며 때로 한두 마디 끼여 들어 나름대로 평가를 하거나 맞장구를 치는데, 언제나 양과를옹호하는 입장을 취했

다.

때로는 황용이 딸만을 위하고 일처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맞장구치기도 했고, 때로는 조지경의 성질이 아주 좁고 못된 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용녀는 조금도 안색의 변화가 없이 앉아 있다가 양과가 이막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자, 손노파와 서로 몇 차례 눈길을 주고받았다. 손노파는 양과가 끝까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더니 팔을 뻗어 양과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불쌍하기도 해라. 쯧쯧......."

소용녀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말했다.

"상처는 그다지 걱정할 것 없으니 이제 그를 내보내세요 !"

손노파와 양과는 둘이 다 깜짝 놀랐다. 양과가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안 돌아가요 ! 죽어도 안 돌아갈래요."

"아가씨, 이 아이가 중양궁으로 돌아가면 그의 사부가 애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가서 그의 사부에게 말하여 아이를 혼내지 않도록 해요."

"그렇다고 다른 문중의 일을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

"옥봉밀장(玉蜂蜜漿)을 한 병 보내서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에는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손노파는 그녀의 옹고집을 알기 때문에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다만 가련하다는 듯 양과만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양과는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읍을 했다.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

양과는 잠시 주춤하더니 말한다.

"천하가 이토록 크고 넓은데 어디든 갈 곳이 없겠습니까 ?"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난처한 기색이 얼굴 가득 서렸다. 손노파가 말했다.

"얘야, 우리 아가씨가 너를 이곳에 묵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란다. 사실 이제야 얘기지만 이곳에는 엄한 규칙이 있어서 바깥 사람을 들여와서는 안 된단다. 그러니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거라."

"무슨 천만의 말씀이십니까 ?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른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지만 어린 목소리에 손노파는 우습기도 하고 또 더욱 가련하기도 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반짝이며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을 본 손노파가 소용녀에게 말했다.

"아가씨, 밤이 이토록 깊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가도록 하시지요."

소용녀는 살며시 고개를 흔들었다.

"할머니, 설마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규율을 잊은 건 아니겠지요 ?"

손노파는 단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켜 낮은 목소리로 양과에게 말했다.

"자, 얘야. 내가 너에게 가지고 갈 것을 주마."

양과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필요없어요. 나는 죽어도 그 더러운 도사에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손노파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길을 잘 모르니 내가 데려다 주마."

그의 손을 끌고 앞장섰다. 문을 나서니 칠흑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손노파에게 맡기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한 굽이를 돌면 또 한 굽이가 나오는데 손노파는 어떻게 이토록 캄캄한 어둠 속의 복잡한 길을 잘 헤쳐 나가는지 양과는 탄복했다.

이 황사인묘는 사람들이 비록 무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매우 넓고 커다란 지하 창고였다. 옛날 왕중양이 금나라에 대항하여 거사를 하기 전에 수천 명의 힘을 빌어 몇 년에 걸쳐서 완성한 뒤 그 안에 무기와

양식을 몰래 저장하여 산협 일대의 근거지로 삼고, 겉모습은 무덤처럼 가장하여 금나라 사람들의 이목을 속인 것이다. 또한 금병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곳곳에 수많은 장치를 해 놓기도 했다.

의병이 실패한 뒤에 왕중양은 이곳에서 은거했다. 그 때문에 묘 안에는 방들이 무수히 많았고 통로도 복잡하여 바깥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방에 비치는 휘황찬란한 촛불까지도 소용없이 그만 미로로 변하게 된다. 방향을 찾을 별빛 같은 것은 조금도 새어들지 않았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서 수풀 속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누군가 낭랑한 목소리로 외친다.

"전진의 문하 제자 윤지평이 사부의 명을 받들어 용아가씨를 뵙고자 합니다."

목소리는 멀리서들리고 있었다. 아마 금지 구역의 밖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다. 손노파가 낮게 말했다.

"밖에 'n 너를 찾아왔으니 나가지 말아라."

양과는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할머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법입니다. 내 이미 실수하여 사람을 때려서 죽였으니 저들이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두십시오."

말을 마치자 양과는 성큼성큼 나아갔다. 손노파가 말했다.

"나도 같이 가마 !"

손노파는 양과의 손을 이끌고 수풀을 헤쳐서 숲 앞의 빈터에 이르렀다. 달빛 아래 6,7 명의 도사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고, 또다른 4 명의 화공도인(火工道人)이 중상을 입은 조지경과 녹청독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과를 보자 나지막하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똑같이 몇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양과는 손노파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가 소리쳤다.

"나 여기 있으니 죽이려면 죽이시오. 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들은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의외로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한 도사가 달려들어 손을 뻗더니 양과의 목덜미를 나꿔챘다. 양과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텐데, 뭐가 급하다고 그리 서두르는 것이오?"

양과를 잡은 도사는 조지경의 대제자였다. 사부가 양과 때문에 옥봉의 독을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그는 줄곧 사부에게 깊은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던 터라 도제(徒弟)가 사부에게 이렇게 거역하는 일은 들어보지도 못한 일로서 하늘도 용서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했다. 양과가 당돌하게 지껄이자 곧장 그의 머리에 일권을 내리쳤다.

손노파는 본디 도사들과 말로 좋게 하려고 했었다. 양과가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꾹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얻어맞는 것을 보자 불같은 화가 치밀었다. 즉시 성큼성큼 다가가 소매를 휘둘러 도사의 손에 뿌렸다. 도사는 갑자기 팔뚝이 무섭게 시려 오는 고통을 느껴 손을 저절로 풀고, 말을 하려 했지만 손노파는 이미 양과를 데리고 돌아섰다.

그녀가 단지 힘 없고 쇠약한 늙은이로만 보였는데 이렇게 손을 뻗어 사람을 빼앗아가는 것이 민첩하리라고는 생각도 않았었다. 도사들이 잠시 멍청히 지켜보고 서 있는 사이에 그녀는 이미 양과를 데리고 한 장이 넘는 곳으로 멀어져 가고있었다.

세명의 도사들이 아이를 내놓아라 ! 하고 소리치며 동시에 고함을 질렀다. 손노파는 걸음을 문득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안 내놓으면 어쩔 작정이냐 ?"

윤지평은 활사인묘 안에 있는 인물과의 사이에 깊고도 오래 된 사연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고 먼저 3 명의 도사들을 꾸짖었다.

"모두들 흩어져라. 선배의 면전에서 어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느냐
?"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추었다.
"제자 윤지평이 선배님께 인사올립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
"이 아이는 우리 전진교의 제자이옵니다. 선배님께서 돌려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손노파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도 이 아이를 이토록 못살게 구는데, 데리고 돌아가면 또 얼마나 못살게 굴겠느냐 ? 아무리 놓아 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윤지평은 화를 참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너무나 모자라고 고집이 세어 사부님을 속이고 조상을 욕보였으며 문중의 규율을 크게 어겼습니다. 무림의 인물들이 항상 중시하는 것이 바로 사부와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그에게 벌을 내려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이 사부를 속이고 조상을 욕보인 것이더란 말이냐 ? 다 너희들에게 유리하도록 꾸민 말 아니냐 ?"
문득 노파가 녹청독을 가리키며 말을 잇는다.
"얘는 이 돼지 같은 도사와 무예를 겨룬 것이다. 이는 전진교에도 정해진 규칙이다. 원래는 겨루려고 하지 않다가 너의들의 재촉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시합에 임했었다. 이미 무예를 겨루었다면 자연히 승패가 있기 마련이거늘, 이 돼지 같은 도사가 이겨 내지 못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 ?"
그녀의 용모는 본디 추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게다가 노기를 띠어 얼굴이 불끈 달아오르자 사람들은 더욱 겁에 질렸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연이어서 10 여 명의 도사가 얼른 윤지평의 뒤에 와 섰다. 자기들끼리 쑥덕거려 봐도 이 큰소리로 꾸짖는 추

한 노파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윤지평의 생각에도 녹청독을 다치게 한 것만으로는 양과를 탓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자신의 위엄을 손상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 일의 잘잘못이 어떠하든간에 저희는 마땅히 장교사조의 명을 받아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선배님께서는 어서 그 아이를 넘겨 주십시오."
 "너희들의 장교가 어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이냐 ? 전진교는 왕중양 아래로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토록 가까이 사는데 어찌하여 왕래가 전혀 없었더란 말이냐 ?"
 윤지평은 생각했다.
 (이는 너희들이 우리와의 왕래를 꺼리는 것인데 어찌 전진교를 나무란단 말이냐 ? 이 할미는 말하는 중에 우리의 창교진인(創敎眞人)까지도 욕하고 있으니 지나치게 무례하구나.)
 하지만 이것으로 구설수를 일으켜 두 가(家)의 화기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 다음과 같은 말만 했다.
 "선배님께서 보시고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장교의 분부를 받고 다시 사죄를 올리겠습니다."
 양과는 손노파의 목을 끌어안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이 도인은 귀신 같은 계략이 매우 뛰어나요. 상대하지 마세요."
 손노파는 18 년 동안 소용녀를 장성하도록 키우면서 내심으로는 사내아이를 키워 봤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었다. 양과가 자기에게 친숙하게 대하는 것을 보자 몹시 신이 나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게 할 수는 없다.)
 이리하여 다시 큰소리로 물었다.

"너희가 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서는 이 일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느냐 ?"

"제자는 이 아이의 선친과 동문의 우의가 있으니 결코 옛 친구의 아이를 못살게 굴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선배님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손노파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 할망구는 평소 바깥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말을 하고 나서 발길을 떼어 수풀 쪽으로 걸어갔다.

조지경은 들것에 몸을 눕히고 있으면서 옥봉에 맞은 상처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정신만은 말짱했다. 윤지평과 손노파가 한참동안 입씨름을 해도 결정이 나지 않자, 화가 나서 돌연 들것에서 몸을 일으켜 손노파의 앞으로 가서 대갈했다.

"이 아이는 나의 제자이니 때리든 욕을 하든 모두가 나에게 달려 있소. 사부에게 제자를 맡기지 않는 법도가 무림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오 ?"

그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여 성난 돼지 같았다. 그의 말을 듣고 손노파는 이자가 양과의 사부라는 것을 알았다. 한동안 대답할 말이 없었다가 억지를 썼다.

"꼭 네가 가르쳐야 한단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

"이 아이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오 ? 무엇을 믿고 함부로 끼여드는 건지 모르겠네. 내, 참 !"

손노파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이제 너희 전진교의 문인이 아니다. 이아이는 이미 우리 소용녀 아가씨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애가 좋든 싫든 간에 소용녀 아가씨만이 상관할 수 있다. 너희들이야말로 왜 쓸데 없는 일에 참견하는 거냐 ?"

이 말이 떨어지자도사들은 일시에 떠들썩하게 반응했다. 무림의 법도에는 처음 사부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부로 모

실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만난 사부가 처음에 만난 사부보다 능력이 10 배가 넘는다고 해도 역시 제멋대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중대한 반역에 몰려 무림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이전에 곽정은 강남칠괴를 사부로 모셔서 다시 홍칠공에게 무예를 배울 때에도 끝내 사부라 칭하지 않았었다. 뒤에 가진악 등이 정식으로 허락을 하면서 홍칠공을 스승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었다.

손노파는 지금 조지경의 힐난을 받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더구나 그녀는 무림의 인사와 교류가 없었으니 그 법규를 알 리가 없었다. 봇물 터놓듯이 거침없이 내놓은 말이지만 커다란 금기를 범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전진파 도사들은 본래 많은 자들이 양과를 애석하게 여기고 조지경의 처사가 자못 불합리함을 느꼈었다. 그러나 양과가 감히 사문을 등지고 나간다는 것은 전진교 창교 이래로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일로서 크나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했다.

조지경은 상처의 고통이 갑자기 극심해졌다간 다시 나아지곤 하여 견디기 힘들었다. 금방 죽을 듯하다가도 다시 상쾌해지곤 했다. 이를 악물고 양과에게 물었다.

"양과, 이 일이 사실이냐 ?"

양과는 본래 하늘 높은 줄을, 땅이 넓은 줄을 모르는 아이였다. 손노파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지경과 다투는 것을 보고 그녀가 그들에게 설사 자기가 천하에 못된 짓을 했다고 해도 받아 들일 태세였는데, 그까짓 것 겨우 사문을 바꾸는 일 따위야 그가 일찍부터 원했던 일이 아니었는가 ! 개 돼지 같은 자들에게 엎드려 사부로 삼을 바에야 아름다운 소용녀를 사부로 삼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러운 도사야 ! 도적의 머리에 개 같은 골통으로 양의 수염을 달고 소의 코를 달고 있는 놈아 ! 네가 나를 이토록 때리는데 내가 왜 너를 사부로 삼겠느냐 ? 나는 이미 손 할머니와 용 아가씨를 사부로

삼은 지 오래다."

조지경은 화가 나서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급히 몸을 날려서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손노파가 욕을 했다.

"냄새나는 잡털 같으니, 혼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

오른팔을 내밀어 조지경의 팔뚝을 쳤다. 조지경은 전진교 제 3 대 제자 중에서 제일 가는 고수였다. 무공의 조예를 말하자면 윤지평보다도 위로서, 그가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덤비는 기세는 여전히 사나왔다. 둘의 팔이 한 번 오가더니 각자 두 걸음씩 물러났다. 손노파가 거칠게 한 마디 내뱉았다.

"꽤 괜찮은 잡털이구나 ! 아주 제법인데......."

조지경은 첫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두번째 다시 팔을 뻗었다. 이번에는 그를 감히 얕잡아 보지 못하고 손노파는 옆으로 몸을 피하여 종적도 없이 날아갔다. 조지경은 바람소리를 듣고 몸을 피하려는 찰나, 옥봉에 쏘인 상처가 돌연 쑤셔 왔다. 그는 꾸욱,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감싸고 무릎을 꿇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미 손노파는 그의 겨드랑이 아래에 있었다. 조지경은 몸이 높이 솟구치며 공중에서 다시 비명소리를 냈다.

윤지평이 두 걸음 나서서 팔을 뻗어 조지경을 잡아 뒤의 제자에게 건넸다. 그는 이 못생긴 노파의 무공의 초수가 극히 기이함을 보고 난적(難敵)이라 여겨 한마디 소리를 질렀다. 6 명의 도사가 양쪽에서 둘러싸 천강북두진을 펼쳐 노파와 양과를 중간에 포위했다. 윤지평이 소리를 질렀다.

"어디 맛 좀 봐라 !"

좌우의 당천추(當天樞) 요광(搖光)의 두 도사가 공격했다. 손노파는 진법을 알지 못하여 몇 초를 맞받아 공격하면서 위험함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다시 한 손으로만 적에 대응하여 12,3 초를 내자 이미 흉험백출하여 매번 윤지평의 진법을 교란시켰지만, 북두진의 공세는 그리 만만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10 여초를 싸우다가 손노파의 오른손

이 2명의 도사에게 잡히고 말았다. 왼쪽에서 또 2명의 도사가 공격하자 양과를 놓고 왼손으로 맞받았다. 북두진의 안쪽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리는가 싶더니 두 도사가 대들어 양과를 채가려고 했다.

손노파는 은근히 놀랐다. 이 도사들의 실력이 뛰어나 도저히 대적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쪽으로 발을 뻗어 두 사람을 물리치며 입으로는 웅웅웅, 하는 낮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가벼워 도사들은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뒷소리가 앞의 소라와 어우러지면서 계속 이어지자 소리는 갈수록 크게 울려퍼졌다.

윤지평은 손노파와 함께 싸우면서 전신에 경계를 했다. 그는 예전에 이 묘안에 살던 선배의 무공이 전진교의 창교조사와 앞을 다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후계자들도 무시 못할 자들임에 틀림었다고 생각했다.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자 이것은 이 문하에 전수되는 섭심지술(攝心之術)이라고 생각하고 황급히 손을 멈추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계속 그녀가 웅웅거리는데도 자기의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어 괴이쩍게 생각되었다. 그러다 문득 한가지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도사들에게 급히 물러나라고 하려는 순간, 먼 곳에서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 그 소리는 손노파의 소라와 함께 어울렀다. 윤지평은 크게 외쳤다.

"모두 빨리 물러나라 !"

도사들은 멈칫하다가 생각했다.

(우리가 이미 승세를 타고 있으니 머지않아 이 늙은이와 어린 놈을 사로잡을 텐데, 이 할망구가 멋대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뭐가 두렵다고 저럴까 ?)

돌연 수풀 속에서 그림자들이 반짝반짝하더니 한 떼의 옥봉이 날아와 도사들의 정수리로 대들었다. 도사들은 조지경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벌떼는 급히 이들을 향해 좇아갔다.

도사들이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고 어지러이 도망치는 것을 본 손노파는 , 크게 웃었다. 홀연 숲속에서 한 늙은 도인이 나타났다.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 꼭대기에는 짙은 연기가 일고 있었다. 도인은 그것을 벌떼에게 휘둘렀다. 벌떼는 시커먼 연기를 맡자 진세가 크게 흩어지며 허둥지둥 멀리 날아가 버렸다. 손노파는 깜짝놀라 그 늙은 도인을 보았다. 흰 머리카락에 흰 눈썹을 하고 있는 것이 전진교 중의 고수 같았다.

"아니, 도대체 이 늙은이는 누구이길래 내 벌떼를 모두 쫓아 버렸느냐 ?"

"저는 학대통(학大通)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손노파는 아직 무림의 인물들과 비록 왕래한 적은 없었지만, 중양궁이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광녕자 학대통은 왕중양 휘하의 7 대 제자 중의 하나로 조지경, 윤지평 따위의 작은 도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늙은 도인은 대적하기가 더욱 힘이 들 것임에 틀림없었다. 코에 횃불의 짙은 연기가 와 닿자 토할 것만 같았다. 이 불은 독충을 몰아내는 약초를 피운 것으로서, 옥봉은 이미 믿을 것이 못 됐다.

"어쨌든 너는 우리 아가씨의 벌떼를 손상시켰으니 보상을 해야 한다. 같이 가서 어디 계산을 해 봐야겠다."

한마디 꾸짖고는 양과를 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윤지평이 물었다.

"학사숙, 뒤쫓을까요 ?"

학대통은 고개를 흔들었다.

"창교진인께서 엄한 규율을 내리셔서 숲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좋은 계책을 세워 보자."

손노파는 양과의 손을 이끌고 다시 묘 안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방금 위험을 겪고 나서 더 한층 친밀해졌다. 양과는 소용녀가 혹시 자기를 머물지 못하게 할까 봐 마음을 졸였다. 그것을 알아챈 손노파가

말했다.
"마음을 놓아라. 내가 반드시 아가씨에게 너를 머물게 하도록 이야기해 보겠다."
그에게 어느 석실에서 쉬도록 한 뒤 손노파는 소용녀에게 가서 이야기했다.
양과는 한참을 기다려서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다.
(용아가씨가 필시 나를 쫓으려 하고 할머니는 억지로라도 대답을 얻으려고 조르는 모양이다. 내가 여기 그냥 있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겠지.)
잠시 생각하다가 마음을 정한 뒤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막 석실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손노파가 바삐 돌아와 물었다.
"어딜 가는 게냐 ?"
"할머니, 나는 갈래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꼭 다시 찾아와 할머니를 뵙겠습니다."
"아니다.내 너를 어떤 곳으로 보내어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양과는 이 말을 듣고 소용녀가 끝내 자기를 거두려고 하지 않음을 알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다 소용없어요. 난 고집이 센 아이라서 어디를 가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손노파는 소용녀와 양과의 문제로 반나절을 다투었는데도 그녀가 허락하지 않아 심사가 뒤엉켜 있었던 터였는데, 양과가 하는 말을 들으니 더욱 가엾은 심정이 되어 가슴에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다.
"얘야, 다른 사람은 네가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오직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단다. 나와 함께 가자. 어디를 가든 이 할머니가 너와 같이 있으마."
양과는 너무나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문을 나섰다. 손노파는 분함을 못 이겨 옷가지도 챙기지 못했다. 손을 뻗어 품속을 더듬자 병이 한 개 손에 잡혔다. 조지경에게 줄 벌의 해독약이었다.

(이 놈의 도사가 참으로 증세가 심하다면 설사 죽지는 않는다해도 그 후환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 약을 먹지 않는다면 말이다.)

손노파는 양과를 데리고 곧장 중양궁으로 향했다.

양과는 얼마쯤 그녀를 따라가다가 중양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서 펄쩍 뛰며 나직하게 말했다.

"할머니, 또 거길 가서 뭘 하게요 ?"

"너의 그 못된 사부에게 약을 보내는 것이다."

얼마 안 되어 이미 도관의 앞에 가까이 왔다. 그녀가 담장에 뛰어올라 마당으로 막 내려서려 하는데 홀연 시커먼 어둠 속에서 때앵때앵, 종소리가 급히 울리며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 적막한 어둠 속에서 요란하게 종소리가 들리자, 손노파는 이미 겹겹으로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 적잖게 놀랐다.

전진교는 무림 중의 몇째 가는 대종파였다. 평소에 방범 감시가 말할 수 없이 삼엄한데 이날은 한차례 사건을 치른 뒤라, 더욱 철저히 사면팔방을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 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즉시 핑계를 펴서 궁 안의 모든 제자들이 모두 적을 맞으러 나온 것이었다. 다시 한 무리의 도사들이 멀리 흩어져서, 한 무리는 이미 독 안에 든 적을 포위하고, 한 무리는 적의 후미를 막고 있었다.

손노파는 속으로 욕을 하며 생각했다.

(나는 와서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이자들은 누굴 보고 이렇게 떠들썩한 것일까 ? 잠도 안 자는 놈들 같으니라고.......)

"조지경은 빨리 나와라. 네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대전에서 한 중년의 도인이 소리에 응하여 나왔다.

"이 깊은 밤에 이곳에 들어와서 무슨 볼 일이 있단 말입니까 ?"

"이것이 벌에 쏘인 독을 치료하는 약이오. 가져가시오 !"

손노파가 말을 마치며 옥봉장을 한 병 건네 주었다. 도인은 손을 뻗어 병을 받으며 반신반의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호의를 베풀어 약을 가져왔을까 ?)

도인이 낭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약이라 하셨지요 ?"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소. 몇 차례에 걸쳐 모두 마시고 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오."

"내 어떻게 이것이 당신의 호의인지 악의인지 안단 말이오 ? 또 어떻게 해약인지 독약인지를 안단 말이오 ? 조사형이 이미 당신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당하였는데 갑자기 무슨 보살 심리로 다시 온 것이오 ?"

손노파는 그가 오만불손하게 말을 하며, 또 자기가 호의로 온 것을 도리어 사람을 해치려고 왔다고 의심을 품자, 노기를 억제하지 못했다. 양과를 땅에 내려놓고 급히 앞으로 뛰어가 옥봉장을 빼앗아서 병마개를 뽑아 양과에게 소리쳤다.

"입을 크게 벌려라 !"

양과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렸다. 손노파는 병을 기울여 한 병의 옥봉장을 모두 그의 입에 부어 넣고는 말했다.

"그래, 이자들이 독약이라고 의심한 것은 풀리게 됐으니, 이제 가자."

손노파는 양과의 손을 이끌고 담장 곁으로 바삐 갔다.

그 도인은 장지광(張志光)으로 학대통의 두번째 제자였다. 이때 저도 모르게 단서도 없이 의심한 것을 후회하고 그녀가 갖고 온 것이 진짜 해약인 것을 알자, 약이 없으면 조지경이 지탱할 수 없음을 걱정하여 급히 나서서 두 손으로 막고 웃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노선배님 ! 어찌 이리 화를 내십니까 ? 제가 되는 대로 농담을 한 것인데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다뇨 ? 이웃에 살면서 서로 오고가는

정이 있어야 할 텐데, 해약이라면 조금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손노파는 그가 멋대로 입을 놀리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냉소를 보냈다.
"해약은 한 병밖에 업다. 이제 더 원하더라도 이미 소용없지. 조지경의 상처는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치료해 봐라."
하고 말하면서 그의 따귀를 올려치며 꾸짖엇다.
"선배를 공경하지 않으니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손이 너무 빨라서 장지광은 피할 겨를도 없이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빰을 얻어맞아 얼얼한 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가의 두 도사는 안색이 변하며 일제히 말했다.
"아무리 선배라지만 중양궁 안에서 날뛰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
한쪽에서 좌장을, 한쪽에서는 우장을 날리며 양쪽으로 나누어 협공했다.
손노파는 이미 전진교 북두진에 당한 적이 있어 그것이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지금은 깊이 포위당하고 있으니 어찌 그들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몸을 날려 쌍장이 협공하는 사이를 뚫고 양과를 안고 담장 위로 뛰어올랐다.
담장위에는 아무도 없는 듯하여 발을 내려 디디려고 하는 순간, 돌연 담장 밖에서 한 사람이 몸을 날려 꾸짖었다.
"내려가라 !"
쌍장이 얼굴로 날아왔다. 손노파는 공중에 떠 있어 힘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만 일초를 날려 단장과 쌍장이 맞부딪쳤다. 서로가 물러나 담벼락의 양쪽으로 떨어졌다. 6,7 명의 도사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담장 모퉁이로 몰았다.
이 6,7 명은 모두가 전진교 제 3 대 제자 중의 고수들로 특히 궁의 대전을 방비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하나가 공격하고 하나는 물러나며 6,7 명이 마치 물결처럼 몇 차례를 공격했다. 손노파는 담장 모퉁이에

몰려 양과를 끌고 출로를 찾아 나가려고 했으나 도사들이 만든 사람의 담은 굳게 그녀를 에워싸고 있어서 몇 차례나 부딪쳤다가는 다시 돌아오곤 했다.

다시 10여 초를 싸우자 대전의 수비를 주관하는 장지광은 적이 이미 힘이 없음을 알고 명을 내려, 촛불을 밝히도록 했다. 10여 개의 커다란 촛불이 대전의 사방을 밝히자 손노파의 참담한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 그 추한 몰골이 공연히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장지광이 외쳤다.

"공격을 멈추어라."

손노파와 장풍으로 맞서고 있던 7명의 도사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나 쌍장을 가슴에 대고 각자 방위를 지켰다. 손노파는 한숨을 내쉬며 냉소했다.

(전진교의 위명이 천하에 떨친다더니 과연 헛된 명성이 아니었구나. 십여 명의 힘센 잡털들이 함께 늙은 할망구와 어린아이를 희롱하다니...... 후훗, 무섭구나, 무서워!)

장지광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우리는 단지 중양궁을 침범한 자객을 사로잡으려 하는 것뿐이다. 네가 꼬부랑 늙은이건 남자이건, 몸을 펴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몸을 굽히고 나가야 한다."

장지광은 마침 그녀에게 얻어맞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 쉽게 놓아 주고 싶지 않았다.

"너를 놓아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거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네가 벌을 풀어 조사형을 해치게 하였으니 해약을 놓고 가야 한다. 둘째, 이 아이는 전진교의 제자인데 장교진인의 윤허가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사문을 등지게 하겠는가? 그 아이를 놔 두고 가라. 세째, 너는 멋대로 중양궁에 들어왔으니 중양조사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한다."

손노파는 큰 소리로 웃었다.

"내 일찌기 우리 아가씨와 이야기했거늘, 전진교의 도사들은 모두

발전이 없다고 했었지. 이 노파의 말이 언제 틀린 적이 있었는가 ? 아암, 자자 내 머리 숙이고 사죄하지."

말하면서 몸을 낮추어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

장지광은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자 깜짝 놀라는 사이 손노파는 이미 몸을 굽혀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홀연 차가운 빛이 번쩍, 하더니 암기 하나가 곧바로 날아왔다. 장지광은 아차, 하며 몸을 옆으로 피했지만 암기 하나가 곧바로 날아왔다. 장지광은 아차, 하며 몸을 옆으로 피했지만 암기가 더 빨라서 퍽, 하는 소리를 내며 그의 왼쪽 눈언저리에 맞았다. 암기가 부서지면서 장지광의 얼굴에는 선혈이 낭자했다. 원래 손노파는 품속에서 옥봉장을 가장한 빈 병을 꺼내어 독문의 암기 수법으로 던진 것이다. 그녀의 이 무공은 여류(女流)가 만든 것으로 초수와 수법이 곳곳에 음유(陰柔)함이 있었고 변화무쌍했다. 이 전거후공(前距後恭)의 수법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빈 자기(瓷器)에 불과했지만 가까운 곳에서 던지니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잔지광의 얼굴이 온통 피로 물든 것을 본 도사들은 분노하여 소리치며 분분히 칼을 빼들었다.전진도인들은 모두가 장검을 사용하여 정원에는 일시에 검광이 눈을 어지럽혔다. 손노파는 모퉁이를 등지고 서서 차겁게 미소를 흘리며 오늘의 형세가 매우 불리함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력은 매우 강하여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며 굴복할 줄 몰랐다. 고개를 들어 양과에게 물었다.

"얘야, 무서우냐 ?"

양과는 갑자기 번쩍이는 장검들을 보고 생각했다.

(만약에 곽백부가 이곳에 있었다면 이까짓 도사들은 두려울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만 의지하고 있다간 빠져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손노파가 묻는 것을 듣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할머니, 저들이 나를 죽이도록 놔 두세요. 이 일은 처음부터 할머

니와는 상관이 없으니 어서 달아나시구요."
 손노파는 이 어린아이가 이토록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 또 자기를 생각해 주자 더욱 사랑스러워 큰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와 함께 이곳에서 죽어 이 도사들이 원하는 것이나 풀어 줄란다. ...... 이얍 !"
 돌연 대갈일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두 팔을 뻗어서 두 도사의 팔을 잡고 꺾으며 두 자루의 장검을 빼앗았다. 이 공수입백인(空手入白刃)의 무공은 괴이하기 짝이 없었으며 교묘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두 도사는 전혀 방비를 하지 않다가 어이없게 무기를 빼앗겼다.
 손노파는 한 자루의 장검을 양과에게 주며 말했다.
 "얘야, 이 못된 도사들과 겨룰 수 있겠느냐 ?"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 도와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쉬워요."
 "도와 줄 사람이라니 ?"
 "전진교의 위명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데 이 고아와 노인을 속이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 옆에서 도와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애석하지 않아요 ?"
 그는 손노파가 마침 장지광과 겨루는 소리를 듣고 그 심중을 찌른 것이다. 그는 맑고 아주 앳된소리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사들은 이 말을 듣자 부끄러움을 느꼈다. 생각하면 여럿이 힘을 합하여 한 노파와 어린아이를 상대로 싸운다는 일이 분명히, 이겨도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다. 누군가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내가 가서 장교사백에게 아뢰고 가르침을 받아 오지."
 이때 마옥은 혼자서 산 뒤의 10여 리 떨어진 조그만 암자에서 수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내의 일은 모두 학대통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담처단의 제자로서 사태가 이미 시끄러워져 전진교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기도 하였으므로, 장교가 친히 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지광은 얼궁에 자기(瓷器)의 부서진 파편을 맞아 10여 군데 상처를 입어서 피가 눈을 덮었다. 놀라고 노한 가운데 자세히 판별할 겨를도 없이 왼쪽 눈에 갑자기 암기를 맞은 것이었다. 장교사백은 성품이 온화하여 반드시 이들을 놓아 주라고 분부할 것이니 자기 눈만 멀쩡하게 멀어 버리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우선 이 못된 할망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장교사백에게 처리를 부탁하자. 모든 사제들은 일제히 이들을 사로잡아라."
 그의 말과 함께 천강북두의 진이 점차로 좁혀졌다. 손노파는 마치 손이 묶인 듯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도 일곱 도사가 세 발짝 거리에서 육박해 오자, 춤추듯 장검을 휘둘러 철처하게 방어를 했다. 진법은 더 조여들지 못했다. 장지광이 나서서 이 진법을 이끌었다면 진공의 방법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상대방의 암기에 독이 있을까를 염려했다. 손을 써서 함께 싸운다면 피가 더욱 활발하게 돌아 독성이 더욱 빨리 퍼질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는 왼쪽 눈을 뜨지 못한 채 옆에서 지휘만 하고 있었다. 그가 이미 나서지 못하자 진법의 위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도사들은 오랫동안 싸워도 노파를 이겨 내지 못하자 점점 초조해졌다. 그때 손노파가 돌연 소리를 지르며 수중의 장검을 내던지고 세 걸음쯤 나아가 도사들의 검광에서 몸을 빠져나와 한 소년 도사의 가슴을 나꿔채어 그를 들어올리면서 외쳤다.
 "이 더러운 잡털들아 ! 도대체 길을 내주지 않을 작정이냐 ?"
 도사들이 깜짝 놀라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 손노파의 팔을 쳤다. 손노파는 미처 돌아볼 사이도 없이 팔이 저려오는가 싶더니, 나꿔챘던 소년 도사는 벌써 그에게 옮겨져 있었고, 이어서 강한 바람이 얼굴을 덮쳐 왔다. 그가 장풍을 날린 것이었다. 손노파는 생각했다.
 (이자의 장풍은 굉장히 날래구나.)

노파도 급히 장풍을 날렸다. 쌍장이 교차하면서 펑, 하는 소리와 험께 손노파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도 서서히 물러선다. 그러나 조금 물러서더니 이어서 두번째 장풍을 날렸다. 손노파는 일초를 되돌리며 쌍장을 날리고 나서 다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반 걸음 나서며 세번째 장풍을 날렸다. 세번째 장풍은 첫번째처럼 빨라서 손노파를 세 걸음이나 물러서게 했다. 적의 얼굴을 볼 사이도 없이 다시 네번째 장풍이 날아왔다. 손노파는 담장을 등진 채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게 됐다. 그는 오른쪽 손을 들어 손노파의 손과 맞서면서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 해약과 아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손노파가 고개를 들어 보니, 흰 수염에 흰 눈썹만 보일 뿐, 얼굴에는 자색빛이 감돌았다. 바로 며칠 전 연기로 옥봉을 몰아낸 학대통이었다. 장풍을 서로 교환하는 사이 손노파는 그의 내력이 매우 깊어서 자기보다 한참 위임을 알았다. 그가 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필시 당해 내지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기가 있어 죽어도 굴복하지 않을 듯 소리쳤다.
"아이를 찾으려면 먼저 이 할망구부터 죽여야 한다."
학대통은 그녀의 무공이 매우 깊음을 알고 서로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 손바닥에 힘을 모으고 공격하지는 않은 채 말했다.
"우리는 서로 수십 년을 이웃에 살았는데 왜 하필 어린애 하나때문에 그 동안의 화기를 깨야 한단 말이오 ?"
손노파는 냉소를 흘렸다.
"나는 원래 호의로 해약을 가지고 왔다. 제자에게 물어 봐라, 내 말이 거짓인가 ?"
학대통이 고개를 돌려 물으려고 하자, 손노파가 다리를 날려 그의 아랫부분을 걷어찼다. 손노파는 아무 흔적도 없이 은밀히 공격曰 몸도 움직이지 않았고, 옷깃 하나 펄럭이지 않았다. 학대통이 눈치를 챘지만 이미 상대의 발끝이 배에 닿으려고 했다. 순간적으로 뒤로 물

러서며, 위급한 김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장풍을 날렸다. 그는 손바닥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경력(力)을 넣었다. 이 공격에는 그가 수십 년을 수련한 전진파의 상승 현공(玄功)인 내공이 들어 있었다. 와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담장에 붙어 있던 진흙 덩어리가 기와와 함께 떨어졌다.

손노파는 입으로 선혈을 내뿜으며 서서히 주저앉다가 땅에 고꾸라졌다.

양과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녀의 몸에 엎드려 소리쳤다.

"사람을 죽이려면 나만 죽이면 될 것 아니야 ? 할머니를 죽인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손노파는 눈을 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야, 우리 함께 죽자꾸나."

양과는 두 손으로 그녀를 보호하며 학대통 등을 등지고 있어서 자기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세였다.

학대통은 단번의 공격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자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재차 공격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손노파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뒤 약을 주어 치료하려고 했으나 양과가 가로막고 있어 부드럽게 말했다.

"양과, 비켜라. 내가 할머니를 살펴보마."

양과는 그를 믿을 수가 없었다. 두 손에 힘을 단단히 주어 양과는 손노파를 안았다. 여러 번 말을 해도 양과가 말을 듣지 않자, 학대통은 초조해져서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양과는 큰소리로 외쳤다.

"더러운 도사들, 도둑놈들 ! 너희들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나 할머니는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 !"

한참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와 노부를 속이고도 무슨 영웅이란 말인가 ?"

목소리는 맑고도 차가왔다. 한기를 느끼며 학대통이 고개를 돌려 보니,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소녀가 대전 문간에 서 있었다. 흰 옷은 눈과 같은데, 쏘아보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다. 중양궁의 종소리가 울리면 10여 리 안팎의 모든 도사들이 빽빽이 늘어서 겹겹으로 수비를 하곤 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감쪽같이 들어와 한 사람도 놀라게 하지 않았으니 괴이한 일이었다. 학대통이 물었다.

"아가씨는 누구시오 ? 무슨 일로 오셨소 ?"

소녀는 그를 쏘아보더니 대답도 없이 손노파의 곁으로 갔다. 양과가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처량하게 말했다.

"용아가씨 ! 이 못된 도사가......하, 할......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 백의의 소녀는 바로 소용녀였다.

손노파가 양과를 데리고 묘를 떠나서 이곳에 들어와 싸우는 것들을 그녀는 뒤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다. 학대통이 살수를 뻗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형세가 위급해져 손노파가 마침내 중상을 입은 것을 알고 구출하려 하자 이미 늦은 것이다. 양과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손노파를 보호하는 모습을 그녀는 모두 똑똑히 보았다.

양과의 눈에 눈물이 그득한 것을 보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죽는 거란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손노파는 어릴 때부터 그녀를 키워서 둘은 모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소용녀의 18년 세월은 물결이 일지 않는 물과 같이 정지된 것이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내공을 수련하여 마음에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거의 없었따. 손노파가 중상을 입어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그녀는 당황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슬러하는 마음은 일순간 지나가고, 얼굴색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학대통은 양과가 용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눈앞의 미모의 소

녀가 바로 곽도왕자를 내쫓은 소용녀라는 것을 알았다. 곽도왕자가 뜻을 포기하고 달아났다는 말은 수개월 동안 강호에 떠 돌아, 그녀가 비록 종남산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명성은 무림에 쩌렁쩌렁하게 울려퍼지고 있었다.

소용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 보았다. 내공이 깊고 심신이 안정된 학대통을 제외한 나머지 도사들은 그녀의 추수(秋水)처럼 맑고 현빙(玄氷)처럼 차가운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소용녀는 몸을 굽혀 손노파를 살피며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

손노파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다.

"아가씨, 나는 일생 동안 아가씨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만을 요구했건만 끝내 들어주지 않는군요."

소용녀의 빼어난 아름다운 눈썹이 약간 일그러지며 말했다.

" 머닌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

손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과를 가리키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저애를 돌보란 거예요 ?"

손노파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저애의 장래를 돌봐 주세요. 조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말이에요. 허락하시겠어요 ?"

소용녀는 주저했다.

"평생 동안을 ?"

손노파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아가씨, 만약 이 늙은이가 죽지 않는다면 아가씨를 평생 동안 돌보았을 거예요. 아가씨가 어렸을 때, 밥 먹고 세수하고 잠자고 대소변을 치우고 하는 일들을 설마, ... 설마, 내가 돕지 않았다고는 입이 열이라도 말 못할 거예요...... 아가씨는...... 아가씨는...... 그런

데 내게 무슨 보답을 했나요 ?"

소용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요, 허락하겠어요."

****** 내공을 키우는 침상 ****** - 1

손노파의 못생기고 추한 얼굴에 한 줄기 미소가 감돌았다. 양과를 바라보고 무슨 말인가 하려는 듯했으나 숨이 점점 가빠온다.

양과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고 귀를 낮추어 그녀의 입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할머니,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 "

"더......, 더, 머릴 낮춰."

양과는 더욱 허리를 낮추어 귀를 그녀의 입술에 댔다. 손노파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용아가씨도 의지할 데가 없는 몸이니......너......너......도......"

여기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선혈을 뿜어내며 양과의 한쪽 얼굴과 가슴의 옷깃을 피로 물들인 채 눈을 감고 죽었다. 양과는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할머니, 할머니이...... !"

양과는 손노파의 주검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도사들도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학대통은 더욱 후회하며 손노파의 시신으로 다가가 예를 행하고 말했다.

"할머니, 내가 실수로 할머니를 다치게 한 것은 사실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과는 나에게 떨어져야 할 것인데 당신 목숨만 이렇게 홀연히 없어졌군요. 잘 가세요 !"

소용녀는 옆에 서서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다.

한참이 지나자 소용녀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한다.
"어쩔 테냐 ? 네 스스로 목을 베어 사죄하지 않고 내가 굳이 손을 놀리길 바라느냐 ?"
"뭐라구 ?"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면 네 스스로 목을 베어 사죄해야 하거늘, 여기 그득한 도사들의 목숨까지도 다 빼앗기길 바라느냐 ?"
학대통이 언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사들이 곁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때 대전에는 이미 3,40명의 도사들이 모여서 각기 한마디씩 했다.
"아가씨, 빨리 가시오. 당신을 해치지는 않을 테니......."
"어림도 없는 소리 !"
"조그만 여자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땅 넓은 줄도 모르는구나."
학대통은 도사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급히 손을 휘둘러 멈추게 했다.
소용녀는 도사들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품에서 비단과 같은 물건을 천천히 꺼내었다. 소용녀는 그것을 두 손에 나누어서 오른손으로 흰 비단을 왼손에 둘렀다. 본래 그것은 손수건이었다. 오른손에도 마저 손수건을 두른 뒤, 그녀가 말했다.
"노도사 ! 네가 삶을 탐내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하는 수 없다. 자, 검을 뽑아 덤벼라 !"
학대통은 처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잘못하여 손노파를 다치게 했지만 다시 너와 다투고 싶지 않다. 어서 양과를 데리고 나가거라."
소용녀가 비록 곽도왕자의 뒤를 이어 명성이 천하에 자자하지만 단순히 한때의 옥봉의 힘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방금 손노파의 목숨을 잃게 하여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편치 않는데, 이 아가씨마저 다치게 한다면, 쌍방 사문의 우의에 손실이 갈 일이 두려웠다.

소용녀는 여전히 그의 말을 묵살한 채 왼손을 가볍게 흔들더니 흰 비단 띠를 날려 곧바로 학대통의 면전을 쳤다. 이 초식은 전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촛불에 비단띠의 끝에 금색의 공이 달려 있는 것이 비쳤다.

학대통은 그녀의 공격이 생각보다 재빠르고 무기도 극히 괴이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나이가 많고 행동이 신중하여 비록 자신의 무공이 상대방보다 극히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녀와 대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재빨리 그녀의 비단띠에 몸을 왼쪽으로 조금 피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비단띠로 만든 소용녀의 무기는 공중에서도 방향을 돌릴 수 있어서 학대통이 왼쪽으로 뛰어 몸을 피하자, 이 비단띠도 함께 왼쪽으로 향하여 떵떵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구(金球)가 흔들리며 그의 얼굴의 영향(迎香) 승읍(承泣) 인중(人中)의 세 혈도를 때렸다. 이 세 혈도를 치는 손의 재빠름과 조준의 정확함은 가히 무림 중에서 으뜸가는 솜씨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땅, 땅, 하는 금구 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매우 괴이하여 마음과 혼을 흔드는 것 같았다.

학대통은 크게 놀라 급히 철판교(鐵板橋)로 몸을 뒤로 세우자 비단띠가 얼굴에서 몇 촌(寸)의 거리로 급히 스쳐갔다. 그는 비단띠의 금구가 이어서 날아올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무공도 보통이 아니어서 몸을 뒤로 세우는 동시에 전신을 옆으로 세 자(尺) 가량 옮긴 것이다. 이것은 소용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구가 땅을 쳤다. 금구로 혈을 찌르는 그녀의 공격이 계속 이어졌지만 학대통은 위급한 가운데에서도 교묘하게 몸을 피했다.

학대통의 자세는 곧았지만 얼굴은 이미 제 빛깔이 아니었다. 도사들은 모두 그의 제자는 아닌 사질(師姪)로서, 평소 그의 무공을 매우 흠모하던 터였다. 그가 비록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당할 때마다 매번 낭패스럽게 피하는 것을 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명의 도사가 각기 장검을 들고 소용녀를 공격했다.

"그러면 그렇지 ! 일찌감치 무기를 사용할 것이지......."

소용녀가 외치며 두 손을 휘둘렀다. 두 개의 흰 비단띠가 물뱀처럼 꾸불꾸불 공기를 가르더니 땅, 땅, 하는 소리에 이어서 다시 땅, 땅, 하는 소리와 함께 4 며의 도사의 팔에 있는 영도혈(靈道穴)이 모두 금구에 맞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네 자루의 장검이 땅에 떨어졌다. 이 선성탈인(先聲奪人)의 공격에 도사들은 모두 안색이 변하며 감히 다시 공격하는 자가 없었다.

학대통은 소용녀의 무예가 도사들과 비슷하려니 여겼다가 전혀 의외의 일이 벌어지자 적개심이 일어나 한 제자의 손에서 장검을 받아 쥐고 말했다.

"용아가씨의 수양이 이 정도라니 참으로 굉장하다 ! 자, 한 수 가르쳐 주실까 ?"

소용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쨍, 하는 소리와 함께 흰 비단띠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휘둘렀다.

선후배를 따지자면 학대통은 한 단계가 높으니 소용녀가 공격을 할 때에는 마땅히 선배를 존중하여 먼저 세 초를 양보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번에 살수를 뻗친다. 무림의 규율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대통은 생각했다.

(이 여자아이의 무공은 상당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구나. 적과 접전을 한 경력도 극히 적을 테니 비록 강하다고 해도 별 수 없지.)

왼손으로 칼끝을 문지르다가 오른손으로 장검을 휘둘러 그녀의 흰 비단띠를 쳤다.

도사들은 겹겹이 주위를 둘러싸고 정신을 모아 싸움을 관전한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백의의 소녀와 회색 도포의 도인만이 보인다. 띠가 나는 것은 무지개와 같고, 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다. 홍안의 소녀와 수염을 기른 도인은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치열하다.

학대통은 칼자루에 수십 년의 공력을 쌓아서 검법만으로 말하자면 전진교에서 3,4위에 들어갈 정도이다. 그러나 이 어린 아가씨와 수십 초를 엎치락뒤치락해도 유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소용녀의 두 가닥 비단띠는 마치 신령스러운 뱀처럼 마음대로 원을 그렸고, 게다가 2개의 금구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학대통은 오랫동안을 싸워도 처지지는 않았다. 그는 무림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누린 종장(宗匠)으로서 이 조그만 여자와 1백 초 이상을 싸우면 마침내 승리야 하겠지만 면목이 설 것 같지 않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검법이 돌연 변하여 빠른 것에서 느린 것으로 바뀐다. 초식은 비록 몇 배나 느려졌지만 검에서 나오는 힘은 몇 배나 커졌다. 처음에는 칼끝이 비단띠가 말아당기는 것을 피해야 했지만, 이제는 위력이 증가되어 비단띠를 자르려고 했다.

다시 몇 초를 공격하다가 쨍, 하는 소리를 내며 금구와 칼끝이 부딪쳤다. 학대통의 내력은 매우 깊고 두터워 금구를 되튕기어 소용녀의 면문으로 날렸다. 이 틈을 타 나아가 공격을 하자, 도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칼끝이 비단띠를 따라 나아가서 소용녀의 팔로 향했다. 그녀는 손을 풀어 비단띠를 놓아 버리지 않으면 팔에 칼을 맞게 되었다. 돌연 소용녀가 오른손을 재빨리 뒤집어 칼끝을 움켜 쥐자 뚝, 하면서 장검의 한가운데가 두 동강이 났다.

도사들이 일제히 놀라는 소리를 질렀다. 학대통이 뒤로 급히 물러나니 손에는 반 동강이 난 칼이 들려 있다. 그가 어찌 이 소녀의 손띠가 극히 섬세하고 질긴 백금사(白金絲)로 짠 것임을 알았겠는가 ? 이는 그녀의 사조(師祖)가 전한 이기로서 가볍고 부드러우며 연하고 얇지만 칼과 창이 능히 뚫지 못하고 어떤 보도이검(寶刀利劍)도 손상을 입히지 못하니, 칼끝이 그녀에게 잡히자 영락없이 절단된 것이다.

학대통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대패하고 말았다. 순간 그녀의 손띠에 이토록 교묘한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그녀가 정말로 칼과

창이 뚫지 못하는 상승의 내공을 연마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목소리를 떨며 그가 말했다.
"그래, 그래. 내가 졌소. 용아가씨 ! 아이를 데리고 가시오."
"할머니를 죽여 놓고 졌다는 말 한 마디면 끝날 줄 알았더냐 ?"
학대통은 하늘을 보고 하하, 크게 웃으며 참연(慘然)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 늙은 바보였다."
동강난 칼을 들어 목덜미로 가져갔다.
홀연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손이 떨렸다. 동전 하나가 담 밖에서 날아 들어와 부러진 칼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다. 그의내력이 어느 정도이면 수중의 칼을 떨어뜨린단 말인가 ! 학대통은 흠칫 놀라며 그의 사형 구처기가 온 것임을 알고 고개를 들고 말했다.
"구사형, 이 아우가 무능하여 우리 교를 욕보였으니 그냥 놔 두십시오."
담장 밖에서 한 사람이 한참을 크게 웃다가 말했다.
"승패는 언제나 있는 일, 싸움에 지면 목을 베어야 한다면 그대 사형도 목을 열 여덟 번이나 잘라야 했다. !"
소리에 이어 손에 장검을 든 구처기가 담장 밖에서 날아들었다.
그는 성격이 호방하여 번거로운 것을 아주 싫어했다. 장검을 빼어 들어 소용녀의 팔을 찌르며 말한다.
"전진 문하 구처기가 이웃분께 가르침을 받고 싶소."
"이 늙은 도사도 꽤 호쾌하군 !"
소용녀는 좌장을 뻗어 내며 구처기의 장검을 움켜쥐었다. 학대통이 외친다.
"사형, 조심하시오 !"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소용녀가 손에 힘을 주자 구처기도 칼끝으로 힘을 보내, 두 사람의 힘이 맞서는 순간 쨍그랑, 하면서 칼이 또 부러졌다. 그러나 소용녀도 손이 시려 오며 가슴이 슬슬 아파 왔다. 이 일초에 그녀는 구처기의 무공이 학대통보다 훨씬 위임을 알았다.

자신의 옥녀심경(玉女心經)이 아직 다 수련되지 않아 아무래도 그를 이기기는 힘들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부러진 검을 땅에 던지고 왼손으로 손노파의 시신을 끼고, 오른손으로는 양과를 안더니 훌쩍 뛰어서 몸을 공중을 솟구쳐 담장밖으로 날아갔다.

구처기 학대통 등은 그녀가 갑자기 경신술을 보이자 놀라 서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이미 그녀와 대결을 해 보아 그녀의 무공이 비록 정련하기는 하나 자기들에 비하면 아직 미치지 못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신수련은 일찌기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학대통이 장탄식을 내뱉았다.

"다 틀렸어, 이젠 다 틀렸어 !"

"학사제, 이토록 많은 해 동안 도법을 닦으면서 조그만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 우리 몇몇 사형과 사제들도 이번에 산서(山西)에 가서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

"아니 무슨 말씀을 ?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

"얘기를 하자면 길지, 우선 마사형부터 만나 보세."

원래 이막수는 강남 가흥에서 연이어 육립정 등을 해친 뒤, 산서로 멀리 달아나 진북(北)에서 또 몇 명의 호걸을 해쳤다. 끝내는 모두가 분노하여, 그곳 무림의 수령이 영웅첩(英雄帖)을 널리 돌려서 함께 일어나 공격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전진교도 영웅첩을 받았다. 당시 마옥과 구처기 등이 상의하여 모두가, 이막수가 비록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녀의 사조는 중양선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가능하면 중간에서 조정하여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자고 협의했다.

곧장 유처현(劉處玄)과 손불이(孫不二) 두 사람이 함께 북상했다. 그러나 이막수의 행적은 기괴하기 짝이 없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곤 했다. 두 사람은 오래 헤맸지만 그녀를 찾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녀에게 진남, 진북의 호걸이 몇 명 죽임을 당했다.

나중에 구처기와 왕처일은 함께 10 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시 그들을

도우러 떠났다. 이막수는 스스로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고수와는 상대하지 못함을 알았지만 말이 서로 격해지면서 구처기 왕처일 등과 하나씩 무예를 겨루기로 약속했다.
첫날 겨룬 자가 손불이였다. 이막수는 몰래 독수를 써서 빙백은침으로 그녀를 다치게 하고는 자신은 문으로 올라가 해약을 주는 선심을 써서 구처기 등이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자 전진파의 도인들은 그녀의 간특한 정에 이끌리게 되었으니, 규율상 그녀와 적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씁쓸하게 웃으며 실의에 빠져 돌아왔다.
다행히도 구처기는 왕처일 등과 태행산에 유람을 가지 않고 급히 산으로 먼저 되돌아와 마침 학대통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소용녀는 중양궁을 나온 뒤 곧 양과를 내려놓고 혼자 걷게 한 뒤 손노파의 시신을 안고서 활사인묘로 돌아왔다. 그녀는 손노파의 시신을 그녀가 평소에 자던 침상 위에 눕히고 침상 앞의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양과는 손노파의 시신에 매달려 훌쩍훌쩍 흐느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 소용녀가 말했다.
"사람은 모두 죽는 것,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우느냐 ? 네가 이렇게 울어도 할머니는 이제 몰라 !"
양과는 깜짝 놀라며 그녀의 이 말이 너무도 비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참으로 맞는 말이어서 마음이 더욱 아파 큰소리로 울어 댔다.
소용녀는 그러한 양과를 차갑게 바라보았는데, 얼굴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또 한참이 지나서야 말했다.
"우리 그녀를 묻어야겠다. 같이 가자."
말을 마친 소용녀는 손노파의 시신을 알고 일어서 방문을 나섰다. 양과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묘 안으로 좁다랗게 난 복도에는 한 줄기의 빛도 없어서 힘껏 두 눈을 떴지만 소용녀가 걸친 흰 옷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바짝 붙어서 뒤따라가며 반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리 구불 저리 구불, 동으로 서로 한

참을 가더니 육중한 돌문을 밀어젖혀 다. 그녀는 품에서 화약을 꺼내 불을 켜서 돌탁자 위에 있는 기름등에 붙였다. 양과는 사방을 둘러보고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텅 빈 거다란 대청에 다섯 개의 석관이 놓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두 개의 관은 이미 육중하게 닫혀 있고, 다른 세 개의 관은 반쯤 열려 있었는데 시체가 들어 있는지는 눈으로 보아 알 수 없었다.

소용녀는 오른쪽의 첫째 관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사 할머니께서 이곳에 잠들고 계시다 !"

둘째 관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부께서 이곳에 잠들고 계시다."

양과는 그녀가 세번째 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자 가슴이 쾅쾅 뛰었다. 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고 말할 줄 몰라, 아직 관 뚜껑이 닫히지 않은 것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만약에 시체가 안에 있다면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

"손할머니는 이곳에 잠들 거다."

하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빈 관임을 알고 양과는 가벼이 한숨을 토해 냈다. 그는 옆의 두 관을 보고 호기심이 일어나 물었다.

"저 두 관은요 ?"

"나의 사자(師자)인 이막수가 한 곳에서 잠들고 나머지는 내가 잠들 것이다."

양과는 멈칫하며 말했다.

"이막수......, 그 아가씨가 여기 돌아올 수 있나요 ?"

"사부께서 이렇게 안배를 해 놓으셨으니 그녀는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석관이 하나 부족하구나. 사부께서는 네가 올 줄을 모르셨기 때문이다."

양과는 놀라 펄쩍 뛰었다.

"나는 아니에요, 무서워요 !"

"나는 손할머니에게 너의 일생을 돌볼 것을 허락했다. 내가 이 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도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양과는 그녀가 죽고 사는 일의 크고 작음도 돌아보지 않고 쉽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는 나가게 하지 않으면 아가씨가 죽은 뒤에 나가지요."
 "내가 이제 너의 일생을 돌보아야 하니 너보다 먼저 죽을 수는 없지."
 "왜요 ? 아가씨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요."
 소용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 물론 너를 먼저죽일 것이다 !"
 양과는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그렇게는 못 할걸. 나도 다리가 붙어 있는데 도망치지도 못 할까봐 ?)
 소용녀는 세번째 석관 앞으로 가서 관 뚜껑을 열고 손노파의 시신을 넣으려고 했다. 양과는 차마 그냥 놔두지 못하여 소리쳤다.
 "할머니를 다시 한 번만 보게 해 주세요."
 소용녀는 그가 손노파와 알게 된 것이 겨우 하루인데 이토록 정이 든 것을 보고 귀찮아서 눈살을 찌푸리며 손노파의 시신을 안고 잠시 서 있었다. 양과는 흐릿한 등불 아래 손노파의 얼굴과 눈이 마치 살아 있는 듯하여 다시 울고 싶었다. 소용녀는 그를 힐끗 한 번 보더니 손노파의 시신을 석관에 넣었다. 손을 뻗어 관 뚜껑을 밀자 쿠웅, 하는 소리와 함께 관 뚜껑과 석관이 꽉 닫혀 봉해졌다.
 소용녀는 양과가 다시 울까 봐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가자 !"
 왼쪽 소매를 휘두르자 방 안에 있던 2 개의 기름등이 꺼지면서 온통 암흑이 되었다. 양과는 그녀가 자기를 묘실에 가두어 놓을까 봐 급히 함께 나왔다.
 묘 안에서는 밤낮의 구분이 없었다. 두 사람은 반나절을 소란을 피워 모두 피곤했다. 소용녀는 양과에게 손노파의 방에서 자도록 했다.

양과는 어려서부터 강호를 떠돌아다녀 황량한 고외의 오랜 묘에서도 밤을 지낸 적이 있어서 담이 매우 큰 편이었다. 그러나 묘 안에서 혼자 독방에서 자려니 석관 속의 죽은 사람이 생각나 말할 수 없이 무서웠다. 소용녀가 몇 번 말을 해도 그는 응하지 않았다. 소용녀가 말했다.

"내 말 안 들리니 ?"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못 자겠어요."

소용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면 나하고 함께 자자."

그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갔다.

그녀는 습관이 되어 평소에는 불을 켜지 않았지만 특별히 양과를 위하여 촛불을 하나 켰다. 양과는 그녀가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옷도 백설처럼 깨끗하여 먼지 하나 없는 것을 보고, 그녀의 방도 필시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찼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방에 들어서자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그녀의 방은 텅텅 비어 있어서 석관을 놓아 둔 묘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길다란 푸른 돌이 침상이었는데, 풀이 펼쳐져 있는 침상은 한 폭의 흰 헝겊으로 덮여 있었다. 그 외에 다른 물건은 더 없었다.

양과는 생각했다.

(나는 어디서 자지 ? 나보고 설마 바닥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용녀가 말했다.

"너는 내 침상에서 자라."

"아니에요, 나는 바닥에서 자도 괜찮아요."

소용녀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다.

"네가 이곳에 있으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들어야 한다.

네가 전진교 도사와 다툰 것은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었어. 흥, 그러나 내 말을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즉시 네 목숨을 빼앗겠다."

"그렇게 사납게 굴지 마세요,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

"너 또 입을 삐죽거릴래 ?"

양과는 그녀가 나이도 어리고 아름다운데 억지로 사나운 척하는 것을 보고, 혀를 쑥 내민 뒤 말을 하지 않았다. 소용녀는 이 것을 보고 말했다.

"왜 혀를 내미는 거야 ?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니 ?"

양과는 대답을 하지 않고 신을 벗은 뒤 곧 침상에 올라갔다.

침상에 올라가 자려다가 갑자기 뼈까지 서늘한 기분이 들어 크게 놀라서 맨발로 뛰어내려왔다. 소용녀는 그가 놀라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보고 가엾기도 했지만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니 ?"

양과는 그녀의 눈가에 웃음이 담긴 것을 보고 따라 웃으며 말했다.

"이 침상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이제 보니 날 놀린 거군요."

소용녀는 정색을 했다.

"누가 너를 놀린다고 그래 ? 이 침상은 원래 그 모양이니 어서 올라가 자."

말을 마친 뒤 문가에서 빗자루를 들었다.

"만약 자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 빗자루로 열 대를 때리겠다."

양과는 그녀의 말이 진담인 것을 알고 다시 침상에 올라갔다. 이번에는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놀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풀짚 밑에 두꺼운 얼음 을 놓아 둔 것만 같았다. 자려고 하면 할수록 추워서 온몸을 떨며 위아래의 이빨이 부딪쳐 저절로 딱딱 소리가 났다. 조금더 지나자 한기가 뼈를 파고들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소용녀에게 몸을 돌려 바라보니 그녀의 얼굴은 웃는 듯 아닌 듯, 갖가지 표정이 섞여 있었다. 은근히 화가 치밀어 이를 악물고 전력으로 몸 밑의 냉기를 몰아냈다.

소용녀는 줄 하나를 가지고 방 동쪽의 못에 단단히 묶어 매고 방을 가로질러 줄의 다른 쪽 끝을 서쪽 벽게 있는 못에 묶었는데, 높이는 사람 하나의 키 정도였다. 그녀는 가벼이 올라가 줄 위에 누워서 줄로 침상을 삼았다. 이어서 좌장을 날리자 촛불이 꺼졌다.

양과는 너무 탄복하여 말했다.

"아가씨, 내일 이 기술을 저에게도 가르쳐 줘요, 네 ?"

"이게 무슨 기술이란 말이냐 ? 네가 열심히만 배운다면 더 무시무시한 것들도 많이 가르쳐 줄 텐데."

양과는 소용녀가 진심으로 그를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자, 처음의 원망이 모두 거품처럼 사라지고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다.

"아가씨, 이토록 내게 잘 해 주는데 처음에 나는 모르고 원망했어요."

"내가 너를 내쫓도록 했으니 자연히 원망했겠지. 이상할 건 없어."

"혹시 이전의 사부처럼 쓸데없는 거나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요 ?"

소용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알아채고 물었다.

"추우냐 ?"

"예, 이 침상 밑에 뭘 넣어 두었길래 이토록 끔찍하게 춥지요 ?"

"잠자기가 싫어 ?"

"예, 나...... 나는 싫어요 !"

소용녀는 냉소했다.

"흥, 네가 잠을 자기가 싫다니, 온 천하의 무림의 고수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이 침상에서 자려고 하는지 모르는 구나."

"그건 생으로 죄를 받는 것 아네요 ?"

"흥, 내가 너를 아끼고 좋아하면 마땅히 생으로 죄를 받기도 해야 하는 것, 좋고 나쁨은 따지지 않고라도."

양과는 그녀의 말투에서 자기에게 이 차가운 침상에서 자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악의가 아님을 알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 이 차가운 침상이 무슨 좋은 점이 있나요 ? 있다면 내게

말해 주세요 !"
"네가 이 침상에서 평생토록 자 보면 그 좋은 점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눈을 감아라,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그녀의 옷깃이 가벼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몸을 돌리는 것 같았다. 허공의 줄 위에서 자면서 몸까지 돌리다니 !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두 마디는 매우 엄하여 양과는 감히 다시는 묻지를 못했다. 두 눈을 감고 자려고 했지만 몸 아래에서 한기가 스며 오고 손노파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다.
"아가씨,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소용녀는 호흡이 점차 느려지면서 이미 잠이 들었다. 그가 다시 살며시 두 번을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가 침상에서 내려가 자도 모르겠지 !)
곧장 조용히 침상에서 내려와 땅에 발을 디뎠다. 숨도 제대로 쉬지 않았다.
마악 땅에 내려서려는데 스윽,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소용녀가 이미 줄에서 내려와 그의 왼손을 잡아 등뒤에 붙이고 땅바닥에 눌렀다. 양과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소용녀는 빗자루를 들고 그의 어깨를 힘껏 내리쳤다. 양과는 이미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음을 알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처음 다섯 대는 너무도 아팠다. 하지만 여섯 대를 칠 때 소용녀는 이미 손길이 가벼워졌으며, 마지막 두 대는 그가 일어나지 못할까 봐 더욱 가볍게 때렸다. 열 대를 때린 뒤, 그를 들어 침상에 던지고 나서 꾸짖었다.
"또 내려오면 또 때릴 테다 !"
양과는 침상에 기대어 죽은 듯이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빗자루를 문가에 갖다 놓고 다시 잠을 자로 줄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소용녀는 그가 반드시 한바탕 울며 소란을 피울 줄 알았으나, 뜻밖에도 아무 소리가 없자 물었다.

"왜 아무 소리도 없니 ?"

"소리를 내서 좋을 것도 없잖아요 ? 때린다고 말하면 맞기만 기다려야 하고,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고요."

"너는 속으로 나를 욕하고 있구나."

"욕하지 않아요. 이전의 사부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걸요."

"왜 ?"

"나를 때리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애석하게 여기고 있어요. 때릴수록 가벼워지는 걸 아플까 봐 괜히 무서워했어요."

소용녀는 그가 심중의 일을 말하자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침 깜깜한 밤이라 양과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피, 누가 너를 아까와 해 ?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아프게 때릴 텐데."

양과는 그녀의 말투가 온화한 것을 보고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더 아프게 때려도 나는 좋아요."

"못난 놈아, 너는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때리느냐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은 조금도 겁나지 않아요. 오히려 신이 나요. 아가씨가 날 때리는 것은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때리고 욕하려고만 하고 공연히 눈알을 부라려요. 내가 크면 하나하나 갚아 줄 거예요."

"말해보아라. 도대체 누가 너를 미워하고 누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냐 ?"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한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셀 수도 없을 지경이에요 ! 나를 사랑한 사람은 죽은 엄마와 나의 의부인 곽정 백부, 그리고 손할머니와 바로 당신이지요."

소용녀는 냉소했다.

"흥,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 손할머니가 너를 돌보라고 해서

돌보는 것뿐이야. 내가 너를 좋게 대하는 것을 잘못 보면 안 된다."
양과는 이미 차가움을 참을 수 없었는데 이 말을 듣고 머리에서 찬 물이 흐르는 듯했지만 꾹 참으며 물었다.
"내가 어디가 그렇게 틀려먹었길래 이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
"네가 좋고 나쁜 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 나도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나는 내 인생을 이미 이 무덤 속에서 보내기로 했으니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뿐이야."
"그게 뭐가 좋아요 ? 아가씨, 혹시 밖에 나가 본 적이 있어요 ?"
"나는 종남산을 내려가 본 적이 없어.밖에도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을 뿐인데 뭐가 좋단 말이냐 ?"
양과는 손뼉을 쳤다.
"아아, 어쩌면 그렇게 자기 혼자밖에 모르면서 살까 ? 성안의 형형색색의 물건들이야말로 정말 볼 만하죠 !"
일사천리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동분서주하며 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했다. 그는 말재주가 원래 뛰어난데다가 살을 붙이고 희귀하고 신기한 것만을 이야기하니 이야기 자체가 변화무쌍했다. 소용녀는 18 년 세월 동안, 종남산을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과장하며 살을 붙여도 그것을 진실로 믿었다. 다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나하고 같이 놀러 나가요, 어때요 ?"
"바보 같은 소리 ! 조사 할머니께서 명을 남기시기를, 이 활사인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종남산에서 한 발짝도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양과는 놀라서 펄쩍 뛰며 말했다.
"설마 나도 산을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
"물론 내려가지 못한다."
양과는 도리어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도화도는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섬인데도 내가 벗어났는데, 이 큰

묘가 어떻게 나를 가둔담 !)

"아가씨가 말한 이막수 아가씨가 사자(師자)라면 자연히 이 활사인 묘에서 산 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다시 종남산을 내려갔어요 ?"

"그녀는 우리 사부의 말을 듣지 않아 사부님께서 아내신 것이다."

양과는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런 규율이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어느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 아내도록 하면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하군 !)

그러나 이런 생각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자 양과는 잠시 몸의 추위를 잊었다. 그러나 입을 다무는 순간 전신이 다시 추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애원했다.

"아가씨, 좀 봐 주세요. 이 침상에서는 도저히 못 자겠어요."

"너는 전진교 사부와 다툴 때도 애원하는 말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더니 지금은 대체 어찌된 일이냐 ?"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누가 나를 안 좋게 대하면 그가 나를 때리더라도 한 마디도 물러서지 않아요. 나를 좋게 대한다면 나는 그를 위하여 죽는 것도 달게 여기는데 애원인들 못하겠어요 ?"

소용녀는 피, 하며 말했다.

"누가 너를 좋게 대한다더냐 ?"

소용녀는 어릴 때부터 사부와 손노파의 보살핌에서 자라 18 년 동안 두 노파와 짝이 되었었다. 두 사람은 비록 그녀에게 매우 잘 대해 주었지만 사부는 그녀에게 옥녀심경을 연마하기를 원했으므로 어릴 때부터 희로애락의 감정을 없애도록 했다. 그녀가 울거나 웃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엄하게 꾸짖었다. 손노파는 비록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수련을 감히 방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소용녀는 자연히 냉혹하

고 괴팍한 성격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양과가 이들에게 왔는데 마음이 불처럼 뜨겁고, 나이도 어리며 말과 행동거지가 두 노파와는 전연 달랐다. 소용녀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엉터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서도 재미가 있어 피곤함을 몰랐다. 그녀가 처음에 양과를 머물도록 한 것은 순전히 손노파의 마지막 한 마디의 부탁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양과가 잘 대해 준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자기도 분명히 그에게 괜찮게 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과는 그녀의 말에 전혀 노한 기색이 없음을 알고 크게 소리 질렀다.

"추워요, 추워요, 아가씨, 못 참겠어요 !"

사실 그의 몸이 춥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었다.

"소란 피우지 마. 내가 이 돌침상의내력을 설명해 줄께."

"좋아요, 소리 지르지 않을께요. 말해 주세요."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이 돌침상에서 자고 싶어한다. 이 침상은 아주 옛날에 차가운 옥[寒玉]으로 만든 것으로 상승의 내공을 수련하는데 매우 좋은 기구란다."

"그렇다면 이게 돌이 아니란 말예요 ?"

"너는 수많은 괴상한 것들을 보았다고 아까 말했는데 이렇게 차가운 돌을 본 적이 있니 ? 이것은 조사 할머니께서 칠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북극의 추운 곳에 가서 수백 장(丈)의 두터운 얼음에서 캐내 온 한옥이다. 이 옥침상에서 자면서 내공을 닦으면 일 년 동안 보통 십 년의 효과를 얻게 되지."

"아하 !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처음에 이 위에서 자면 그 추위를 도처히 참지 못하여 전신의 공력을 다 움직여 맞서야 하지만 오래오래 계속되면 자연히 습관이 되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수련을 하는 셈이 된다. 보통 사람이 내공을 수련하는 것은 가장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매일 몇 시간 동안은 잠을 자

야 한다. 내공의 수련은 하늘을 거슬러 기혈을 움직이는 것으로 평상
시와 다른 것이어서, 매번 잠을 잘 때마다 기혈은 다시 예전처럼 움직
이게 되어낮에 연마했던 것 중에 열에 아홉은 다시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 침상 위에서 자면 꿈속에서도 대낮과 같은 내공이 길러질
뿐 아니라 공력도 더욱 증가 되는 것이다."
양과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러면 눈이나 얼음 위에서 잠을 자도 좋은 점이 있습니까 ?"
"아니다. 눈이나 얼음은 몸의 열을 받으면 녹아서 물이 된다. 그러
나 이 한옥은 눈이나 얼음보다 몇 배나 더 차다. 이 한옥 침상은 또다
른 좋은 점이 있지. 내공을 수련할 때 가장 꺼려야 할 것이 불을 가까
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연마할 때는 거의 반의 정신을 불과
버티는 것에 허비한다. 그러나 이 한옥은 천하에서 지음지한(至陰至
寒)의 물건으로, 수도하는 사람이 그 위에 눕게 되면 마음의 불이 절
로 식어 버려서 무공의 연마에 온 정신을 쏟을 수가 있으니 어찌 보통
사람들이 연마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겠느냐 ?"
양과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가씨, 정말 너무도 훌륭히 대접해 주는 군요. 이 침상을 내게 빌
려주어 자도록 하니 이제 무씨 형제와 곽부 그 아이들은 두렵지 않아
요. 전진교의 조지경 그들의 무공 연마가 비록 오래되었지만 나도 쫓
아갈 수 있겠네요 ?"
소용녀는 차갑게 말했다.
"조사 할머니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있다. 묘 안에서 살면서는 심성
을 수양할 것이며 타인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그것이
야."
"그들이 이토록 우리를 모욕하고 할머니까지 죽였는데 설마 그냥 놔
두려는 것은 아니겠죠 ?"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것이다. 할머니가 학대통의 손에 죽지 않았
다면 다시 몇 년이 지나서 저절로 죽었을 것이다. 몇 년 더 살고 몇

년 덜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 원수를 갚고 원한을 설욕하는 말 따위는 이후로 다시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말아라."

양과는 이 말들이 비록 이치에는 맞지만 옳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즉시 반박할 말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 바로 이때 한기가 다시 스며들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 침상의 추위를 견뎌 내는지 말해 주마."

소용녀는 그에게 몇 가지 구결과 내공을 익히는 법문을 전해 주었다. 이는 그녀 일파의 입문 기본 수련이었다. 양과가 그대로 따라서 행하자 잠시 만에 한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 같았다. 내식(內息)이 세 번째 돌아가자 몸에 열까지 이는 듯하여 이제 추위는 걱정이 없었다. 도리어 침상에서 자는 것이 더욱 정신이 맑고 편안하게 느껴져 두 눈을 감고 혼미한 잠에 빠져 들었다. 반 시간 정도를 자면 열기가 사라져 침상의 한기 때문에 다시 잠을 깨서 그대로 따라 했다. 이렇게 깼다가는 자고 자다가는 깨면서 한밤을 보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는 조금도 피로하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도 내공은 이미 상당히 닦였던 것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양과는 그릇과 젓가락을 가지고 주방에 가서 깨끗이 씻고 대청으로 돌아왔다. 소용녀가 말했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부로 모시겠다면 평생 동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만약에 나를 사부로 모시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여전히 무공을 가르치겠지만, 네가 앞으로 나보다 뛰어나면 무공을 믿고 이 활사인묘를 부술 것이 아니냐 ?"

양과는 조금도 생각할 것 없이 말했다.

"당연히 사부로 모셔야지요. 나에게 설사 무예를 조금도 전수해 주지 않더라도 당신의 말을 들어야지요."

"무엇 때문에 ?"

"아가씨, 마음속으로는 내게 잘 대해 주고 있는 것을 설마 내가 모를 줄 알아요 ?"

소용녀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 주든 다시는 그런 얘기를 입에 담지 말아라. 네가 이미 사부로 모시기로 결심을 했다면 후당에 가서 예를 행하자."
양과는 그녀를 따라 후당으로 갔다. 후당 안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물건이라고는 두 벽에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는 것 뿐이었다.
서쪽 벽에는 두 아가씨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25,6 세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14,5 세로 머리를 땋고 손에는 거울을 들고 옆에서 시중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의 거울에는 나이 많은 여인의 극히 아름다운 얼굴이 담겨 있었다. 빼어난 눈썹에, 눈에는 은은하게 살기를 띠고 있었다.
양과는 몇 번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경외(敬畏)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소용녀는 그 연장의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조사 할머니시다 ! 머리를 숙여라 !"
"조사 할머니가 어찌 이토록 젊지요 ?"
"그림을 그릴 때는 젊었었지, 나중에는 늙게 되셨지만."
양과는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그림을 그릴 때는 젊었고, 나중에는 늙게 되셨다고 ?)
이 두 말이 너무도 처량한 느낌을 불러일으켜 그 그림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어뜨렸다.
소용녀는 그의 심정도 모르는 듯 머리를 땋아 묶은 소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나의 사부시다. 빨리 고개를 숙여라."
그림을 보니 소녀는 천진난만하고 얼굴에는 치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나중에 소용녀의 사부가 되었는지 도무지 상상히 되지 않았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 무릎을 꿇고 그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소용녀는 그가 일어서기를 기다렸다가 동쪽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도인에게 침을 뱉아라 !"
그림의 도인은 키가 크고 허리에는 장검을 차고 있었으며 오른손 식지는 동북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이자는 누구예요 ? 왜 그에게 침을 뱉나요 ?"
"이자는 전진교 교주 왕중양이다. 우리 문중에 규율이 있는데 조사 할머니께 절을 한 뒤에는 반드시 그에게 침을 뱉아야 한다."
양과는 크게 기뻐했다. 그는 전진교를 너무 미워하여 분문의 규율이 꽤 묘하다고 느끼면서도 침을 입안 가득 모아 왕중양의 화상에 뱉았다. 한 번으로 부족하여 다시 침을 뱉고 또 뱉으려고 하자 소용녀가 말했다.
"됐어 !"
"우리 조사 할머니는 왕중양을 매우 미워하셨나 보죠 ?"
"그래 !"
"그럼 나도 그를 미워해요. 왜 그의 그림을 떼어 버리지 않고 이곳에 남겨 두었어요 ?"
"나도 몰라. 단지 사부와 손할머니가 함께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천하의 남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구나."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가 매서워지더니 다시 말했다.
"이후로 네가 커서 못된 짓을 하면 내가 봐 줄 것 같으냐 ?"
"당연히 봐 주겠죠."
소용녀는 위엄을 세워 그에게 주의를 주려고 한 것인데 전혀 뜻밖에도 이런 대꾸가 나오자 놀라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소리쳤다.
"빨리 사부에게 절을 해라 !"
"사부님께는 당연히 절을 해야지요. 하지만 먼저 내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하지 않겠어요."

소용녀는 생각했다.

(손할머니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오면 오직 사부가 제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자가 사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치인가 ?)

그녀는 성질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 어디 들어보자."

"나는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사부로 여기고 당신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무슨 말을 해도 따르겠어요. 하지만 사부라고 부르지는 않겠어요. 그냥 아가씨라고 부르겠어요."

소용녀는 또 어리둥절했다.

"그건 또 무슨 이유야 ?"

"나는 전진교의 그 더러운 도사에게 사부라고 불렀는데 그는 나를 못되게 대했어요. 나는 꿈속에서도 지금 사부를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어요. 사부를 욕하면 당신까지 포함되잖아요."

소용녀는 아연실색하며 이 아이의 생각이 재미있게 여겨졌다.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

양과는 즉시 공경하는 표시로 무릎을 꿇고 소용녀를 향하여 통, 통, 통, 8번 고개를 땅에 부딪치고 나서 말했다.

"제자 양과는 오늘로 아가씨를 스승으로 섬기겠습니다. 이후로 양과는 영원히 아가씨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아가씨가 위험을 당하면 양과는 목숨을 버리고라도 아가씨를 보호할 것이며, 못된 자가 아가씨를 속이고 모욕을 주면 양과는 반드시 그자를 죽이겠습니다."

사실 이때 소용녀의 무공이 그에 비하여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양과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을 보고 가슴에서 남자로서 여자를 보호하고 싶은 기개가 뭉클하여, 갈수록 감정이 격해졌다. 소용녀는 그가 간절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양과가 매우 신중하다고는 느꼈지만 감동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양과는 머리를 다 조아리고 몸을 일으켰다.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이 가득했다.

"뭐가 그리 신이 나느냐 ? 나의 능력으로는 저 전진교의 노도사 구처기를 이기지 못하고 더구나 너의 곽숙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아가씨는 제게 무공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사실 무공을 배워도 아무 쓸 데가 없어. 이 묘 안에서는 별 일이라는 게 없으니 나는 다만 너를 가르치기만 하겠다."

"아가씨, 우리 일파는 뭐라고 부르죠 ?"

"조사 할머니가 이 활사인묘에 들어온 이래로 무림의 인물과 왕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파는 이름이 없다. 나중에 이사자가 강호로 나간 뒤로 사람들은 고묘파(古墓派) 제자라고 해서 우리도 <고묘파>라고 한단다 !"

"고묘파 ? 썩 좋은 이름은 아닌데요 !"

그가 막 입문하자마자 본문의 이름을 들먹이자 소용녀도 의외였다.

"이름이 좋건 나쁘건 무슨 상관이야 ?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잠깐 나갔다 오마."

양과는 자기 혼자서 이 묘에 외로이 남겨질 것을 생각하자 너무나 무서워 서둘러 말했다.

"아가씨, 나도 같이 갈래요."

소용녀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너는 방금 영원히 내 말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 나의 첫째 말도 듣지 않는단 말이냐 ?"

"무서워요."

"남자 대장부가 뭐가 무서워 ? 내가 못된 놈을 공격하는 걸 돕겠단 말이냐 ?"

양과는 생각을 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그럼 빨리 돌아오세요."

소용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것도 알 수 없어 ! 제 시간에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해 ?"

"무얼 잡아요 ?"

소용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즉시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 묘 안에서는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양과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누구를 잡으러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종남산을 내려갈 수가 없으므로 필시 전진교의 도인을 잡으러 가는 것 같았다. 누구를 잡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잡아오면 한바탕 요절을 낼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즐거웠다.

그러나 아가씨가 혼자의 몸이라서 별 일이 없었으면 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대청을 나섰다. 마루를 따라 서쪽으로 10 여 보를 못 가서 눈앞이 온통 칠흑 같았다. 그는 미로인 듯하여 담벽을 더듬어 천천히 되돌아왔다. 20 보 이상을 걸었는데도 대청의 등불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놀라 걸음을 빨리 했다. 한 번 길을 잘못 들자 더욱 어지러워지기만 할 뿐이었다. 걸을수록 걸음을 빨리 하다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부딪쳤다. 어두운 중에서 가는 곳마다 갈림길이어서 영영 대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아가씨, 아가씨, 빨리 와서 구해 줘요 !"

묘도(墓道)에서 메아리만이 전해 오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한참을 헤매다가 땅이 축축함을 느꼈다. 발을 드니 신발에 진흙이 묻어 나왔다. 이곳은 묘도가 아니라 묘도로 통하는 땅 속의 다른 길인 듯했다. 그는 더욱 무서웠다.

(만약 내가 묘 안의 미로에 있다면 아가씨가 나를 찾아낼 텐데. 지금은 이곳까지 와 버렸으니 나를 찾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매우 상심할 것 아니겠어 ? 큰일났구나 !)

감히 더 걷지를 못하고 두 손으로 돌을 더듬어 몸을 기대고는 멍하니 앉았다. 목놓아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홀연 은은하게 <과아야, 과아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는 뛸 듯이 기뻐하며 급히 뛰어 일어나 대답했다.

"아가씨, 여기 있어요 !"

그러나 <과아야, 과아야 !>하고 부르는 소리는 더욱 멀어져 갔다. 양과는 너무나 급하여 미친 듯 소리쳤다.

"나, 여기 있어요 !"

한참이 지나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돌연 귀가 서늘해지는 것 같더니 누군가가 귀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가 곧 기뻐하며 소리쳤다.

"아가씨, 여기 있었군요. 어째서 내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

"길을 잃었어요."

소용녀는 그의 팔을 잡고 갔다. 깜깜한 속에서도 그녀는 대낮처럼 이리저리 돌며 너무도 빨리 걸었다.

"아가씨, 어떻게 앞이 보이지요 ?"

"나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으니 빛이 필요없어."

양과는 한참 동안 놀라움과 후회가 교차되다가 구출되자 너무나도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잠깐 사이에 소용녀는 그를 데리고 다시 대청으로 돌아왔다. 양과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아가씨, 이제서야 정말 마음이 놓여요."

"뭐가 마음이 놓이니 ? 나는 언제나 너를 찾을 수가 있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아가씨가 내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네가 도망가면 나는 손할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

양과는 이 말을 듣고 무척 서운했다.

"아가씨, 잡아왔어요 ?"

"그래, 잡아왔지."
"왜 잡아왔지요 ?"
"너에게 무공을 연습시키려고. 자, 같이 가자 !"
양과는 생각했다.
(원래 아가씨는 도인을 잡아다가 나와 대결을 시키려고 했구나. 재미있는데....... 사부 조지경을 잡아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누굴 잡아 왔을까 ?)
소용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양과는 신이 났다.
소용녀는 몇 번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선문(扇門)을 열어 젖히고 석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등이 켜져 있었다. 석실은 이상하게 작아서 두 사람이 서자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다. 천정도 낮아서 소용녀가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였다. 양과는 잡아왔다는 도사가 보이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도사는요 ?"
"무슨 도사 말이냐 ?"
"누구를 잡아다가 내 무공 수련을 돕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
"누가 사람이라고 했니 ? 여기 있다."
소용녀는 몸을 굽혀 석실 구석에 있는 자루를 들었다. 주둥이를 묶은 끈을 풀어 자루를 뒤집자 세 마리의 참새가 날아올랐다. 양과는 무척 이상하게 생각됐다.
(이제 보니 아가씨는 참새를 잡으러 나갔었구나 !)
"세 마리 참새를 잡아서 내게 가져오너라. 털 하나 발톱 하나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좋아요 !"
양과는 급히 대들어 참새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참새는 요리조리 뛰고 날아다녀서 양과는 숨을 헉헉거리고 이마에 땀이 잔뜩 흘렀지만 참새를 잡기는 고사하고 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렇게도 못 잡고 쩔쩔매니 내가 방법을 알려 주마."

소용녀는 높이 날았다가 낮게 대들고, 손을 휘둘러 나꿔채는 법문을 양과에게 가르쳤다. 양과는 그녀가 참새 잡는 것을 통하여 그에게 무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기억했다. 아무리 영리한 양과이지만 쉽게 되지가 않았다. 소용녀는 그가 조그만 방에서 혼자 연습을 하도록 남겨 두고 문을 나섰다.

이날 양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저녁을 먹은 뒤, 한옥 침상에서 내공을 연마했다. 둘째 날 다시 참새를 잡을 때는 더 높이 뛰어오르고 손놀림도 빨라졌다. 다섯째 날에야 마침내 그는 한 마리의 참새를 잡았다.

양과는 너무도 기뻐서 소용녀에게 급히 뛰어가 알렸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대견하게 여기지 않는 듯 차갑게 말했다.

"한 마리가 무슨 소용이야 ? 세 마리를 다 잡아야 한다."

(이제 이미 한 마리를 잡았으니 나머지 두 마리를 잡기야 뭐 어려울까 ?)

하지만 양과의 예상은 빗나갔다. 다시 이틀이 가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소용녀는 참새들이 피로하여 기진맥진하자 곡식을 배불리 먹여 묘에서 내보내고, 다시 다른 참새 세 마리를 잡아다가 연습시켰다. 8일째가 되어서야 양과는 단숨에 세 마리의 참새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소용녀가 말했다.

"오늘은 중양궁에 가야 한다."

양과는 놀랐다.

"무엇 때문에요 ?"

소용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묘문을 나섰다. 양과는 7일 동안햇빛을 보지 못해 잠깐 동안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윽고 중양궁 앞에 이르렀다. 양과는 마음이 떨려 계속 소용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별 일 아니라는 듯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지경, 빨리 나와라."
둘이 궁 앞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이미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
소용녀의 부르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궁 안에서 수십 명의 도사가 뛰어나왔다. 두 명의 작은 도사가 양쪽에서 조지경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초췌하고 두 눈은 푹 꺼져서 이미 혼자서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도사들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일제히 손을 칼자루에 갖다 대고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 꽃밭의 옥녀심경(玉女心經) *****

소용녀는 품속에서 사기병을 꺼내어 양과의 손에 건네 주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벌의 독을 치료하는 밀장(漿)인데, 조지경에게 갖다 주어라."
양과는 조지경을 보는 순간 울화가 치밀었으나 소용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 밀장을 조지경의 발 아래에 내동댕이쳤다.
도사들은 소용녀가 다시 궁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빌미를 잡아서 손노파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으로 알았다. 그들은 한편으로 경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옥 구처기 등 사부들에게 알렸으나, 그녀가 해독의 밀장을 가져오자 매우 놀라서 할 말을 잊었다.
양과는 사기병을 내던지고 멸시의 눈으로 조지경을 노려본 뒤 몸을 돌려서 돌아왔다.
녹청독은 양과를 보고는 즉시 화가 치밀어 일갈했다.
"이놈, 스승을 배반하고 어쩐 일로 다시 왔느냐 ?"
그는 전에 양과의 합마공 때문에 기절해서 잠시 숨이 막혔으나, 양과의 공력이 일천하여 비교적 상처가 가벼웠는데다 구처기가 즉시 달

려와서 안마를 하고 며칠간 잘 치료하여 이때는 완쾌되어 전의 일을 복수하려고 했다.
 소용녀가 말했다.
 "과아야, 오늘은 상대하지 말아라."
 양과는 몇 걸음 뒤에서 들리는 소용녀의 목소리를 듣고는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어서 쏴아, 하는 장풍과 함께 누군가 자기의 뒷덜미를 잡았다. 그는 활사인묘 속에서 8일간을 한옥상(寒玉床) 위에서 자고, 참새 잡는 법을 단련한 터였다. 소용녀가 비록 그에게 참새 잡는 법을 약간 전수해 주었고, 그것이 고묘파(古墓派) 경공의 진수이긴 했지만 그때 양과의 공부는 이전과 별 다름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섰다. 녹청독의 손이 그를막 잡으려 할 때까겸榴잔비로소 몸을 숙㈕ 피하며 이때를 이용하여 그의 허리띠에 손을
뻗었다. 녹청독은 이처럼 짧은 시간에 그의 경공이 크게 진보한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다. 화가 난 김에 손을 뻗어 적을 가벼이 보고 공격했으나 명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 다시 그에게 허리띠를 잡히자, 즉시 중심을 잃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졌다.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양과는 재빨리 소용녀의 곁으로 갔다. 녹청독이 화가 나서 큰소리를 지르며 다시 덤벼들려고 하자, 도사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황망히 뛰어나오며 그의 팔을 잡고는 한쪽 옆으로 끌고 갔다. 녹청독이 그에게 잡히자 곧 반신이 마비가 되어, 고개를 들어 보니 그의 사숙(師叔)인 윤지평이 아닌가. 그는 목구멍에까지 올라왔던 욕설을 어쩔 수가 없었다.
 윤지평은 낭랑하게 말했다.
 "용소저께서 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몸을 숙여 인사를 했다. 소용녀는 아무 말도 없이 양과의 손을 끌었다.
 "자, 가자."

윤지평이 다시 말한다.

"용소저, 양과는 우리 전진교의 제자인데 당신이 강제로 데려가니 어찌된 일입니까 ?"

소용녀는 조금 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귀찮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하더니 양과의 팔을 끌고는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졌다.

윤지평 조지경 등 여러 도사들은 기가 막혀서 서로 얼굴만 멀뚱이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묘실로 들어갔다.

소용녀가 말했다.

"과아야, 너의 내공은 다소 진보했으나 그 뚱뚱한 도사를 때린 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 뚱보 도사놈이 전에 나를 아프게 때렸는데 오늘 그를 충분히 때리지 못해서 분합니다. 어째서 그를 때리면 안됩니까 ?"

소용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타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이 쓰러져서는 안 되고, 그와 상대하지 않고서 그가 스스로 하늘을 보고 땅에 쓰러지도록 해야 했다."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소리친다.

"그것 참 재미있겠는데요.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소용녀가 말했다.

"내가 너고, 네가 뚱보도사가 되어서 나를 덮쳐 보아라."

그리고는 앞으로 천천히 나온다.

양과는 히히, 웃으며 손을 뻗어서 그녀를 잡으려 했다. 소용녀는 뒤쪽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양과가 빨리 뛰면 그녀의 걸음도 빨라지고, 양과가 천천히 달리면 그녀도 천천히 달려서 항시 그와 3 보의 거리를 유지하였다.

양과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외쳤다.

"잡고야 말 테다 !"

하면서 몸을 앞으로 던졌으나 소용녀는 문득 피하지 않았다. 양과는 두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려 했으나 두 팔이 채 만나기도 전에 소용녀는 뒤로 미끄러지듯 그의 품속을 벗어났다. 양과는 급하게 잡으려 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운이 반대로 작용하여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소용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양과는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가씨의 기술은 늘 놀라와요. 어찌 신법이 그렇게 빠릅니까 ?"

"네가 일 년 더 참새를 잡으면 할 수 있을 거야."

양과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이미 잡을 수 있는데요."

소용녀는 비웃는 듯 말했다.

"흥,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 우리 고묘파의 무예를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냐 ! 자, 나와 함께 가자."

그녀는 그를 데리고 다른 하나의 석실로 들어갔다. 이 석실은 이전에 참새를 잡던 석실보다 약 두 배 정도 컸는데, 그 안에 이미 6 마리의 참새가 있었다. 장소가 이처럼 크니 자연히 참새를 잡는 일도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소용녀가 제종술(提縱術)과 금나공부(擒拿工夫)를 조금 가르쳐 주어 8,9 일 후에는 양과도 능히 단숨에 6 마리의 참새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이후 석실은 점점 커져 갔으며 참새의 수자 또한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대청에서 81 마리의 참새를 잡았다. 고묘파의 심법(心法)은 확실히 신묘하고, 한옥상은 내공의 수련에 크게 도움이 되어 단지 석 달의 수련으로 81 마리의 참새를 양과는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용녀는 그의 진보가 빠른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이제부터는 무덤 밖으로 나가서 잡아 보자."

양과는 무덤 속에서 석 달 가량이나 살았기 때문에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 말을 듣자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였다.

소용녀가 말했다.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 ? 이 수련은 매우 엄격하여 여든 한 마리의 참새는 한 마리도 날아갈 수 없다."
두 사람이 무덤 밖으로 나오자 때마침 춘삼월이라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양과가 심호흡을 몇 번 하자 꽃향기와 풀냄새가 가슴속으로 가득 들어온다. 양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소용녀가 자루의 주둥이를 열자 참새가 어지럽게 날아올랐다. 그녀는 섬섬옥수를 휘둘러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날아오른 참새 몇 마리를 가로막았다. 참새 무리는 자유롭게 날아올랐는데 어째서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지 못하는가 ? 이상한 일이었다. 참새들은 그녀의 가슴 세 척 안에서 날아다녔다.
그녀의 두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마치 두 손이 수천, 수만 개처럼 보여서 81 마리의 참새는 아무리 날개짓을 계속해도 그녀의 팔이 그리는 허공의 원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양과는 이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래지며 놀랍기도 하고 또한 기뻐서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다.
(아가씨가 저 신묘한 장법을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잘 기억해 두어야지.)
그녀의 손동작을 유심히 살피자 이상하게도 한 동작 한 동작이 뚜렷하게 단락을 이루고 있었다. 양과가 계속 유심히 지켜보니 비록 확실하지는 않으나 장법에 미묘한 구석이 있었으나 그것을 처음 보는 양과에게는 아무래도 괴이한 수법이 아닐 수 없었다.
소용녀가 두 손을 각각 등 뒤로 하자 참새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분분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소용녀가 긴 소매를 휘둘러서 바람을 일으키가 거의 모든 참새가 떨어지면서 시끄럽게 지절거렸는데, 겨우 한 마리만 날개치며 날아갔다.
양과는 크게 기뻐하며 그녀의 옷소매를 잡고 중얼거렸다.

"곽아저씨도 아마 이러한 장법은 쓰지 못할 것이다 !"
소용녀가 말했다.
"나는 이 장법을 천라지망세(天羅地網勢)라 이름붙였다. 이것은 고묘파 입문 무공의 입문수련이다. 잘 배우도록 해라."
그녀는 그에게 곧 10여 동작을 가르쳤다. 10여 일 내에 양과는 81동작의 천라지망세를 완전히 배우고 연습도 충분히 했다.
어느날, 소용녀는 한 마리의 참새를 손에 쥐더니 그에게 장법을 써서 막으라고 했다. 처음에는 두세 번 막았으나 참새는 그의 손바닥 가운데의 빈틈으로 날아가 버렸다. 소용녀는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희디흰 손을 휘둘러서 참새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 양과는 계속해서 장법을 전개했지만 동작이 충분히 민첩하지 못하고 시각도 정확하지 않아서 단지 두세 동작 뒤에는 다시 참새가 날아갔다. 소용녀는 다시 막아서 그가 계속 연습하도록 했다.
이처럼 쉬지 않고 연습을 거듭하는 사이에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양과는 원래 총명한데다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참새의 수자는 점차 증가되어서 가을이 되었을 때는 천라지망세에 거의 익숙해져서, 장법을 전개하여 81마리의 참새 전부를 품안에 넣을 수 있었다. 우연하게 몇 마리가 빠져 나가기도 했는데, 그것은 공력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날 소용녀가 말했다.
"너는 이미 이 장법을 완전히 연습했다. 다시 그 뚱보도사와 만나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를 몇 번이고 땅바닥에 나뒹굴게 할 수 있다."
양과가 묻는다.
"만약 조지경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요 ?"
소용녀는 대답을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손노파와 싸우는 조지경의 동작을 보건대, 만약 그가 독벌에게 쏘이지만 않았다면 손노파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너의 무공으

로는 아직 그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양과는 그녀가 대답하지 않는 의미를 알고는 말했다.

"지금 내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능히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씨, 우리 고묘파의 무공이 전진교보다 확실히 강하지 않습니까 ? 대답해 주십시오."

소용녀는 고개를 들어 석실 꼭대기의 석판을 보면서 말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단지 너와 나 두 사람만이 아는 일이다. 지난번 나와 전진교의 구씨라는 고수와 한판 붙었는데, 나의 무공은 그를 따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고묘파가 전진교만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아직 우리 고묘파의 최고로 오묘한 공부를 완전하게 단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양과는 늘 소용녀가 구처기에게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근심했던 터라 이 소리를 듣자 곧바로 물었다.

"아가씨, 그것이 어떤 공부인가요 ? 단련하기 어려운가요 ? 어디서부터 단련하는 건지요 ?"

"내가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면 너는 비로소 우리 파의 유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스승으로 모시기 이전에 나는 일찌기 조사 할머니를 모셨다. 그녀의 성은 임(林)이고 이름은 조영(朝英)으로, 수십 년 전 무림에서 조사 할머니와 왕중양(王重陽) 그 두 사람의 무공이 가장 높았지. 본래 두 사람의 무공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후일 왕중양이 금병(金兵)에 대항하는 의병을 조직하여 밤낮으로 바빴는데, 조사 할머니는 오히려 그때 무예를 닦는 데 혼힘을 기울여서 마침내는 그보다 한 수 위가 되었지. 조사 할머니는 무림의 속사(俗事)를 묻지 않고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강호에서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지. 후에 왕중양은 의거에 실패하자 분하여 이곳 활사인묘에 은거하면서 오로지 무학을 연구하면서 나날을 소일하였다. 조사 할머니는 이때 마음이 불편하

고 연달아 큰병이 났어. 왕중양이 두 번이나 산을 내려왔지만, 조사 할머니는 공교롭게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최후에는 누구의 무술이 더 뛰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왕중양은 마침내 조사 할머니에게 와서 이 고묘를 그녀에게 주었지. 자, 나는 이제 너를 데리고 이 두 선배들이 남기신 유적을 보여주마."

양과는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원래 이 고묘는 조사 할머니가 왕중양의 손으로부터 빼앗은 것이군요."

소용녀는 가볍게 웃으면서 그를 데리고 한 간의 석실에 이르렀다.
양과는 이 석실의 모습이 기괴하여 앞쪽이 좁고 뒤쪽이 넓어서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반원이고 서쪽은 삼각형인것을 보고는 물었다.

"아가씨. 이 석실은 어째서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소용녀가 말했다.

"이곳은 왕중양이 무학을 연마하던 곳으로 앞의 좁은 곳은 손을, 뒤의 넓은 곳은 주먹을, 동쪽은 칼을, 서쪽은 표(표)를 연습하던 곳이란다."

양과는 석실 안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소용녀는 손을 뻗어서 위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왕중양의 무공의 정수는 모두 저기에 있지."

양과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석실 꼭대기의 석판 위에 가득하게 새겨진 화문(花紋) 부호가 보인다. 모두가 날카로운 도구로 새겨서 혹은 깊고 혹은 얕아서 특별한 규칙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누구가 순식간에 어찌 그 중에서 왕중양 무공의 오묘한 정수를 그 화문에서 알아 볼 수 있을 것인가 !

소용녀는 동쪽으로 가서 손을 뻗어 반원의 호(弧)를 몇 번 밀쳤다.
커다란 돌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동굴의 입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손에

촛불을 들고 양과를 데리고 들어갔다. 안쪽에 다시 석실이 있었는데, 이전의 것과는 구조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 뒤쪽이 좁고 앞쪽이 넓으며, 서쪽이 둥글고 동쪽에 각이 졌다. 양과가 고개를 들자, 거기에도 석실 꼭대기에 무수한 부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소용녀가 말했다.
 "이곳은 조사 할머니의 무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곳이다. 사부가 고묘를 차지했지만 만약 진실로 무공을 논한다면 확실히 왕중양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사부는 고묘에 옮겨 온 후, 우선 왕중양이 남긴 무공을 간파하고, 다시 깊은 생각 끝에 그의 모든 무공을 능가하는 방법을 만들어 냈지. 그것을 모두 이곳에 새겨 놓은 것이다."
 양과는 기뻐서 소리쳤다.
 "그것 참 희한하구나 ! 구처기 학대통 그들의 무공이 높지만 항상 왕중양을 이기지 못했다는데, 용아가씨가 만약 조사 할머니의 무공을 배운다면 능히그들을 이길 수 있다니......."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심에 찬 얼굴로 말한다.
 "그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으나, 단지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야."
 양과가 분연히 말했다.
 "내가 아가씨를 도와 드리지요 !"
 소용녀는 그를 한 눈으로 힐끗 보면서 낮게 말했다.
 "하지만 너의 무예가 충분하지 못하니 애석하구나."
 양과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다.
 소용녀가 다시 말을 잇는다.
 "조사 할머니는 이 무공을 옥녀심경(玉女心經)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연습하여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조사 할머니와 내가 늘 함께 연습했지. 그러나 조사 할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서 나는 완전하게 연습을 할 수가 없었던 게야."
 양과는 부끄러움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밝게 말했다.

"나는 아가씨의 제자이니, 능히 함께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용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한번 해 보자. 제 1보는 네가 먼저 우리 고묘파의 여러 가지 무공을 연습하고, 제 2보는 전진파의 무공을 배우며, 제 3보는 전진파의 무공을 극복할 수 있는 옥녀심경을 단련하는 거다. 나는 사부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열 네 살이었지. 우린 고묘파의 수련은 이미 다 끝냈으나 전진파의 무공은 단지 몇 개를 연습하였으니 옥녀심경은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 제 1보는 너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제 2보, 3보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연습해야 할 거다."

그날부터 소용녀는 고묘파의 내공 권법 장법 병도 암기 등 모든 것을 차곡차곡 전수해 주었다.

이렇게 2년이 지나자 양과는 모든 것을 전수받게 되었다. 차가운 옥침상의 도움을 받아서 진보가 더욱 빨라졌으나 단지 공력이 일천할 뿐이었다. 고묘파의 무공은 여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스승과 제자 3대에 걸쳐서 모두 여자였기에 부드럽기는 했으나 경박한 구석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양과의 천성이 본래 가벼워서 이 무공의 성질이 그에게 잘 맞아떨어졌다.

소용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름다와졌다. 이때 양과도 이미 16세가 되어서 몸집도 커지고 음성이 변하여 수려한 소년으로서 성장해 결코 처음 고묘에 들어올 때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소용녀는 그와 항상 생활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아이처럼 대했다.

그러나 양과는 사부에 대하여 점점더 존경심이 일어 2년 동안에 조금도 그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소용녀가 막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눈치 빠른 그는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달려들어 일을 잘 처리했다. 그러나 소용녀의 차디찬 성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그를 대할 때 웃지도 않고 표정도 딱딱해서 조금도 가까운 사람 같은 정이 없었다. 양과는 그것이 그녀의 본성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소용녀는 때때로 거문고를 연주하곤 했는데 거문고의 음이 말할 수 없이 평화스럽고 담백했다.

양과는 그럴 때면 한쪽에 앉아서 조용히 듣곤 했다.

하루는 소용녀가 말했다.

"우리 고묘파의 무공은 네가 이미 다 배웠다. 내일부터 우리는 전진파의 무공을 연습하자. 전진파의 무예는 연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 사부님도 충분히 알지 못하였고 게다가 내가 배운 것도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연습해야 할 거야. 만약 내가 틀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라 !"

다음날 스승과 제자는 이상한 첫번째 석실에서 왕중양이 옛날에 석실 꼭대기에 새겨 놓은 문자 부호에 의해서 연습했다.

양과는 며칠을 연습하자, 이때는 그의 무학의 기본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때라 모든 것을 간파하여 진전이 매우 빨랐다. 10 여일이 지난 후 갑자기 이상하게 며칠 동안 진전이 없더니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소용녀와 그는 무술을 연구하면서 자꾸만 의문이 쌓였다. 양과는 짜증이 나서 심술을 부렸다.

소용녀가 말했다.

"내가 사부님과 함께 전진 무공을 연마한지 얼마 있다가 한 걸음의 진전도 어려울 때를 만났다. 이때에 조사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셔서, 더 이상 가르침을 청할 곳이 없게 되었지. 문경구결(文經口訣)을 모르니 상상할 방법도 없었어. 내가 일찌기 전진교에 가서 구결을 훔쳐오자고 말씀드렸다가 사부님에게 한바탕 훈계만 들었어. 이 수련은 여기에서 중단하자. 어쨋든간에 전진파 무공을 연습하지 않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너무 화를 내지 마라. 이 일은 간단하다. 우리가 몰래 가서 전진교의 도사를 붙잡아 와서는 그를 위협하여 입문구결을 전수 받으면 될 것이다. 자, 함께 가자."

이 한 마디가 양과를 일깨워서 갑자기 조지경이 전해 준 그의 전진

대도가(全眞大道歌)가 생각났다.

"대도는 처음에 구규(九竅)를 통하는데 구규는 원래 미려혈(尾閭穴)에 있다. 우선 용천(湧泉)에서 다리로 향하고 용천은 점차로 무릎을 향한다. 무릎을 지나서 천천히 미려에 이르고 니환(泥丸)에서 급회전한다. 금쇄(金鎖)를 뚫고서 작교(鵲橋)로 가고 12 중루(十二重樓)를 헤치고 궁실(宮室)로 내려간다......."

이처럼 양과는 몇 마디를 줄줄 외 댔다.

소용녀는세밀히 노래의 뜻을 듣고서는 말했다.

"듣자하니 이것은 확실히 전진파 무공의 요결(要訣)이구나. 네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니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 굳이 도사를 잡아 올 필요도 없겠다."

양과는 즉시 조지경이 전수해 준 구결을 암송해 갔다. 당시 조지경이 전하여 준 것은 확실히 전진파 최고 내공의 기본 비결이었다. 단지 용법을 배우지 못하여 <용천>, <12 중루>, <니환> 등의 명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냥 양과가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때 소용녀는 가일층 연구하여그 중의 핵심을 지적하여 양과는 즉시 명백하게 그 골자를 알 수 있었다.

수개월에 걸쳐서 두 사람은 왕중양이 석실 꼭대기에 남겨 놓은 무공의 정수를 거의 깨달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석실에서 검법을 끝낸 뒤 소용녀가 한탄하면서 말했다.

"처음에 나는 전진파의 무공을 깔보아서 전진파가 천하 무학의 정통으로 불리어도 실은 별 것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오늘에 이르러 나는 마침내 전진파의 심오함을 알게 되었다."

양과가 웃으면서 말한다.

"전진파의 무공이 비록 정밀하나 조사 할머니가 남기신 법문은 능히 전진파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용아가씨 !"

소용녀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들은 옥녀심경을 연습한다 !"

다음날부터 두 사람은 두번째 석실에 들어가서 석실 꼭대기에 씌어 진 부호에 의해서 무공을 연마했다. 이번의 수련은 전진파의 무공을 배울 때보다는 훨씬 쉬웠으니, 임조영이 만든 왕중양의 무공을 제압할 수 있는 법문은 본래 그녀의 무학에서 온 것이다.

수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옥녀심경의 외공단련을 끝냈다. 양과가 전진검법을 사용하면 소용녀는 옥녀검법으로 이것을 깨뜨리고, 소용녀가 전진검법을 사용하면 양과가 옥녀검법으로 제압했다. 이 옥녀검법은 과연 전진검법을 능가하여 한 동작 한 동작이 전진검법의 동작을 제압하고 기선을 장악하여, 전진검법이 아무리 빨리 변화를 해도 항상 옥녀검법의 제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외공을 끝내고, 이어서 내공을 연습하였다. 전진파의 내공은 크고 심오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용녀는 고개를 들고 석실 꼭대기의 부호를 아무말 없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수일간을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양과가 물었다.

"아가씨, 이 공부가 단련하기 그렇게 어려운가요 ?"

소용녀가 말했다.

"이전에 사부님은 옥녀심경의 내공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너와 함께 연습해야 하는데 네가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다."

양과는 크게 놀라면서 황망하게 물었다.

"어째서요 ?"

소용녀가 말했다.

"여자라면 괜찮을 텐데......."

양과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 남녀는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까 ?"

소용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같지 않아 ! 너는 저 꼭대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보아라."

양과가 그녀가 지적하는 곳을 쳐다보자 그곳에는 7,80 명의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모두가 여자처럼 생겼으며 자세도 모두가 같지 않고 온몸에서 가느다란 선이 몸 밖을 향해서 뻗어 나가고 있었다. 양과는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고 고개를 돌려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소용녀가 말했다.

"이것은 내공을 단련할 때 온몸에서 열기가 끓어올라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옷을 벗고 연습을 하여 열기를 즉시 발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잠시라도 이것을 지체하여 열기가 체내에 쌓이게 되면 적게는 중병을 얻고 크게는 생명을 잃게 되지."

양과가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옷을 벗고서 연습해야 하나요 ?"

"두 사람은 서로의 내력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너와 나는 남녀가 유별하니 의복을 벗고 상대를 하면 어찌 체통이 서겠느냐 ?"

양과는 지난 2 년 동안 전심으로 연습하여 사부와 남녀의 유별이 있는 것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부와 더불어 온 몸의 옷을 벗고 내력을 연습하는 일은 아무래도 마땅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용녀는 이때에 이미 스무 살을 넘겼으나 어려서부터 고묘에서 성장하여 세상 일은 거의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본문 수련의 요지가 오정육욕(五情六欲)을 극복하는 데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비록 젊은 남녀였으나 하나는 냉담하고 하나는 공손하여 결코 예를 범하는 일은 조금도 없었다. 옷을 벗고 내력을 연습하는 일을 논할 때에도 양과는 단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양과가 갑자기 소리쳤다.

"방법이 있습니다 ! 우리들이 한옥상 위에서 연습하면 어떻겠습니까 ?"

소용녀가 대답하였다.

"절대로 안 된다. 열기가 한옥상에 닿으면 얼마 못 가 너와 나는 모두 죽게 돼 !"

양과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다시 묻는다.

"어째서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연습해야 하는지요 ?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연습하고 내가 잘 모르는 곳에 이르면 다시 아가씨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

소용녀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안 된다. 내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시시각각 갈림길에 들어가서 만약 옆 사람이 도와 주지 않으면 반드시 곤란에 처하게 된다. 너는 나를 돕고 나는 너를 도와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야."

양과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옥녀심경의 내공은 과연 연습하기 어렵군요."

소용녀가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외공만 열심히 연습해도 능히 전진파의 고수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내공은 연습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

양과는 사부의 이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일에 신경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어느날 그는 수련을 마치고 식량으로 할 짐승을 잡는데, 노루 한 마리를 잡은 후에 다줌회색 토끼를 쫓았으나, 어찌나 빠른지 그의 경신술로도 단숨에 토끼를 따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어린 마음에 화가 나서 토끼와 경공을 시합하여 그놈을 무력하게 만들어 뛰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한 마리 토끼와 양과는 점점 멀어져서 토끼는 산허리를 돌자 갑자기 붉은꽃 숲 밑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 붉은꽃 숲은 겹겹층층이 길게 펴져 있었는데,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는 꽃숲을 빙빙 돌며 기다렸으나 토끼의 그림자는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 꽃숲이 마치 커다란 병풍 같았고 붉은 꽃과 푸른 가지가 정말로 보기가 좋았다. 사방은 수목의 그림자

가 드리워져 있어 말 그대로 천연의 화방수옥(花房樹屋)이었다. 양과는 기뻐하면서 급히 돌아가서는 소용녀를 데리고 왔다.

소용녀는 냉담하게 말했다.

"나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가 좋아하니 잠시 구경하기로 하자."

양과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가씨, 이곳은 정말로 우리가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아가씨는 이곳에, 저는 꽃숲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모두 옷을 벗어도 감히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으니 어찌 절묘하지 않습니까 ?"

소용녀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니 고요한 가운데 물소리만 들려올 뿐 인적이 없었다. 내공을 연습하기에는 매우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무에서 내려온 뒤 말했다.

"재수좋게 이곳을 네가 찾아냈으니 오늘 저녁부터 연습을 시작하자."

그날 밤 이경(二更)이 지나자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꽃숲 깊은 곳으로 갔다. 고요한 한밤중의 꽃향기는 더욱 농후하였다. 소용녀가 옥녀심경의 구결법문을 다시 한 번 연습하자 양과는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명확하게 한 뒤, 두 사람은 각각 꽃숲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양과는 왼팔로꽃숲을 고서 소용녀의 오른손을 잡아 누구든 위험한 상황에 이르면 서로 응답하기로 하였다.

저녁에는 연습하고 낮에는 무덤 속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때는 한여름이라 한밤중의 연습은 상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렇게 2 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옥녀심경은 9 단계로 나누어졌는데, 이때 소용녀는 이미 7 단계까지, 양과는 6 단계까지 이르렀다.

어느날 두 사람은 꽃숲을 사이에 두고 각자 내공을 연습하니 온몸에 열기가 들끓어 꽃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졌다. 차츰 달이 떠올라서 이윽고 중천에 이르렀다. 다시 반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6 단과 7 단의

행공을 각자 연습하였다.

갑자기 산 뒤에 발걸음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이 옥녀심경을 홀로 하는 것을 음진(陰進)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하는 것을 양진(陽進)이라 하였다. 양과가 연습하고 있는 것은 양퇴(陽退) 수련이어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으나, 소용녀가 하는 것은 음진으로, 중간에서 조금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때 그녀의 음진은 중요한 고비에 도달해 발걸음 소리와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양과는 똑똑하게 소리를 듣고는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서 황망하게 몸 밖으로 기를 배출하고 세 번을 토해서 연공을 멈추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차 가까와지자 양과는 그것이 귀익은 목소리임을 알았다. 하나는 이전에 그의 사부였던 조지경이고, 하나는 윤지평이었다. 두 사람은 마침 점점 크게 소리치며 말다툼하는 중이었다.

조지경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윤사제, 이 일을 더 이상 숨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는 구사부님께 말씀드려서 조사하도록 하겠어."

윤지평은 화를 내면서 응답했다.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너는 제 3대 제자의 수좌제자가 되어서 장차 우리 교의 장문인(掌門人)이 되려고 하는 거지 ?"

조지경은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 교의 규율을 범했는데 어찌 수좌제자가 될 수 있겠어 ?"

윤지평이 소리쳤다.

"내가 무슨 규율을 범했다고 그러나 ?"

조지경은 큰소리로 말했다.

"전진교의 제 4 조 규율인 음계(淫戒)다 !"

양과는 꽃숲에 몸을 숨기고는 몰래 밖을 내다보았다. 두 도인이 똑

바로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윤지평의 얼굴은 파리했는데 달빛을 받아서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침울한 목소리로 윤지평이 묻는다.

"무엇이 음계란 말이지 ?"

이렇게 말하고는 손을 칼자루에 댔다. 조지경이 거칠게 말했다.

"너는 활사인묘에 있는 소용녀를 본 뒤로는 하루종일 정신을 잃고 마음속으로 그녀를 수없이 생각하였다. 우리 교는 수심양성(修心養性)하는 곳인데 너의 마음속은 늘 계집을 생각하니 어찌 음계를 범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 ?"

양과는 소용녀를 존경하는 마음이 비할 데 없어서 조지경의 이 말을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서 그들 두 사람에 대한 증오가 골수에 사무쳤다.

윤지평의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허튼 수작 말아라 ! 내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네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

조지경은 비웃는 듯 코웃음을 친다.

"네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네가 매일 밤마다 잠꼬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는 할 수 없지 않은가? 또 종이에다 수없이 소용녀의 이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테냐 ?"

윤지평은 머리를 숙이고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조지경은 득의양양하여 품속에서 한장의 백지를 꺼내서 몇 번 휘두르면서 말했다.

"이것이 너의 필적이 아니냐 ? 이것을 장문(掌門)인 마사백(馬師伯)과 너의 스승인 구사백에게 드리겠다."

윤지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휘둘렀다.

조지경은 몸을 옆으로 피하면서 백지를 품속에 넣고는 흉악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나를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군.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윤지평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질풍같이 세 번을 찔렀으나 조지경은 그때마다 몸을 피하였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조지경도 장검을 뽑았다. 두 칼은 맞부딪쳐 곧 꽃숲 옆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전진파의 제 3 대 제자로서 하나는 구처기의 수제자이고, 하나는 왕처일의 수제자로, 무공은 서로 백중지세였다. 윤지평이 이를 악물고 사납게 대들자 조지경은 싸움 중에 몇 마디 조소를 퍼부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약을 올려 실수를 유발케 했다.
이때 양과는 이미 전진파의 검법을 모두 익혔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격과 방어 등 모든 동작이 비록 변화무쌍해도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자 마음속으로 소용녀의 가르침이 과연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였고, 윤지평이 손동작을 사용하자 조지경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비웃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모두 알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지. 나를 죽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는 매우 침착하게 윤지평의 공격을 모두 막아 냈다. 한바탕 싸움이 있은 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소용녀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양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두 놈의 도사가 만약 우리 아가씨를 친다면 정말 난감한데.......)
갑자기 조지경이 반격을 가하자 윤지평은 멈칫했다. 그가 급하게 3개의 동작을 취하며 진격해 들어오자 윤지평은 계속해서 세 걸음 후퇴했다. 양과는 두 사람이 소용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는 안심했다.
윤지평이 돌연 칼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내밀어 조지경의 가슴을 쳤다. 조지경은 웃으면서 내뱉았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이 애송아 !"
즉시 왼손을 들어 대적하였다. 두 사람은 칼로 찌르고 서로 주먹을

쳐서 싸움은 더욱 흉악해졌다.

소용녀는 내공의 연습에 깊이 빠져서 외부의 모든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양과는 두 사람이 소용녀에게 가까와지면 초조하게 걱정을 하고, 멀어지면 안도의 숨을 돌리곤 했다.

싸움이 한창일 때 윤지평은 큰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했으나 마침내는 상대방의 맹렬한 공격에 밀리기 시작했다. 조지경은 그가 난처한 경우라도 차라리 찔려서 죽을지언정 결코 몰래 사랑했던 아가씨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윤지평은 평소에도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윤지평을 죽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즉시 불리해져서 몇 수가 밀렸다. 이때 윤지평은 좌측 칼로 찌르고 오른손으로 치고, 동시에 왼발을 휘둘러서 공격했는데 이것은 바로 전진파의 삼연환(三連環)이었다. 조지경이 몇 장 뛰어올라 칼을 휘둘렀다. 윤지평은 장검을 그에게 던지고 양손을 내뻗었다.

양과는 그가 알지 못했던 이 몇 가지 동작을 보고는 손에 땀을 쥐지 않을 수 없었다. 조지경의 몸이 반공중에 있는 것을 보고는 윤지평의 두 손이 그의 힘줄을 끊고, 뼈를 부러뜨리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조지경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돌연 공중에서 몸을 돌려서 몇 장 후퇴하더니 가볍게 내려왔다.

그의 몸이 내려오는 곳을 보니 정확하게 소용녀가 앉아 있는 꽃숲이다.

양과는 크게 놀라서 한 치의 틈도 없이 몸을 앞으로 일으켜서 왼손이 오른손을 뚫고 조지경의 등을 밀어 채루포주(綵樓抛珠)로 그의 커다란 몸을 두 장 밖으로 내던졌으나, 이때 그의 내력이 부족하여 이처럼 한번 왼쪽 팔에 힘을 모으자 하체가 허약해져 바로 서지 못하고 즉시 몸이 기울어 왼발이 꽃가지를 밟았다. 그 꽃가지는 밟히면서 소용녀의 얼굴로 굽혀졌다.

이 가벼운 충격에 소용녀는 크게 놀라서 온몸에 땀이 솟고, 급속하게 움직이던 내식(內息)이 단전에 방해를 받자 즉시 혼미해졌다.

윤지평은 갑작스러운 양과의 출현과 자기가 날마다 생각하던 마음속의 사람이 꽃숲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멍청해져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이때 조지경은 몸을바로 일으켜서 달빛 아래 소용녀의 벗은 모습을 똑똑하게 보고는 외쳤다.

"오호, 참으로 신기하구나 ! 이제 보니 이곳에서 즐기고 있었구나. 으하하......."

양과는 크게 화를 내고는 소리 질렀다.

"네놈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나중에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테다."

뒷편에 쓰러져 있는 소용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일전 에 간곡히 부탁한 것이 생각났다. 내공을 연습할 때는 반드시 서로 힘을 다해 보호해야 하는데, 설사 금수의 무리가 뜻밖에 뛰어들지라도 큰 화를 일으킨다고 했다. 아무래도 그녀가 크게 놀라서 반드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매우 놀라 손으로 그녀의 이마를 만져 보니 단지 싸늘할 뿐이었다. 급히 그녀의 옷깃을 잡아당겨서 그녀의 몸을 가리고 안으면서 양과가 부르짖는다.

"아가씨, 괜찮아요 ?"

소용녀는 으음, 하는 소리뿐 아무 말이 없었다. 양과는 차츰 마음이 놓이자 낮게 말했다.

"아가씨, 우리 우선 돌아갔다가, 나중에 저놈들에게 복수합시다."

소용녀는 온몸에 힘이 없어서 그의 품을 의지하였다. 양과는 성큼성큼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윤지평은 멍청하게 그곳에 서 있었다. 조지경은 하하, 크게 웃으며 말했다.

"윤사제, 네가 사모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다른 놈과 놀아나고 있으니, 나를 죽이느니 그놈을 죽이는 게 어떤가 ? 후하하 !"

윤지평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과는 조지경의 말을 듣고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것이 틀림없이 큰 욕이라는 것을 알고는 매우 성을 내어 소용녀를 조용히 땅에 내려놓아 그녀가 나무 기둥에 기대도록 하고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손에 쥐고 조지경을 가리키며 일갈했다.

"네 이놈 허튼 소리 작작해라 !"

지난 2년 동안 양과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당당한 소년이 되어있어서 조지경은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곧 그의 욕하는 목소리를 듣고는 귀에 익은 음석이라 얼른 달빛 아래로 움직였다. 그는 자기를 욕하는 이가 제자인 양과라는 것을 알고는 황망중에 자기가 그에 의해서 나뒹굴었던 것이 몹시 부끄러웠으나 그가 벌거벗 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양과, 원래 너는 좋은 종자가 아니야."

양과가 말했다.

"네가 나를 욕하는 것은 별 거 아니냐 우리 용아가씨는 어째서 욕했지 ?"

조지경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들은 고묘파를 고랑파(姑랑派)라 하여 여자에게는 전해도 남자에게는 전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더군. 또 모두 순결한 처녀라 하더니만 원래 이처럼 더러워서 몰래 남자 아이를 숨겼다가 해가 지면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다니....... 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느냐 !"

소용녀는 때마침 이때 깨어나서 그의 몇 마디 말을 듣고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를 데 없이 가슴이 답답하자 숨을 가다듬으며 자기가 내상을 입은 것을 알고는 고통스럽게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를 ?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말과 함께 갑자기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는데, 마치 붉은 피기둥 같았다.

윤지평과 양과는 모두 놀라서 앞다투어 달려갔다. 윤지평이 말했다.

"어찌된 일입니까 ?"

하며 몸을 굽혀서 그녀의 상처를 살폈다. 양과는 그가 그녀를 해치려는 줄 알고 왼손을 그의 가슴을 향해서 내밀었다. 윤지평이 이에 대항했다. 양과는 전진파의 무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손을 한번 뒤집어 그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당기고 뒤에서 밀어 그를 자빠지게 했다.

이때 양과의 무공은 결코 윤지평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찌기 임조영이 연구한, 전진 무공을 제압하는 법은 매 동작마다 모두 세밀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이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전진교의 제자들은 세상에 자기들을 능가하는 무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양과가 이것을 사용했고 윤지평은 이를 막지 못하고 당황할 때 다시 일격을 가하여, 비록 그가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몸은 이미 두 장(丈) 밖으로 나가서 조지경의 옆에 서 있게 되었다.

양과가 소용녀에게 말했다.

"아가씨,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우선 아가씨를 모시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소용녀는 탄식하면서 낮게 말한다.

"안 돼 ! 너는 그들을 죽여서, 결코...... 결코 그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해서는 안 돼."

양과가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손에 있던 나뭇가지로 조지경의 가슴을 쳤다. 조지경은 이때 칼을 휘둘러서 나뭇가지를 베었다. 가지 끝이 한 번 떨리더니 별안간 조지경의 손목에 있는 혈도를 찔렀다. 조지경의 손목은 이내 마비가 되어 쓰지를 못했다. 양과는 왼손을 옆으로 해서 그의 뺨을 공격하였는데, 이 기술은 매우 괴이하였다. 조지경이 장검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고개를 들어 양과의 이 동작을 받아야 하고 만약 피하려면 장검을 손에서 놓아야 했다.

조지경의 무공은 뛰어나서, 비록 열세에 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손에서 칼을 놓고는 고개를 낮게 숙여 피한 뒤 왼손을 내밀어 순식

간에 장검을 되찾으려 했다. 어찌 10 여 년 전의 임조영이 적의 기선을 예측하고 전진의 고수들이 사용하는 모든 무서운 동작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조지경의 이 동작은 스스로 생각해 낸 것으로, 패한 가운데서도 다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양과와 소용녀가 일찍부터 이것을 가슴속에 자세하게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양과는 적의 칼을 빼앗고 그가 손을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장검을 찔러서 그의 손을 자르려 했다. 조지경은 크게 놀라서 급히 손을 움츠렸다. 양과의 칼끝은 이미 그의 가슴을 향하였다. 조지경은 그의 칼을 파하려고 한쪽 발을 구부렸으나 잘못하여 뒤로 나가 동그라졌다. 양과는 장검을 쳐들고 달려들어 그의 배를 찌르려 했다.

그때 몸 뒤에서 바람소리가 나더니 다른 칼이 달려들며 노한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감히 사부를 죽이려 하다니 !"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서 양과는 크게 놀라며 즉각 칼로 대항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칼이 부딪쳤다. 윤지평은 그의 반격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돌연 그의 송아귀에 있던 장검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양과의 칼에 달라붙은 것이 아닌가. 윤지평은 매우 당황하여 급히 내력으로 칼을 되찾으려 했다.

이때 그의 내력은 심오하여 양과의 장검도 오히려 그에게 끌려갔다. 뜻밖에도 양과는 이것을 이용해서 돌연 칼을 놓고 양손을 그의 가슴을 향해서 내지르자 동시에 칼도 그에게 튀어들어서 두 손과 칼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윤지평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런 이상한 기습은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이때 윤지평은 급히 칼을 놓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가로막았으나 황급한 나머지 팔이 너무 안쪽으로 굽어서 이미 힘을 쓰기에는 곤란하였다. 양과는 공력이 약하여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팔을 부러뜨리려

했으나 오히려 양과의 손이 점점 아파 오더니 양팔이 마비되어 급히 세 걸음을 후퇴하였다. 조지경은 이 기회를 틈타서 몸을 일으켰다. 양과는 양손에 칼을 쥐고는 그들에게 달려 들었다. 이들 두 사람은 이런 애송이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분통이 터졌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공격은 하지 않고 장검으로 방어하면서 우선 상대방의 공격방법을 다시 살피려 했다. 양과가 비록 양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지니고 있고, 상대방은 적수공권(赤手空拳)이라 해도 그들의 방어가 엄밀하여 다시는 처음처럼 마구 공격할 수가 없었다.

옥녀심경의 검술 중에는 결코 권각(拳脚) 동작을 제압할 만한 것이 없었다. 또한 조지경이나 윤지평, 이들 두 사람의 공력이 뛰어나고 또 연합해서 대항하므로 양과가 쌍검을 휘두르며 재빠르게 움직여도 결코 쉽게 기회를 잡을 수 없었으며, 후에는 점점 열세가 되었다. 조지경의 장력은 매우 심오하고 끊임없이 힘을 가해서 양과의 칼을 압도하였다.

윤지평은 정신을 가다듬어 두 사람의 선배가 함께 한 어린애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고 생각했다. 이미 자기들의 우세를 느낀 윤지평은 소용녀가 걱정되어서 말했다.

"양과야, 너는 빨리 아가씨를 모시고 돌아가지 않고서 어째서 우리들에게 악착같이 달라붙는 거냐 ?"

양과가 대답했다.

"아가씨는 너희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꼭 너희들을 죽이라고 하셨다."

윤지평은 왼손의 칼을 비스듬히 하고는 좌측으로 세 발자국을 옮기면서 말했다.

"가자 !"

양과가 외쳤다.

"너희들, 비겁하게 도망가기냐 ?"

윤지평이 말했다.

"양과, 네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 아가씨는 안심해도 좋다. 오늘의 일은 결코 단 한 마디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했을 때는 즉각 목을 매달아 자살해 사과할 것이다. 만약에 거짓말...... 이라면......."

여기까지 말하고는 갑자기 양과의 칼을 빼앗아서,

"이처럼 하겠다 !"

하고는 왼손을 세우고 오른손의 칼을 휘둘러서 왼손의 새끼손가락과 무명지를 잘랐다.

이 순식간의 행동은 비할 수 없이 민첩하여 양과는 어찌할 수 없었다. 양과는 잠시 당황했으나 윤지평의 진심을 알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싸워도 이기기 힘드니 먼저 조지경부터 죽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는 말했다.

"윤지평, 네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네 머리를 자른다면 믿을 수가 있겠지만......."

윤지평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 목숨을 원하다니, 하하하, 네 아가씨에게 한마디 하실 수 없느냐고 여쭤 보아라 !"

양과가 윤지평에게,

"좋다 !"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등뒤로 칼을 휘둘러서 조지경의 가슴을 향했다.

이 동작은 목란회사(木蘭廻射)로서 조지경은 이때 모든 정신이 이들 두 사람의 대화에 기울어져 이 뜻밖의 기습에 놀랐으나 칼끝은 이미 아랫배를 찔렀다. 조지경은 뜨끔했으나 단전으로 기를 모아 아랫배를 반척으로 오그리며 재빨리 오른다리를 들어서 양과의 칼을 차려고 했다. 양과는 즉시 그의 무릎을 향해 손을 뻗쳐서 그의 혈도를 정확하게

찔렀다. 조지경은 비록 생명은 건졌지만 다시 서 있을 수 없어서 오른쪽 무릎을 양과 앞에 굽혔다.

양과는 이어서 공중으로 장검을 치켜들어 조지경의 목을 겨누고는 말했다.

"내가 일찌기 너를 스승으로 모셔서 너에게 여덟 번 머리를 조아렸는데, 지금 너는 나의 스승이 아니니 그것을 나에게 돌려다오."

조지경은 숨이 차서 기절할 것만 같았고 얼굴은 붉으락푸르락하였다. 양과는 천천히 칼을 움직여 칼끝을 그의 목 살 속으로 찔렀다.

조지경은 낮은 목소리로 양과를 꾸짖었다.

"나를 죽일 테면 어서 죽여라. 무슨 개소리냐 ?"

양과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소용녀가 외친다.

"과아야, 스승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가 오늘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곧 그를 용서해 주어라 !"

양과는 소용녀의 말에 순종하고 있었으므로 이 말을 듣고는 조지경에게 말했다.

"빨리 맹세하라 !"

조지경은 몹시 숨이 찼지만 쉽게 맹세하지 않았다.

"말 안 하면 되지, 무슨 맹세냐 ?"

양과가 다시 날카롭게 외쳤다.

"안 된다. 반드시 맹세를 해야 된다 ! 죽고 싶으냐 ?"

조지경은 하는 수 없이 맹세했다.

"좋다. 오늘 일은 우리 여기 네 명만이 알기로 하자.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무림의 도사란 이름을 버릴 것이니 결국에는 좋게 죽지 못할 것이다 !"

소용녀와 양과는 모두 세상 일을 잘 몰라서 단지 그가 굳은 맹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윤지평은 그의 맹세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알고는 양과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 했으나, 그때에는 이미 아무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양과가 소용녀를 안고서 재빨리 산허리를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윤지평은 왼손 손가락 두 개에서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알면서도 멍청히 서서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였다.

 *** 소용녀의 눈물 ***
 양과는 소용녀를 안고 무덤으로 들어와서 그녀를 한옥상에 눕혔다.
 소용녀가 한탄하면서 말했다.
 "나는 몸에 중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 한옥상의 추위를 이길 수 있겠어 ?"
 양과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다급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아가씨의 상처가 이처럼 깊다니.......)
 즉시 그녀를 안고 옆에 있던 그녀의 방으로 갔다. 소용녀를 막 눕히자 울컥,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양과의 벌거벗은 몸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몇 번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더니 다시 피를 쏟았다. 양과는 어찌할 줄 모르고 오로지 울고만 있었다.
 소용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피를 다 쏟았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
 양과가 말했다.
 "아가씨, 죽지 마세요 !"
 소용녀가 말했다.
 "네가 죽을지 모르니 네 걱정이나 해라 !"
 양과는 놀라면서 묻는다.
 "나요 ?"
 소용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먼저 죽여야 하니까."
 이 말은 2년 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지만 양과는 그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

소용녀는, 그의 큰얼굴이 그 말을 들은 이후 이상한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내가 너를 만약 죽이지 않으면, 죽어서 어찌 손할머니를 뵙겠어 ? 너 혼자서 세상에 있으면 누가 너를 살펴 준단 말이냐 ?"

양과는 몹시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소용녀는 객혈을 멈추고는 정신이 안정되는지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았다. 양과는 눈치 빠르게 큰 대접에 꿀물을 갖고 와서는 그녀에게 먹였다. 이 꿀물은 매우 효과가 있어서 얼마 안 가서 그녀가 마침내 다시는 피를 토하지 않게 되었다. 이윽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

양과의 마음도 점차 안정되어 갔으나 피곤과 충격들이 쌓여서인지 자기도 모르게 땅에 앉은 채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양과는 갑자기 목이 시원하여 놀라서 잠이 깼다. 그는 무덤 속에서 몇 년 동안 살았으나 소용녀처럼 어둠 속에서 물체를 잘 구별할 수는 없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는 소용녀가 상에 앉아 장검을 쥔 채 칼끝이 자기의 목을 향하게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가씨 ! 당신이......."

소용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과아야 ! 내 상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지금 같이 죽어서 우리 둘이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

양과는 황급하게 말했다.

"아가씨 !"

소용녀가 말했다.

"너 마음속으로는 무섭지 ? 재빨리 단칼에 모든 것을 끝내 주마."

양과는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오직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여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급히 뒹굴며 다리로 그녀의 장검을

찼다.

소용녀는 상처가 비록 심했으나 손동작이 민첩해서 평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의 발을 피하고는 칼끝을 다시 그의 목에 겨냥했다. 양과는 계속해서 몇 개의 동작을 펼쳤으나 그 모든 것이 소용녀가 지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예측하지 못할 동작은 없었따. 장검은 끄림자처럼 따라붙어 계속해서 그의 목에서 3촌(三寸)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양과는 놀라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오늘 잘못하면 생명을 잃겠구나.)

황급하게 양손을 나란히 하고 거짓으로 공격하여, 이미 상처를 입고 무력해진 그녀로 하여금 자기와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끔 했다.

소용녀는 양과의 뜻을 알고는 여전히 몸을 비스듬히 해서 그의 장력이 푸푸,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어깨를 지나가게 한 뒤 말했다.

"과아야 ! 싸움일랑 그만 두자 !"

장검을 세우고는 칼끝을 몇 번 떨더니 이를 데 없이 교묘한 분화불류(分花拂柳) 이미 양과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막 그의 목을 찌르려 했다. 그 순간 그의 가련한 눈빛을 보고는 갑자기 가슴속의 상처가 도져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온몸의 힘이 빠지고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을 떨어뜨리면서 기절하였다.

양과는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뜻밖에도 이 위급한 순간에 그녀가 기절한 것이었다. 그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무덤 밖으로 뛰어나갔다. 태양빛에 눈이 부시고, 미풍이 옷을 스치고, 꽃향기가 얼굴을 감싸며, 새들은 나무 위에서 지절거렸다.

무덤 속의 칙칙한 풍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고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하산길은 점점 빨라져서 정오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산허리에 이르렀다. 그는 소용녀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고는 점차 안심이 되어서 천천히 걸어갔다. 얼마쯤 가자 뱃속에서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들려왔

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곳저곳에서 밥을 구걸하였으므로 먹을 것을 찾는 데는 이미 능숙했다. 서쪽의 산비탈에 커다란 옥수수가 얼마간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옥수수 5 개를 땄다. 옥수수는 아직 잘 익지 않았으나 먹을수는 있었다. 그는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려 했으나 갑자기 누군가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몸을 숙이고 옥수수 대로 몸을 위장하고 살며시 보니 젊은 아가씨가 몸에 누런 도포를 입고서 발걸음도 가볍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등에 쌍칼을 타고 있는 것을 보니 무예를 할 줄 아는 것 같았다. 양과는 이 사람이 중양궁에 있는 사람으로 아마도 청정산인(淸淨散人) 손불이(孫不二)의 제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감히 시비를 걸지 못하고는 고개를 숙여 당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척했다.

그녀가 그의 곁에 다가왔다.

"얘야, 산길을 어떻게 올라가지 ?"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전진교의 제자라면 어찌 산길을 모르겠는가 ? 반드시 좋지 않은 흉계가 있을 것이다.)

양과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손으로 산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큰길을 따라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녀는 그가 상의를 걸치지 않고, 하의는 이미 낡고, 길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땔감을 줍는 것을 보고는 농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자부하여 어떤 남자라도 모두 자신을 보고는 잠시 동안 멍청하게 바라보곤 하는데, 이 소년은 오히려 자기를 힐끗 보더니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듯하자 슬그머니 화가 났으나 생각을 바꾸었다.

(이런 우둔한 농부가 무엇을 알겠는가 ?)

그리고 말했다.

"일어나거라,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양과는 전진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즉각 벙어리, 귀머거리 흉내를 내서 못 들은 척했다.

그녀가 조금 소리를 높였다.

"이놈아 !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

양과가 대꾸를 한다.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는 조소하듯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내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니 !"

이 말은 매우 요염하고 또한 달콤하였다. 양과는 갑자기 오싹해졌다.

(어찌 이 여자의 말투가 이처럼 변했지 ?)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 그녀의 피부가 희고, 두 빰이 불그스레하고, 두 눈을 조용히 내리깔고 자기를 내려가보는 것이 마치 아무 악의가 없는 것 같았다. 양과는 다시 고개를 숙여서 땔감을 주웠다.

그녀는 얼굴 가득히 치기를 드러내며, 양과가 비록 자기를 두번이나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철없는 아이로구나.)

그녀는 품속에서 은덩이 두 개를 꺼내어 딩딩딩,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꼬마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이것을 너에게 주마."

양과는 그녀를 성나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으나 그녀의 말투가 이상한 것을 듣고는, 그녀가 무슨 볼 일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 오히려 멍청이처럼 얼이 빠진 표정으로 은덩이를 보면서 물었다.

"이 빛나는 것이 뭐지요 ?"

그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것은 은이란 거야. 네가 필요한 새옷, 큰 암탉, 백미를 모두 이

것으로 살 수 있단다."

양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다.

"나를 속이는군요. 나는 못 믿겠어요 !"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속였다고 그러냐 ? 꼬마야, 네 이름이 무엇이지 ?"

양과는 더욱 멍청이짓을 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보라 해요. 당신은 모르고 있군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바보, 너는 나를 선고(仙姑)라 부르면 된다. 너의 어머니는 어디 있지 ?"

양과가 한쪽 손을 들어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막 나를 한바탕 야단치고는 산에 가셔서 나무를 하고 있지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 ? 나는 도끼를 사용해야 하는데 집에 가서 가져와 내게 좀 빌려주지 않겠니 ?"

양과는 마음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언저리에 침을 흘리면서 더욱 바보스럽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건 안 돼요. 우리집 도끼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빌려준 걸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를 막대기로 막 때릴거예요."

그녀는 계속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너의 부모님도 이 은덩이를 보면 아마 매우 기뻐하면서 너를 때리지 않을 것이야."

말하고는 손을 들어 은덩이 한개를 그에게 건네 주었다.

양과가 일부러 손을 잘못 내밀자 은덩이가 어깨에 부딪쳐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른쪽 발에 떨어졌다. 그는 왼발로 뛰면서 소리쳤다.

"아이구, 아이구, 발이야 ! 어머니한테 알리겠어요."

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는 은덩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으로 뛰어갔다.

그녀는 양과의 멍청함이 재미가 있어 가볍게 웃으면서 허리띠를 풀어서는 양과의 오른발을 향해서 휘둘러 던졌다. 양과가 바람소리를 듣고서 뒤를 쳐다보니 허리띠가 날아오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고묘파의 수법이 아닌가 ! 설마 그녀가 고묘파의 도사일려구.......)

즉시 피하지 못하고 양과는 그녀의 허리띠에 오른발이 감겨서 땅에 넘어졌고, 온몸이 그녀에게 가볍게 끌려갔다. 마음속으로 그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가 산에 가는 것이 혹시 용아가씨와 싸우러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가 일단 소용녀를 생각하자 그녀의 생사를 알지 못해 한없이 걱정되었으나,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설사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몇 번 하는 동안 양과는 이미 그녀 앞에 끌려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비록 온통 더러웠지만 이목구비가 수려한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촌놈은 준수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처럼 멍청하니 안타깝구나.)

양과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서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바보야, 너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

하고는 장검을 뽑아서 양과의 가슴을 겨냥했다.

양과는 그녀의 동작이 바로 고묘파의 정통검법인 금필생화(錦筆生花)인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매우 놀랐다.

(이 사람은 아마 사백(師伯)인 이막수의 제자로, 산에 있는 용아가씨를 찾아가는 것이 틀림없다. 결코 좋은 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허리띠 휘두르는 장검의 수법을 보아하니 무공이 대단해서 내가 끝까지 바보짓을 해서 그녀가 경계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온 얼굴에 겁을 잔뜩 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고, 당신이 설마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요. 당신의 말을 잘 듣겠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좋다. 네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단칼에 너를 죽이겠다."

양과는 소리쳤다.

"듣지요. 아주 잘 듣지요. 아암, 듣고 말고요."

그녀는 허리띠를 휘둘러 허리에 감고는 자세를 단정하게 했다. 양과는 마음속으로 제법 멋진데 !, 하고 생각했으나 얼굴에는 여전히 멍청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한다.

"이 바보가 어찌 이 무술을 오묘함을 알 수 있을까 ? 그러니 나는 훌륭한 것을 장님에게 보여 준 셈이지."

다시 양과를 쳐다보더니 그녀가 말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도끼를 가지고 오너라."

양과는 이 말을 듣고는 앞에 있는 농가로 가면서 일부러 발걸음을 천천히 하고 흔들흔들하였으나 어색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녀는 눈에 몹시 거슬렸는지 소리친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야 한다."

양과는 돌아보지 않고 크게 대답했다.

"예에 !"

잠시 후 농가의 문 앞에 다다른 양과는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는 모두 밭에 나가서 일할 것을 생각하여 나무 베는 조그만 도끼를 꺼내고, 내친 김에 다 떨어진 옷을 몸에 걸쳐서 더욱 바보처럼 해서 돌아왔다.

그는 비록 그녀를 속였으나 마음속으로 계속 소용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얼굴에 근심의 빛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이것을 보고 말했다.

"너는 어째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느냐 ? 좀 웃어 보아라."
양과는 입을 삐죽이며 멍청하게 웃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
양과는 황망히 소리쳤다.
"아, 안 돼요. 어머니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당장 죽일 테다. 그래도 안 갈 작정이냐 ?"
하더니 손을 뻗어서 양과의 귀를 비틀고 오른손으로 장검을 높이 들며 무서운 기세를 취하였다.
양과는 다급하게 소리 질렀다.
"나도 가지요, 가요 !"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짐승처럼 미련하니, 내가 써먹기에는 아주 적당하군.)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의 소매를 끌고는 산으로 올라갔다.그녀는 경공이 약하지 않아 걸음이 무척 빨랐다. 양과는 오히려 느릿느릿 뒷전에서 꾸물거리다가 길 옆 바위에서 땀을 식히며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빨리 길을 걷자고 재촉했다.
양과가 땀을 닦으며 물었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미치 토끼 같군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됐지요?"
그녀는 해가 서산에 지는 것을 보고는 양과의 팔을 끌고 서둘러 산위로 올라갔다. 양과는 그녀를 따라잡지 못해서 두 발이 어지럽게 바뀌다가 갑자기 구의 발뒤꿈치에 걸려서 땅에 쓰러졌다.
그녀는 아이코 ! 하는 양과의 소리를 듣고서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 이놈 ! 죽고 싶으냐 ?"

그러나 그가 몹시 숨이 찬 것을 보고는 왼손을 뻗어서 그를 부축했다.
"빨리 가자 !"
그녀는 한손으로 그의 몸을 부둥켜 안고 질풍같이 산정을 향해 달렸는데, 경공을 전개하여 순식간에 몇 리를 지나쳤다.
양과는 그녀의 팔꿈치에 감겨 안겨서, 등으로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코로 향기로운 그녀의 체취를 맡으며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서 산에 올랐다. 그녀는 얼마쯤 달리다가 고개를 숙여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는 팔을 벌려서 그를 땅에 내동댕이쳤다. 양과는 궁둥이를 쓰다듬으며 크게 소리 질렀다.
"아이구. 아이구. 선고가 바보의 궁둥이를 내던지다니. 아이고 죽겠다 !"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물었다.
"너는 어째서 바보라 불리게 되었느냐 ?"
양과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원래부터 바보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내 성은 장(張)이라 하셨어요. 당신의 성은 무엇이죠 ?"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너는 나를 그냥 선고라 부르면 된다. 내 성은 네가 알 바 아니다."
원래 그녀는 적련선자 이막수의 대제자 홍릉파(洪凌波)인데 그가 바로 과거에 육립정(陸立鼎)의 일가를 죽이고 무삼랑(武三랑)에게 쫓겨서 도망쳤던 소도고(小道姑)였다. 양과는 그녀의 성명을 꼬치꼬치 물었으나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위에 앉아서 바람결에 머리카락을 날렸다. 양과는 고개를 비스듬히 해서 그녀를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매우 예쁘단 말이야. 그러나 도화도의 곽백모는 따를 수 없고, 더구나 우리 용아가씨와는 비교가 안 되지.)
홍릉파는 그에게 곁눈질을 하면서 말했다.

"바보야,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어쩔래 ?"

양과가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쳐다보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것이지 무슨 까닭이 있나요 ? 쳐다보지 말라면 쳐다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뭘요 !"

홍릉파는 웃으면서 말했다.

"바보야, 나를 자세히 봐라. 그리고 내가 예쁜지 어떤지 말 좀 해보렴."

하더니 그녀는 품속에서 상아빗을 꺼내어 천천히 머리를 빗었다.

양과가 말했다.

"예쁘지요. 아암, 예쁘고 말고요."

홍릉파가 말했다.

"뭐라고 ?"

양과가 들릴락말락하게 말했다.

"다만 그리 하얗지 않은 것이......."

홍릉파는 평소 자신의 피부가 희고 투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바보야, 죽고 싶으냐 ? 애가 그럼 희지 않다는 말이냐 ?"

양과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렇게 썩 하얀 편은 아니에요."

홍릉파는 노해서 소리쳤다.

"그럼 누가 나보다 더 희단 말이냐 ?"

양과가 시치미를 떼고 말한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희지요."

홍릉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

"누구냐 ? 너의 마누라냐, 아니면 딸이냐 ?"

마음속으로 그녀는 피부색이 자기보다 하얀 사람이 있다면 죽여 버리려고 했다.

양과가 말했다.

"모두 틀렸어요 ! 우리 집의 백양이에요."

홍릉파는 화를 풀고서 웃으면서 말한다.

"정말로 넌 바보로구나. 사람을 어찌 짐승과 비교하지 ? 이 바보야 ! 자, 빨리 가자."

그의 어깨를 잡고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중양궁으로 향하는 대로에서 홍릉파는 방향을 바꾸어 서쪽으로 향해 활사인묘 쪽으로 향하였다.

양과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 여자가 과연 용아가씨를 찾아가는 게 맞구나.)

홍릉파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품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더니 길을 찾았다.

양과가 급히 말했다.

"선고, 앞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나무숲에 귀신이 있어요."

홍릉파가 고개를 돌린다.

"네가 그걸 어찌 알지 ?"

양과가 말했다.

"숲속에 큰 무덤이 있는데, 그 속에 무시무시한 귀신이 있어서 아무도 감히 갈 수가 없대요."

홍릉파는 크게기뻐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활사인묘가 바로 이 부근이구나.)

원래 홍릉파는 최근 사부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아서 무공이 매우 진전했고, 산서(山西)에서 사부를 도와서 무림의 호걸들을 물리쳤을 때 더욱더 이막수의 환심을 얻었다. 그녀는 사부와 전진교의 무술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옥녀심경만 익힌담면 결코 전진교의 고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이러한 무학을 기록한 책이 종남산의 고묘 중에 있어서 애석하다는 말을 들었었다.

홍릉파는 그녀가 왜 그 고묘에 가서 그 무술을 익힐 수 없는지 물었다. 이막수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이막수는 그곳을 소사매(小師

妹)에게 양보하였는데 사자매(師姉妹)들은 서로 화목하지가 못해서 왕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몹시 지기 싫어하여 자기가 일찌기 수차례 활사인묘에 들어가서 혼줄이 나서 허겁지겁 도망친 일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반대로 소사매가 나이도 어리고 무공도 변변하지 못하니 어찌 사자(師姉)가 어린 사람을 속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홍릉파가 적극적으로 사부에게 고묘를 점령하고 책을 빼앗자고 종용하였다. 사실 이막수도 그러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으나 묘중의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여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막수는 제자의 적극적인 설득을 듣고도 단지 조용히 웃을 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홍릉파는 몇 번을 졸랐느나 사부의 반응이 없자, 몰래 주의를 기울여서 사부에게 종남산의 고묘로 가는 길을 상세하게 물어 스스로 한 장의 지도를 그렸다. 그러나 이막수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사부가 그녀를 장안(長安)에 파견하여 원수를 갚도록 하자 그 일을 끝내고 즉시 종남산으로 왔다가 뜻밖에도 양과를 만나, 양과에게 작은 도끼를 이용해서 길을 가로막는 가시를 자르게해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게 한 것이었다.
양과는 이처럼 헤치고 들어가 봐야 1년 반 이상 걸려도 무덤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단지 그녀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얼마가 지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여전히 길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묘에서 멀어졌다. 그는 소용녀가 점점 걱정되었지만,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어떤 기미를 눈치채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생각되어, 도끼를 바위로 던졌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도끼날이 일시에 무디어 졌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코, 여기에 큰 돌이 있다니. 도끼가 망가졌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화를 내실 텐데....... 선고, 나......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홍릉파는 매우 조급했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되자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무덤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는 말했다.

"바보야, 넌 돌아갈 수 없어 !"

양과가 말했다.

"선고, 당신은 귀신이 무섭지 않나요 ?"

홍릉파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한다.

"귀신이오히려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나의 단 한 칼이면 악귀를 두동강 낼 수 있지."

양과는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나를 속이면 안 돼요 !"

홍릉파가 말했다.

"내가 너를 속여서 뭘 어쩌겠니 ?"

양과가 말했다.

"악귀가 당신을 두려워한다니 나는 당신을 데리고 무덤에 가죠. 악귀가 만약 나온다면 당신이 그를 쫓아야 해요 !"

홍릉파는 크게 기뻐하며 묻는다.

"네가 무덤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구나 ! 그래, 빨리 함께 가자 !"

양과는 그녀를 의심하는 척하며 계속해서 세 번 다짐하도록 했다. 홍릉파는 그를 안심시키고, 10 여 명의 악귀도 모두 죽일 수 있다고 장담했다.

양과가 말했다.

"몇 년 전에 내가 무덤 근처에서 양을 풀어 놓았는데, 잠시 잠을 자고 났더니 이미 밤중이었어요. 나는 무덤에서 흰 옷을 입은 귀신이 나오는 걸 보고는 놀라서 죽어라 도망가다 길에 쓰러져 그만 머리가 깨졌어요. 자, 봐요. 여기에 아직 상처가 있지요 ?"

그녀와 함께 있자 그녀의 향기가 마치 난초와 같아서 그는 그녀의 몸에 가까이 갈수록 기분이 좋았다. 그는 이때를 이용하여 그녀를 속여서 머리를 그녀의 얼굴에 접근시켰다. 홍릉파는 웃으면서 <에이, 바

보야 !> 하며 그의 머리를 어루만졌지만 상처를 발견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신경쓰지 않고 다만 길을 재촉할 뿐이었다.

"빨리 나를 인도해라 !"

양과는 그녀의 손을 끌고는 숲속을 헤치면서 고묘로 가는 비밀스런 길로 갔다. 이때는 이미 밤중이고 달빛도 별빛도 없었다. 양과가 그녀의 손을 잡자 부드럽고 연약함이 느껴져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용아가씨나 이 여자나 모두 여자인데, 어째서 용아가씨의 손은 얼음처럼 차디차고, 이 여자는 이처럼 따스한가 !)

자기도 모르게 양과는 힘을 주어서 몇 번을 꼭 잡았다. 만약 무림의 어떤 사내가 홍릉파에게 이처럼 무례하였다면, 일찌기 칼을 뽑아 그를 죽였을 것이지만, 그녀는 그가 바보인데다가 지금 그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고, 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는 매우 즐거워서 화를 내지 않고서 속으로 생각한다.

(이놈이 정말로 바보는 아니구나. 내가 예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

잠시 만에 양과는 홍릉파를 무덤 앞까지 데리고 갔다. 무덤의 문은 닫혀 있지 않았고, 단지 문이 되는 큰 비석만이 여전히 무덤 옆에 있었다. 그는 매우 걱정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빌었다.

(아가씨가 죽지 말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

이때에는 홍릉파에 대한 아무런 흑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선고, 내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만약 악귀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는 귀신으로 변해서 영원히 당신에게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홍릉파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바보가 갑자기 대담해지니 참으로 이상하군.)

그리고 곧 그녀는 활사인묘의 길이 매우 구불구불해 만약 한 발자국

이라도 잘못 디디면 길을 잃게 된다는 사부의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양과는 조금도 지체없이 재빨리 걷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돌고 이곳저곳을 밀고 당겨서 열어 보는 것이, 길을 자세히 아는게 아닌가 ! 홍릉파는 의심이 생겼다.

(무덤 가운데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어려운가 ? 사부가 나를 속이다니....... 내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그 동안 그렇게 두려워했던가 ?)

순식간에 양과는 그녀를 데리고 무덤 중심의 소용녀의 침실로 갔다.

그는 가볍게 문을 밀고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아가씨 !>하고 낮게 불렀다. 홍릉파는 옆에서 급히 그의 입을 막았다.

홍릉파도 이미 무덤 속에 깊이 들어와서, 비록 무예가 높다고는 해도 겁을 먹고 있다가 양과의 소리를 듣고는 부싯돌을 꺼내 탁자의 초에 불을 붙였다. 촛불을 밝히자 침대 위에 흰옷의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일찍부터 사숙(師叔) 소용녀를 만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이처럼 태연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다.

"제자 홍릉파, 사숙님께 문안 드립니다."

양과는 크게 한숨을 쉬고는 소용녀의 동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비로소 가볍게 <음> 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가 소리를 내자 양과는 매우 기뻐하여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했다. 홍릉파가 물었다.

"바보, 지금 너는 뭘 하는 게냐 ?"

양과는 울면서 더듬거린다.

"저......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

소용녀는 천천히 몸을 돌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겁낼 것 없다 ! 방금 나는 한 번 죽었는데, 조금도 어려울 것 없지."

홍릉파는 별안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니...... !)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 다시 말을 건넨다.

"제자 홍릉파, 사숙님께 인사 드립니다."

소용녀가 가볍게 묻는다.

"나의 사자(師姉)는 ? 그녀도 왔느냐 ?"

홍릉파가 말했다.

"사부님이 저에게 명령하여, 제가 먼저 사숙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소용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곧 나가거라 ! 이곳은 너뿐 아니라 너의 사부까지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홍릉파는 그녀의 얼굴이 온통 병색이고 가슴에 핏자국도 있고, 대화 도중 숨이 몹시 짧은 것을 보고는 그녀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서 경계의 마음을 풀었다.

"조사 할머니는 어찌되셨나요 ?"

"일찍 돌아가셨다. ......너는 빨리 돌아가거라."

홍릉파는 안심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 참 묘하구나, 뜻밖에도 내가 이 활사인묘의 계승자가 되다니. ......)

소용녀의 목숨이 경각에 있는 것을 보자 그녀가 갑자기 죽어서 옥녀심경이 있는 위치를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는 급히 물었다.

"사숙, 저의 사부님께서 옥녀심경을 구해 오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즉시 사숙님을 치료해 드리지요."

소용녀는 오랜 동안 수련해서 칠정육욕(七情六欲)을 자제할 수 있었으나, 이때는 중상을 입은지라 자제심을 잃은 터에, 또 그녀의 이 말을 듣고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 황망히 화를 내고는 기절해 버렸다. 홍릉파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얼마간 그녀의 몸을 주물렀다. 소용녀가

천천히 깨어나면서 말했다.
"사자는 ? 그녀를 모시고 와라. 할 말이 있다. 그녀와 함께 할 말
이 있다."
홍릉파는 고묘파의 이를 데 없는 비밀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느
끼고는 냉소하면서 품속에서 2 개의 길다란 은침을 꺼내며 소리쳤다.
"사숙, 이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빨리 옥녀심경을 주시지 않는다면.
..... 나중에 이 제자의 무례를 탓하지 마십시오."
양과는 빙백은침(氷魄銀針)을 보고는 크게 놀랐지만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사태가 위급한 것을 알고는 급히 외쳤다.
"선고, 여기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말하고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등을 안았다. 그리고 견정(肩貞),
경문(京門)의 2 개 혈도를 각각 눌렀다. 홍릉파는 이 바보가 이러한 고
급무술을 사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미 온몸이 마비되
어 아무런 욕도 하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다. 양과는 이것만으로 안심
이 안 되어서 그녀의 거골(巨骨)을 다시 몇 번 누르면서 소용녀에게
물었다.
"아가씨, 이 은침으로 이 여자를 찌를까요, 말까요 ?"
하고는 옷깃에서 은침을 뽑았다.
홍릉파는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말을 귀로 똑똑히 듣고, 은침
을 들고 웃으면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양과를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살
려 달라고 애원했다. 양과는 그런 그녀가 불쌍해 보였다.
소용녀가 말했다.
"과아야, 문을 닫아서 우리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양과는 놀라서 외쳤다.
"예 ?"
막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등뒤에서 요염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매(師妹), 잘 있었는가 ? 나는 벌써 와 있었다."
양과는 크게 놀라서 몸을 돌리니 희미한 촛불 아래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적련선자 이막수였다.

이전에 홍릉파가 활사인묘 가운데에 있는 길을 물을 때부터 이막수는 그녀가 혼자서 옥녀심경을 훔치러 갈 것을 알고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장안에 보내 사람을 죽이는 등의 일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서 그녀가 어떻게 양과와 만나는지,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는지, 소용녀에게 어떻게 옥녀심경을 빼앗으려 하는지,무슨 실수를 하는지를 보았다. 그러나 이막수의 신법이 민첩하여 홍릉파와 양과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소용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사자 !"

하고는 계속해서 기침을 했다.

이막수는 냉담하게 양과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놈은 누구냐. 조사 노파가 고묘에는 절대로 남자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런 놈이 들어오게 되었는냐 ?"

소용녀는 기침을 심하게하여 대답할 수 없었다. 양과는 소용녀의 몸을 막으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이분은 나의 사부님이오, 여기 일은 당신이 참견하지 마시오."

이막수는 웃으면서 말한다.

"이 바보는 정말로 멍청한 척을 잘 하더군......."

하더니 이막수는 불진(拂塵)을 흔들며 거의 동시에 세 가지 동작을 취하며 앞으로 나갔다. 이것은 고묘파의 무공 중 아주 무서운 기술로 다른 파의 무사들이었다면 이 오묘한 이치를 알지 못하여 한 번에 뼈가 부서졌을 것이다. 양과는 이 기술에 대해 이미 충분히 연습해서 비록 이막수의 공력이 깊다고 해도 그녀의 3가지 동작이 섞인 삼연투림(三燕投林)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이막수는 불진을 회수하며 속으로 겁을 먹고 그의 피하는 신법을 보니 고묘파의 무학이므로 화가 나서 외쳤다.

"사매, 이놈이 누구냐 ?"

소용녀는 다시 피를 토하며 감히 큰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과아야, 대사백(大師伯)께 어서 인사를 올려라."

 양과는 <체 !>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녀가 무슨 사백입니까 ?"

 소용녀가 양과를 불렀다.

 "귀를 가까이 대거라. 할 말이 있다."

 양과는 그녀가 이막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다. 양과는 머리를 숙여서 귀를 소용녀의 입에 대었다. 소용녀는 모기만한 소리로 가볍게 말했다.

 "상 귀퉁이에 솟아오른 석판이 하나 있을 거야. 너는 힘을 다해 왼쪽으로 당기고, 즉시 상으로 뛰어올라라."

 이막수는 그때 그녀가 제자여서 자기한테 인사를 올리라고 분부하고, 하나는 중상을 입고 하나는 후배인 것을 보고는 마음을 놓고 어떤 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윽박질러서 옥녀심경을 빼앗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양과는 고개를 끄덕이며 큰소리로 말했다.

 "제자가 대사백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며 천천히 손을 뻗어서 소용녀 옆에 있는 상 근처를 만지자 과연 위로 솟아 나온 석판이 있었다. 즉시 온힘을 다해 당기고 상으로 뛰어올랐다. 콰르릉, 소리와 함께 석상이 갑자기 아래로가라앉았다. 이막수는 고묘의 곳곳이 모두 기관(機關)으로서, 그때 사부가 편애하여 자기를 속이고 모든 기관을 움직이는 법문을 사매에게 전수해 준 것을 알고는 즉시 소용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이때 소용녀는 방어할 힘도 없고 비록 석상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이막수는 재빠르게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상에서 끌어내리려 발버둥쳤다. 양과는 크게 놀라서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막자,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콰당, 하는 소리와 함께 석상이 이미 아래층 석

실에 떨어졌다. 소용녀와 양과, 그리고 이막수와 홍릉파 네 사람은 위 아래로 나누어졌다.

양과는 어렴풋이 석실 안에 의자와 탁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탁자 옆으로 달려가서 부싯돌로 탁자에 있던 반 토막 초에 불을 붙였다.

소용녀가 한탄하면서 말했다.

"내가 피가 부족하여, 운공으론 도저히 치료하기 어렵다. 비록 내가 몸에 상처가 없더라도 우리들은 사자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양과는 그녀가 피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는 그녀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왼손을 들어올려 어깨의 근맥(筋脈)을 물어 뜯었다. 즉시 선혈이 흘러나왔다. 그가 소용녀의 입에 상처를 대자 선혈이 그녀의 입으로 흘러들어갔다.

소용녀는 본래 온몸이 차가왔으나 피가 뱃속으로 들어가자 몸이 점차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자 양과는 무엇인가 그녀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고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허리춤의 혈도를 찔러서 꼼짝못하게 하였다. 얼마가 지나자 상처의 파가 굳어 양과는 다시 오른쪽 어깨를 물어 뜯어 피를 그녤 早好 “農 먹였다. 양과는 어지럽고 눈앞이 가물거리며 온몸에 아무 힘도 없어지자 그녀의 혈도를 놓아 주었다. 소용녀는 그를 잠시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연공을 하기 시작했다. 양과는 초가 다 탄 것을 보고는 새로운 초로 바꾸었다.

두 사람은 각자 연공을 하였다. 양과는 피를 잃은 후의 피로를 보충하도록 애썼다. 소용녀는 양과의 선혈을 먹은 후 정신이 많이 맑아져서 두 시간 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건진 것을 알고는 그를 보면서 가볍게 웃었다. 양과는 그녀의 양볼이 원래 희디흰 백색에서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자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아가씨, 좋은데요 !"

소용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손할머니의 방으로 가자. 네게 할 말이 있다."

양과가 물었다.
"피곤하지 않아요 ?"
소용녀가 낮게 말했다.
"괜찮아."
손을 뻗어서 그녀가 오른쪽 석벽의 기괄(機括)을 몇 번 밀자 돌이 움직이면서 길이 나타났다. 이 길은 양과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소용녀는 어두운 가운데 그를 데리고 손노파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촛불을 밝히고 양과의 옷을 한 보따리 싸며 자기의 금실 장갑도 그 안에 넣었다. 양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아가씨, 지금 뭘 하세요 ?"
소용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2개의 커다란 옥봉장(玉蜂漿)을 보따리에 넣었다. 양과는 기뻐하면서 말했다.
"아가씨, 우리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
소용녀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밖으로 나가라. 너는 착한 아이니까 내 말을 잘 듣지 !"
양과는 크게 놀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요 ?"
소용녀가 말한다.
"나는 사부에게 맹세했어 결코 이 묘를 나가지 않기로. 나는 나갈 수 없어."
하고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양과는 그녀의 안색이 엄숙하고, 말투는 완고해 결코 자기가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는 감히 다시 이야기하지 못하였으나, 이 일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여겨 마침내 용기를 내서 다시 말했다.
"아가씨, 아가씨가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어요 !"
소용녀가 말한다.
"지금 사자가 무덤 밖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막고서 나에게 옥녀심

경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나의 무술은 그녀를 따르지 못하고, 또 상처를 입었으니 결코 그녀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양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건 그래요."

소용녀가 다시 말한다.

"여기에 양식이 남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겨우 20일 정도 먹을 수 있고, 다시 벌꿀을 먹으면 한 달은 견딜 수 있는데, 한 달 뒤에는 어쩌지 ?"

양과는 멍청한 표정으로 다시 조른다.

"우리 억지로라도 나가요. 비록 사백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해도 어찌 도망갈 수조차 없을라고요 ?"

소용녀는 고개를 흔들어 말한다.

"만약 네가 사백의 무술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들 어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

소용녀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야 ! 내가 그녀와 싸워서 고묘의 깊은 곳으로 유인하면 너는 그 틈을 이용해 도망칠 수 있을 거야. 도망친후무덤 왼쪽의 큰 돌을 옮겨서 안쪽에 있는 기괄(機括)을 뽑으면 곧 만 근(萬斤)되는 돌 두 개가 떨어져서 영원히 무덤 입구를 막게 될 것이다."

양과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서 묻는다.

"아가씨가 기괄을 움직일 수 있나요 ?"

소용녀가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아니 ! 그때 왕중양이 항금(抗金) 운동을 일으켜 이곳에 전량(錢糧)과 병기를 숨겨 두었지. 따라서 기괄이 겹겹이고 배치가 조밀하단다. 문 앞에 두 개의 만 근 되는 단용석(斷龍石)도 그때 배치하였었다. 만약 의거에 실패하고 금병(金兵)이 먼저 알고공격하여 중과부적이면 그는 이 돌로 무덤을 막아서 무덤에 들어온 적군은 결코 살아서

돌아갈 수 없게 하려고 했지. 그는 항금 운동에 실패한 후 이 석묘에 서 혼자 살자 금나라 왕이 그의 소재를 알고는 수십 명의 고수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 했으나 오히려 그에게 잡히거나 죽임을 당해 결국 아무도 도망칠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어. 후에 금왕이 죽고 황태자가 자리를 계승했으나 이 일을 알지 못해서 그를 가만 두었지. 이 때문에 단용석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 왕중양이 활사인묘를 나올 때 무덤 속의 모든 기괄의 작동방법을 조사 할머니에게 알려주었단다."

양과는 점점 놀라서 외쳤다.

"아가씨, 전 아가씨와 생사를 같이하겠어요 !"

소용녀가 다시 말한다.

"나와 함께 한다고 뭐가 좋겠니 ? 너는 바깥 세계가 놀기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 빨리 나가거라. 지금 너의 무술이면 전진교의 도사들도 감히 너를 다시는 귀찮게 하지 못할 거야. 네가 홍릉파를 속이는 것을 보니 나보다 총명하여 앞으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돌보아 줄 필요가 없겠어."

양과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안기면서 말했다.

"아가씨, 만약 아가씨와 함께 하지 않으면 무엇인들 어찌 살맛이 나겠습니까 ?"

소용녀는 원래 냉정하고, 말투도 단호했으나 이때 양과의 이 말을 듣고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며, 눈앞을 아른거리며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녀는 크게 놀라며 사부가 임종시에 그녀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생각났다.

<너의 무공은 칠정과 육욕을 끊는 고급무술이니, 만약 이후에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무공에 큰 손해가 있을 뿐 아니라 생명도 위험하니 잘 기억해 두도록 해라.>

즉시 양과를 밀어젖히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 알겠어 ?"

소용녀는 짐보따리를 그의 등에 ▒茨 벽에서 칼을 꺼내어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擴

은 매우 빠르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내 말을 알겠느냐 ?"

양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네, 알았어요."

소용녀가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만약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도 너에게 한을 품겠다. 자, 어서 가라 !"

그녀는 양과의 손을 잡고 갔다.

전에 그녀의 손은 얼음같이 늘 차가왔다. 그러나 이때 그녀의 손은 평소와 달리 따뜻한 게 마음이 뛰었으나 이런 것도 생각할 틈 없이 그녀와 바삐 길을 걸었다. 잠시 후, 소용녀는 큰 돌을 만지면서 낮은 소리로 다시 말했다.

"내가 그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서북쪽으로 나가거라. 홍릉파가 너를 쫓으면 옥봉침을 이용하고 ."

양과는 정신이 어지러웠으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 했다.

옥봉침(玉蜂針)은 고묘파의 독자적인 암기이다. 임조영은 당시 2 개의 무서운 암기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빙백은침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옥봉침이었다. 이 옥봉침은 터럭과 같이 가느다란 금침으로 황금과 무쇠로 만들고 벌을 독으로 다듬어서 비록 작지만 황금의 무게 때문에 멀리까지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암기가 너무 독하여 임조영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중년에 무술이 입신의 경지에 이르자 더욱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소용녀의 사부는 이막수가 영원히 무덤 속에서 살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빙백은침을 전해 주고, 옥봉침은 전해 주지 않았다.

소용녀는 잠시 정신을 집중해 석벽의 기괄을 움직여 천천히 좌측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녀는 쌍주대(雙綢帶)를 휘둘러 좌측으로 이막수를, 우측으로 홍릉파를 공격하며 재빠르게 앞으로 나갔다. 이때

이막수는 벌써 홍릉파 몸에 있는 혈도를 풀고 몇 마디 그녀를 꾸짖고는, 방향을 찾아서 석실을 나가려 했다. 이때 돌연 소용녀의 공격을 받고는 두 사람 모두 놀랐다. 이막수는 불진을 휘둘러서 그녀의 주대를 막았다. 불진과 주대는 둘 다 매우 부드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부드러움으로 부드러움을 상대해야 했다. 그러나 이막수의 공력이 뛰어나서 두 가지 무기가 부딪치자 소용녀의 주대가 즉시 휘말렸다.

소용녀의 왼쪽 주대를 돌리고, 오른쪽은내밀어 순식간에 계속 몇 가지 동작을 펼쳤다. 이막수는 놀라고 화가 나서는 소리쳤다.

"사부님이 과연 너를 편애하였구나. 그녀가 언제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었지 ?"

스스로 그녀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이막수는 두 가지 이유로 그녀를 죽이지 않기로 했다. 쳤째는 옥녀심경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녀가 죽으면 이 넓은 무덤 속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부님이 그녀에게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나 보기 위해서였다.

홍릉파는 지금까지 자기가 총명하고 강하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뜻밖에도 멍청한 소년의 손에서 반나절 희롱당하면서 아무런 이상한 기미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 화가 나서는 악을 썼다.

"야이, 바보야 ! 나를 놀리다니......."

양손에 칼을 쥐고 반 걸음쯤 나서며 말했다.

"너의 코를 베어야겠다."

쌍검은 좌로 우로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 양과는 그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는 칼을 들어 막았다. 평소 같으면 양과는 그녀에게 농담을 하였겠으나, 소용녀와의 일로 눈에 눈물이 고여 물체가 가물거리므로 아무렇게나 칼을 휘둘러 특별히 반격할 뜻은 없었다.

이막수와 소용녀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이막수가 불진을 휘두르자 소용녀의 왼쪽 주대가 휘말렸다. 이막수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매,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았겠지 ?"

하면서 손에 힘을 주어 주대를 두 조각 내었다. 불진과 주대가 모두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조각 내는 것은 칼을 부러뜨리는 일에 비해서 10 배 이상 어려웠다. 이막수의 얼굴은 매우 자신에 차 있었다.

소용녀는 동요의 기색도 없이 말했다.

"너의 실력이 겨우 그 정도냐 ?"

두 조각 난 주대를 휘날리며 오른손 주대를 갑자기 날려서불진의 자루를 말아서는 좌우로 당기니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불진이 두 동강이 났다. 공력을 말하자면 이막수가 훨씬 뛰어났느나, 동작의 민첩함과 교묘함은 이막수가 소용녀를 따르지 못하였다. 이막수는 놀라서 불진을 버리고 빈 손으로 주대를 빼앗은 뒤, 소용녀를 밀어붙였다.

이윽고 소용녀는 동쪽 석벽의 앞에까지 밀려서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과아야, 빨리 가거라 !"

쿠르릉, 소리와 함께 서북쪽으로 동굴이 하나 생겼다. 이막수는 크게 놀라서 급히 몸을 돌려서 양과를 잡으려 했다. 소용녀는 주대를 뻐리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막수가 몸을 뒤로 해 그녀를 막았다. 소용녀가 다시 외쳤다.

"과아야, 이때다 ! 빨리 가거라 !"

양과는 소용녀를 보고는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음을 알고는 말했다.

"아가씨, 저는 가요 !"

갑자기 3 개의 칼이 모두 홍릉파의 얼굴을 향하였다. 홍릉파는 그의 동작이 연약하다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강해지자 황급하게 뒤쪽으로 뛰었다. 양과는 허리를 구부려서 석문에 들어가려다 고개를 돌려서 소용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려고 했다.

소용녀는 사자와 맨손으로 대항하면서 비록 중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옥녀심경의 변환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녀는 양과의 그림자가 동굴 입구에서 번쩍이자 이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속에 열이 치솟아 눈이 가물거리는 게 마치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 두 번 이나 울어서 스스로도 크게 놀랐다. 고수와 대항하는데九인들 용납될 수 있을 것
인가 ? 이막수는 그녀가 잠시 멍청해지자 즉시 이것을 틈타서 그녀의 왼팔 손목의 회종혈(會宗穴)을 잡고 발을 걸었다. 소용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다.
양과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마침 이 광경을 보고 이막수가 소용녀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려 하자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 올랐다.
"우리 아가씨에게 손대지 마라 !"
외치며 양과는 다시 바위 틈의 문으로 들어와 뒤에서 이막수를 꼭 껴안았다. 이것은 어느 무공에도 없는 동작으로 양과가 매우 급한 나머지 그만 그녀를 껴안은 것이다. 이막수는 그의 두 팔에 꼭 안겨서 잠시 발버둥쳐도 빠져 나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동작이 난폭하고 성질이 급했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아 옥(玉)같이 몸을 지켜서 여전히 처녀였는데 별안간 양과가 그녀를 꼭 껴안자, 남자의 열기가 등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져 마음이 움직이고, 자기도 모르게 전신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팔에 아무 힘이 없어짐을 느꼈다. 소용녀는 이 틈을 이용해서 반격을 하려 했으나 홍릉파의 칼끝이 양과의 등을 향하는 것을 보았다.
소용녀는 땅에 누워서 칼이 양과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왼쪽으로 굴러서 양과와 이막수를 동시에 옆으로 밀어 홍릉파의 칼이 허공을 찌르게 하였다. 소용녀는 몸을 일으키며 다시 소리쳤다.
"과아야, 빨리 나가거라 !"
양과는 이막수의 허리를 꽉 조이며 외쳤다.
"아가씨, 빨리 나가세요 ! 내가 이 여자를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
이막수는 생사가 달린 위급한 사태라고 여러 번 생각했으나 그의 품

에 안겨서 오히려 정신이 몽롱하고 기분을 형용하기 어려워 마침내는 발버둥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소용녀는 이상하게 여겼다.

(사자는 무공이 뛰어난데 어찌 양과 때문에 꼼짝하지 못할까 ? 혹시 혈도를 찔린 것이 아닌가 ?)

그 순간 홍릉파가 왼손의 칼로 다시 양과를 찌르려는 것을 보고 소용녀는 즉시 두 손가락을 뻗어서 그녀의 오른손에 있는 칼을 힘껏 밀자 갑자기 칼이 튀어올라서 그녀의 왼손 장검에 부딪쳤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홍릉파의 양손이 마비되어 두 자루의 칼이 동시에 떨어지고, 그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쌍검이 부딪쳐 불꽃이 튀자 반짝, 하는 순간에 이막수는 사매가 자기를 쳐다보는 이상한 눈빛을 보았다. 이막수는 부끄러운 나머지 욕설을 내뱉았다.

"이 생쥐 같은 새끼야 ! 정말 죽고 싶으냐 ?"

하면서 양 어깨에 힘을 주어 양과의 품을 빠져서는 손을 내밀고 소용녀에게 달려갔다.

소용녀는 양과의 동작을 주시하다가 이막수의 손이 자기에게 이르자 황급히 손으로 막았으나 그녀의 장력이 강한 것을 느꼈고, 가슴이 울리며 아파왔다. 양과가 자기를 돕기 위해 뒤에서 기어오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과아야, 너 정말로 내 말을 안 듣기냐 ?"

양과가 울부짖듯 외쳤다.

"무슨 말이든 모두 잘 듣겠지만, 그 한 마디는 들을 수 없어요 ! 아가씨, 나는 아가씨와 생사를 같이하고 싶어요 !"

소용녀는 그의 진심어린 말을 듣고는 매우 감동하였다. 이막수가 다시 손을 들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공력이 이미 크게 손상되어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는 고개를 숙여서 피한 뒤 양과를 잡고서 석문으로 달아났다.

이막수는 그림자처럼 쫓으면서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잡으려고 했다.......

"멈춰라 !"

소용녀가 돌아서며 10 여 개의 옥봉침을 내던졌다. 이막수는 갑자기 꿀맛 같은 향기를 맡고는 암기가 매우 무서운 것임을 알고서 크게 놀라 급히 허리를 뒤로 빼다가 홍릉파의 몸과 충돌해 두 사람이 함께 쓰러졌다.

딩딩딩, 하는 극히 가벼운 소리와 함께 몇 개의 옥봉침이 모두 석벽에 꽂혔다.

소용녀는 양과를 데리고 석실을 재빨리 빠져나와서 문 앞에 있는 기괄을 움직여서 석실을 문을 막아 버렸다.

*** 왕중양의 유각(遺刻) ***

양과는 소용녀를 따라 안뜰을 지나서 고분 밖으로 나왔다. 그는 그녀와 함께 무덤을 빠져나온 것이 기뻤다. 밤하늘에는 초롱초롱 별이 반짝였다.

"아가씨, 그 못된 여자들이 무덤 안에 갇혀 죽도록 단용석을 내려놓아야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양과는 기괄장치를 찾으려 했다.

소용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잠깐만 !"

양과는 이상해서 급히 물었다.

"왜요 ?"

"사부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이 묘를 잘 간수하여절대로 남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당부하셨단다."

"묘문을 막아 버리면 그 여자들은 거기서 죽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도 다시 들어가지 못하잖아 ? 나는 사부님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 없어. 너하곤 다르지 !"

말을 마친 소용녀는 눈을 크게 뜨고 양과를 쳐다보았다.

양과는 뜨거운 피가 가슴으로 치밀어올라 그녀의 팔을 잡았다.

"네에, 아가씨 말을 듣지요."

소용녀는 마음이 격동될까 스스로 두려워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마음을 가라앉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묘문으로 들어갔다.

"돌을 내려놓아라 !"

소용녀는 마음이 변할까 봐 돌아다보지도 않고 그냥 소리쳤다.

양과는 이미 경심한 바가 있어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꽃향기와 풀잎의 싱그러운 기운을 가슴 깊숙이 채우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반짝거리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별들이구나.)

묘비 좌측으로 가서 소용녀가 방금 알려준 대로 힘껏 거석(巨石)을 옮겼다. 그러자 발 밑으로 둥글둥글한 돌멩이 하나가 나타났다. 돌멩이를 주워들어 힘껏 당기자 돌멩이가 있던 자리에 구멍이 하나 나타났다. 미세한 모래들이 이상스럽게도 구멍 속에서 밖으로 신속하게 흘러나오자 묘문 위쪽의 거석 두 덩어리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이 단용석 두 덩어리는 만 근이 넘는 무게로, 당시 왕중양이 이 묘를 축조하기 위해 1백여 명을 동원해서야 거의 완성한 것이었다. 이 묘문이 꽉 막혀 버리면 이막수, 소용녀, 홍릉파 세 사람의 무공이 제 아무리 높다 하여도 절대로 살아서 이 묘를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소용녀는 거석이 내려앉는 소리를 듣자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양과는 거석이 땅에서 약 두 척 가량까지 떨어졌을 때, 돌연 옥녀투사(玉女投梭) 일초를 전개하여 쏜살같이 몸을 날려 이 두 척 가량의 틈 사이를 뚫고 들어섰다. 소용녀가 놀래 비명을 지르는 순간 양과는 이미 그녀 앞에 우뚝 섰다.

"아가씨, 더 이상 나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양과가 말을 막 마치는 순간 쿠쿵,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두 덩어리의 거석이 땅에 떨어졌다.

소용녀는 놀람과 기쁨이 교차되어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마터면 기절할 뻔하였다. 석벽에 기대어서 한참 동안이나 숨을 몰아 쉬고 나서야 입을 떼었다.

"그래, 우리 둘은 이제 죽더라도 함께 죽자 !"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잡고내실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편 이막수는 기괄 장치를 찾기 위하여 사방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었다. 여기저기를 만져 보고 두드려도 보았지만 끝내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무척 초조한 상태였었는데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막수는 신형(身形)을 획, 날려 먼저 소용녀와 양과의 퇴로부터 차단했다.

소용녀가 차갑게 말했다.

"나하고 같이 한 군데 가볼 데가 있어요."

이막수는 주저하며 대답을 선뜻 못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무덤 안에는 도처에 기괄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녀를 따라 가선 안 되지. 만약 그녀가 무슨 계략을 쓴다면 나로선 막아낼 재간이 없을 거야.)

"사부님의 영구(靈柩)를 뵙게 해 드리겠어요. 가기싫다면 그만 두시구요."

"사부의 이름을 빙자해 나를 속일 순 없을걸......."

소용녀는 가볍게 냉소를 띨 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문 입구로 걸어갔다. 이막수는 그녀의 말과 행동에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할 수 없게 하는 위엄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자기 제자와 함께 뒤를 따랐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조금도 방심 할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그녀가 뒤에서 암습하는 것 따위는 아랑곳도 안 하고 양과의 손을 잡고서 앞으로 걸어갔다. 이윽고 석관이 놓여진 석실에 도달하였다. 이막수는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는 사부에게 배웠던 옛날 생각이 나 잠시 가벼운 감상에 젖어들었으나 곧 사부의

편애를 떠올리자 애잔했던 마음이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사부의 영구를 보고도 절을 하지 않았다.

"이미 사제지간의 정이 끊어진 지 오래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리로 데리고 왔지 ?"

소용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여기에는 아직 비어 있는 석관(石棺)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사자가 사용할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에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를 고르시지요."

하고 말하면서 소용녀는 두 개의 석관을 가리켰다. 이막수는 화가 치밀었다.

"네가 그토록 간이 크단 말이냐 ?"

말을 마치는 동시에 일장을 소용녀의 가슴을 향해 격출시켰다. 그러나 소용녀는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처럼 되받아 칠 기색이 없었다. 이막수는 일순 생각에 잠겼다.

(이 일장으로 그녀를 죽일 수는 없지.)

손끝이 그녀의 가슴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 이막수는 돌연 일장을 회수해 버렸다.

소용녀는 평온하게 말했다.

"사자, 묘문의 단용석은 이미 닫혀 버렸어요 !"

순간 이막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덤 안에 설치된 여러 기괄 장치를 그녀는 비록 다는 모르지만, 단용석이 묘문을 봉쇄하는 가장 취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당시 사부가 큰 강적을 만나 막아내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단용석을 내려 적을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빙백은침과 옥봉침으로 적을 물리쳤던 것이다. 그런데 사매가 스스로 무덤 안에 갇혀 버리려고 할 줄은 생각도 못 했던 것이다.

"다른 나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렇지 ?"

소용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단용석이 일단 닫히면 묘문을 다시 열 수가 없다는 것을 설마 잊지는 않았겠지요 ?"

이막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섶을 낚아채고는 격렬한 말투로 소리쳤다.

"교활한 계집 !"

소용녀는 그러나 조금도 음색에 변함이 없었다.

"사부가 남겨 놓은 옥녀심경이 저기 있으니 보고 싶으면 가서 보시구료. 나와 양과는 여기에 있겠으니 죽이려면 지금 손을 쓰시지요. 다만, 살아서 이 무덤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을 거요 !"

이막수는 소용녀의 가슴을 잡았던 손을 서서히 풀면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자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좋다 ! 너희 둘부터 먼저 죽여 주지 !"

그녀는 소용녀의 얼굴에 일장을 휘둘렀다.

순간 양과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 소용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나부터 먼저 죽여라 !"

이막수는 일장을 내려 소용녀의 가슴 쪽으로 돌려 버렸다. 이막수는 낭패한 표정으로 양과를 쳐다보았다.

"네가 이토록 그녀를 가로막는 수작은 그녀를 위해 정녕 달갑게 죽겠다는 뜻이냐 ?"

양과가 낭랑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

이막수는 왼손을 비스듬히 젖혀 양과의 허리춤에서 장검을 빼들어 그의 목을 겨누고서 엄숙하게 소리쳤다.

"나는 단지 한 사람만 죽이겠다. 다시 한 번 말해 봐라. 네가 죽겠느냐, 아니면 그녀를 죽일까 ?"

양과는 대답을 않고 소용녀를 바라보며 씽긋 웃었다.

이들 두 사람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처지라 이막수가 어떠한 살수를 펼친다 해도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였다.

이막수는 길게 탄식을 했다.

"사매. 너의 계율은 무너졌으니 하산해도 되겠구나."

고묘파의 사조인 임조영(林朝英)이 당시 왕중양을 사모하였으나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녀는 상심한 나머지 하나의 계율을 세웠다. 무릇 그녀의 진전(眞傳)을 이어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묘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며 종남산을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 계율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남자가 먼저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지만.

임조영은 천하의 남자들이란 모두 박정스러운 존재라고 여겼다. 왕중양같은 영웅 호협도 그랬건만 하물며 다른 남자들이야 ?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남자는 절대로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녀의 후대의 제자가 그와 함께 산을 내려가도 괜찮다고 했을 것이다.

이막수는 소용녀에 비해서 일찍 사문(師門)에 들어왔지만, 평생토록 하산하지 못하는 계율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마땅히 수제자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용녀에게 진전을 이어받게 하였던 것이다.

이때 이막수는 양과가 이토록 성심으로 소용녀를 대하는 것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부럽기도 하고 스스로의 처지가 한스럽기도 하였다. 육전원이 자기에게 대했던 매정스러운 태도가 생각이 나자 두 눈썹이 치켜올라갔다.

"사매, 너는 정말 복이 많구나 !"

장검을 양과의 목을 향해 급히 내찔렀다.

소용녀는 그녀가 악랄하게 손을 쓰난 것을 보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왼손을 휘둘러 10 여 개의 옥봉침을 던져 버렸다.

이막수는 두 발을 찍어 뛰어올라 독침을 피하였다.

소용녀는 이미 양과를 끌고 문 밖으로 내달리며 고개를 돌려 이막수에게 말했다.
"사자, 계율이 무너졌든 안 무너졌든 상관없소. 우리 네 사람의 운명은 이 무덤 안에서 동귀어진(同歸於盡)하게 되어 있소. 다시는 얼굴을 보기 싫으니 각자 죽을 곳을 찾아가도록 하지요."
벽 모서리를 소용녀가 한번 누르자 석문이 내려와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소용녀는 가슴이 뛰어 순간 쓰러지려고 했다. 양과가 급히 그녀를 부축해 손노파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옥봉장 두 잔을 따라 그녀에게 마시게 하고 자신도 한 잔 마셨다.
소용녀가 숨을 가느다랗게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양과 ! 무엇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다고 했지 ?"
"세상에서 오직 아가씨만이 내게 잘해 주었는데 어째서 아가씨를 위해 죽지 못한단 말입니까 ?"
소용녀는 잠시 후 아무 말도 없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진작 이런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덤으로 다시 돌아와 그녀들과 함께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만약 돌아오지 않았다면 네게 나를 위해 죽으리린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따라서 그 계율도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없었을 것이긴 하지만......."
"우리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 봐요, 아가씨 !"
"너는 이 고묘가 얼마나 교묘하게 건축되어졌는지 모른다. 우린 이제 다신 빠져 나갈 수 없어."
양과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
"아니.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바깥 세상에는 나를 아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후회를...... ?"
소용녀는 이전에는 그가 <아가씨는 왜 나를 귀여워하지요 ?>하고 말하잔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심정이 바뀌어 매우 따뜻

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넌 한숨을 내쉬지 ?"

"만약 우리가 함께 하산한다면......,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아가씨와 함께라면 얼마나 유쾌할까 하고 생각했어요."

소용녀는 갓난아기 때부터 고묘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정은 고인 물과 같이 잔잔했다. 사부와 손노파는 그녀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바깥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양과가 다시 바깥 세상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도 모르게 서글픈 마음이 조수처럼 밀려들었다.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위로 솟구쳤다. 소용녀는 운기하여 조정하려 했으나 평정이 안 되자 괴이하게 생각이 되었다. 중상을 입은 다음이라 공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공력으로 칠정육욕을 억누른다는 것이 원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나이는 이미 스물이 넘었고 갑자기 위기에 봉착했는데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남자까지 있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산란해져 마치 제방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 생각들이 흘러넘쳐 나왔다.

그녀는 침상에 앉아 한동안 운기를 하였으나 좀처럼 평온해지지 않자 방안을 왔다갔다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더욱 답답해져 발걸음이 더욱 빨라져 마치 뛰는 듯했다.

양과는 그녀의 두 뺨이 발갛게 달아오르며 안절부절못하는 태도를 바라보며 이상스럽게 여겼다. 소용녀는 한바탕 걷더니 다시 침상에 앉아 양과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근심어린 표정이 가득 찬 것을 보자 돌연 가슴이 뛰었다.

(내가 죽는다면 그 역시 죽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스승과 제자를 구별하여 뭘 어쩌겠단 말인가 ? 만약 그가 나를 껴안는다면 나는 그

를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꽉 안아달라고 할 것 같구나.)
 양과는 그녀의 눈매에 물기가 어리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숨을 내쉬는 것을 보자 그녀의 상세(傷勢)가 또 나빠지는 것을 알고 소리쳤다.
 "괜찮아요 ?"
 소용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양과, 이리 좀 가까이 오렴 !"
 양과가 침상 옆으로 다가서자 소용녀는 그의 손을 잡아 가볍게 자기의 얼굴에 갖다 댔다.
 "양과, 나를 정말 좋아해 ?"
 양과는 그녀의 얼굴이 불같이 뜨거운 것을 느끼자 떨리는 목소리로 급하게 물었다.
 "가슴이 많이 아파요 ?"
 소용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마음은 아주 편해. 양과,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거지 ?"
 "그럼요 ! 이 세상에서 오직 용아가씨만이 내 마음속의 사람인걸요."
 "만약 다른 여자가 나처럼 이렇게 너를 대해 준다면, 그녀에게도 잘 대해 주겠지 ?"
 "누구든 내게 잘해 준다면, 나도 그렇게 잘해 주겟지요."
 양과의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소용녀는 잡았던 손을 가볍게 떨었다. 순간 냉랭하게 변해 발갛게 물들었던 얼굴이 창백하게 바뀌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요 ?"
 "만약 세상의 다른 여자를 또 좋아하려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돼 !"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며칠 있다가 죽게 돼요. 내가 무슨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 설마 내가 이막수와 그녀의 제자에게 잘 대해 준다는 이야긴 아니시겠지요 ?"

소용녀가 겸연쩍게 웃었다.

"나는 정말 바보야. 하지만 나는 네가 직접 맹세하는 것을 듣고 싶어."

"무슨 맹세를 ?"

"이후론 마음속에 오직 나 하나만 있을 뿐이라고. 만약에 다른 여자가 있다면 나에게 죽어야만 된다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나쁜 놈이어서 용아가씨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가씨가 나를 죽여도 당연한 것이지요."

양과는 이어서 맹세하여 말했다.

"제자 양과는 한평생토록 마음에 오직 아가씨 한 사람만을 둘 것이며, 만약 이후에 변심한다면 아가씨가 죽일 필요 없이 아가씨 얼굴을 보는 순간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소용녀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그래, 그래. 이제 안심이 되는군."

소용녀는 그의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양과는 따뜻한 열기가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양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지 ?"

"아니에요, 아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용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에는 너에게 난폭하게 대했지. 처음에는 심지어 너를 내쫓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손노파가 너를 머물게 하였었지. 만약 내가 너를 내쫓지 않았더라면 손노파도 죽지 않았을 텐데...... !"

소용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녀는 다섯 살부터 무공을 배우기 시작해 눈물이라곤 흘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흐느껴 울자 심신이 떨리고 전신의 골격이 부딪쳐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내공력이 몸에서 빠져 나가는 것 같았다.

양과가 크게 소리쳤다.

"아니......, 왜 그래요 ? 괜찮아요 ?"

이 말이 끝나는 순간 덜컹, 소리가 나며 석문이 열리더니 이막수와 홍릉파가 들어왔다.
이막수는 단용석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어디를 가도 죽음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덤 안에 설치된 여러 기괄 장치들을 피할생각도 없이 용감하게 앞으로 내달았다. 그러다가 몇 간의 석실을 통과한 후에 손노파의 방에 도달했다. 그녀는 속으로 다행이라 여기며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덤 안에 설치된 기괄 장치는 원래 금나라 병사들을 막아내기 위해 모두 거석으로 만들어진 크고 무거운 것으로 누군가 조종을 해야 적을 막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소용녀는 암습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여러 기괄 장치도 자연 조용했던 것이다.
양과가 즉시 소용녀의 앞을 막아섰다.
"너는 비켜라. 나는 사매와 할 얘기가 있다."
양과는 그녀가 사부를 공격할까 봐 그녀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조금도 비키려 하지 않았다.
"그냥 말하면 되지 않느냐 ?"
이막수가 그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너 같은 남자는 정말 세상에서 두 번 찾아보기 힘들겠구나 !"
소용녀가 일어서면서 물었다.
"사자, 뭐라고 하는 소리지요 ? 좋다는 소리예요, 나쁘다는 소리예요 ?"
"사매, 너는 산을 내려가 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의 흉악한 마음을 몰라. 이처럼 정이 깊고 의리 있는 사람은 천하에 둘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야."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에다 비분한 나머지 세상 천지에 정이 있는 남자는 모두 말살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다.
소용녀는 상당히 기뻤다.
"그러면, 그가 나와 함께 죽는다 해도 헛된 삶이 아니겠네요."
"사매, 이 남자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 사람이지 ? 너 혹시 이 애에

게 시집을 간 것은 아니냐 ?"
"아니, 그 사람은 내 제자예요. 그가 잘 대해 준다고 하지만 좋은지 어떤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
이막수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매, 네 팔뚝 좀 보자."
이막수는 소용녀의 손을 가볍게 잡고는 그녀의 옷소매를 걷어 올려 눈처럼 흰 피부 위에 있는 붉은 점을 보았다. 이 점은 바로 사부가 찍어 준 수궁사(守宮砂) 점이었다. 이막수는 속으로 탄복했다.
(이 두 사람은 무덤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도 과연 예절을 지켰으니, 그녀는 아직도 옥처럼 깨끗한 처녀로구나 !)
이막수는 바로 자기의 소매를 말아올려 자기의 수궁사점을 보았다. 하얀 두 팔뚝 위에 빨간 점이 하나씩 찍혀 있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정절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사매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이 서로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하자 이막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소용녀의 손을 놓았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
이막수는 원래 그녀에게 모욕을 주어, 즉 남자를 꼬여서 사문을 더럽혔다고 욕을 해 그녀로 하여금 수치스런 나머지 무의식중에 묘를 빠져나갈 방도를 말하게끔 하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할 말이 없게 되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사매, 나는 너에게 사죄하려 온 것이야 !"
소용녀는 평소에 그녀가 자존심이 강해 다른 사람에게 통 머리를 굽히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자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몰라 담담하게 물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사자는 사자 할 일을 하는데 무슨 사죄할 일이 있죠 ?"
"사매, 내 말 좀 들어 봐. 우리들 여자의 일생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진심을 지닌 낭군을 맞는 것이야. 옛사람이 말하기를, 귀한 보물을

찾기는 쉬워도 좋은 낭군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했어. 언니의 운명은 이미 이렇게 나쁘게 되었으니 말할 필요도 없지. 이 소년이 네게 그토록 잘해 주니 너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겠구나."

소용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는 영원히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순간 이막수의 가슴이 아려 왔다.

"그럼 지금 하산하여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 번화한 곳에서 너희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다니면 즐거운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거야."

소용녀는 고개를 들어 정신이 나간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미 늦었어요."

"왜 ?"

"단용석을 이미 내려놓았으니 사부님이 다시 살아오신다 해도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막수가 고개를 숙이고 입이 아프도록 떠든 것이 실은 고묘의 지형을 잘알고 있는 그녀에게 살고 싶은 생각이 나게 하여 한줄기 생로(生路)를 찾아보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치밀어 손목을 가볍게 뒤집어 그녀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양과는 옆에서 조용히 그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돌연 이막수가 살수를 펼치는 것을 보자 황망중에 몸을 굽혀 구양봉에게서 전수받은 합마공을 냅다 격출시켰다. 이막수는 일장을 갈기는 순간 엄청난 장풍이 옆에서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는 얼른 일장을 회수해 막아섰다.

양과는 고묘 안에서 2년간 수련을 하여 비록 합마공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공이 꽤 강해졌었다. 지금의 일장도 날과는 비교가 안 되었

다. 펑, 하는 순간 이막수는 뒤로 날아가 석벽에 강하게 부딛쳐 등뒤가 몹시 아팠다.
 이막수는 화가 치밀어 쌍장을 비벼 댔다. 석실 안에는 순간 악취가 그득하여 토할 것만 같았다.
 소용녀는 양과가 방금 격출한 일장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막수의 무서운 적련신장(赤練神掌)이 시전되면 자기와 양과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당해 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소용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양과의 팔을 잡아 끌고 번개같이 문을 빠져나갔다.
 이막수가 일장을 휘두르려고 손을 공중으로 드는 순간, 아프지는 않았지만 왼쪽 귓쌈이 뜨끔하였다. 소용녀는 목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들려왔다.
 "사자가 배우려고 하는 옥녀심경이 바로 이것이다 !"
 이막수가 멍하는 순간 오른쪽 뺨에 또 일장이 적중되었다. 이막수는 사부의 옥녀심경 무공이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 소용녀의 출수가 쾌속무비하고 격출되는 일장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분명 본문(本門)의 무공임에 틀림없었다. 또한 자신도 전혀 알 수 없는 오묘한 무공이 바로 옥녀심경이라는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났다. 그녀는 눈을 바로 뜨고 사매와 양과가 들어간 석실을 쳐다보다가 문을 닫아 버렸다. 그녀는 뺨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사매가 옛정을 생각해 힘을 다하지 않았구나. 만약 그녀가 힘을 다해 일장을 격출했다면 내가 살아 남을 수 있었을까 ?)
 그러나 소용녀의 이 무공은 아직 연성이 덜 되어 비록 장법은 오묘했지만 장력은 위력이 없었던 것이다.
 양과는 사부가 깨끗하게 이막수의 뺨을 두 차례 갈기는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뻤다.
 "아가씨, 이 심경의 무공은 이막수가 도저히 당해 내지 못......."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용녀가 무섭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 ? 이...... !"

소용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추......, 너무 추워......."

방금 소용녀가 격출한 양장은 비록 힘을 다하지는 않았지만 내공의 진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중상 후에 아직 공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가 갔던 것이다.

그녀는 일생을 차가운 침상에서 연공을 하였기에 한기를 버티는 일에는단련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자제력이 없어지자 마치 만인현빙(萬인玄氷)속으로 떨어진 것처럼 냉기가 뼛속으로 스며들어 이빨이 계속 떨렸다.

양과는 다급한 나머지 어쩔 줄 몰랐다.

"어떻게 하지 ?"

양과는 그녀를 품에 꼭 끌어안아 자신의 몸의 열기로 한기를 막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소용녀의 몸은 점점더 차가와져 점차 양과로서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소용녀는 내공이 한 점 한 점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양과, 나는 틀렸어. 나......, 나를 안아 석관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

양과는 너무나 상심하여 잠시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두 며칠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내고는 柳錫 안고 석관이 놓여진 석실로 갔다.

양과는 그녀를 석관 뚜껑 위에다 내려놓고 촛불을 켰다. 촛불 밑에서 보니 석관은 중후한 데 반해 반鷺소용녀는 부드럽고 약해 보였다.

"이 석...... 석관 뚜껑을 열고 안에다 나를 집어넣어라."

"음 !"

소용녀는 그의 말투에 조금도 감상씁 빛이 없자 조금은 이상스레 여겼다.

양과는 석관 뚜껑을 열고 그녀를 가볍게 집어넣고는 자신도 바로 관

속으로 뛰어들어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누웠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니 꼼짝할 틈도 없게 되었다.

소용녀는 기쁘기도 하며 이상하기도 하여 물었다.

"뭐하는 거냐 ?"

"나는 아가씨와 함께 있겠어요."

소용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도 매우 평온해졌으며 몸의 한기도 조금 전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눈을 돌려 양과를 쳐다보니 그도 자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양과의 옆에 나란히 눕게 되자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치솟아 올랐다.

소용녀는 그가 손을 뻗어 자기를 끌어안아 주길 바랐지만 양과는 두 팔을 쭉 뻗어 자기의 허벅지 위에 얌전히 올려 둘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몸에 자신의 신체가 닿을세라 걱정되는 듯한 그런 자세였다. 양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용녀는 스스로 부끄러워져 얼굴이 붉어졌다. 고개를 돌려 차마 다시 그를 쳐다보지 못한 채 마음만 한동안 싱숭생숭했다. 순간 관 뚜껑 안쪽에 무슨 글씨 같은 것을 발견하고서는 자세히 보니 글자가 16 자나 씌어 있었다.

<옥녀심경 기압전진 중양일생 불약어인(玉女心經 技壓全眞 重陽一生 不弱於人)>

이 16 자는 진한 먹으로 쓴 것으로 필체에 힘이 스며 있으며, 자체(自體)도 매우 컸다. 관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으므로 상당히 정확하게 보였다.

소용녀가 놀란 듯 소리쳤다.

"저게 무슨 뜻이지 ?"

양과는 그녀의 눈초리를 따라서 그 16 자의 글씨를 본 후 가볍게 신음을 발했다.

"왕중양이 쓴 모양이에요 !"

"응, 그가 쓴 것 같아. 그는 마치 우리 옥녀심경이 비록 전진파의

무공을 제압할 수 있지마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우리의 조사보다 약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렇지 ?"

"이 영감쟁이가 허풍을 떠는군 !"

소용녀가 이 16 자를 다시 살필때였다. 그 뒤에 여러 작은 글자가 더 있는 것을 그녀는 발견했다. 그러나 글 자체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관 뚜껑의 끝 쪽에 있어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판독이 어려웠다.

"양과, 일어나 봐 !"

양과는 고개를 저었다.

"나 안 나갈 거예요."

소용녀가 웃으며 말했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

양과는 그제서야 석관을 나갔다.

소용녀는 일어나 앉아 양과더러 촛대를 갖다 달라고 한 뒤, 몸을 돌려 누운 다음 글씨를 바라보았다. 글자들이 모두 거꾸로 되어 있어 그녀는 천천히 읽어내려 가야했다. 두 차례나 읽더니 소용녀는 돌연 손에 힘이 빠지는지 촛대를 놓쳐 가슴 앞에 떨구었다. 양과가 급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축해 석관 밖으로 끌어냈다.

"왜 그래요 ? 뭐라고 씌어 있는데요 ?"

소용녀는 얼굴색이 변했다. 잠시 후 안정을 하고 나서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조사 할머니가 죽은 후 왕중양은 다시 고묘로 돌아왔었어."

"그가 왜 왔지요 ?"

"그가 온 이유는 조사 할머니의 제사 때문이었어. 그리곤 석실 꼭대기에서 조사님이 남겨 놓으신 옥녀심경을 발견한 것이야. 옥녀심경은 전진파의 조잡한 무공만을 능가할 수 있을 뿐이지 전진파 무공의 최상승 무공과 비교한다면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어."

"조사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렇게나 떠들고

싶은 대로 말한 것 같군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상한 말이 있군. 다른 석실 안에 옥녀심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법을 남겨 놓았는데 후인 중 인연이 닿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야."
양과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가서 봐요."
"그 석실은 바로 이 석실 밑에 있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 한평생 살아왔지만 이러한 석실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이야 !"
"우리 어디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소용녀는 몹시 피곤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 미소를 지었다.
"좋아 !"
소용녀는 석실 안을 한참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마지막으로 방금 누웠던 석관 안을 유심히 보았다.
"원래 이 석관도 왕중양이 남겨 놓은 것이야. 아마 관 밑을 뜯어 열 수 있을 것 같애."
"아, 알았다 ! 바로 여기가 석실로 들어가는 문이다 !"
양과가 급히 관 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방을 살펴보니 과연 오목한 곳이 있었다. 손으로 꽉 잡고는 위로 잡아 올렸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왼쪽으로 돌리고 나서 위로 올려 봐."
소용녀가 시키는 대로 해 보니 덜컹, 하며 관 밑의 석판이 일어났다.
"됐다 !"
"잠깐, 서둘지 마라. 묵은 공기가 나온 후에 들어가야지."
양과는 잠시 앉아 있다가 말했다.
"이제 됐겠지요 ?"
"너같이 성질 급한 아이와 함께 지내는 일은 정말 어렵군, 어려워

!"

그들은 서서히 일어나 촛대를 들고는 석관 밑으로 들어갔다. 밑에는 돌계단이 있었는데 돌계단을 내려가 다시 구부러져 돌아가니 한 석실이 나타났다.

석실 안은 별로 특이한 점이 없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동시에 위를 쳐다보았다. 석실 천장에는 빽빽하게 글자와 부호가 가득 씌어 있었다. 맨 오른쪽에는 큰 글씨 4 자가 씌어 있었다.

<구음진경(九陰眞經)>

두 사람은 구음진경 안에 수록된 무학 최고의 경지를 알지 못했으므로 한참 동안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오묘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무공이 실로 엄청난 것이라 해도 우리들에게는 전연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

양과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막 숙일 때였다. 천장 서남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 무공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보니 마치 지도와 같았다.

"이게 뭐죠 ?"

소용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전신이 얼어부 은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지만 그녀는 마치 석상처럼 정신없이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다. 양과는 겁이 나 그녀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소용녀는 <아> 소리를 지르며 돌연 그의 품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양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몸이 또 아파 와요 ?"

"아니, 아니야."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다.

"우린 나갈 수 있어 !"

"정말 ?"

소용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그림은 무덤을 탈출하는 비밀 지도야."

그녀는 무덤 안의 지형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보자 그 지도의 숨은 뜻을 알아냈다. 양과는 기쁜 나머지 소리쳤다.

"잘 되었는데 왜 우는 거예요 ?"

소용녀는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전에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 한평생을 무덤 안에서 생활했으니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 그러나 이 며칠 동안에 나는 바깥 세상에 나가 보고 싶어졌어. 과아야, 나는 두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게 기분을 영 알 수 없겠는걸."

양과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아가씨와 함께 나가면 꽃을 따다가 아가씨에게 달아 주고 귀뚜라미를 잡아 놀게 하겠어요."

그는 비록 다 성장하였지만 어린 시절에 철없이 놀던 일들을 지금껏 생각하고 있었다. 소용녀는 사람과 같이 놀아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가 신이 나서 떠드는 것을 조용히 들고는 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몸이 노곤하고 힘이 없어 실제로는 고묘를 떠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가 지나자 그녀는 더 이상 지탱해 내지 못하고 서서히 양과의 어깨에 무너지듯 기대었다.

양과는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녀의 대답이 없자 고개를 돌려 보니 그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그도 기분이 좋아 그녀를 그윽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꿈나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돌연 허리가 뜨끔하더니 허리 뒤의 중추혈(中樞穴)이 누군가에게 찍혀 버렸다. 그가 깜짝 놀라 일어나 대항하려고 하였으나 목 뒤를 누군가에게 꽉 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몸을 돌려 보니 이막수가 제자와 함께 앞에서 웃고 있었는데 사부도 이미 혈도가

잡혀 있는게 아닌가 !

이들 두 사람은 강호에서의 실전 경험이 부족한데다, 너무 기쁜 나머지 석관 밑의 석판을 원래의 위치대로 해 놓은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이막수가 냉소를 흘리며 소리쳤다.

"좋구나. 아주 좋아 ! ......여기 두 사람이 숨어 들어와 지낼 아주 편안한 곳이 있을 줄이야. 사매, 이곳에서 탈출할 길을 신경써서 잘 생각해 봐라."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이막수는 그녀의 말투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소용녀가 단용석이 이미 내려져 있어 무덤에서 나갈 희망이 없다고 아까 말할 때에는 거짓말이 전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방금 그녀의 어투와 태도에서는어떤 희망이 보였다.

이막수는 이 말을 듣자 기쁨에 넘쳐 말했다.

"사매, 네가 만약 우리들을 데리고 나가기만 한다면 이후론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겠어. 약속할께 !"

"너희들 스스로 들어왔으니 스스로 나갈 방도를 생각해. 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야 한단 말이냐 ?"

이막수는 평소 소용녀의 고집이 대단해, 설령 사부가 살아 계셔서 그녀에게 양보하라고 해도 십중팔구는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니 어떻게 해서든 몰아붙여야망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목 밑에 있는 천돌혈(天 穴)을 찍어 눌렀다. 또다시 넓적다리와 복부 사이의 오추혈(五樞穴)을 찍었다.

천돌혈은 인체의 음유(陰維) 임맥(任脈)이 만나는 곳이며, 오추혈은 발의 소양대맥(少陽帶脈)이 만나는 곳이다.

이막수가 사용한 것은 고묘파(古墓派)에서 비밀리 전소되는 점혈수법으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신이 가려워져 견딜 수 없었다.

소용녀는 눈을 감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양과가 말했다.

"만약 아가씨가 출로를 알고 있었다면 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겠어 ?"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방금 한 말 중에 이미 진실이 들어 있으니 더 이상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녀는 자연스레 이 고묘에 비밀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너희들은 기운 되찾아 나가려 했던 거야. 사매, 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

소용녀가 가볍게 말했다.

"당신이 밖에 나가면 사람을 괴롭힐 방도만 생각할 텐데 나가서 뭐 좋은 일이 있을라고요 ?"

이막수는 무릎을 포개어 옆에 앉은 뒤 소리없이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양과가 견뎌 내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봐요. 이막수 ! 조사 할머니께서 이 점혈수법을 전해 주신 것은 적에게 사용하라는 것이었지, 자기 편을 괴롭히라는 것이었소. 당신이 자기의 사매를 괴롭힌다면 후에 죽어서 조사 할머니를 어떻게 대할 작정이오 ?"

"네가 나를 이막수라 부르는 것을 보니 우리들은 벌써 같은 편이 아니지 않느냐 !"

양과는 소용녀의 귓전에 대고 소곤거렸다.

"절대로 비밀 출구를 말하지 마세요. 이막수가 출구를 모르면 끝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겠지만 일단 알게 된다면 곧바로 우릴 죽일 거예요."

"아, 맞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 나는 단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만 했었어."

그녀는 땅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순간 천장의 지도가 눈에 들어왔다.

(저 지도가 사자에게 발견되면 낭패로구나. 눈길을 지도 쪽으로 돌리지 말아야지.)

그 당시 왕중양은 임조영이 활사인묘 안에서 죽은 것을 알아내고는 그녀가 평생토록 자기에게 품었던 정과 그러한 정분이 보통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그래서 그는 몰래 비밀 도로로 묘에 들어왔다. 그는 전부터 잘 알고 있던 그녀의 몸종을 피해서 소리를 죽여 한바탕 통곡을 하고 난 후 비로소 자신이 옛날에 건축해 놓은 석묘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임조영이 그려 놓은 자신의 서 있는 화상도 보았으며 두 석실 사이의 천장에 그녀가 남겨 놓은 유각(遺刻)도 보았다. 그러나 옥녀심경 속에 서술한 무고이 상당히 오묘하고 매 일초마다 모두 전진 무공을 제압하는 상극임을 알아내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바로 물러나왔다.

그는 홀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한 간 초가를 지어 놓고는 3 년 동안 옥녀심경의 파해법을 연구했다. 그동안 몇 군데는 이해하게 되었지마는 끝내 하나의 종합적인 무공으로 완성하지는 못했다. 낙심한 나머지 왕중양은 임조영의 총명과 재능에 대하여 탄복을 하여 다시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

10 여 년 후 화산논검 때 무학기서인 구음진경을 탈취하게 되었다. 그는 굳이 구음진경의 무공을 연마할 생각은 없었으나 호기심이 생겨 한 차례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무공은 당시 천하 제일이었다. 그는 구음진경에 수록된 오묘한 뜻을 10 여 일 간의사색 끝에 끝내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활사인묘로 돌아와 가장 은밀한 석관 밑의 지하 석실 천장에 구음진경의 요지를 새겨 놓았으며 옥녀심경의 파해법도 일일이 지적해 놓았다.

그는 고묘의 상황을 살펴볼 때 몇 구의 빈 석관을 앞으로 임조영의 제자가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들은 임종 때에 이르러 관에 들어와 죽기를 기다릴 때에 비로소 전진파 조사가 일생 동안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터였다.

왕중양은 구음진경이 세상에 랄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조영의 제자가 비록 구음진경을 발견했다. 하여도 그때는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을 때라 이러한 비밀이 지하에 완전히 묻혀 있을 수가 있었다.

왕중양과 임조영은 모두 무학의 기재들로써 원래 한쌍의 천생배필의 배우자감들이었다. 두 사람간에는 남자나 여자의 제 삼자가 끼여든 삼각 관계도 없었으며, 친구나 사제(師弟)간의 분규 따위도 없었다.

왕중양은 전에 의병을 일으켜 금나라에 대항하는 거사에 진력하는 통에 사사로이 여자와 정분을 나눌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패하여 석묘에 홀로 살고 있었는데 임조영이 찾아와 위로를 하니 그 부드러운 정과 깊은 정성은 가히 사람을 감동시킬 만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성사가 되지 않아 만추에 한을 남기게 되어 한 명은 출가하여 도사가 되었으며, 한 명은 석묘 안에서 쓸쓸히 살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을 구처기 등 제자들은 물론 몰랐으며, 왕중양 임조영 두 사람조차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서 오직 <무연(無緣)> 두 글자에 그 원인을 돌려야 할 성싶다.

두 사람의 무공은 비록 높지만 자부심이 대단해 무학을 담론할 때마다 경쟁심이 생겨나 시종 서로 지려 들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 경쟁심이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임조영이 전진 무공을 제압하는 옥녀심경을 창안해 냈으나 왕중양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음진경을 무덤 속에 새겨 놓은 것이다. 옥녀심경은 단지 임조영 스스로가 창조한 것에 비해 왕중양은 전인의 유서에 의거한 것이므로 비교를 한다면 다소 손색이 있는 것이긴 했다.

이후로는 스스로 겸허해져 늘 제자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자제하는 도리와 허심탄회한 겸양지도를 가르쳤다.

천장의 비밀 지도는 석묘를 축조할 당시에 이미 새겨 놓은 것으로서

석묘가 금나라 병졸들에게 장기간 포위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비밀 도로는 임조영조차도 몰랐던 것이다.

임조영은 단지 단용석을 내려놓으면 적과 동귀어진하는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왕중양이 석묘를 축조할 당시 의거를 일으켜 중원을 회복하려는 웅지를 품었는데 어찌 한 번의 패배로 물러나 안 아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

후에 왕중양은 석묘를 나올 때 임조영이 시원시원하 남자의 기개를 잃어버리고 비겁하게 퇴로를 준비해 놓았다고 비방할까 봐 그녀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소용녀는 지도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눈빛을 다른 모서리로 돌렸다. 순간 해혈비결(解穴秘訣)이라고 씌어진 조그만 글자가 전광판처럼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세히 몇 차례 훑어본 후 기쁨에 넘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비결 속에는 혈도를 푸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다. 만약 내공을 수련하다가 주화(走火)를 당하여 혈도가 막혀 버렸을 경우 즉각 그 방법으로 혈도를 풀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본래 구음진경을 수련하는 사람은 이미 일류의 경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남에게 혈도를 찍히는 일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 비결은 원래 자기 자신의 내심에서 생겨나는 마두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소용녀의 처지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는 구결인 것이다.

그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았다.

(내가 혈도를 풀어도 사제를 이길 수 없으니 결국 소용없는 짓이 아닌가 !)

천장의 경문을 살펴보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무공을 찾아내어 일초에 이막수를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살펴보니 매 항마다 모두 복잡하고 난해하여 가장 쉬운 무공이라 해도 수십 일이 걸려야 연성될 성 싶었다. 또한 이막수가 자기의 눈길을 따라 천장의 비밀지도와 구음진경을 발견해 낼까 걱정이 되어 더 이상 쳐다볼 수도 없었다.

양과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대며 이막수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기에 민감하고 세심한 이막수도 소용녀의 눈빛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다. 갑자기 소용녀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라 구음진경 중의 해혈비결과 폐기비결(閉氣秘訣) 두 항목을 외서 양과의 귓전에다 대고 조용히 알려주었다.

양과는 바로 이해했다.

소용녀가 살며시 말했다.

"먼저 혈도를 풀어."

양과는 이막수가 알아챌까 봐 계속해서 허튼 소리를 지껄여 댔다.

"아이고, 이사백. 정말 너무하십니다. 조사할머니를 뵈올 낯이 없으며, 조사할머니의 할머니...... 는 더 뵈올 낯이......."

두 사람은 왕중양이 남긴 유편에 씌어진 해혈비결에 의거해 은밀히 운기조식을 하였다. 두 사람의 내공은 기초가 되어 있었으므로 잠시 후 그들의 혈도는 완전히 풀어졌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조금도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막수는 즉각 이상한 눈치를 채고 말았다.

"너희들 뭐하는 거지 ?"

그 순간 소용녀가 몸을 일으키며 일장을 격출시켜 그녀의 어깻죽지를 때렸다. 바로 옥녀심경 중의 상승무공이었다. 이막수는 그녀가 스스로 혈도를 풀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다가 대경실색하며 뒤로 물러섰다.

"사자, 나가고 싶지 않아요 ?"

이막수가 듣고는 기뻐했다. 그녀는 스스로 무공이 고강하며 지모 또한 필적 할 상대가 드물다고 자부해 왔다. 그러나 지금 세상 구경도 못 해 본 조그만 사매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이막수는 잠시 화를 억누르고 먼저 무덤에서 탈출한 후에 그녀를 다스려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소용녀가 몇 차례 공격을 했지만 몸에 힘이 없는 것이, 그녀가 사정을 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내공이 부족하여 별로 다수롭지

않다는 것을 이막수는 이미 알아챘다.

"마음 착한 사매야. 네게 사죄를 할께. 우리 같이 나가자."

양과는 지금이 바로 그녀와 그녀의 제자를 갈라놓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아가씨가 말하길, 당신들 중 오직 한 사람만 데리고 갈 수 있다는데 당신이 갈 것이오, 아니면 당신 제자를 데리고 갈까 ?"

"이런 나쁜 녀석 ! 주둥아리를 다물게 했어야 하는 건데......."

소용녀는아직 양과의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래요. 나는 한 명밖에 데리고 갈 수 없어요."

"홍사제와 같이 나가는 게 좋겠지. 당신은 나이도 많고 오래 살았잖아. 홍사제는 또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사실 이막수는 나이는 비록 많았지만 미모는 제자보다 나았는데, 양과의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양과가 말했다.

"좋아. 갑시다 ! 용아가씨가 맨 앞에 서고 내가 두번째, 맨 뒤에 오는 사람은 나갈 수 없지."